

2026 중국 권력지형도

1인 체제의 완성, 그리고 비어 있는 다음 자리

김경진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출판사

목차

프롤로그 등을 돌린 사람

제1부 일곱 사람으로 보는 권력의 문법

1장 관례가 무너진 날

2장 권력의 조각들: 상무위원 여섯의 생존법

1. 리창: 부총리를 건너편 총리
2. 차이치: 헬리콥터를 타고 오른 칼
3. 왕후닝: 세 황제를 섬긴 국사
4. 덩쉐샹: 시진핑의 그림자
5. 자오러지와 리시: 사정의 칼을 찌른 두 사람
6. 보론. 한정: 무대 밖으로 밀려난 상하이방의 마지막 잔영

3장 들어온 일곱보다 밀려난 이들

제2부 군부 대숙청: 무너진 중앙군사위

4장 '철모자왕'의 마지막

5장 연쇄의 그물

6장 비어 있는 지휘부의 역설

1. 충성으로 산 것, 충성으로 잃은 것
2. 서늘한 숫자들
3. 강해지려다 약해진 군
4. 빈 의자가 향하는 곳

제3부 2025년 가을, 닫혀버린 문

7장 마지막 기회를 단다

1. 하나의 회의, 두 개의 얼굴
2. 비어 있는 이름
3. 왜 하필 2025년이었나
4.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
5. 닫힌 문 앞에 세워 둔 신기루

8장 사라진 60년대생, 떠오르는 70년대생

1. 덩샤오핑이 만든 두 개의 자물쇠
2. 예순아홉의 결정
3. 무대 아래에서 올라오는 얼굴들
4. 2025년 가을, 빈자리를 채운 사람들

- 5. 무엇을 위한 인재였나
- 6. 충성과 유능함, 두 줄 위에서
- 7. 비어 있는 허리
- 8. 빈칸을 빈칸으로 보기

9장 Post-X이라는 빈칸

- 1. 빈칸이 생긴 날
- 2. 멸절된 다음 세대
- 3. 달한 문, 2025년 가을
- 4. 비교의 거울 하나, 장쩌민의 2년
- 5. 비교의 거울 둘, 시진핑의 빈 의자
- 6. 백지 위의 열 개 이름
- 7. 백지가 채워지는 나쁜 방식
- 8. 매듭, 그리고 다음 칸

제4부 15차 5개년 계획과 경제·안보의 딜레마

10장 안보가 경제를 앞지르다

11장 구조적 위기라는 뇌관

- 1. 690만 채의 빈집과 드러누운 청년들
- 2. 혁신하라는 명령과 입을 막는 손

에필로그 블랙박스가 열리기 전야

판권

프롤로그 등을 돌린 사람

사진 한 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봄, 베이징 인민대회당.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함께 열리는 양회(兩會)의 한 장면입니다. 해마다 봄이면 3천 명 가까운 대표가 이 붉은 카펫 위로 모입니다. 천장에는 다섯 모서리 별이 박혀 있고, 단상 뒤로는 낫과 망치가 그려진 당기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의례는 정교하게 짜여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서고, 누구와 먼저 손을 잡는지까지 미리 정해집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흐트러진 동작 하나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 카메라가 잡은 것은 단상 위에서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손을 내밉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몸을 돌려 그 손을 맞잡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張又俠). 그는 시진핑을 향해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찰나였을 겁니다. 단상의 동선이 어긋났을 수도, 옆 사람과 말을 나누던 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사람의 속을 읽는 일은 위험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등에서 무언가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흘려보냈고, 중국 매체는 아예 다른 각도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장유샤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무심함이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9년 넘게 중국 군부의 실세였습니다. 1950년에 태어나 군인의 길을 걸었고, 1979년 중월전쟁에 참전한 실전 경험을 가진 최고위 장성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장종신(張宗遜)은 혁명 1세대 장군이었습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習仲勳)과 함께 전장을 누빈 사이였다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같은 태자당(太子黨), 그러니까 혁명 원로의 자제 출신이었습니다. 핏줄로 얽힌 인연이 군대 안에서 정치적 동맹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장유샤는 군부 안에서 시진핑의 권력을 떠받친 핵심 맹우였습니다. 그가 시진핑에게 등을 돌렸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열 달 뒤, 그 사람이 사라집니다.

2026년 1월 24일, 중국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장유샤 부주석과 류전리(劉振立)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심각한 기율 위반과 불법 행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군부 부패를 도려내는 일상적인 사정(司正)으로 보기에겐 격이 달랐습니다. 부주석은 군 서열에서 시진핑 바로 아래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발표는, 군대 안에서 시진핑 다음으로 힘이 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해방군보(解放軍報)는 두 사람이 "중앙군위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유린하고 파괴했다"고 적었습니다. 군대의 모든 권한이 군사위 주석, 곧 시진핑 한 사람에게 모인다는 원칙이 주석 책임제입니다. 그 원칙을 유린했다는 말은 곧 시진핑 개인에게 맞섰다는 비난입니다. 죄목의 핵심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맞선 항명, 그리고 패거리를 지었다는 것(團團夥夥)이었습니다. 중국 정치에서 이 네 글자는 무거운 단어입니다. 사사로이 무리를 지어 당의 단결을 해쳤다는, 정치적 사형선고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1년 전 그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등을 돌린 사람.

이 책은 그 한 장의 사진에서 출발합니다. 정점에 오른 권력과 그 정점에서 갈라지기 시작한 균열을, 한 장면이 동시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지형도를 그리는 일은 보통 올라간 사람의 이름을 적는 일로 여겨집니다. 누가 상무위원이 되었고, 누가 부총리에 올랐는가. 그러나 이 책은 그만큼, 때로는 그보다 더, 밀려난 사람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리커창이 어떻게 무대에서 내려갔는지, 후춘화가 어떤 표정으로 자기 이름이 빠지는 것을 들었는지, 장유샤가 왜 끝내 등을 돌리게 되었는지. 들어온 사람의 면면만으로는 권력의 성격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를 밀어냈는지를 보아야 비로소 그 권력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보입니다. 권력의 지형은 봉우리가 아니라 골짜기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장유샤가 무너진 자리를 보면 그 균열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래 중앙군사위원회는 일곱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주석 한 명, 부주석 두 명, 위원 네 명. 인민해방군 200만 병력을 움직이는 머리입니다. 2026년 1월의 그날 이후, 그 일곱 중 다섯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사람은 둘. 시진핑 본인, 그리고 군의 기율을 검사하는 장성민(張升民)뿐입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최고기구가 사실상 텅 빈 셈입니다. 전쟁이 나도 명령을 내릴 지휘부가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손으로 군부를 떠받치라고 앓았던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다시 잘라낸 결과였습니다.

피바람은 그 전부터 불고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두 사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로켓군 사령관 출신의 웨이펑허(魏鳳和) 전 국방부장, 그리고 리상푸(李尚福) 국방부장. 로켓군은 중국의 핵미사일을 진 부대입니다. 그 부대의 머리였던 사람이 무기 조달 비리 혐의로 끌려갔습니다. 리상푸는 국방부장이 된 지 일곱 달 만에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한동안 베이징은 그가 어디 있는지조차 입을 닫았습니다. 외교 무대에 나와야 할 국방부장이 사라진 채, 외국 정상들은 빈 의자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낙마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군의 사상을 책임지던 정치공작부 주임 마오화(苗華)가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군대 안에서 누가 충성스러운지를 가려내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충성을 의심받았습니다. 2025년에는 또 다른 중앙군사위 부주석 허웨이둥(何衛東)이 낙마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시진핑이 직접 골라 군 요직에 앉힌 심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키운 칼이 자기를 겨눌까 두려워, 그 칼을 먼저 부러뜨리는 손. 그리고 그 손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에 장유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경쟁 파벌을 모조리 제거하고 오직 자기 사람으로만 채운 지도자가, 왜 이제 와서 그 자기 사람마저 잘라내야 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22년 가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로.

20차 당대회는 중국 정치의 한 시대가 닫힌 자리였습니다.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40년 가까이 지켜져 온 규칙들이 그날 무너졌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또렷하게 깨진 것은 '7상8하(七上八下)'라는 불문율이었습니다. 당대회를 여는 시점에 예순일곱이면 자리를 지키고, 예순여덟이면 물러난다는 약속입니다. 그해 시진핑은 예순아홉이었습니다. 그는 이 선을 넘어 총서기직과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세 번째로 이어받았습니다. 일흔둘의 장유샤도, 예순아홉의 왕이(王毅)도 함께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규칙은 한쪽에만 무너졌습니다. 시진핑의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던 리커창(李克強) 총리와 왕양(汪洋) 정협 주석은 예순일곱이었습니다. 7상8하의 기준대로라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政治局常務委員會)에서 밀려났습니다. 사실상의 강제 은퇴였습니다. 상무위원회는 중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일고여덟 명의 핵심 회의체입니다. 그 문 앞에서 두

사람은 물러나야 했습니다. 리커창은 그 이듬해 여름, 상하이에서 휴양 중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예순여덟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지 반년 남짓 만의 일이었습니다.

한때 차기 지도자감으로 거론되던 후춘화(胡春華) 부총리는 더 깊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쉰아홉이었습니다.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지방 성(省)의 수장을 지내며 일찍부터 '미래 지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정치국 위원 명단에서조차 빠졌습니다. 200명 남짓한 평범한 중앙위원의 한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당대회장에서 그 결과가 호명되던 순간, 회의장 어딘가에 앉아 있었을 그의 표정을 떠올려 봅니다. 들어온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는 곧 밀려난 사람의 이름을 지우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들어온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날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리창(李強), 자오러지(趙樂際), 왕후닝(王滬寧), 차이치(蔡奇), 덩쉐상(丁薛祥), 리시(李希). 상무위원회를 채운 여섯은 모두 시진핑에 대한 충성이 검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새 총리가 된 리창은 시진핑이 저장성과 상하이에서 일할 때 곁을 지킨 비서 출신입니다. 차이치는 베이징을 함께 다스린 인연으로 올라섰습니다. 덩쉐상은 시진핑의 일정과 문서를 챙기던 그림자 같은 참모였습니다. 능력보다 거리가 먼저였습니다. 시진핑과 얼마나 오래,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가. 그것이 자리의 높이를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시자진(習家軍), 시진핑의 군대라 불렀습니다.

덩샤오핑이 설계한 집단지도체제는 그날로 빈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여럿이 권력을 나눠 서로를 견제하던 구조가 사라지고,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수직으로 모이는 집중통일영도(集中統一領導)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절대 권력이 완성된 것입니다.

바로 그 완성의 순간에, 한 가지 모순이 체제 안에 심겼습니다.

견제가 사라지면 권력은 안정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승진과 은퇴를 가르던 객관적인 기준이 무너지자, 고위 간부의 운명은 오직 한 사람의 신임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경력도, 성과도 더는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남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될 수 있고, 그 판단의 근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독재자의 딜레마(Dictator's dilemma)'라 부릅니다. 모두를 의심해야 하는 사람의 자리. 권력을 키울수록 잃을 것이

많아지고, 잃을 것이 많아질수록 곁을 더 의심하게 되는 악순환입니다. 작은 이견조차 도전으로 읽히고, 그래서 끝없이 사람을 쳐내야 하는 구조. 2026년 군부의 진공 상태는 이 딜레마가 거칠게 터져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모순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드러내는 것은 빈자리, 곧 후계의 부재입니다.

20차 당대회에서 뽑힌 정치국 위원은 모두 스물네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1960년대에 태어난,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키울 만한 신입급 살 이하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후계자를 키운다는 것은 곧 자기 자리를 비워줄 사람을 미리 정해둔다는 뜻입니다. 그 한 명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덩샤오핑이 만든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는 장쩌민(江澤民)의 뒤를 후진타오(胡錦濤)에게 맡기도록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장쩌민은 그다음 자리에 시진핑을 앉혀두었습니다. 한 지도자가 자기 후임뿐 아니라 그다음 후임까지 미리 점지하는 방식입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어 후계자를 지정한다 하여 격대지정(隔代指定)이라 불렀습니다. 권력을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쥐지 못하도록, 다음과 그다음을 미리 못 박아 두는 안전장치였습니다. 마오쩌둥(毛澤東) 시절의 혼란을 겪은 덩샤오핑이 고심 끝에 세운 빗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빗장이 20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풀렸습니다. 후춘화가 밀려난 자리에는 아무도 들어서지 않았습니

다.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인사 한 칸이 비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언제, 어떻게 다음 사람에게 넘어갈지에 대한 합의된 시계가 멈췄다는 뜻입니다. 그 시계가 멈춘 채로, 중국은 한 날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7년 가을, 제21차 당대회입니다.

그때 시진핑은 일흔넷이 됩니다. 총서기직 네 번째 연임을 시도하리라는 관측이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 있습니다. 21차 당대회에서는 1960년 이후 태어난 세대가 지도부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현 중앙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바뀌는 역사상 손꼽히는 규모의 권력 재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물갈이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권력을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체제가 어떻게 새로워질지를 그린 설계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시진핑이 돌연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서열 2위 리창 총리나 측근 차이치, 덩쉐상 같은 이들이 수습에 나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저마다의 파벌도, 독자적 기반도 없는 충성파입니다. 수습의 주체가 되기보다 다툼의 불씨가 되기 쉽습니다.

종착점은 정해졌는데 그 너머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후계가 흐릿한 체제에서 엘리트들은 모험을 피하고 책임을 미룹니다. 위험을 무릅쓰기보다 살아남기를 택합니다. 한 사람만 바라보는 충성, 속이 빈 충성이 자라납니다. 회의에서 누구도 먼저 다른 의견을 꺼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결정인 줄 알면서도 침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렇게 나라의 머리에서 솔직한 말이 사라집니다.

장유샤를 이 자리에 놓고 보면 그의 등이 다시 보입니다. 그는 덩샤오핑 시대에 군문에 들어와, 마지막 실전 세대로 야전을 누비고, 시진핑의 시대에 군부의 정점에 오른 사람입니다. 혁명 1세대의 피를 물려받아 시진핑과 형제처럼 묶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조차 끝내 잘려 나갔다는 사실은, 이제 핏줄도 세월도 권력 앞에서 보증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 시대의 규칙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그의 운명 하나가 압축해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026년에 이 책을 쓰는가.

2026년은 중국의 다음 5년을 설계하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경제의 방향을 다시 잡는 전환의 첫해입니다. 그러나 그해 세계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경제 청사진이 아니라, 1월에 벌어진 군부 최고위 장성들의 연쇄 낙마였습니다. 2022년에 완성된 권력의 모순과 비워둔 후계의 자리가, 4년 뒤 군부 대숙청이라는 더없이 거친 형태로 터져 나온 해. 그것이 2026년입니다.

장유샤를 몰아낸 직후, 시진핑은 전군의 고위 장교들을 베이징 서쪽 교외에 불러 모았다고 전해집니다. 무려 열 주에 걸친 폐쇄 학습이었습니다. 장유샤와 선을 긋고 절대 충성을 다짐하라는 사상 점검이었습니다. 별을 단 장군들이 강의실에 줄지어 앉아 다짐의 글을 쓰고, 한 사람씩 일어나 충성을 소리 내어 맹세하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그 기간 동안 부대 이동이 멈추고 지휘 계통이 정지했다는 첩보가 잇따랐습니다. 군대를 묶어두는 일은 위험합니다. 그 빈틈에 누가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군을 멈춰 세웠다면, 안을 다잡는 일이 밖을 지키는 일보다 급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대목은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정보기관과 외부 분석가들의 평가이니, 그대로 사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폐쇄된 체제에서 나온 첩보에는 늘 과장과 추측이 섞입니다. 다만 서로 다른 곳에서 나온 평가들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은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 그림은 이렇습니다. 표면으로는 1인 지배가 더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공포와 불신이 체제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패 척결로 읽을 수도, 권력 투쟁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두 시각은 같은 사건의 다른 얼굴입니다. 시진핑 쪽에서 보면 군대를 좀먹던 비리를 도려낸 정화일 테고, 다른 쪽에서 보면 절대 권력자가 결의 사람마저 믿지 못해 스스로를 베어낸 자해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 이 책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판단의 재료를 가능한 한 정직하게 펼쳐 놓는 것이 제 몫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경쟁자를 모두 치우고 내 사람으로만 채웠는데도 끝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이제는 그 내 사람마저 잘라내야 하는 자리. 권력이 스스로를 파먹는 이 역설이 2026년 중국 정치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2027년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입니다. 체제의 균열이 더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금, 우리는 그 속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다시 그 사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손을 내미는 사람과 등을 돌린 사람. 그날 단상 위에서는 둘 다 같은 편에 선 동지로 보였습니다. 열 달 뒤, 한 사람은 권좌의 정점에 그대로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흔적도 없이 지워졌습니다. 그 두 몸짓 사이의 거리가, 앞으로 이 책이 걸어갈 길입니다.



제 1 부

일곱 사람으로 보는 권력의 문법

제1장 관례가 무너진 날

2022년 10월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全國代表大會)의 폐막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린 대회의장에는 2천 명이 넘는 대표들이 줄을 맞춰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 뒤로는 거대한 망치와 낫 문양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 긴 탁자에 당의 최고 어른들이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미리 짜인 듯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박수는 신호에 맞춰 시작되고 신호에 맞춰 끝났습니다. 중국공산당의 당대회는 토론의 자리가 아니라 결과를 발표하는 의식입니다. 닷새 동안의 회의는 그날 마지막 표결로 마무리될 참이었습니다.

그날 표결에 부쳐질 안건 가운데 하나가 당장(黨章), 곧 당의 헌법을 고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닷새 동안 논의한 활동 보고서를 추인하는 일이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2천여 명의 대표가 손을 들어 결정하는 절차였지만, 실제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진핑의 이름과 그의 사상이 당의 맨 높은 곳에 새겨진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표결은, 한 사람의 권력이 종이 위에 영구히 박히는 의식이었던 셈입니다.

단상 한가운데에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앉아 있었고, 그 왼쪽 자리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후진타오(胡錦濤). 시진핑에게 이 나라를 물려준 전임 국가주석입니다. 그해 79세였습니다. 10년 전, 바로 이 단상에서 후진타오는 두 손으로 권력을 시진핑에게 넘겼습니다. 군권까지 한 번에 넘긴 그 매끄러운 승계는 당시 중국이 자랑하던 장면이었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절차로 최고 권력이 바뀌는 나라. 그 약속의 산증인이 그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옆자리의 서류를 자꾸 들춰 보려 했고, 옆에 앉은 사람이 그 손을 가만히 막았습니다.

폐막 표결을 앞둔 어느 순간,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후진타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팔 아래에 손을 넣었고, 후진타오는 일어서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는 시진핑 앞에 놓인 붉은 서류철에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시진핑이 손바닥으로 그 서류철을 눌렀습니다. 짧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후진타오는 결국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으켜졌고, 단상을 가로질러 퇴장 통로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직전 그는 시진핑의 어깨를 한 번 두드렸습니다. 옆자리의 리커창(李克強)에게도 무언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카메라들이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그 장면에서 더 서늘했던 것은 후진타오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단상의 다른 위원들은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누구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전임

국가주석이 자기 옆에서 끌려 나가는데도, 그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리커창은 잠깐 고개를 들었다 다시 내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나라를 함께 이끌던 사람이 무대에서 사라지는 순간, 같은 탁자의 동료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굳은 얼굴들이야말로, 이미 바뀌어 버린 권력의 온도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은 그날 저녁부터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외신들은 같은 화면을 거듭 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짧은 몇 초를 두고 온갖 해석을 쏟아냈습니다. 권력 교체의 상징이라는 분석부터, 노인의 건강 문제일 뿐이라는 신중론까지.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영상은 새로운 중국이 어떤 모습일지를 한 컷으로 압축하고 있었습니다.

관영 통신은 몇 시간 뒤 영문 계정을 통해 후진타오가 몸이 좋지 않아 휴식을 위해 자리를 뒀다고 전했습니다. 그 설명은 중국 안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고, 바깥을 향해서만 나갔습니다. 외부의 적지 않은 분석가들은 그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회의장 안에서 외신 기자들의 카메라가 막 들어온 직후에 그 일이 벌어졌다는 점을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였는지, 의도된 연출이었는지, 진실은 지금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그 장면의 속내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로 확인된 것과 추측으로 남은 것을 섞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려는 원칙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상에서 후진타오가 끌려 나가는 동안, 그가 30년 가까이 떠받쳐 온 한 가지 약속도 함께 끌려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겠다는 약속. 때가 되면 물러나겠다는 약속. 미리 다음 사람을 키워 두겠다는 약속. 그날 그 자리에서 무너진 것은 한 노인의 체면이 아니라, 그 세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이름들이 이 장의 주인공입니다.

왜 그 약속이 생겨났는지 알려면,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중국공산당은 한 번 크게 데인 적이 있습니다.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일입니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의 손에 모였던 그 구조를, 중국은 '1인 지배 통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마오쩌둥이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밀어붙인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을 보겠습니다. 그는 농촌 곳곳에 작은 용광로를 세워 쇠를 녹이게 했습니다. 농민들은 밥술까지 깨뜨려 그 용광로에 넣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은 쓸모없는 쇳덩이였고, 농사지을 손은 들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곡식은 들에서 썩었습니다. 그렇게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마오쩌둥에게 그만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정책이 틀렸다고 보고하면 그 사람이 위험해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책이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간 것입니다.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은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권력을 되찾으려 마오쩌둥이 젊은이들을 거리로 불러낸 이 운동은, 다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학생이 스승을 끌어내 비판했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나라의 경제와 교육이 멈춰 섰습니다. 한 사람이 틀리면 나라 전체가 따라 무너진다는 것을, 중국은 수천만 구의 시신으로 배웠습니다. 이것은 먼 옛날의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1976년 마오쩌둥이 숨질 때까지 살아 있던 사람들에게는, 살갓에 새겨진 기억이었습니다.

이 참혹한 경험을 직접 겪은 사람이 덩샤오핑(鄧小平)입니다. 그 자신도 문화대혁명 때 두 번이나 권력에서 쫓겨났고, 아들이 홍위병에게 떠밀려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광기가 어떻게 나라를 집어삼키는지, 그는 가족의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맡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집단지도체제(集團指導體制)'입니다. 일고여덟 명, 많게는 아홉 명으로 이뤄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中央政治局常務委員會)가 중요한 일을 함께 의논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정치국 상무위원회란, 14억 인구의 나라를 실제로 움직이는 최고 의사결정 모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급 인물 일고여덟 명이 한 탁자에 둘러앉아 합의로 나라를 끌어나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한 사람이 틀려도, 나머지 여섯이나 여덟이 그 잘못을 붙잡아 줄 수 있다는 설계였습니다. 권력을 쪼개 놓으면 어느 누구도 마오쩌둥처럼 절대자가 될 수 없으리라는 계산이었지요.

이 설계는 한동안 잘 작동했습니다. 약 30년에 걸친 중국의 고속 성장은 이 체제 위에서 이뤄졌습니다. 정책이 한 사람의 변덕으로 뒤집히지 않았고, 다음 지도자가 누구일지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멀리 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업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는 동안, 그 키를 잡은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합의의 탁자였습니다.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보이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덩샤오핑은 여기에 두 개의 빗장을 더 걸어두었습니다. 하나는 임기였습니다. 주요 직책은 보통 5년씩 두 번, 최장 10년까지만 맡도록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이였습니다. 1980년에 그는 일흔이 넘는 원로들을 당의 핵심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른바 '70세 규정'입니다. 이 나이의 빗장은 세월이 흐르며 더 구체적인 숫자로 굳어졌습니다. 2002년 제16차 당대회 무렵, 당대회가 열리는 해를 기준으로 67세까지는 자리를 지키거나 올라갈 수 있고, 68세가 되면 예외 없이 물러난다는 규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을 '7상8하(七上八下)'라고 부릅니다. 일곱 살은 올라가고 여덟 살은 내려간다는 뜻을 숫자로 줄인 말입니다.

7상8하는 법조문에 적힌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도 명문화되지 않은 약속, 곧 불문율(不文律)이었습니다. 적어두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따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글로 박힌 법보다 더 강하게 작동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7상8하가 그랬습니다. 왜 적어두지 않았을까요. 적어두면 고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조문 한 줄을 바꿔 예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두지 않은 약속은, 그것을 깨는 순간 모두가 알아차립니다. 깨뜨린 사람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불문율은 때로 성문법보다 더 단단합니다. 그 단단한 약속을 누군가 깨려면, 그만큼 권력과 그만큼 각오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약속은 무서울 만큼 지켜졌습니다. 2007년 제17차 당대회에서 67세였던 자칭린(賈慶林)은 남았고, 68세였던 쟡칭홍(曾慶紅)은 물러났습니다. 나이 한 살 차이가 권력의 정상에 남느냐 떠나느냐를 갈랐습니다. 누구도 예외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외를 만드는 순간 그 관습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동안 이 약속은 중국 정치에 한 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예측 가능성입니다. 누가 언제 물러나고 누가 그 자리를 이어받을지, 바깥에서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기업도, 외국 정부도, 시장도 그 일정표를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10년 뒤 중국을 누가 이끌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은, 14억 인구의 거대한 나라치고는 드문 안정이었습니다. 종신 집권은 없다. 이 한 가지만은 중국도 지킨다. 세계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깨지던 날을, 이 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장치가 더 있었습니다. 후계자를 미리 키우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이것을 '격대지정(隔代指定)'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어, 다음다음 지도자를 미리 점찍어 두는 관례입니다. 덩샤오핑은 장쩌민(江澤民)의 후계자로 후진타오를

지목했습니다. 장쩌민은 다시 시진핑과 리커창을 그다음 후계자로 점찍었습니다. 후계자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정해져 오랜 검증을 거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 승계는 도박이 아니라 일정표였습니다.

이 일정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 장면으로 보겠습니다. 2012년 11월, 바로 그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는 시진핑에게 권력을 넘겼습니다. 총서기 자리를 넘기고, 이어 국가주석 자리를 넘기고, 곧이어 군의 최고 지휘권인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까지 한 번에 넘겼습니다. 앞선 장쩌민은 후진타오에게 군권을 넘길 때 2년을 미적거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권력이 두 사람에게 어정쩡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후진타오는 그 전철을 밟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을 단번에, 깨끗이 넘겼습니다. 무력도 없었고 음모도 없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사람에게, 정해진 시간에 권력이 옮겨 갔습니다. 그 매끄러움이야말로 덩샤오핑이 설계한 시스템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넘긴 후진타오가, 10년 뒤 같은 단상에서 부축을 받아 끌려 나가게 됩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 정반대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을 버틴 이 틀에는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나눠 가진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누구도 전부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상무위원들은 저마다 자기 영역을 하나씩 맡았습니다. 한 사람은 경제, 한 사람은 선전, 한 사람은 사법. 그 영역 안에서 그들은 거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자였습니다. 자기 왕국 안에서는 사실상 왕이었던 셈입니다.

후진타오 시기, 상무위원이면서 공안과 사법을 총괄하는 중앙정법위(中央政法委) 서기를 맡았던 저우융강(周永康)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석유 이권과 공안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 그리고 거대한 국영 석유 회사가 모두 그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부패의 규모는 1,0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에 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가족과 측근들이 이권을 나눠 가졌고, 그 그물은 전국으로 뻗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역 안에서 그만한 부패가 굴을 동안, 합의로 굴러가던 지도부는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막으려면 그의 영역을 침범해야 했고, 그것은 곧 자기 영역도 침범당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 시기를 더 시끄럽게 만든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충칭시를 이끌던 보시라이(薄熙來)의 몰락입니다. 그는 마오쩌둥 시대의 붉은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고,

화려한 정치 쇼로 인기를 끌던 야심가였습니다. 차기 상무위원을 노리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측근이 미국 영사관으로 달아나 망명을 시도하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권력형 비리와 살인 사건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최고지도부를 향해 올라가던 한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진 이 사건은, 당의 상층부가 얼마나 굶아 있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부패와 야심, 그리고 그것을 제때 걸러내지 못하는 시스템. 강한 지도자를 향한 갈증은 바로 이런 토양에서 자랐습니다.

저우융강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후진타오 시기의 지도부는 아홉 명까지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홉 명이 저마다 한 영역씩 나눠 맡으니, 어떤 일은 아홉 개의 작은 왕국으로 쪼개졌습니다. 한 영역의 우두머리가 자기 자리에서 무슨 일을 벌이든, 다른 여덟 명은 자기 자리를 지키느라 서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견제라는 말은 좋았지만, 현실에서는 서로 모른 척하는 묵계로 굴러갔습니다. 부패는 그 묵계의 틈에서 자랐습니다.

집단지도체제의 약점은 위기 앞에서 더 선명해졌습니다. 모두가 한 표씩 나눠 가진 지도부는 빠르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파벌끼리 타협하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온한 시절에는 그 느낌이 안정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흔들릴 때, 그 느낌은 무력함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인터넷이 사람들의 불만을 실어 나르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당 안에서는 강력한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용히 번졌습니다. 부패를 도려내고 흔들리는 배의 키를 단단히 쥘 사람. 합의의 탁자가 아니라 한 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요구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인물이 시진핑이었습니다. 그는 혁명 원로 시중쉰(習仲勳)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치적으로 숙청당해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어린 나이에 겪었고,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농촌으로 내려가 토굴 같은 곳에서 7년을 보냈습니다. 고생을 아는 태자당(太子黨)의 아들. 당 원로들이 보기에 그는 믿고 권력을 맡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1인 지배를 막으려고 만든 체제가, 바로 그 체제의 약점 때문에 다시 1인에게 권력을 몰아줄 사람을 불러들였다는 점입니다. 원로들은 강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보다 훨씬 강한 지도자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걸어둔 빗장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푼 것이 임기의 빗장입니다. 2018년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제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결과는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였습니다. 거의 만장일치였습니다. 이 개헌의 핵심은 한 문장을 지운 것이었습니다. 1982년 덩샤오핑 시대에 헌법에 새겨 넣은 문장, 곧 국가주석과 부주석은 "연속해서 두 회기를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다"는 구절입니다. 이 한 줄이 사라지면서, 국가주석직의 3연임 금지가 풀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차근차근 짚어야 합니다. 임기 제한이란 권력에 종착점을 그어두는 일입니다. 언제 끝나는지 정해져 있으면, 그 끝을 향해 모두가 준비합니다. 후계자를 키우고, 다음을 의논합니다. 그런데 그 종착점을 지워버리면, 권력은 끝을 알 수 없는 직선이 됩니다. 모두가 한 사람의 시간을 기준으로 줄을 서게 됩니다. 2018년의 개헌은 그 종착점을 지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개헌이 발표되었을 때, 중국 안에서도 미묘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관영 매체는 당연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검열을 피한 우회적인 표현들이 잠깐 떠돌았습니다. 알파벳 'N'으로 임기를 빗댄 농담, 황제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 검색에서 막혔습니다. '연임'이나 '이민' 같은 말까지 한동안 검색이 차단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는, 무엇이 막혔는지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신 집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바깥의 많은 관찰자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두 번의 임기로 끝나리라던 시진핑 체제가, 끝을 정해두지 않은 체제로 바뀌었다는 것을.

임기의 빗장을 푼 시진핑은 다음으로 나이의 빗장에 손을 댔습니다. 2022년 9월 8일, 당 중앙판공청(中央辦公廳)이 개정된 '추진영도간부능상능하규정(推進領導幹部能上能下規定)'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름이 길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간부를 올리고 내리는 기준을 새로 짠 규정입니다. 2015년판에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면직 수속을 밟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차면 물러난다는, 7상8하를 뒷받침하던 조문이었습니다. 개정판은 이 조항을 통째로 들어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도덕(德), 능력(能), 근면(勤), 실적(績), 청렴(廉)이라는 다섯 글자였습니다. 이 기준에 비춰 "현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자리에서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도덕성과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7상8하의 힘은 바로 그 기계적인 객관성에 있었습니다. 68세면 물러난다. 여기엔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직무에 적합한가'라는 기준은 다릅니다.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 판단의 자리에 한 사람만 앉아 있다면, 결국 그 한 사람에 대한 충성도가 모든 것을 가르는 잣대가 됩니다. '능상능하(能上能下)'라는 이름의 이 원칙은, 나이라는 객관적 자를 거두고 그 자리에 충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를 들여놓은 조치였습니다.

이 차이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자는 권력자도 어찌지 못합니다. 68세라는 사실은 누가 권력을 쥐었든 똑같이 68세입니다. 그러나 '적합한가'라는 판단은 권력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까지 적합하던 사람이 오늘 부적합해질 수 있고,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를 든 사람이 자의 눈금까지 마음대로 옮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2년 9월의 이 규정 하나가, 두 달 뒤 당대회에서 벌어질 모든 인사의 길을 미리 닦아 놓았습니다.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내칠지, 그 결정에 더는 나이라는 핑계가 필요 없게 되었으니까요.

두 개의 빗장이 풀리는 과정을 다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18년에 임기의 빗장이 풀려 권력의 끝이 사라졌고, 2022년 9월에 나이의 빗장이 풀려 누구를 남기고 내칠지를 한 사람이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자, 남은 것은 그 권한을 실제로 쓰는 일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빗장이 풀린 자리에서, 2022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20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어 10월 23일, 폐막 다음 날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中全會)에서 새 지도부의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1중전회에서 비로소 상무위원의 명단과 서열이 정해집니다. 당대회가 큰 틀을 추인하면, 그 직후의 1중전회가 사람을 박아 넣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공개된 명단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1953년에 태어난 시진핑은 그해 69세였습니다. 7상8하를 그대로 적용하면 그는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68세를 한 살 넘긴 67세도 아니고, 69세였으니까요. 두 살이나 기준을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주석으로 세 번째 임기를 확정했습니다. 약속은 깨졌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생으로 72세였던 장유샤(張又俠)는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그대로 남아 정치국 위원 자리를 지켰습니다. 72세입니다. 7상8하의 기준을 네 살이나 넘긴 나이였습니다. 장유샤는 군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이었고, 시진핑 집안과 아버지 대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군을 단단히 틀어쥐기 위해 나이를 무시하고 곁에 둔 사람이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이 장유샤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가 4년 뒤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지는, 이 책에서 손꼽히게 무거운 장면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69세였던 왕이(王毅) 외교부장도 은퇴할 나이를 비웃듯 정치국 위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외교의 얼굴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이의 빗장은, 시진핑이 곁에 두고 싶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작동했습니다. 장유샤가 72세에 남고, 왕이가 69세에 올라가고, 시진핑 본인이 69세에 3연임을 했습니다. 같은 해, 같은 당대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이의 빗장은 영영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빗장은 사라진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 다른 사람들에게만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 장이 누구보다 무겁게 다뤄야 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들어온 일곱 명이 아니라,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리커창. 그해 67세였던 국무원 총리입니다. 7상8하대로라면 그는 충분히 상무위원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67세는 '올라가는' 쪽이니깐요.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 주석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같은 1955년생, 같은 67세. 규칙대로라면 남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왕양은 광둥성을 이끌던 시절, 시장을 믿고 개혁을 밀어붙인 사람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일부 외신은 그를 차기 총리 후보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상무위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시진핑은 69세에 남고, 이들은 67세에 밀려났습니다. 같은 자를 두 사람에게는 들이대지 않은 것입니다. 한쪽에는 나이를 묻지 않고, 다른 한쪽에는 나이를 들이댔습니다. 규칙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규칙을 누구에게 적용할지를 한 사람이 고르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그 차이를 설명합니다. 둘 다 과거 시진핑의 경쟁 세력으로 분류되던 중국공산주의청년단(中國共產主義青年團), 줄여서 공청단(共青團) 출신이었습니다. 공청단은 본래 젊은 당원을 길러내는 조직입니다. 후진타오가 이곳을 거쳐 최고 자리에 올랐고, 그 뒤로 공청단 출신들이 당과 정부의 요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시진핑 쪽에서

보면, 공청단은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저수지였습니다.

리커창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잠시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는 한때 시진핑의 맞수였습니다. 장쩌민이 시진핑과 함께 차세대 지도자로 점찍었던 두 사람 중 하나가 리커창입니다. 베이징대학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한 그는, 시장과 개혁을 믿는 쪽이었습니다. 박사 학위까지 받은 경제 전문가였고, 한때는 시진핑보다 먼저 최고 자리에 오를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1인자는 시진핑이 되었고, 리커창은 2인자인 총리에 머물렀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총리로서 경제를 맡았습니다. 시진핑이 정치와 사상을 틀어쥐는 동안, 그는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총리가 내놓은 경제 정책이 당의 다른 목소리에 묻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권력의 무게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는, 두 사람의 자리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7세가 되던 해, 규칙상 남을 수 있었음에도 조용히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가 단상에서 후진타오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한마디가 무엇이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로부터 7개월 뒤인 2023년 10월, 리커창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권좌에서 내려온 지 1년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지만, 공식 발표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확인할 수 없는 의심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67세에 밀려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1년 뒤 숨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둘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데, 확인되지 않은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밀려난 사람들 가운데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입은 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후춘화(胡春華)입니다. 1963년생, 그해 59세. 일곱 명 안에서 누구보다 젊었습니다. 그는 후진타오에 의해 격대지정의 수혜자로 지목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다음 지도자 후보, 곧 미래의 1인자 후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는 18대와 19대 당대회에서 연이어 정치국 위원을 지냈습니다. 20대에서는 마지막까지 상무위원 승진이 점쳐졌습니다. 차세대 주자의 길을 한 계단씩 밟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후춘화의 길을 잠깐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후베이성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베이징대학에 합격하고도 학업을 마친 뒤 스스로 티베트(西藏)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산소가 희박한 고원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티베트통'으로 불렸습니다. 그 뒤 네이멍구와 광둥성을 이끌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이 변방의 험지를 거쳐 차세대 1인자 후보까지 올라온 이야기는, 중국식 출세의 모범 답안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작은 후진타오'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후춘화는 상무위원이 되지 못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24명으로 이뤄진 정치국 위원 명단에서조차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는 평범한 중앙위원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차세대 1인자 후보로 키워지던 사람이, 한 번의 당대회에서 권력의 사다리 맨 아래 칸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추락은 중국 엘리트 정치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날 그가 어떤 표정이었는지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명단에서 사라진 자리에, 미래의 어떤 가능성 하나가 함께 사라졌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후춘화의 몰락은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격대지정이라는 제도 자체의 사망 선고였습니다. 미리 키워둔 후계자를 마지막 순간에 처냄으로써, 시진핑은 후계자를 미리 정하는 방식 자체를 끝장냈습니다. 앞으로 후계자는 미리 정해지지 않을 것이며, 정해진다 해도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에 달린 일이 됩니다. 이 사실이 4년 뒤 어떤 위기로 돌아오는지를, 이 책은 뒤에서 길게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떨어져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후춘화 한 사람이 밀려난 게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떠받치던 두 개의 파벌이 함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공청단부터 보겠습니다.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실무 관료와 젊은 엘리트들의 모임입니다. 숫자로 그 흥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전인 16기 정치국 위원 중 공청단 출신은 6명, 17기에는 8명이었습니다. 시진핑 1기인 18기에는 9명으로 36%에 달했습니다. 셋 중 하나가 공청단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권력의 한 축으로서 담당했던 시절입니다. 그것이 시진핑 2기인 19기에 6명으로 줄더니, 20기에는 단 1명, 4%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한 파벌이 10년 사이에 어떻게 정점에서 변두리로 밀려나는지를, 이 숫자들이 또렷이 보여줍니다.

리커창과 왕양이 동시에 밀려나고 후춘화가 강등되면서, 공청단은 권력을 나눠 가질 한 축으로서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공청단이 뿌리째 뽑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 공청단 제1서기 루하오(陸昊)가 중앙위원으로 다시 신임을 받았고, 또 다른 공청단 출신 허준커(賀軍科)가 새로 중앙위원에 들어왔습니다. 뒷자리에서 밀려났을 뿐, 아래 구조에는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점에서 지워졌다는 것과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구분을 흐리면 사실을 과장하게 됩니다. 최고지도부에서 공청단이 사라진 것은 맞지만, 당 전체에서 공청단 출신이 멸종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이 책이 지키려는 또 하나의 원칙입니다.

또 하나의 파벌은 상하이방(上海幫)이었습니다. 장쩌민을 정점으로 한 세력입니다. 1990년대 이후 중국 정치의 한 축을 굳건히 지켜온 집단이지요. 2012년 18차 당대회 때만 해도 상무위원 가운데 장더장(張德江), 위정성(俞正聲), 류윈산(劉雲山), 왕치산(王岐山), 장가오리(張高麗) 같은 이들이 장쩌민의 후원 네트워크 안에 있었습니다. 한때 최고지도부의 절반이 이 한 사람의 그늘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던 셈입니다.

상하이는 중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상하이시 당서기 자리는 이들의 전통적인 텃밭이자, 총리나 상무위원으로 오르는 출세 코스로 여겨졌습니다. 그 자리를 거치면 중앙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텃밭에 시진핑의 사람이 들어앉았습니다. 저장성 출신이자 시진핑의 오랜 측근인 리창(李強)이 상하이시 당서기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상하이방의 본거지를 시진핑의 사람이 접수한 셈이니,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상하이방의 마지막 거물이던 한정(韓正)은 68세로, 20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68세였습니다. 7상8하대로라면 물러날 나이입니다. 그러니 그의 퇴장은 규칙대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시진핑은 69세에 남았다는 사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누구에게는 규칙이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는지가 드러납니다. 한정은 이듬해 8위 서열의 국가부주석으로 옮겨 외교적 역할만 맡게 됩니다. 자리는 높아 보이지만 실권은 빠진 명예직이었습니다.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7인의 탁자에서는 밀려난 것입니다.

리커창, 왕양, 후춘화. 세 사람이 같은 당대회에서 함께 밀려났다는 사실에는 한 시대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이들은 공청단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자랐고, 시장과 개혁을 믿는 결이 비슷했으며, 한때 이 나라의 다음을 책임질 사람들로 꼽혔습니다. 그 세 사람이 하루아침에 권력의 중심에서 지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낙마는 사고일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동시 퇴장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이 정해진 선택이었습니다. 들어온 일곱 명의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밀려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편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더 정확히 말해줍니다.

한 정치학자는 이 변화를 식물에 빗대 설명했습니다. 예전의 중국 정치 상층부는 '수풀 같은(bush-like)' 구조였다고 합니다. 공청단, 상하이방 같은 여러 파벌의 우두머리들이

저마다 가지를 뺏고, 형제처럼 나란히 공존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가지들은 서로 부딪치기도 했지만, 바로 그 부딪침이 어느 한 가지가 하늘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20차 당대회를 지나며 그 수풀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시진핑이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줄기였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더 이상 독립된 나무가 아니라, 그 줄기에서 갈라져 나온 잔가지에 불과해졌습니다. 잔가지는 줄기가 흔들리면 함께 흔들리고, 줄기가 쓰러지면 함께 쓰러집니다. 이 비유가 왜 무서운지는, 4년 뒤 군부의 줄기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드러납니다.

그 거대한 줄기 아래 남은 일곱 사람을 마저 보겠습니다. 서열 1위 시진핑(69세)을 필두로, 리창(63세), 자오러지(趙樂際, 65세), 왕후닝(王滬寧, 67세), 차이치(蔡奇, 66세), 덩쉐상(丁薛祥, 60세), 리시(李希, 66세). 일곱 명 전원이 시진핑의 측근 세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시자진(習家軍)'이라 불렀습니다. 시진핑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경쟁 파벌의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명단은 중국 정치에서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상무위원회에는 늘 결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장을 믿는 사람과 통제를 믿는 사람, 이쪽 파벌과 저쪽 파벌이 한 탁자에 앉아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그 견제가 답답해 보일 때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이 폭주하는 것을 막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기 상무위원회에는 그런 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곱 명이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결이 하나로 통일된 모임이었습니다. 견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곧, 멈춰 세울 사람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는지를 보면, 옛 규칙이 얼마나 철저히 무너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리창은 상하이시 당서기였습니다. 총리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여겨지던 부총리 경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총리는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총리로 몇 년 경험을 쌓은 뒤에야 총리가 되는 것이 오랜 관례였습니다. 리창은 그 관례를 건너뛰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상하이로 두 달간 봉쇄했던 가혹한 코로나19 통제의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봉쇄 동안 2,500만 시민이 집 안에 갇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발코니에서 소리치는 사람들의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보통의 정치라면 책임을 묻고도 남을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서열 2위 총리로 직행했습니다. 능력보다 신임이 앞섰다는 신호였습니다.

차이치는 더 극적입니다. 2016년만 해도 그는 중앙위원도 후보위원도 아닌 평당원이었습니다. 당의 위계로 치면 한참 아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베이징 시장으로 올라섰고, 몇 년 만에 최고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중간 단계를 여럿 건너뛴 것입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수직으로 솟아오른 셈입니다. 그가 시진핑과 인연을 맺은 곳은 저장성과 푸젠성이었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사람을, 시진핑은 위계의 사다리를 무시하고 끌어올렸습니다.

딩쉐샹(丁薛祥)은 시진핑의 출장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비서실장 격 인물이었습니다. 회의 자료를 챙기고 일정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상무부총리에 올라 경제의 한 축을 맡게 되었습니다. 왕후닝(王滬寧)은 결이 다릅니다. 그는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세 지도자를 잇따라 보좌한 이론가입니다. 무대 뒤에서 당의 사상과 구호를 설계해 온 사람으로, '세 황제의 책사'로 불립니다. 자오러지(趙樂際)는 오래 사정 업무를 맡아온 인물이고, 리시(李希)는 시진핑의 부친 시중쉰의 옛 동료 비서를 지낸 인연으로 시진핑계에 묶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정의 칼을 쥐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되었습니다. 일곱 자리의 면면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또렷합니다. 시진핑과 함께 일했거나, 시진핑이 직접 끌어올렸거나, 시진핑의 집안과 얽혀 있거나.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새 지도부의 나이도 한 번 짚어두겠습니다. 20기 상무위원 일곱 명의 평균 나이는 65.2세였습니다. 그 직전 19기는 62.9세였습니다. 2년 넘게 늙은 지도부가 들어선 것입니다. 보통 새 지도부는 더 젊어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거꾸로였습니다. 젊은 피를 들이지 않았다는 뜻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4명의 정치국 위원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쪽 남성으로 채워진, 나이 든 총성파들의 모임. 그것이 새 지도부의 초상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일곱 명이 한 탁자에 앉아 있으니까요. 형식은 집단지도체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중국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면, 시진핑과 나머지 여섯 사이의 관계는 '평등한 동료'에서 '주인과 신하'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상무위원은 자기 영역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총리는 경제를, 다른 위원은 선전을, 또 다른 위원은 사정을 책임지고 자기 판단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시진핑이라도 함부로 그 영역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같은 탁자에 앉아 있지만, 그 탁자에서 결정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그 결정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중국은 '집중통일영도(集中統一領導)'라고 부릅니다. 권력을 한곳에 모아 통일된 지휘로 끌어간다는 뜻입니다. 덩샤오핑이 권력을 나누려고 만든 체제가, 정확히 그 반대 방향으로 뒤집힌 것입니다. 마오쩌둥이 떠난 자리에 두 번 다시 마오쩌둥 같은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던 장치가, 마흔 해 만에 한 사람의 손에 풀려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변화를 두고 어떤 이들은 나라를 구한 결단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역사의 후퇴라 합니다. 이 책은 어느 한쪽의 손을 미리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일어난 일을 정확히 적을 뿐입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모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따라갈 뿐입니다.

이 평가를 더 밀고 나간 학자가 있습니다. 정치학자 귀광 우(Guoguang Wu)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분류를 빌렸습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대의 지도부는 소수가 권력을 나눠 갖는 '과두제(oligarchy)'에 가까웠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여러 파벌의 맹주들이 형제처럼 공존하던 구조였지요. 반면 시진핑의 3연임 체제는 한 사람이 지배하는 '독재(tyranny)'에 해당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정치국 안에는 시진핑이라는 거대한 줄기만 있고, 리창이나 차이치 같은 이들은 그 줄기에서 뻗은 자식 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일곱 명 체제가 아니라 한 명 체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인과 신하'라는 표현을 오해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은 모욕이나 비하가 아니라, 권력관계의 성격을 가리키는 학술적 묘사에 가깝습니다. 예전의 상무위원은 시진핑과 같은 급의 동료였습니다. 회의에서 그의 의견에 맞설 수 있었고, 자기 영역에서는 독자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의 마지막 도장은 한 사람이 찍습니다. 나머지는 그 도장이 찍힐 안건을 다듬고 받쳐 주는 역할을 합니다. 권한의 크기가 줄었다는 게 아니라, 권한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자리에서 권한이 나왔다면, 이제는 한 사람의 신임에서 권한이 나옵니다.

이 한 명 체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시진핑은 측근들끼리 서로 견제하도록 일부러 구도를 짭니다. 서열 5위인 차이치를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員會)의 부주임 자리에 앉힌 것이 그 예입니다. 이 기구는 나라의 핵심 정책을 주무릅니다. 그런데 경제를 총괄하는 사람은 서열 2위 총리 리창입니다. 자기보다 서열이 낮은 차이치가 정책의 핵심 기구에서 자신을

견제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신하들끼리 경쟁시켜 어느 누구도 너무 커지지 못하게 하는 방식. 이것이 한 명 체제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 구도가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회의 탁자에 일곱 명이 앉아 있습니다. 한가운데 한 사람이 의견을 냅니다. 나머지 여섯은 그 의견에 다른 생각이 있어도, 옆 사람이 먼저 반대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옆 사람도 똑같이 기다립니다. 반대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 충성을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여섯은 서로가 경쟁자입니다. 한 사람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누구도 솔직한 의견을 먼저 내지 않습니다. 침묵이 곧 안전입니다. 이런 탁자에서는 한 사람의 생각이 곧 일곱 명의 결정이 됩니다. 형식은 일곱이지만 실질은 하나. '일곱 명 체제가 아니라 한 명 체제'라는 말의 무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섯 사람을 허수아비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저마다 거대한 부처와 조직을 거느린 실세입니다. 리창은 나라의 살림을 굴리고, 자오러지는 입법을, 왕후닝은 사상을, 차이치는 당무를, 덩쉐샹은 경제 실무를, 리시는 사정의 칼을 쥐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여섯 사람을 한 명씩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충성과 유능함 사이에서 줄을 타며 살아남았는지, 그 생존법을 따라가다 보면 이 체제의 속살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만 그 모든 권한의 출발점이 한 사람의 신임이라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임이 거두어지는 순간, 권한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변화는 중국 안에만 머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중국이라는 나라를 읽을 때 일정표를 참고했습니다. 5년 뒤, 10년 뒤에 누가 키를 잡을지 가늠할 수 있었기에, 기업은 투자 계획을 세우고 외국 정부는 외교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표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중국의 미래를 읽으려면 한 사람의 건강, 한 사람의 판단,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거대한 나라의 향방이 한 개인에게 묶이면, 그 개인에게 생기는 작은 변화 하나가 세계를 흔드는 변수가 됩니다. 예측 가능성이 사라진 자리에는 불확실성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평온할 때는 잘 보이지 않다가 위기가 닥칠 때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변화는 사람의 명단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시진핑이 당대회에서 읽은 보고서의 단어들에도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그가 집권 1기와 2기에 읽은 보고와 20차 당대회의 보고를 나란히 놓고 단어 빈도를 세어 보았습니다. 결과는 한 시대의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조화'나 '평화' 같은 단어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대신 '문제', '위험', '도전' 같은 위기의 단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안전'이라는 단어는 한 보고서 안에서 91번 나왔고, '과학기술'은 44번 등장했습니다. 이전 지도자들이 경제 성장의 숫자로 자신을 증명했다면, 시진핑은 안보와 기술 자립을 앞세웠습니다. 나라를 끌어가는 키워드 자체가 '얼마나 잘사느냐'에서 '얼마나 안전하냐'로 옮겨 간 것입니다. 이 단어들의 이동은 뒤에 나올 제4부, 경제와 안보의 딜레마를 다루는 대목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체제는 더없이 단단해 보입니다. 경쟁자는 모두 사라졌고, 일곱 자리는 충성파로 채워졌으며, 사상까지 당장(黨章)에 못 박혔습니다. 폐막일인 10월 22일, 당대회는 당장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시진핑의 핵심 지위를 결사적으로 지킨다는 '두 개의 수호(兩個維護)', 그리고 시진핑 본인과 그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굳힌다는 '두 개의 확립(兩個確立)'이 당의 헌법 격인 당장에 새겨졌습니다.

이 두 구호의 뜻을 풀어보면 그 무게가 보입니다. '두 개의 확립'은 시진핑이 당의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시진핑의 사상이 당의 길잡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굳힌다는 뜻입니다. '두 개의 수호'는 그 핵심 지위와 당 중앙의 통일된 지휘를 목숨 걸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풀어 말하면, 시진핑이라는 한 사람과 그의 생각을 의심하지 말고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이 구호들은 한낱 표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원이라면 회의에서 외우고, 학습 모임에서 토론하고, 시험으로 평가받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충성이 제도가 되고, 일상이 되고, 평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 구호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사상의 설계를 맡은 사람이 앞서 본 왕후닝입니다. 그는 학자 출신으로, 화려한 자리에 나서기보다 무대 뒤에서 논리와 언어를 다듬는 데 능했습니다. 장쩌민의 '삼개대표',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 그리고 시진핑의 사상까지, 세 지도자의 핵심 구호에 그의 손길이 닿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체제가 자신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드는 사람. 권력이 한 사람에게 모이는 과정에는 칼을 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이름과 명분을 붙여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더없이 강해 보이는 지점에, 이 체제의 치명적인 빈틈이 함께 묻혔습니다.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숫자를 하나만 보겠습니다. 20차 당대회에서 뽑힌 24명의 정치국 위원 가운데, 57세 이하의 인물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중국 최고지도부는 보통 10년을 한 주기로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10년 뒤를 이끌 사람은 지금 50대 중반쯤이어야 합니다. 그 나이의 사람이 정치국이나 상무위에 미리 들어와 있어야, 다음 후계자로 키워질 수 있습니다.

후춘화의 사례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963년생인 그는 후계 후보로 키워지던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정치국 위원 명단에서조차 빠지면서, 차세대의 칸은 통째로 비었습니다. 일곱 명의 상무위원 중 1960년대생은 60세의 덩쉐상 한 명뿐인데, 그는 비서 출신이라 1인자 후계자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후계의 칸이 통째로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빈칸은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채우기 어려워지는 방식으로 비어 있습니다. 후계자를 미리 키우려면 누군가를 차세대 주자로 점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점찍는 순간 그 사람은 표적이 됩니다. 권력을 위협할 잠재적 경쟁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점찍히지 않으려 하고, 시진핑도 아무도 점찍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후보군은 자라기는커녕 더 얇아집니다. 이 책의 제3부에서는 이 빈칸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60년대생 후계군이 사라진 자리에 70년대생 실무자들이 지방과 부처로 올라오기 시작하지만, 그들 가운데 누구도 '다음 사람'으로 불리지 못하는 묘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후계가 있는 듯 없는 듯한, 그 안개 같은 상황의 뿌리가 바로 2022년 가을의 이 빈칸입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 시각을 나란히 두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시진핑은 부패와 비효율로 굶아가던 나라를 구하기 위해 권력을 한곳에 모은 것이며, 후계를 비워둔 것은 백년에 한 번 올 큰 변화의 시기, 곧 '백년대변국(百年大變局)'을 헤쳐 나가려면 흔들림 없는 한 사람의 지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기술 봉쇄가 조여 오고, 코로나가 세상을 뒤흔들던 때였습니다. 이런 격랑 속에서 합의의 타자는 너무 느리다, 한 사람이 키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후계자를 비워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싹을 미리 잘라낸 것이며, 결국 1인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차세대 인물을 한 명도 올리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이며, 부패척결이라는 명분 뒤에는 경쟁자 제거라는

현실이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한쪽은 구국의 결단으로, 다른 쪽은 권력 독점으로 읽습니다. 부패를 도려낸 칼과 정적을 베어낸 칼이 같은 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칼의 양면은 이 책 곳곳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군부 숙청을 다루는 대목에 이르면, 그것이 기강을 세우는 일이었는지 위협을 제거하는 일이었는지를 두고 같은 질문이 되풀이됩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이 장에서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다. 두 시각을 함께 두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정직함이라고 이 책은 믿습니다. 한쪽으로 단정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결과만은 양쪽 모두 부정하지 못합니다. 2022년 가을, 중국은 다음 지도자가 누구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독재자의 딜레마(Dictator's dilemma)'라고 부릅니다. 권력을 완벽하게 틀어쥘수록, 그 권력을 누구에게 어떻게 넘길지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역설입니다. 후계자를 미리 정하면, 그 후계자가 일찍 세력을 키워 현재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계자를 정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라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어느 쪽도 안전하지 않은 갈림길. 절대 권력을 쥔 사람일수록 이 갈림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후계만이 아닙니다. 충성이 출세의 기준이 되면, 아무도윗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 충성을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좋은 소식만 올립니다. 일곱 명의 최고지도부조차 시진핑에게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서구 분석가는 컴퓨터 용어를 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력값이 쓰레기면 출력값도 쓰레기다." 잘못된 정보가 한 사람에게만 흘러 들어가고, 그것을 거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체제는 스스로를 바로잡을 힘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마오쩌둥 시대의 교훈이 다시 떠오릅니다. 대약진운동 때 누구도 마오쩌둥에게 농촌이 굶주린다고 보고하지 못했던 그 구조. 덩샤오핑이 그토록 두려워해 빗장을 걸어두었던 그 구조. 그것이 마흔 해의 빗장을 풀고 다시 모습을 드러낼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역사가 똑같이 반복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성급한 일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경제 규모가 다르고, 정보가 흐르는 통로도 다릅니다. 같은 구조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결론을 미리 내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위협의 씨앗이 2022년 가을에 심어졌다는 사실만은 기록해 둡니다.

이 책은 2022년의 이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에 후계의 칸을 비워두었기 때문에, 4년 뒤인 2026년의 사건이 그토록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미리 짚어두자면, 2026년 초 중국 군부의 최고위 인물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진핑이 직접 끌어올린 사람들이, 시진핑의 손에 다시 쳐내지는 숙청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책의 제2부에서 길게 다룰 것입니다. 지금 기억해 둘 것은 하나입니다. 후계자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면, 군부의 핵심들이 무너지는 충격이 와도 나라는 다음을 기댈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칸 위에 쌓인 절대 권력은, 그 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순간 곧바로 거대한 공백이 됩니다.

이것이 이 책 전체를 꿰는 하나의 실입니다. 2022년의 권력 집중이 원인이고, 2026년의 군부 붕괴가 그 한가운데이며, 2027년 이후의 후계 부재가 그 끝에 놓입니다. 앞의 일이 뒤의 일을 불러옵니다. 절대 권력을 손에 넣은 사람이, 바로 그 절대 권력 때문에 자기 다음 자리를 비워둘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더없이 강한 체제가 어떻게 더없이 불안한 체제가 되어가는지를, 이 책은 한 장씩 따라갑니다.

2027년에는 제21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그때 시진핑은 74세가 됩니다. 7상8하라는 옛 잣대는 이미 그가 직접 부셨으니, 나이는 더 이상 그를 막지 못합니다. 후계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네 번째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이 많습니다. 차세대 인물을 한 명도 올리지 않은 2022년의 명단은, 바로 그 4연임을 향한 첫걸음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추측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2년에 비워둔 후계의 칸이, 시간이 갈수록 채워지기는커녕 더 굳게 닫혀 간다는 것만은 사실로 확인됩니다. 닫힌 문 앞에서 한 나라가 다음을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모든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에 임기의 빗장이 풀렸고, 2022년 9월에 나이의 빗장이 풀렸으며, 그 두 달 뒤 당대회에서 사람들이 교체되었습니다. 차근차근, 한 단계씩 길이 닦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단상에서 벌어진 몇 초의 장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꾼 듯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것은 오래 준비된 변화의 마지막 매듭이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그렇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고, 어느 날의 한 장면이 그 방향을 비로소 눈에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다시 그 단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22일, 후진타오가 부축을 받아 일어서던 그 순간. 카메라가 담은 그 짧은 장면 속에서, 사라진 것은 한 노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물러난다는 약속. 권력을 나눠 가진다는 약속. 미리 다음을 준비한다는 약속. 30년 가까이 중국 정치를 지탱해 온 세 가지 약속이, 그날 그 단상을 함께 걸어 나갔습니다. 후진타오는 떠나기 전 시진핑의 어깨를 한 번 두드렸습니다. 그 손짓의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위로였는지, 당부였는지, 체념이었는지. 다만 그 손이 닿은 어깨 위에, 이제 14억의 운명과 한 나라의 모든 결정이 통째로 얹히게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같은 단상에서 벌어진 두 장면을 나란히 떠올려 봅시다. 2012년, 후진타오가 모든 권력을 두 손으로 시진핑에게 넘기던 매끄러운 승계. 2022년, 그 후진타오가 부축을 받아 끌려 나가던 어색한 퇴장. 10년의 간격을 두고 같은 자리에서 펼쳐진 두 장면은, 한 시대가 어떻게 다른 시대로 바뀌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장면에는 약속이 있었고, 두 번째 장면에는 그 약속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절차로 권력을 옮기던 시절에서, 한 사람의 의지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시절로. 그 전환의 매듭이 바로 그날 그 단상에서 지어졌습니다.

그 무게를 한 사람이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흔들릴 때 누가 그 무게를 이어받을 수 있는지. 그 질문에 답이 없는 채로, 중국은 새로운 시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답이 없다는 것. 그것이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갈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관례가 무너진 바로 그날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관례가 무너진 날

2022년 10월, 7상8하(七上八下)의 붕괴와 시진핑 1인 체제의 서막

- 30년 가까이 중국 정치를 지탱해 온 불문율이 파괴되었습니다.
- 절차로 권력을 옮기던 시절에서, 한 사람의 의지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시대로의 전환점입니다.



[Source] 2026 중국 권력지형도 제1장 본문

NotebookLM

제2장 권력의 조각들: 상무위원 여섯의 생존법

2022년 10월 23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의 붉은 카펫 위로 일곱 명의 남자가 한 줄로 걸어 나왔습니다. 전날 밤 막을 내린 제20차 당대회(第二十次全國代表大會)와 그 직후 열린 제20기 1중전회(第二十屆中央委員會第一次全體會議)에서 새로 뽑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政治局常務委員會) 일곱 사람이었습니다. 무대 한가운데 시진핑(習近平)이 섰고, 그 뒤를 따라 여섯 사람이 서열 순서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리창(李強), 자오러지(趙樂際), 왕후닝(王滬寧), 차이치(蔡奇), 덩쉐샹(丁薛祥), 리시(李希).

이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본 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명단에서 읽어낸 것은 인물의 면면이 아니라 빈자리였습니다. 거기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전까지 총리였던 리커창(李克強)이 없었습니다. 정협 주석 왕양(汪洋)도 없었습니다. 한때 차세대 후계자로 불리던 후춘화(胡春華)는 상무위는 고사하고 정치국 명단에서마저 지워졌습니다. 들어온 일곱보다 밀려난 사람들의 그림자가 더 길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여섯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시진핑과 어딘가에서, 언젠가, 한 번쯤 같은 방에 앉았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장성에서, 푸젠성에서, 상하이에서, 산시성에서. 그 짧은 인연 하나가 평생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능력도 실적도 파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과의 거리가 자리의 높이를 정했습니다.

이 광경을 이해하려면 한 단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집중통일영도(集中統一領導)입니다. 권력을 한곳으로 모아 하나로 통일해 이끈다는 뜻입니다. 덩샤오핑(鄧小平) 이래 중국의 최고지도부는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일곱 명의 상무위원이 각자 한 분야를 맡아 비교적 대등하게 권력을 나누고, 큰일은 합의로 결정했습니다. 파벌이 서로를 견제했고, 그 견제가 한 사람의 독주를 막는 안전장치였습니다. 2022년의 무대는 그 체제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일곱 자리가 모두 시진핑 한 사람을 향한 총성으로만 채워졌습니다. 견제할 파벌이 사라졌습니다. 안전장치가 풀렸습니다.

중국 정치에서 1중전회 직후의 이 등장 순간은 오랜 의례입니다. 새 지도부가 처음으로 세계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카메라는 그들이 걸어 나오는 순서를 한 명씩 비춥니다. 그 순서가 곧 서열입니다. 누가 시진핑 바로 뒤에 서는가, 누가 끝자리에 서는가. 외신 기자들은 이 행렬의 순서만으로도 향후 5년의 권력 지도를 읽어냅니다. 2022년 가을, 그 행렬에서 읽힌 것은 한

사람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그늘에, 다음 장에서 펼쳐질 위기의 씨앗이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이 책의 큰 시간 축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2022년에 권력이 한 사람에게 완전히 모였습니다. 2026년에 그 권력을 떠받치던 군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권력을 물려줄 후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 시점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앞이 뒤의 원인입니다. 2022년에 후계자를 비워두었기에, 2026년의 군부 숙청이 그토록 위험해지고, 2027년의 빈칸이 그토록 깊어집니다. 이 장에서 만나는 여섯 사람의 생존법은, 바로 그 첫 시점, 권력이 한 사람에게 모이던 순간을 안쪽에서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알면, 왜 다음 자리가 비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 여섯 사람을 같은 네 가지 질문으로 꿰어 보려 합니다. 어떻게 시진핑과 엮였는가. 무엇을 보상받았는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2027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백과사전식 약력은 건너뜁니다. 어느 해에 어느 직책을 맡았는지를 줄줄이 나열하는 일은, 이름은 외우게 해도 사람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또렷이 드러내는 별명 하나, 장면 하나로 충분합니다. 봉쇄된 상하이의 텅 빈 거리, 평당원이 베이징 시장이 되던 인사, 미국을 보고 와서 미국을 비판한 학자, 시진핑의 한 걸음 뒤를 평생 따라간 수행원. 그런 장면들이 직책 목록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대 밖으로 밀려난 한 사람, 한정(韓正)의 이야기로 이 장을 닫습니다. 그가 어떻게 밀려났는지를 보지 않고는,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도 온전히 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어온 사람과 밀려난 사람은 같은 룰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한쪽을 보지 않으면 다른 쪽도 반쪽만 보입니다.

1. 리창: 부총리를 건너뛴 총리

먼저 서열 2위, 리창입니다. 무대 위 일곱 명 중 시진핑 바로 뒤에 선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총리이면서도,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길이 누구보다 논쟁적이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리창의 정치 인생에서 위태로웠던 순간을 하나만 꼽으라면, 2022년 봄 상하이의 텅 빈 거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해 상하이에 코로나19 변이가 퍼졌습니다. 당시 상하이시 당서기였던 리창은 2,500만 시민을 두 달 동안 집 안에 가뒀습니다. 중국 경제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물류가 끊기고, 식료품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이 발코니에 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통의 중국 관료 사회였다면, 이 정도의 방역 실패는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끝내고도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그런데 리창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혹한 봉쇄가 그를 살렸습니다. 여기에 시진핑 체제의 인사 논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관료 사회에서 봉쇄의 실패는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리창에게 그 봉쇄는 충성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이 정반대로 읽힌 것입니다. 시진핑이 내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까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밀어붙인 그 우직함을 시진핑은 충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태도를 본 것입니다. 명령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그 명령이 실패하더라도 신임을 잃지 않습니다. 반년 뒤, 리창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서열 2위의 상무위원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리창이 시진핑과 처음 엮인 곳은 저장성이었습니다. 1959년 저장성 루이안(瑞安)에서 태어난 그의 출발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1976년 루이안의 한 관개·배수소에서 노동자로 일했고, 이듬해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사회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저장농업대학 Ningbo 분교에서 농업기계화를 전공했고, 입당 뒤에는 공청단 현 위원회 서기, 성 민정청의 농촌구제처 부처장과 처장 같은 자리를 차근차근 밟았습니다. 야간에 공부도 놓지 않아 저장대학 대학원 과정을 마쳤고, 홍콩이공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시골에서 시작해 실무로 잔뼈가 굵은 행정 관료였습니다.

그의 운명을 바꾼 자리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맡은 저장성 당위원회 비서장이었습니다. 비서장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격입니다. 그중에서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시기 저장성을 다스린 당서기가 바로 시진핑이었습니다. 시진핑이 큰 방향과 지시를 내리면 리창이 지방 행정의 일선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했습니다. 둘 사이에 강한 주종 관계와 신뢰가 쌓였습니다. 이때의 인연이 리창을 시진핑의 친위 그룹, 이른바 시자진(習家軍), 또는 저장성 인맥의 핵심으로 각인시켰습니다. 2015년 시진핑이 처음 미국을 국빈 방문할 때 그 일정에 밀착 동행할 만큼, 리창은 1인자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저장성 성장, 장쑤성 당서기를 거쳐 2017년 상하이시 당서기로 영전했습니다. 상하이 당서기는 중국 정치에서 최고 지도부로 가는 핵심 등용문으로 꼽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잠시 2022년 가을의 그 무대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리창이 서열 2위로 걸어 나오던 그날, 무대 뒤에서는 한 시대가 통째로 잘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67세의 리커창과 왕양은 7상8하의 룰대로라면 충분히 유임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상무위에서 탈락했습니다. 차세대 후계자로 불리던 59세의 후춘화는 상무위는커녕 정치국 위원 명단에서마저 쫓겨나, 평범한 중앙위원으로 강등되는 몰락을 겪었습니다. 공청단이라는 경쟁 파벌이 한꺼번에 잘려 나간 것입니다. 같은 룰이 시진핑 자신과 그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69세의 시진핑은 3연임에 올랐고, 72세의 장유샤는 군을 쥐기 위해 유임되었으며, 69세의 왕이는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룰은 도구였습니다. 적에게는 칼이 되고, 내 사람에게서는 면죄부가 되는 도구. 리창이 받은 보상은 그 도구가 만들어낸 빈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보상은 관례를 부수는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2023년 3월, 리창은 리커창을 밀어내고 국무원 총리(國務院總理)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대목은 그 경로입니다. 중국에서 총리가 되려면 부총리를 거치는 것이 오랜 불문율이었습니다. 리창은 그 과정을 통째로 건너뛰었습니다. 상하이 당서기에서 곧장 총리로 직행했습니다. 부총리를 건너뛴 총리. 이 별명 하나에 시진핑 체제의 인사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리마다 거쳐야 할 단계가 있었습니다. 단계는 사람을 검증하는 장치였습니다. 부총리를 지내며 경제를 다뤄본 사람이 총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검증의 논리였습니다. 그 단계를 건너뛰었다는 것은, 검증의 논리를 충성의 논리가 대체했다는 뜻입니다. 객관적 경력이나 제도적 요건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충성만이 승진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봉쇄된 상하이에서 보여준 충성이, 거쳐야 할 모든 단계를 대신했습니다.

2026년의 리창은 중국 경제의 실무 사령탑입니다. 그해 6월 다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 제17차 연례 뉴챔피언 총회의 개막 연설에서 그는 '중국 기회 2.0'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을 향해 서방의 부정적인 서사를 거두라고 촉구하면서, 2026년 출범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과 함께 중국 경제가 흔들림 없는 안정성과 활력을 보이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중국 경제가 '안전 항구' 역할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이 63개국에 무관세 대우를 주었고, 그해 첫 다섯 달 수입이 1년 전보다 20.5퍼센트 늘어 수출 증가세를 크게 앞질렀다는 숫자도 제시했습니다.

연설장 밖의 현실은 그 낙관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지방 정부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창은 이런 난제를 땀질하듯 막아내는 해결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트리아지(triage), 응급실에서 환자의 위중함을 가려 처치 순서를 정하는 일에 빗대어 그의 경제 운용을 설명하는 관찰자도 있습니다. 한쪽 독을 막으면 다른 쪽이 터지는 형국에서, 급한 곳부터 손을 대는 방식입니다. 외부 관찰자들은 그에게 시진핑의 '경제 특사'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2023년 G20 정상회의, 2025년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잇따라 나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 온 그의 활발한 대외 행보 때문입니다. 시진핑보다 민간 기업에 너그럽고, 이데올로기보다 실용에 끌린다는 평가도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외줄 타기가 있습니다. 한쪽 발에는 실용이, 다른 발에는 충성이 놓여 있습니다. 둘의 균형이 무너지면 떨어집니다. 전임 총리 리커창의 사례가 그 위험을 보여줍니다. 리커창은 '리커노믹스'라는 자기 노선을 내세웠습니다. 부채를 줄이고 민간이 성장을 이끌게 하자는 독자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공식 통계마저 믿지 못해, 전기 사용량과 화물 운송량 같은 실물 지표로 직접 만든 '리커창 지수'를 들고 다녔습니다. 1인자가 내놓는 숫자를 그대로 받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 독자성이 결국 그를 무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리창은 그러지 않습니다. 취임 이후 시진핑이 짜둔 틀을 벗어나는 중대한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실용주의는 시진핑의 권위를 떠받치는 도구로만 작동합니다. 과거에는 파벌끼리 경쟁하며 서로 다른 노선이 부딪혔지만, 이제 그 경쟁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의 거대한 줄기 아래에서 누가 더 충성스러운가를 겨루는 다툼뿐입니다. 리창의 실용은 그 줄기를 거스르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게다가 시진핑은 리창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서실장 격인 차이치를 핵심 정책 위원회 부주임에 앉혀 그를

결에서 견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총리이면서도 견제받는 총리. 이것이 리창의 자리입니다.

2027년 가을, 제21차 당대회가 다가옵니다. 이 대회는 보통의 인사 교체가 아닙니다. 중앙위원회 위원의 상당수가 한꺼번에 바뀌는, 덩샤오핑 시대 이후 손꼽히게 파괴적인 세대교체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격변의 한복판에서 리창의 앞날은 중국 권력 승계의 큰 블랙박스 중 하나입니다. 일부 학자들의 예측 모델은 그 대회에서 은퇴 연령 기준선이 1960년생으로 다시 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96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물러나고, 1960년대생, 이른바 '60후'가 지도부의 주축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1959년생인 리창은 원칙적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4연임을 강행하며 모든 관례를 무너뜨린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일부 관측가들은 시진핑이 고령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제한적인 권력 이양을 도모할 경우 리창이 유력한 후계 후보로 떠오른다고 봅니다. 독자적인 파벌이 없어 반란의 위험이 적고, 시진핑의 비전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멀리 보는 관측가들도 있습니다. 2035년 현대화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고령의 시진핑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통치력을 잃는다면, 그 권력의 진공을 수습할 인물 역시 리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파벌이 없으니 반란의 위험이 적고, 시진핑의 국정 비전에 완벽하게 맞춰진 그는 체제의 연속성을 보장할 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표면적인 당과 정부의 수장 자리가 넘어가더라도, 군대를 쥐고 대만을 향한 운명적 결정을 내리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만큼은 시진핑이 끝내 놓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리창은 군권이 빠진 '절반의 후계자'로 남게 됩니다. 표면적인 권력은 쥐되 진짜 힘인 군권은 갖지 못하는 자리, 그것은 또 다른 외줄 타기입니다. 1960년이라는 나이의 선에 갇혀 조용히 은퇴하거나, 군권 없는 외줄 위에서 위태로운 걸음을 이어가거나. 그 갈림길에 그가 서 있습니다. 그가 부총리를 건너뛰고 총리가 되었듯, 그의 마지막 행로도 정해진 문법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총리를 건너뛴 사람의 끝이 어떤 모습일지는, 그를 끌어올린 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2. 차이치: 헬리콥터를 타고 오른 칼

서열 5위, 차이치입니다. 리창이 경제를 맡았다면 이 사람은 권력의 신경망을 맡았습니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도태되는지를 가르치는 손이, 바로 이 사람의 것입니다.

2016년, 베이징시 시장에 한 사람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기이했습니다. 임명된 차이치는 그때 중앙위원회 위원도, 후보위원도 아니었습니다. 평당원이었습니다. 중국의 수도, 그 베이징의 시장 자리에 평당원이 곧장 앉는 일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이 한 번의 인사가 차이치라는 인물의 본질을 압축합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오른 사람. 보통의 관료는 사다리를 한 칸씩 밟아 올라갑니다. 후보위원이 되고, 중앙위원이 되고, 그다음에야 큰 자리를 바라봅니다. 차이치는 그 사다리를 건너뛰었습니다. 위에서 누군가 손을 내려 단번에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 손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는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차이치가 시진핑과 엮인 뿌리는 푸젠성에 있습니다. 1955년 푸젠성 유시(尤溪)에서 태어난 그는 시진핑이 푸젠에서 오랜 기간 행정 관료로 자기 기반을 다지던 시절, 같은 지역에서 일하며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중국 엘리트 정치에서 같은 지역에서 함께 일한 경험은 더없이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가 됩니다. 차이치는 이 푸젠의 인연을 발판으로 시자원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무기는 정교한 정치적 수사도, 독자적인 세력 구축도 아니었습니다. 집행력이었습니다. 최고지도자가 지시하면 어떤 오명이 따르더라도 묵묵히, 누구보다 빠르게 밀어붙이는 능력. 베이징 시장 시절, 그는 도시 외곽의 이른바 '낮은 단계 인구'를 정리하는 강경한 조치를 밀어붙여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시가 내려오면 결과가 어떻든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이 차이치의 방식이었습니다. 파벌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충성만이 잣대가 된 체제에서, 시진핑이 절실히 필요로 한 덕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참모는 많지만, 오명을 뒤집어쓰면서도 명령을 완수하는 손은 드뭅니다.

그 시작은 안보 부서였습니다. 2014년부터 중앙국가안전위원회 판공실 부주임과 상무부주임을 지내며, 시진핑이 직접 챙기는 핵심 안보 라인에서 신임을 재확인받았습니다. 진정한 도약은 2016년 베이징 시장 발탁이었습니다. 평당원이 수도의 시장이 된 그 인사 말입니다. 이 수직 상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7년 정치국 위원급인 베이징 당서기로

영전했고, 2022년 10월 권력의 최정점인 상무위원회에 서열 5위로 입성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66세.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는 '7상8하(七上八下)'의 오랜 관례가 이미 시진핑 자신에 의해 깨진 뒤였으니, 나이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시진핑에게 충성한 자만이 권력의 최고봉에 오른다는 것을, 차이치의 입성은 전당에 선포한 셈입니다.

2026년의 차이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서열 5위의 상무위원이자 중앙서기처 서기로서 시진핑의 사실상 비서실장 노릇을 합니다. 비서실장이라는 말은 점잖지만, 그가 쥔 것은 한낱 일정 관리가 아닙니다. 그는 당의 신경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어디로 흐르고,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떤 사안이 시진핑의 책상에 오르는지를 그가 정리합니다. 외부 분석가들은 그를 정책을 설계하는 뇌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의 의지를 현실로 바꾸는 행동대장이자 집행관으로 봅니다. 그해 상반기, 그의 권력이 어디까지 부풀었는지를 보여주는 일들이 잇따랐습니다. 시진핑의 오랜 대학 동창이자 인사 조력자였던 천시(陳希) 전 중앙조직부장이 72세에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한때 시진핑의 인사를 도왔던 사람조차 무대에서 사라진 자리를, 차이치의 권력이 채웠습니다. 6월 5일, 차이치는 고위 간부의 사상 교육과 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중앙당교(中央黨校)의 교장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판공청 주임에 이어 당교 교장직까지 거머쥔 것은, 전국 고위 관료들의 사상과 출세를 좌우하는 목줄을 그가 쥐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점은 6월 15일이었습니다. 차이치는 전국당건설공작좌담회(全國黨建工作座談會)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의 면면이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고 사정 기관의 수장인 서열 7위 리시가 부조장 자격으로 그 아래에 앉았고, 중앙조직부장 스타이펑(石泰峰)도 함께였습니다. 기울이라는 처벌의 칼과 조직이라는 인사의 칼, 당의 두 핵심 무기가 모두 차이치의 지휘 아래 모인 것입니다. 그는 이 회의에서 '시진핑 당건설 사상'을 처음 공식 제기하며 이를 '14개 견지(十四個堅持)'로 규정해 전당에 하달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방 간부들에게 지난 임기의 공과 과, 그중에서도 GDP를 명목으로 막대한 지방 부채를 남긴 공공 공사 등을 스스로 보고서로 써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것을 업무 보고가 아니라 고위 관료들의 '중간고사'로, 숙청과 승진을 위한 사상 검증으로 읽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는 전국의 지방 간부들에게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겼습니다. '14개 견지(十四個堅持)'라는 잣대였습니다. 시진핑 당건설 사상의 핵심을 열네 개 항목으로 정리한 이 기준은, 앞으로 누가 살아남고 누가 도태될지를 가르는 자가 됩니다. 간부들은 이

잣대에 자신을 비취 스스로 점수를 매겨야 했습니다. 사상 검증과 인사 평가가 한 몸으로 합쳐진 것입니다.

여기서 한 비교가 떠오릅니다. 시진핑 1기의 반부패 칼잡이였던 왕치산(王岐山)에게는 죄를 묻는 처벌의 권력만 있었습니다. 부패 관료를 잡아들이는 칼이었지만, 그 칼은 베기만 했습니다. 차이치는 다릅니다. 죄를 묻는 것에 더해 사람을 새로 꽃아 넣는 승진의 권력까지 쥐었습니다. 베는 칼과 심는 손을 함께 가진 것입니다. 그 권세가 당대의 왕치산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동시에 그는 서열 2위 리창을 견제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측근들끼리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모든 권력이 오직 1인에게 수렴되도록 하는 구도, 그 안에서 차이치는 칼이면서 동시에 저울추입니다.

2027년의 차이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시점에 그의 나이 72세. 덩샤오핑이 세운 은퇴 규정대로라면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7상8하의 룰을 시진핑 스스로 부렸으니 나이는 절대적 근거가 못 됩니다. 그가 만든 잣대가 그를 베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진핑이 4연임을 밀어붙이며 내부 통제를 더 조여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차이치는 72세에도 유임될 수 있습니다. 인사를 검증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검증의 칼날 밖에 둔다는 것, 그것이 권력의 묘한 이치입니다. 과도기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2인자로 시진핑의 철권통치를 곁에서 떠받치는 것, 그것이 차이치에게 열려 있는 한쪽 길입니다. 그는 지금 21차 당대회를 위한 전면 인사 스크리닝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부터 세 개 조로 나뉜 45개의 고찰조(考察組)가 31개 성급 행정구와 124개 중앙·국가 기관에 파견되어 차기 고위층을 고강도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비서실장이 전국의 성과 부처를 훑어 누가 다음 지도부에 들어갈지를 가리는 작업입니다. 그 잣대가 바로 그가 만든 '14개 견지'입니다. 일부 언론은 조소 섞인 비유로, 이 과정이 차기 지도부를 뽑는 일이 아니라 언제 숙청될지 모르는 '신임 감옥 VIP 회원'을 고르는 일과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일과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붙어 있다는 냉소입니다. 차이치가 인사를 검증하는 그 시기에, 다른 한쪽에서는 군부 2인자 장유샤가 입건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새 사람을 고르고, 다른 쪽에서는 옛 사람을 베어냅니다. 두 작업은 한 흐름입니다. 옛 권력을 베어낸 자리에 새 충성을 심는 일, 그 거대한 물갈이의 한가운데에 차이치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칼이 너무 날카로우면 칼자루를 쥐 손도 베입니다. 차이치가 앞장서 군부 장성을 연행하고 문관에게 사상 검증을 들이댈수록, 중국 관료 사회는 공포와 무기력에

빠져듭니다. 군부 안에서도 '누가 다음 차례인가'라는 두려움 속에서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납작 엎드립니다. 책임지는 일을 피하고, 눈에 띄지 않으려 몸을 낮추고, 시키는 것만 합니다. 결정을 내렸다가 나중에 그 결정이 죄목이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9천만 당원이 한 사람에게 절대복종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복종의 속은 비어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한 복종이지, 마음에서 우러난 충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충성이 빠져나간 자리에 자리 보전의 계산만 남는 현상, 이것을 '충성의 공동화(空洞化)'라 부릅니다. 속이 빈 충성입니다. 차이치의 채찍이 강해질수록 겉의 복종은 두꺼워지고 속의 충성은 얇아집니다. 차이치의 2027년은 두 갈래입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인적 쇄신으로 시진핑의 영구 집권을 완성하는 2인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과도한 공포 정치가 임계점을 넘어 체제 내부 폭발을 앞당기는 뇌관이 될 것인가.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그가 서 있습니다.

3. 왕후닝: 세 황제를 섬긴 국사

서열 4위, 왕후닝입니다. 앞의 두 사람이 봉쇄와 인사로 손을 더럽힌 실무자였다면, 이 사람은 손이 아니라 머리로 권력에 닿았습니다. 무대 위 일곱 명 가운데 좀처럼 보기 드문 유형입니다. 행정 경력 없이, 오직 사상으로 권력의 정점에 닿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무위원 일곱 사람을 한 줄로 세워 보면, 한 사람만 결이 다릅니다. 나머지 여섯은 모두 지방의 성이나 직할시에서 당서기나 시장을 지내며 행정과 파벌 투쟁의 사다리를 밟고 올라왔습니다. 누군가는 봉쇄를 지휘했고, 누군가는 사정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모두 손에 권력의 실무를 묻힌 사람들입니다. 왕후닝은 단 한 번도 지방 행정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성을 다스려본 적도, 시민을 상대해본 적도, 부하 관료를 거느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머리뿐이었습니다. 생각만으로, 사상과 이론만으로 권력의 최정점까지 올라온 사람, 그것이 왕후닝입니다.

이런 인물을 가리키는 옛말이 있습니다. 국사(國師), 국가의 스승. 그리고 서양에는 '회색의 실세(Gray Eminenc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군주의 머리를 빌려주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왕후닝은 그 두 별명을 한 몸에 지닌 사람입니다.

왕후닝의 출발은 강의실이었습니다. 권력의 복도가 아니라 칠판 앞이었습니다. 1955년 상하이에서 태어난 그는 상하이사범대학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한 뒤 푸단대학에서 국제정치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그 대학 최연소 정치학 부교수가 되었습니다. 1988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 아이오와 대학과 버클리에서 방문학자로 지낸 뒤, 1991년에 『미국 대 미국(美國反對美國)』을 펴내 미국 사회의 내부 모순과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위험을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만이 중국의 현대화를 효율적으로 이끈다는 신권위주의(新權威主義) 이론을 그는 일찍부터 주창했습니다.

왕후닝이 시진핑과 엮인 방식은 다른 누구와도 다릅니다. 다른 상무위원들은 시진핑 한 사람과 엮였습니다. 왕후닝은 세 사람과 엮였습니다. 그는 시진핑 이전에 이미 두 명의 최고지도자를 섬겼습니다. 황제가 바뀌어도 자리를 지킨 책사, 옛 중국이라면 그런 사람을 두고 했을 법한 말이 그에게 맞춥니다. 장쩌민(江澤民)의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 후진타오(胡錦濤)의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 이 핵심 통치 이념을 모두 그가 직접 기안하고 설계했습니다. 세 지도자의 사상이 모두 한 사람의 펜에서 나온 것입니다. 1995년

중앙정책연구실에 합류해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8년간 그 주임을 지내며, 세 정권을 관통하는 이론의 설계자로 살았습니다. 18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 사이 최고지도자가 두 번 바뀌었고, 권력의 풍향이 여러 번 돌았습니다. 보통의 참모라면 한 지도자와 운명을 같이하다 그 지도자가 물러날 때 함께 사라졌을 것입니다. 왕후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새 지도자가 원하는 사상을 새로 지어 바쳤습니다. 자기 신념을 고집하지 않고 권력이 필요로 하는 논리를 공급하는 것, 그것이 그가 18년을 버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시대가 오자 간판 이데올로기인 '중국몽(中國夢)'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그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시진핑이 집단지도체제를 무너뜨리고 집중통일영도(集中統一領導)를 세우려면, 서구 민주주의에 맞서 1인 통치를 정당화할 이론적 무기가 절실했습니다. 왕후닝의 신권위주의가 그 빈자리에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가 받은 보상의 크기는 2022년의 피바람 속에서 더없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해 20차 당대회에서 67세였던 경쟁 파벌 공청단의 리커창과 왕양이 상무위에서 탈락하고, 후춘화가 정치국에서마저 쫓겨났습니다. 같은 67세의 왕후닝은 그 한복판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이로만 보면 그도 함께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서열 4위 상무위원으로 유임되었습니다.

여기에 왕후닝이라는 인물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는 행정 기반도, 지방 세력도, 군부 연줄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상무위원들이 가진 무기를 그는 하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그것이 약점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체제에서는 그 약점이 더없이 큰 자산이 됩니다. 세력이 없으니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위협이 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곁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장기 집권을 정당화할 사상을 끝없이 공급하는 뇌를 가졌습니다. 위협하지 않으면서 쓸모는 있는 사람, 시진핑에게 이보다 편한 동반자는 없었습니다. 당내 이론 참모 출신으로 권력의 최정점에 오른 유일한 예외, 그것이 왕후닝입니다.

한 가지 짚어둘 대목이 있습니다. 왕후닝은 미국을 직접 보고 와서 미국을 비판한 사람입니다. 1988년부터 1년 동안 아이오와 대학과 버클리에서 방문학자로 지내며, 그는 미국의 거리와 대학과 가정을 가까이서 관찰했습니다. 적을 미워하기는 쉽지만, 적을 정확히 아는 일은 어렵습니다. 왕후닝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가 펴낸 『미국 대 미국』은, 풍요로운 미국 사회의 표면 아래 자유주의가 키운 분열과 무질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강한 중심이 없으면 사회가 흩어진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진단이 훗날 시진핑의 권력 집중을 정당화하는 사상의 뼈대가 됩니다. 적을 직접 관찰한 뒤 그 관찰에서 자기 체제의 논리를 끌어낸 셈입니다.

2026년의 그는 서열 4위 상무위원이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CPPCC) 주석으로서 통일전선 공작, 대만 정책, 이데올로기 선전을 총괄합니다. 그의 대만 정책 행보에는 치밀한 진화가 보입니다. 2024년 초만 해도 대만 독립 세력과 '싸워야 한다'며 강경했던 그는, 2025년 10월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평화적 '재통일'이 최선이라며 유화적 제스처로 돌아섰습니다. 2026년 2월에는 대만의 친중 야당 국민당 인사들과 회담했고, 4월에는 야당 지도자 정리원(鄭麗文)을 만나 "평화는 공통의 소망"이라 강조했습니다. 강경한 검을 잠시 내려놓고 손을 내미는 듯한 이 전환은, 대만 선거와 지정학 변화를 읽은 계산된 진화로 풀이됩니다. 통일이라는 목표는 그대로 둔 채 방법만 바꾼 것입니다.

그의 손이 닿는 곳은 대만만이 아닙니다. 2025년 1월 정협 회의에서 민간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돕겠다고 약속했고, 한 달 뒤인 2월에는 시진핑과 함께 알리바바의 마윈, 화웨이의 런정페이, 텐센트의 마화팅, 비야디의 왕찬푸, CATL의 썩위췌 같은 빅테크 거물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심포지엄을 주재했습니다. 한때 당의 통제 앞에 움츠러들었던 민간 거물들을 다시 불러 다독이는 자리였습니다. 다독이되 고삐는 놓지 않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소집해 모든 종교 활동이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외교 무대에도 그의 발길이 닿습니다. 2024년 3월 베이징을 찾은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과 면담했고, 2025년 12월에는 라오스를 방문하고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경제든 종교든 대만이든 외교든, 그가 쥔 끈의 끝은 결국 같은 곳, 당의 우위라는 한 점으로 모입니다. 그는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생각의 틀을 짭니다. 그것이 무대 뒤 회색 그림자의 일입니다.

2027년 21차 당대회 시점에 왕후닝은 72세가 됩니다. 7상8하의 기계적 잣대를 들이대면 물러날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 잣대는 이미 2022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시진핑 본인이 69세에 3연임했고, 72세의 장유샤(張又俠)를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유임시켰으며, 69세의 왕이(王毅)를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시켰습니다. 한쪽에서는 67세에 물러나야 했고, 다른 쪽에서는 72세에 유임되었습니다. 같은 잣대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 것입니다. 파벌 간 합의의 관례가 깨진 지금, 누가 물러나고 누가 남는지를 정하는 유일한 변수는 제도가 아니라 시진핑의 정치적 필요뿐입니다. 나이는 변수가 아닙니다. 시진핑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느냐, 그것만이 변수입니다. 시진핑이 4연임을 강행하고 2035년 현대화 목표를 향한 동력을 쥐어짜려면, 그것을 합리화할 정교한 새 이데올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왕후닝은 도전할 파벌도, 위협할 기반도 없는 완벽하게 안전한 인물입니다. 4연임이라는 전례 없는 일을 정당화하려면, 그것을 떠받칠 정교한 사상의 논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논리를 짤 수 있는 사람은 왕후닝 한 명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둘 중 하나로 모입니다. 형식적으로 상무위에서 물러나 국가부주석 같은 상징적 자리로 옮겨 막후에서 조언을 잇거나, 체제 단결을 위한 사상 통제가 더 절실해진 시진핑의 부름을 받아 72세에도 상무위에 한 번 더 유임되며 '최후의 사상적 방패'로 남거나. 어느 쪽이든 그는 후계자가 보이지 않는 1인 독재의 블랙박스를 설계한 무대 뒤의 회색 그림자로 남습니다. 세 황제를 섬긴 책사는, 네 번째 임기를 떠받칠 사상까지 마련하고서야 무대를 떠날 것입니다. 그의 지적 유산은 시진핑 체제의 마지막 순간까지 중국 통치 이데올로기의 중심축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4. 덩쉐샹: 시진핑의 그림자

서열 6위, 덩쉐샹입니다. 일곱 명 중 막내이자, 보통의 정치 문법이라면 다음 시대를 이끌 후보로 꼽혔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길이 닫혀 있습니다. 왜 닫혔는지가 이 절의 핵심입니다.

중국에서 손꼽히게 충실한 수행원을 꼽으라면 한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어디를 가든, 국내든 해외든, 한 걸음 뒤에 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시진핑의 그림자'라 불렀습니다. 덩쉐샹입니다.

그림자라는 별명에는 두 겹의 뜻이 있습니다. 늘 곁에 붙어 있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림자는 본체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본체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본체가 멈추면 멈추고, 본체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입니다. 이 별명이 덩쉐샹의 생존법이자 한계를 함께 가리킵니다. 그림자로 사는 한 안전하지만, 그림자는 결코 본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묘한 사실이 있습니다. 덩쉐샹과 시진핑이 함께 일한 기간은 1년이 채 안 됩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그림자치고는 본체와 함께한 시간이 짧습니다.

1962년 장쑤성 난통(南通)에서 태어난 덩쉐샹은 줄곧 상하이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가 시진핑과 엮인 것은 2007년의 짧은 조우에서였습니다. 그해 시진핑이 상하이 당서기로 부임했는데, 머문 기간은 채 1년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평생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덩쉐샹은 상하이시 당위원회 판공청 주임이었다가 비서장으로 승진해 시진핑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습니다. 일정, 의전, 문서, 일상의 모든 실무를 도맡으며 시진핑의 눈과 귀와 손발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사람의 신뢰를 얻는 일은 긴 시간에 얻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덩쉐샹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1년 만에 시진핑은 그를 평생 곁에 둘 사람으로 점찍었습니다.

보상은 초고속이었습니다. 상하이시 정법위 서기를 거쳐 중앙으로 호출된 그는, 중앙판공청 부주임과 상무부주임을 지냈습니다. 2018년부터는 당의 모든 행정과 기밀을 통제하는 중앙판공청 주임이 되었습니다. 당 중앙의 모든 문서가 그의 책상을 거쳤습니다. 시진핑에게 올라가는 보고와 시진핑에게서 내려오는 지시가 모두 그의 손을 지나갔습니다. 그림자가 본체의 모든 정보를 진 셈입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그는 시자진으로만 채워진 상무위원회에 서열 6위로 입성했고, 국무원 상무부총리 자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입성한 그 자리는 누군가가 비워준 자리였습니다. 후춘화가 정치국에서 쫓겨나고, 공청단 세력이 통째로 잘려 나간 그 빈터 위에 시자진이 들어섰습니다. 덩쉐샹의 입성은 피바람의 반대편 그림입니다. 누군가의 몰락이 곧 다른 누군가의 승진이었습니다. 그는 새로 뽑힌 일곱 상무위원 가운데 유일한 1960년대생, 이른바 '60후'였습니다. 일곱 사람 중 어린 나이에 권력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뒤에서 다시 무겁게 다가옵니다. 어린 사람이라는 것이, 보통의 정치 문법에서는 후계자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그는 자신이 일했던 산시성, 푸젠성, 저장성, 상하이 출신 인물들로 거대한 인적 그물을 짰습니다. 18기에서 19기, 20기로 갈수록 이 측근 그룹의 진입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상하이 시절에 맺은 핵심 인물로는 한정, 양샤오두(楊曉渡), 그리고 덩쉐샹이 있었습니다. 한정과 양샤오두는 고령으로 중심에서 물러났습니다. 1962년생인 덩쉐샹만이 젊은 나이 덕에 20기 최고지도부에 살아남았습니다. 상하이 인맥의 마지막 상징이 그였습니다. 그의 생존법은 단 하나, 1인자에 대한 완벽한 밀착과 복종이었습니다.

2026년의 덩쉐샹은 집중통일영도 체제의 실무 집행관입니다. 시진핑 3기의 국가 대전략은 '발전'과 '안전(국가 안보)'을 두 축으로 삼습니다. 미중 경쟁이 격해지고 공급망이 갈라지는 '백년대변국'의 상황에서, 발전만으로는 안 되고 안전이 함께 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덩쉐샹은 그중 '경제 안전'과 '고질량 발전'의 임무를 최일선에서 맡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제4회 중국국제공급망엑스포(中國國際供應鏈博覽會) 개막식 기조연설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국제 사회와 글로벌 기업을 향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수출을 틀어막는 압박 앞에서, 중국의 독자 산업망을 지키고 국제 협력을 끌어내는 일이 그의 전선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부쩍 늘어난 핵심어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마흔네 번, '안전'이 아흔한 번 등장했습니다. 한 정권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는, 그들이 거둬 입에 올리는 단어에 드러납니다. 안전을 아흔한 번 말하는 정권은, 그만큼 불안한 정권이기도 합니다. 덩쉐샹은 그 기조에 맞춰 2035년 현대화 강국 목표를 향한 기술 자립자강 정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의 문을 닫을수록, 중국은 스스로 그 문을 열 기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막막한 과제의 행정 실무가 그림자의 몫입니다. 빛나는 자리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2027년의 덩쉐샹은 중국 권력 지형의 기이한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그는 상무위원 일곱 중 유일한 1960년대생이고, 2027년이면 65세가 됩니다. 다른 여섯은 모두 195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한 세대 어린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보통의 정치라면 의미가 분명합니다. 윗세대가 물러난 뒤 다음 시대를 이끌 사람, 그것이 막내의 자리입니다. 정상적인 권력 교체의 문법이였다면 나이와 서열상 유력한 차기 후계자로 지목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가 시진핑을 승계할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봅니다. 까닭은 역설적입니다. 20차 당대회에서 시자진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 자체가 '후계 구도의 소멸'을 전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덩샤오핑이 세운 격대지정(隔代指定), 한 세대를 건너뛰어 차기 후계자를 미리 지명하던 관행은 후춘화의 몰락과 함께 이미 부서졌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20기 정치국 위원 24명의 나이 분포에 있습니다. 시진핑의 10년 집권 연장을 가정할 때, 포스트 시진핑 후계자가 되려면 정치국에 57세 이하의 차세대 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4명 중 57세 이하는 한 명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후계자를 키울 의지가 전혀 없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덩쉐샹의 기이한 처지가 있습니다. 자격이 더없이 충분한 사람이 후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알맞고, 서열도 높고, 경력도 갖췄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오르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후계자가 될 자격을 갖춘 것과 후계자가 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시진핑이 후계자를 둘 생각이 없는 한, 자격은 자격으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덩쉐샹의 전망은 '최고 권력자로의 비상'이 아니라 시진핑의 의지에 종속된 생존입니다. 65세인 그는 67세 유임 기준을 적용해도 충분히 상무위에 남을 수 있습니다. 독자적 파벌도 군부 장악력도 없어 시진핑의 권위를 위협할 일이 없는, 완벽하게 안전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텅 빈 블랙박스 속에서 시진핑의 4연임을 보위하며 경제와 사회 통제 실무를 묵묵히 집행하는 영원한 그림자. 그것이 그에게 남은 자리일 공산이 큼니다. 일곱 사람 중 어린 사람이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체제, 이 한 문장이 시진핑 권력의 본질을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5. 자오러지와 리시: 사정의 칼을 쥐는 두 사람

서열 3위와 7위, 자오러지와 리시입니다. 두 사람을 한자리에 묶는 까닭이 있습니다. 둘 다 사정의 칼을 쥐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 칼이 건너간 과정을 따라가면, 시진핑 체제의 폭력이 어떻게 진화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중국공산당에서 '반부패 사정(反腐)'은 공직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집단지도체제가 해체되고 권력이 시진핑 한 사람에게 수렴되는 과정에서, 사정 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紀律檢查委員會·CCDI)는 최고지도자의 정적을 제거하고 충성을 강제하는 더없이 예리한 무기였습니다. 이 칼자루를 차례로 쥐고 시진핑 체제 2기와 3기의 권력 지형을 설계한 두 사람이 자오러지와 리시입니다. 같은 칼이지만, 두 사람의 칼끝이 향한 방향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길은 묘하게 닮았으면서도 갈라집니다. 자오러지는 칼을 쥐고 권력의 정점까지 갔다가 의사봉을 들고 무대 뒤로 향하는 중입니다. 리시는 그 칼을 건네받아 더없이 험한 시기에 휘두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칼을 내려놓는 중이고, 한 사람은 칼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보면, 사정이라는 무기가 시진핑 체제에서 어떻게 진화했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자오러지는 1957년 산시성(陝西省) 시안(西安)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와 시진핑을 묶은 것은 산시성이라는 땅입니다. 산시는 시진핑의 부친이자 혁명 원로인 시중쉰(習仲勳)의 근거지였습니다. 시진핑에게 산시는 정치적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자오러지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산시성 당서기로 그곳을 장악하면서, 산시 출신이거나 그곳에서 경력을 쌓은 간부들을 대거 요직에 심었습니다. 이른바 '산시방(陝西幫)'입니다. 이렇게 쌓아 올린 인적 네트워크가 훗날 시진핑이 권력을 잡을 때 든든한 친위 세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오러지가 시진핑에게 바친 것은 충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바쳤습니다. 자기가 키운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째로 시진핑의 자산으로 넘긴 것입니다.

그가 받은 보상은 인사권과 사정권이었습니다. 2012년 당의 모든 인사권을 쥐 중앙조직부장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실무자처럼 보였지만, 그는 5년 동안 후진타오의 공청단과 장쩌민의 상하이방 인사를 체계적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시자전을 꽃았습니다. 시진핑이 1기를 마칠 무렵, 권력의 인적 구성은 이미 시진핑

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 밑그림을 그린 손이 자오러지였습니다. 그 공로로 2017년 상무위에 입성하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로 칼자루를 직접 쥐었고, 2022년에도 살아남아 서열 3위로 유임된 뒤 2023년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전인대) 상무위원장이라는 입법부 수장 자리까지 차지했습니다. 인사로 권력을 만든 사람이, 사정으로 그 권력을 지키고, 마침내 입법으로 그것을 포장하는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2026년의 자오러지는 칼을 내려놓고 의사봉을 든 자리에서 묘한 무기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양회 폐막식 같은 주요 행사에 질병을 이유로 불참했다가 며칠 뒤 복귀하며, 그의 신변을 둘러싼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그보다 무거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전격 숙청된 사태 속에서, 그가 이끄는 전인대는 기묘한 기능 마비에 빠졌습니다. 분석가들 사이에 도는 첩보에 따르면, 장유샤가 연금된 뒤 자오러지는 그의 전인대 대표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열고, 또 열어도, 한 사람의 대표 자격 하나를 박탈하는 절차가 매듭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고 사정 권력을 휘두르며 산전수전을 겪은 서열 3위조차 단번에 처리하지 못할 만큼, 군부 내부에 깔린 반발과 저항이 거셌다는 뜻입니다. 종이 위의 절차는 1인 체제를 떠받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는 체제의 적법성을 포장해야 하는 그가, 체제에 닥친 거대한 내부 분열 앞에서 관료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 장면은 다음 장에서 다룰 군부 붕괴의 한 자락이기도 합니다. 사정의 칼을 쥐었던 사람조차 칼을 휘두르지 못하는 곳, 거기서 1인 체제의 균열이 처음 드러납니다.

2027년 21차 당대회 시점에 자오러지는 70세가 됩니다. 18차 당대회부터 세 번 연속 정치국에 머물렀고 상무위원만 두 차례 지냈습니다. 2022년에 7상8하가 깨졌으나, 그것은 시진핑의 장기 집권과 군부 장악을 위한 예외적 조치였을 뿐입니다. 자오러지를 위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2027년 자오러지가 예외 없이 완전한 은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봅니다.

도구는 쓰임이 다하면 내려놓습니다. 자오러지는 시진핑의 1기 인사 장악과 2기 부패 척결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훌륭히 해냈습니다. 경쟁 파벌을 도려내고 시자진을 심는 험한 일을 그가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독자적 군부 기반도, 사상적 지분도 없었습니다.

임무가 끝나면 남는 것이 없는 철저한 도구적 권력이었습니다. 4연임이라는 도박을 위해 새 총성파로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할 2027년, 이미 효용이 다한 70세의 자오러지는 시진핑의 안전한 배려 속에서 명예롭게 무대 뒤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을 잘 썼던 사람이 그 칼과 함께 조용히 내려놓이는 것, 그것이 용도를 다한 칼의 퇴장입니다.

그 칼을 건네받은 사람이 리시입니다. 1956년 간쑤성(甘肅省) 량당(兩當)에서 태어난 그는 시자쥘 안에서 독특한 기원을 지닙니다. 리창이나 차이치는 저장과 푸젠에서 시진핑과 직접 함께 일한 부하였습니다. 리시는 다릅니다. 그를 시진핑과 엮은 것은 세대를 건너뛴 인연이었습니다. 그가 관직을 시작할 때 모셨던 간쑤성 당서기 리쯔치(李子奇)는 시진핑의 친부이자 혁명 원로인 시중쉰의 오랜 전우이자 절친한 동료였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우정이 아들 세대의 신뢰로 이어진 것입니다. 시진핑은 직접 겪어보지 않은 리시를 '믿을 수 있는 집안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함께 일한 적 없어도 핏줄에 가까운 신뢰. 이 독특한 연원이 리시에게 무한한 정치적 신임을 부여했습니다.

그에게 하사된 치명적인 보상은 모든 고위 간부와 군 장성의 비리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자리였습니다. 그 전에 그는 2015년 랴오닝성 당서기로 실력을 검증받았고, 2017년에는 중국 경제의 심장인 광둥성 당서기로 영전해 5년간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지방의 큰 살림을 맡아본 뒤, 2022년 서열 7위 상무위원으로 입성하면서 그는 사람의 생사여탈을 진 칼을 넘겨받았습니다. 경제를 다루던 손이 사람을 베는 손으로 바뀐 것입니다.

2026년의 리시는 더없이 피 비린내 나는 대숙청을 일선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패 척결이라는 이름은 깨끗합니다.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명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 아래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다릅니다. 그가 진 칼끝은 부패 척결의 외피를 썼지만, 실제로는 항명과 파벌 형성을 진압하는 정치적 처형 도구로 작동합니다. 누가 부패했는가 아니라, 누가 충성하지 않는가가 칼의 기준입니다. 2023년부터 이어진 인민해방군 군부 최고위층 연쇄 붕괴가 모두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리상푸(李尚福), 웨이펑허(魏鳳和) 전 국방부장의 사형 유예와 당적 박탈, 2024년 11월 마오화(苗華) 정치공작부 주임의 조사, 2025년 10월 허웨이둥(何衛東) 부주석 등 9명의 군 장성 당적 박탈. 이름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들 대부분이 한때 시진핑이 직접 발탁하고 신임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시진핑의 10년 맹우이자 사실상 군부 2인자인 76세 장유샤 부주석과 류전리(劉振立) 참모장을 '심각한 기율 위반 및 군위주석 책임제

유린' 혐의로 전격 입건시킨 주체가 바로 리시의 사정 라인입니다. 군부 2인자까지 칼끝이 닿은 것입니다.

장유샤 사태로 군 지휘부가 멈춰 선 공백을 틈타, 리시는 군 안쪽으로 더 깊이 칼을 넣었습니다. 서부·북부·중부전구의 이른바 '경골두(硬骨頭)', 다루기 힘든 강경파 부대를 상대로 충성도를 캐묻는 사상 검증과 상호 고발을 압박하는 기율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고위 관료들에게는 '능상능하(能上能下)', 능력 있으면 오르고 없으면 내려간다는 원칙을 적용할 중간고사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명단은 잉크가 아니라 피로 쓰이고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여기서 두 칼끝의 방향이 갈립니다. 같은 사정의 칼인데, 자오러지가 쥐었을 때와 리시가 쥐었을 때 향한 곳이 다릅니다. 자오러지가 쥐었던 1기와 2기의 칼은 바깥을 향했습니다. 공청단과 상하이방이라는 '당내 외부 경쟁 파벌'을 도려내 시진핑의 권력을 1인 체제로 모으는 데 정확히 겨냥져 있었습니다. 적은 분명했고, 칼은 그 적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시자진 1극으로 획일화된 3기에 이르러, 리시가 쥔 칼끝의 방향이 기이하게 역전됩니다. 벨 바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칼은 과거 시진핑의 권좌를 떠받쳤던 군부 100여 명의 장성과, 시진핑 자신이 발탁했던 최측근 맹우들의 목을 향해 떨어집니다. 웨이펑허도, 장유샤도 한때는 시진핑의 사람이었습니다. 외부의 적을 베던 칼이 안으로 돌아서, 어제의 아군을 베는 것입니다. 칼은 멈추는 법을 모릅니다. 벨 것이 없으면 벨 것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왜 칼끝이 안으로 돌아섰을까요. 1기와 2기에는 베어야 할 외부의 적, 공청단과 상하이방이 있었습니다. 그 적들이 다 잘려 나가고 권력이 시자진 하나로만 채워진 3기에 이르자, 더 이상 벨 바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모든 견제를 지우고 권력 교체의 규칙마저 부숴버린 사람은, 누가 다음에 자신을 위협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규칙이 있을 때는 규칙이 위협을 막아주지만, 규칙이 사라지면 모든 측근이 잠재적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칼은 안으로 돌아섭니다.

엘리트 정치 학자들은 이것을 '독재자의 딜레마(Dictator's dilemma)'라 부릅니다. 모든 파벌과 견제를 지우고 7상8하나 격대지정 같은 권력 교체의 객관적 룰을 부숴버린 자리에 남은 것은 예측 불가능성뿐입니다. 정해진 후계자도 없고 권력 이양의 규칙도 사라진 텅 빈 블랙박스 속에서, 최고지도자는 측근들마저 끊임없이 의심하고 색출해야만 권좌를 지킬 수

있는 편집증의 굴레에 갇힙니다. 동시에 차이치가 이념과 인사를 통제하고 리시가 사정으로 협박하는 '통제 분업'이 완성되었습니다. 2026년 6월, 차이치가 조장으로 있는 중앙당건설공작영도소조에 리시가 부조장으로 합류한 장면이 그 분업의 결합을 보여줍니다. 이념과 인사를 쥐 손과 처벌을 쥐 손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2027년의 리시는 어두운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그 시점에 71세, 7상8하를 들이대면 은퇴 1순위입니다. 그러나 나이보다 무서운 것은 그가 쌓은 원한입니다. 칼을 휘두른 사람은 베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가 숙청한 군 장성과 고위 관료의 수가 많을수록, 그를 향한 원한도 그만큼 쌓입니다. 그의 초강경 사정은 당과 군 내부에 극도의 불신을 낳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버티는 '정치적 탕핑(躺平)'이 번졌고, 속이 빈 충성의 공동화가 깊어졌습니다.

처형인은 자기가 휘두른 칼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 칼이 향할 곳이 없어지는 날, 칼은 처형인 자신을 향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7년 무리한 숙청의 부작용으로 군부의 반란이나 통제 불능 사태가 터진다면, 시진핑은 분노한 기득권을 달랠 희생양이 필요해집니다. 그때 던져질 더없이 완벽한 '정치적 속죄양(scapegoat)'이 바로 리시입니다. 모든 사정을 집행한 사람이니, 모든 원한을 한 몸에 짊어지고 사라지면 됩니다. 명령을 내린 사람은 남고, 명령을 집행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면, 그것은 권력의 오래된 방식입니다.

반대의 길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 공포 정치를 딛고 4연임을 무사히 완성한다면, 리시는 속죄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끝은 비슷합니다. 너무 많은 원한을 산 71세의 사정 책임자를, 시진핑은 나이를 명분 삼아 후배 세대에게 칼을 넘기게 하고 조용히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한자에 토사구팽(兔死狗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는다는 뜻입니다. 사냥이 끝난 개의 운명이 리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오러지와 리시, 두 사람의 손에 들렸던 사정의 칼은 국가의 부패를 도려내는 정화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후계자가 사라진 2027년의 텅 빈 권좌를 향해, 시진핑이라는 1인의 극단적 공포를 달래기 위해 자기 살을 깎아 먹으며 휘두르는 자기 파괴적 방패. 그것이 그 칼의 정체입니다.

6. 보론. 한정: 무대 밖으로 밀려난 상하이방의 마지막 잔영

지금까지 무대 위에 오른 여섯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제 무대 밖으로 밀려난 한 사람을 봅시다. 들어온 사람만큼 밀려난 사람을 보지 않고는, 이 권력의 문법이 온전히 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정의 자리는 독특합니다. 그는 상무위원이 아닙니다. 권력 서열 8위, 상무위 일곱 명의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빼고는 이 장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앞의 여섯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았다면, 한정은 같은 룰이 어떻게 사람을 밀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들어오는 일과 밀려나는 일은 한 룰의 앞뒤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보론으로, 그러나 가볍지 않게 다룹니다.

2022년 10월의 그 무대, 일곱 사람이 줄지어 걸어 나오던 그 자리에 한정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는 직전까지 국무원 수석 부총리였습니다. 1954년생인 그는 당대회 시점에 정확히 68세였고, '68세 은퇴'의 룰이 그에게는 가차 없이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룰을 시진핑은 자신과 자기 사람들에게는 부수고, 효용이 다한 측근에게는 휘둘렀습니다. 한정은 리커창, 왕양, 리잔수(栗戰書)와 함께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서마저 제외되며 당의 실권 기구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직전까지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수석 부총리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당 중앙의 명단에서 이름이 지워진 것입니다. 그가 밀려난 빈자리에 시진핑의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들어온 일곱과 밀려난 이들은 같은 무대의 양면이었습니다.

한정은 누구였을까요. 그의 출발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문화대혁명 후반기에 상하이의 한 창고에서 평범한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한 그는, 화학 장비 회사와 고무 신발 공장을 거치며 행정과 당 직책을 차근차근 밟았습니다. 화동사범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수석 경제학자' 타이틀을 단 엘리트 관료가 되었지만, 그 바탕에는 바닥에서 시작한 실무의 시간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장쩌민 시대부터 중국 정치를 호령했던 '상하이방(上海幫)'의 핵심이었습니다. 1954년 상하이에서 태어나 2017년 이전까지 단 한번도 상하이를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서만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 시절 그는 훗날 상무위원에 오르는 다섯 명의 후원자, 황취(黃菊), 우방귀(吳邦國), 주룽지(朱鎔基), 쩡칭홍(曾慶紅), 위정성(俞正聲)을 멘토로 만났습니다. 장쩌민과 쩡칭홍이 이끄는 거대 파벌, 상하이방의 적자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한정의 생존술에는 파벌에만 맹목적으로 매이지 않는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2006년 상하이 당서기 천량위가 거대한 부패 스캔들로 무너졌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량위는 상하이방의 핵심이었습니다. 자기 파벌의 수장이 쓰러지는 그 순간, 한정은 파벌을 따라 함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최고지도자였던 후진타오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파벌에 속하되 파벌과 함께 가라앉지는 않는 감각, 그것이 그의 생존술이었습니다.

그의 운명을 뒤바꾼 결정적 조우가 2007년에 찾아왔습니다. 천량위 스캔들로 어수선했던 상하이의 당서기로, 시진핑이 잠시 부임한 것입니다. 시진핑은 곧 베이징의 상무위원으로 올라가 차기 후계자로 지명되기 직전이었으니, 상하이에 머문 기간은 1년이 채 못 되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한정은 시장이자 부서기로서 시진핑을 밀착 보좌하며 끈끈한 관계를 쌓았습니다. 리창이 저장에서, 덩쉐샹이 같은 상하이에서 시진핑과 엮인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짧은 동거, 긴 인연. 이 만남이 훗날 한정이 베이징 최고 권력층으로 진입하는 결정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상하이의 노련한 경제 테크노크라트였던 그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해외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마주 앉을 수 있는 중국 관료, 그것이 한정의 얼굴이었습니다. 2012년 상하이 당서기와 정치국 위원이 되었고, 2017년 서열 7위로 상무위에 입성한 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수석 부총리를 지냈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정책 집행을 조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정점에 오르기까지의 길도 짙어줄 만합니다. 한정의 멘토들, 황쥐와 우방귀와 주룽지는 모두 상하이를 발판으로 권력의 중심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한정은 그 계보의 막내였습니다. 뒷세대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 차근차근 올라온 적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시진핑 시대에 살아남은 것은, 파벌의 힘이 아니라 파벌을 넘어서는 처신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자리 가운데 하나가 그의 충성심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2018년부터 그는 홍콩·마카오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영도소조 조장을 맡았습니다. 시장 친화적이라던 그가 마주한 일은 시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터지자, 한정은 본토에 위기 센터를 세우고 강경 진압 라인을 조율했습니다. 이어진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과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그는 "전복에 맞선 전쟁"이라 규정했습니다. 부드러운 경제 관료의 얼굴 뒤에서, 그는 시진핑의 의지를 철저히 집행하는 손이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했음에도, 권력의 정점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그는 상무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같은 룰이 한 사람에게는 면죄부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가 되는 자리에서, 한정은 후자였습니다. 그러나 한정의 쓰임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그는 제11대 국가부주석(國家副主席)으로 임명되며 권력 서열 8위로 복귀했습니다. 국가부주석은 실질적 정책 권력이 없는 상징적 명예직입니다. 다만 자격을 갖춘 노련한 관료에게 어울리는 자리였습니다.

2026년의 한정은 전 세계를 누비는 1인 체제의 외교적 얼굴입니다. 실권은 없지만 의전과 상징은 풍부한 자리, 국가부주석은 그런 일에 어울립니다. 2023년 5월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에 중국을 대표해 참석했고, 같은 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서방의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설파하며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별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2024년 5월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 자리에 함께해 러중 간의 유대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외교 행보 가운데 굵직한 장면은 2025년 1월 20일에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그 자리에 시진핑을 대신할 특별 대표 자격으로 파견된 인물이 바로 한정이었습니다. 상무위에서 밀려난 사람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중국 최고지도자의 분신으로 선 것입니다. AP통신은 그를 시진핑의 핵심 인사 중 으뜸가는 '신뢰받는 조연자'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 등과 만나, 날 선 관세 전쟁의 예고 속에서도 미중 관계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2026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푸틴과 회담하며 중국과 유라시아의 지역 발전을 논의했고, 차기 유엔 사무총장 유력 후보인 미첼 바첼레트와도 면담했습니다. 런던의 대관식, 뉴욕의 유엔, 워싱턴의 취임식,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포럼. 한정의 발길이 닿는 곳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실권 없는 명예직이라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그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세계와 마주하는 자리마다 시진핑의 얼굴을 대신해 앉았습니다. 권력은 베이징에 남고, 얼굴만 세계로 나간 것입니다.

여기에 한정이라는 인물의 역설이 있습니다. 상무위에서 밀려난 그가 어떻게 여전히 손꼽히는 외교 특사로 쓰일 수 있을까요. 답은 그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의심을 삽니다. 권력을 잃은 사람은 의심에서 벗어납니다. 한정은 상무위 밖으로 밀려나면서 실권과 함께 의심도 벗어버렸습니다. 독자적인 정치 파벌도 군사적

기반도 없으니, 시진핑 체제에 단 1퍼센트의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위협이 없으니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런던으로, 유엔으로, 워싱턴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 시진핑은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의 풍부한 경제 행정 경험과 세련된 매너가 서방과 글로벌 투자자에게 일말의 안정감을 줍니다. 강경한 1인 체제의 얼굴치고는 부드럽고 합리적인 얼굴, 그것이 대외용 간판으로 쓸모가 있습니다. 권력을 빼앗긴 대가로 안전을 얻고, 그 안전 덕에 다시 쓰임을 얻는 구조입니다. 실권을 가진 자는 의심받아 갇히고, 실권을 잃은 자는 안전하여 세계를 누빉니다. 시진핑 체제의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정의 이 역설이 거꾸로 비춰 보여줍니다.

2027년 21차 당대회 시점에 한정은 73세가 됩니다. 그는 이미 2022년에 당의 핵심 권력 기구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으므로, 차기 후계 구도나 권력 암투의 중심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른 상무위원들의 2027년에는 유임이나 은퇴냐의 긴장이 남아 있지만, 한정에게는 그런 긴장조차 없습니다. 그는 이미 권력의 본진에서 나왔고, 남은 것은 외교 무대의 임기를 채우는 일뿐입니다. 그가 막강한 상무위원에서 밀려나 실권 없는 부주석직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집단지도체제가 시진핑 1인 지배로 완벽히 이행했음을 증명합니다. 장쩌민계 상하이방은 이제 정치 세력으로서의 생명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2027년 21차 당대회를 거쳐 2028년 봄 제15기 전인대로 정부 인사가 마무리될 무렵, 한정은 5년 임기의 국가부주석직을 끝으로 조용히 정계에서 완전히 물러날 것입니다.

그의 퇴장은 한 노련한 관료의 은퇴를 넘어섭니다. 한때 중국 정치에는 여러 파벌이 있었습니다. 장쩌민과 쑹칭훙의 상하이방, 후진타오와 리커창의 공청단, 그리고 시진핑의 시자진. 이 파벌들이 서로 밀고 당기며 권력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 균형 속에서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독주하려 하면 다른 파벌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정의 상하이방은 그 균형을 한 축이었습니다.

이제 그 축이 사라집니다. 공청단은 2022년에 잘려 나갔고, 상하이방은 한정의 은퇴와 함께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장쩌민 시대부터 30년 가까이 중국 엘리트 정치의 거대한 축을 담당했던 파벌이, 권력의 무대에서 영구히 증발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오직 시진핑 한 사람의 그림자만 드리운 텅 빈 무대입니다. 제동을 걸 손이 없는 무대, 균형을 잡아줄 무게추가 사라진 무대. 한정의 마지막 인사는 그 무대 위로 내려지는 막의 일부입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더 이상 누구도 시진핑에게 아니라고 말할 파벌이 남지 않습니다.

여섯 사람의 자리를 한 줄로 다시 세워 봅니다. 부총리를 건너뛴 총리, 헬리콥터를 타고 오른 칼, 세 황제를 섬긴 국사, 시진핑의 그림자, 그리고 안으로 칼끝을 돌린 두 명의 사정관. 거기에 무대 밖으로 밀려난 상하이방의 마지막 잔영까지. 별명은 제각각이지만, 같은 네 가지 질문을 통과시키고 나면 생존법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독자적인 세력을 갖지 않는 것. 한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것. 그래야 살아남는 체제입니다.

이들의 권력은 모두 빌려온 권력입니다. 리창의 총리 자리도, 차이치의 칼도, 왕후닝의 사상도, 덩쉐상의 부총리직도, 자오러지와 리시의 사정권도, 한정의 외교 무대도, 모두 시진핑 한 사람에게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빌려준 사람이 거두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 파벌을 키우는 순간 위협으로 분류되고, 위협으로 분류되는 순간 칼끝이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충성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충성 말고는 가진 것이 없는 풍경, 그것이 2026년 상무위의 내부입니다.

네 가지 질문으로 여섯 사람을 꿰고 보니, 답이 거의 같았습니다. 어떻게 엮었나, 시진핑과의 짧은 인연으로. 무엇을 보상받았나, 관례를 깨는 자리로. 지금 무슨 일을 하나, 시진핑의 의지를 집행하는 일을. 2027년 전망은, 시진핑의 필요에 달린 유임이거나 은퇴. 인물은 여섯이지만 답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 닳은꼴 자체가 이 체제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길로 올라오던 시대가 끝나고, 한 가지 길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존법이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로만 최고지도부를 채우면, 그 안에 다음 시대를 이끌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다음 시대를 이끌려면 자기 힘과 자기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위협으로 분류되어 애초에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합니다. 일곱 중 막내인 덩쉐상조차 후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24명의 정치국 위원 가운데 57세 이하의 한 명도 없습니다. 후계의 씨앗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권력을 한곳에 모으려고 모든 경쟁자를 지운 결과, 다음 세대를 이끌 사람까지 함께 지워졌습니다. 견제를 없애려는 노력이 후계를 없애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시진핑이 의도한 일일 수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는 블랙박스 안에 있어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2026년 현재, 중국 권력의 정점에는 다음을 책임질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2022년의 무대 위에서 일곱 사람이 보여준 것은 완성된 권력이 아니라, 스스로 다음 자리를 비워버린 권력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날의 승리가 곧 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 2026년의 군부 숙청을 그토록 위협하게 만듭니다. 정해진 후계자가 있었다면, 장유사를 비롯한 군부가 무너질 때 권력은 다음 사람을 바라보며 안정을 찾았을 것입니다. 후계자가 없으니, 군부의 균열은 곧장 체제 전체의 균열로 번집니다. 그 빈자리는 2027년의 후계 부재를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습니다. 무대 위 여섯 사람의 생존이 곧 무대 전체의 위기였던 셈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그 순간이, 그 누구도 다음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승리와 위기가 한 장면 안에 겹쳐 있었던 셈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무대를 떠난 사람들, 들어온 일곱보다 밀려난 이들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Chapter 2. 권력의 조각들

2026 중국 권력지형도: 상무위원 여섯의 생존법

절대 권력의 무대 위,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고
2027년은 어디로 향하는가



© NotebookLM

제3장 들어온 일곱보다 밀려난 이들

2024년 4월 초, 베이징의 관영 통신사 신화망(新華網)의 편집국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 동안 같은 지역의 같은 풍경이 세 번 연달아 1면급 비중으로 올라왔습니다. 티베트(西藏) 동남부 린즈(林芝)의 복숭아꽃이었습니다. 4월 6일부터 8일까지, 신화망은 린즈의 복사꽃 절경을 연일 대대적으로 실었습니다. 시짱항공(西藏航空)이 띄운 린즈 복사꽃 '사랑의 항공편(愛情航班)'이라는, 국가 대사와는 거리가 먼 관광 상품까지 지면을 채웠습니다.

복숭아꽃이 무슨 정치적 사건일 리는 없습니다. 봄이면 린즈의 계곡은 분홍빛으로 뒤덮이고, 해마다 그 풍경을 찍으러 관광객이 몰립니다. 그러나 중국의 최상위 관영 매체가 사흘을 연달아 한 지방의 꽃 축제에 지면을 내주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린즈는 아무 곳이나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정치적 동지였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스물한 살의 청년이 베이징의 편안한 자리를 마다하고 자원해서 내려갔던 곳, 그가 첫 상관을 만나고 첫 경력을 쌓아 올린 곳. 그 청년의 이름은 후춘화(胡春華)였습니다.

며칠 앞선 4월 4일, 인민정협보는 후춘화가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안후이성(安徽省) 마안산(馬鞍山) 일대를 시찰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주석 한 사람의 지방 시찰이라면 짧은 단신으로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찰에는 국가 정협의 고위 관료 11명과 국무원 주택도농건설부 관리들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격식이 통상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린즈의 복숭아꽃이 사흘을 채웠습니다.

권력의 무대 뒤편으로 완전히 밀려난 줄 알았던 한 사람의 옛 근거지가, 관영 매체의 지면 위에서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배후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해외 분석가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다시 출항(起航)을 준비하고 있다는 은유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입니다. 복숭아꽃은 그저 복숭아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측이 터져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한 가지를 말해 줍니다. 2024년의 중국에서, 한때 차기 1인자로 칭송받다가 권력 밖으로 내동댕이쳐진 한 남자의 이름이,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카드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은 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 장에서 우리는 시진핑(習近平)과 함께 최고 권력의 일곱 자리에 들어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리창(李強), 자오러지(趙樂際), 왕후닝(王滬寧), 차이치(蔡奇), 덩쉐상(丁薛祥), 리시(李希). 그러나 한 체제의 성격은 들어온 사람만으로는 읽히지 않습니다. 누가 밀려났는가, 어떻게 밀려났는가,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섰는가. 거기에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이 장은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들어온 사람과 밀려난 사람을 함께 놓고 보면 한 가지 비대칭이 보입니다. 들어온 일곱은 서로 닮았습니다. 모두 시진핑과 인연이 있고, 모두 그에게 충성하며,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닮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밀려난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춘화는 공청단의 황태자였고, 리커창은 시장을 믿는 학자형 관료였으며, 왕양은 개혁의 상징이었고, 쑨정차이는 또 다른 차세대 기둥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결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밀려났습니다. 닮은 사람만 남기고 다른 사람을 모두 내보낸 것입니다. 한 체제가 자기와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을 때, 권력은 거울처럼 한 사람을 비추는 일만 남습니다. 들어온 일곱을 보면 시진핑이 누구를 곁에 두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밀려난 이들을 보면 그가 무엇을 지우고 싶어 했는지가 보입니다. 후자가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밀려남의 잊히지 않는 장면 하나가 2022년 당대회 폐막식에 있었습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이 시진핑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회의 도중 보좌하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으켜져 회의장 밖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무언가 말을 건네려는 듯 시진핑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옆자리의 리커창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당의 공식 설명은 건강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그 장면에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한 시대를 상징하던 노인이, 그가 길러낸 후계자들이 함께 지워지는 자리에서, 등을 떠밀리듯 무대 밖으로 나가는 모습. 그것이 우연인지 연출인지는 아무도 단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장면은 이 장의 제목을 한 컷의 사진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들어온 일곱이 앞자리를 채우는 동안, 한 시대가 옆문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후춘화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2022년 가을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니 먼저 그가 누구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후춘화는 1963년에 태어났습니다. 후베이성(湖北省)의 가난한 시골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중국 엘리트 관료의 교과서 같은 궤적이었습니다. 1983년, 그는 중국 최고의 명문 베이징대학(北京大學)을 졸업했습니다. 대개의 졸업생은 베이징의 중앙 부처에 남기를 바랐습니다. 후춘화는 반대로 갔습니다. 그는 척박한 오지 티베트로 자원해

내려갔습니다. 해발 수천 미터, 산소가 얇고 겨울이 길고 길이 험한 곳이었습니니다.

왜 티베트였을까요. 1980년대 초의 티베트는 출세를 바라는 젊은 관료가 제 발로 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길은 끊기고 통신은 더디고, 한쪽 출신 간부에게는 고산병이 일상이었습니다. 베이징대학 졸업장을 쥔 청년이라면 연해의 부유한 도시나 중앙 부처를 노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후춘화는 그 길을 비껴갔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야망이라 읽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서 빨리 두각을 드러내려는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신념이라 읽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답게 척박한 곳에서 단련받으려는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해석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는 본인만 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이 그를 평범한 졸업생들과 갈라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택이 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티베트에서 그는 당시 티베트 당위원회 서기로 부임한 후진타오(胡錦濤)를 직속 상관으로 모시게 됩니다. 같은 후씨였지만 친척은 아니었습니다. 후진타오는 이 젊은 부하의 성실함과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후춘화는 후진타오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으며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共靑團) 계열의 핵심 인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청단은 당의 청년 조직에서 출발해 후진타오 시대에 거대한 정치 계파로 성장한 세력이었습니다. 후춘화는 그 안에서 황태자로 불렸습니다.

그는 두 차례나 티베트에서 근무하며 린즈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 뒤 내몽골(內蒙古) 자치구를 거쳐, 중국 경제의 심장인 광둥성(廣東省)의 당 서기 자리에 올랐습니다. 광둥성은 개혁개방의 발상지이자 중국에서 손꼽히게 부유한 성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그는 같은 공청단 선배 왕양(汪洋)에게서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지방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그는 거침없이 컸습니다.

광둥성 서기 시절의 후춘화에게는 한 가지 일화가 따라다닙니다. 부임 직후 그는 옛 상관 후진타오의 색채를 지우려는 듯 신중하게 처신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시진핑 시대가 막 열린 무렵이었습니다. 공청단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약점이 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튀지 않으려 애썼고, 큰 사고 없이 성을 운영했습니다. 후계자 후보의 처신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능력을 보여 주되 야심을 감추고, 존재감을 드러내되 위협이 되지 않는 선을 지키는 일. 후춘화는 그 줄타기에 능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지방에서의 상승세는 곧장 중앙으로 이어졌습니다.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 후춘화는 권력의 핵심인 중앙정치국(中央政治局) 위원이 되었습니다. 정치국은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政治局常務委員會) 바로 아래, 스물다섯 명 안팎으로 이루어진 권력의 핵심 집단입니다. 후춘화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도 그는 정치국 위원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어 국무원(國務院)의 부총리를 맡았습니다. 국무원은 중국의 내각, 곧 행정부입니다.

당시 당 안팎의 시선이 그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떠올리면 뒤이은 추락의 낙차가 또렷해집니다. 거의 모두가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임기를 마치면 후춘화가 자연스레 그 뒤를 이어 총리에 오르거나, 더 나아가 시진핑을 대체할 1인자로 올라설 것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1963년생이라는 나이도 맞췄습니다. 시진핑이 두 번의 임기를 채우고 물러날 2022년, 후춘화는 갓 신아훙이었습니다. 정점에 서기에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나이였습니다. 외국 정부도, 해외 언론도, 베이징의 외교가도 그를 다음 시대의 얼굴로 셈에 넣고 있었습니다. 후계자란 그렇게 미리 합의되고 미리 길러지는 존재였습니다.

이 모든 단계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계였습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만든 설계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어떻게 물려주기로 했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후춘화의 추락은 한 사람의 불운이 아니라 한 제도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도를 모르면 그의 추락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국은 1인 독재의 참혹함을 몸으로 겪은 나라입니다. 마오쩌둥(毛澤東) 시기,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중국 공산당은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대약진과 문화대혁명,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서로를 고발하던 시간. 덩샤오핑은 그 폐허 위에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이 이것을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몸으로 겪었습니다. 문화대혁명 시기 그는 권력에서 쫓겨났고, 아들이 홍위병에게 쫓기다 떨어져 평생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덕이 어떻게 한 나라와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지를, 그는 피해자의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 만든 규칙들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상처에서 나온 장치였습니다. 임기를 정한 것도, 한 사람이 후계를 독점하지 못하게 한 것도, 모두 같은 상처에서 나왔습니다. 권력은 무섭다, 그러니 묶어 두어야 한다는 것. 그 깨달음이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집단지도체제였습니다. 최고 권력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일곱 명 안팎이 나눠 갖고, 서로 다른 계파가 견제하며, 중요한 결정은 합의로 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체제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7상8하(七上八下)'였습니다. 당대회가 열리는 시점에 67세 이하이면 지도부에 남거나 올라갈 수 있고, 68세 이상이면 물러난다는 연령 규정입니다. 글로 적힌 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지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규정 덕분에 누구도 권력에 영원히 머물 수 없었고, 세대는 정해진 주기로 교체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격대지정(隔代指定)'이었습니다. 이것이 더 정교한 장치였습니다. 현직 최고지도자가 자기 후계자를 자기 손으로 고르지 못하게 막는 규칙입니다. 대신 한 세대를 건너뛰어, 전임자와 원로들의 합의로 차차기 지도자를 미리 지명해 둡니다.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권력을 쥔 사람은 자기 바로 다음 사람을 고를 수 없습니다. 그다음 다음 사람만, 그것도 원로들과 함께 정합니다. 그러면 현직자는 후계자에게 충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후계자도 현직자 한 사람에게 빚지지 않습니다. 권력이 한 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미래의 주인을 미리, 그리고 여럿이 함께 정해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설계는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덩샤오핑이 장쩌민(江澤民) 다음의 지도자로 후진타오를 지명했습니다. 그 뒤 장쩌민이 후진타오의 차차기로 시진핑과 리커창(李克強)을 지명했습니다. 한 세대를 건너뛴 지명이 두 번 이어졌습니다. 권력은 정해진 길을 따라 흘렀습니다.

격대지정이라는 말이 낯설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한 회사의 사장이 자기 후임을 자기가 못 정하게 하는 규칙입니다. 대신 그 후임의 후임, 곧 두 다리 건너의 사람을 회사의 원로들이 함께 정해 둡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은 다음 사장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고, 다음 사장은 지금 사장에게 빚지지 않습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일부러 거리를 벌려 둔 것입니다. 번거롭고 더딘 방식이지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손에 쥐는 일을 막는 데에는 그만한 장치가 없었습니다. 덩샤오핑은 그 번거로움을 안전의 대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흐름이 얼마나 드문 것이었는지는 다른 나라들과 견주어 보면 보입니다. 사회주의 일당 체제에서 권력이 피 흘리지 않고 손에서 손으로 넘어간 사례는 손에 꼽힙니다. 소련은 지도자가 죽어야 다음 사람이 올라섰습니다. 북한은 권력을 핏줄로 물려주었습니다. 그에 비해 중국은 살아 있는 지도자가 정해진 때에 스스로 물러나고, 미리 합의된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받는 방식을 두 번 연속 보여 주었습니다. 2002년 장쩌민이 후진타오에게, 2012년 후진타오가 시진핑에게. 임기는 정해져 있었고 후계는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바깥의 많은 관찰자가 이것을 두고 중국 정치가 제도의 단계로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규칙이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평가가 옳았는지는 2022년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격대지정의 원칙에 따라, 후진타오 시대에 미리 점지된 다음 세대의 선두 주자가 둘 있었습니다. 한 명이 공청단의 후춘화였습니다. 다른 한 명이 쑨정차이(孫政才)였습니다.

쑨정차이의 이름은 이 책에서 길게 머물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사라진 자리를 보지 않으면, 후춘화의 추락도, 2022년의 빈자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먼저 떨어진 도미노였습니다.

쑨정차이는 후춘화와 같은 세대였습니다. 농학을 전공한 학자 출신 관료로, 농업부장을 지내고 베이징의 부서기를 거쳐, 중국에서 손꼽히게 큰 직할시인 충칭시(重慶市)의 당 서기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정치국 위원이었습니다. 후춘화와 더불어, 다음 시대를 이끌 두 기둥으로 꼽혔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열릴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정치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관심은 이 둘에게 쏠렸습니다. 쑨정차이와 후춘화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해 당대회에서 상무위원회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여전히 격대지정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신호, 세대교체가 규칙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학계와 관측가들은 그 장면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 안에는 깊은 모순이 숨어 있었습니다. 쑨정차이나 후춘화가 19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에 오른다는 것은, 곧 시진핑의 시대가 정해진 대로 끝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차차기 후계자가 정점에 들어선다는 것은, 시진핑이 두 번의 임기를 마치고 2022년에 권력을 넘긴다는 약속의 확인이었습니다. 격대지정의 시계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기서 권력의 셈법이 잔인해집니다. 격대지정이 작동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제도가 산다는 뜻이고, 권력이 평화롭게 넘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은 한 사람의 야심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후계자가 제때 올라서면 현직자는 제때 물러나야 합니다. 후계자의 성공은 곧 현직자의 퇴장입니다. 둘 중 하나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제도가 이기면 사람이 물러나야 하고, 사람이 이기면 제도가 무너져야 합니다. 2017년과 2022년, 두 번의 당대회에서 이 싸움의 답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이겼습니다. 제도가 졌습니다. 그 패배의 첫 신호가 쑨정차이의 빈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다른 시간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2022년에 물러날 생각이 없었다면, 그래서 3연임과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지명된 후계자들의 존재 자체가 가로막는 벽이었습니다. 후계자가 정점에 있는 한, 정해진 이양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후계자를 권력의 중심에서 치우는 것. 낡은 승계의 약속을 끊어 놓는 것.

쑨정차이는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충칭시 서기 자리에서 물러났고, 다시는 권력의 전면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혐의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의 세부는 이 책이 다루는 범위 밖에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격대지정으로 지명된 두 후계자 가운데 한 명이 먼저 무대에서 지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불운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장기 집권의 길 위에 놓인 상징적인 걸림돌이 치워진 것이었습니다.

두 후계자의 최후를 견주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쑨정차이는 부패라는 죄목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의 이름에는 오명이 따라붙었고, 그는 정치판 바깥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후춘화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죄목이 붙지 않았습니다. 부패로 처벌받지도, 기율 위반으로 조사받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강등되었을 뿐입니다. 같은 후계자였는데 한 사람은 죄인이 되어 사라졌고, 한 사람은 무죄인 채로 밀려났습니다. 이 차이가 후춘화의 처지를 더 묘하게 만듭니다. 죄가 없으니 언제든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 오명이 없으니 복귀의 명분도 세우기 쉽습니다. 쑨정차이는 돌아올 수 없는 문 너머로 갔지만, 후춘화는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 봄의 복숭아꽃이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지워졌으나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쑨정차이가 떨어진 것이 부패 척결의 결과였는지, 권력투쟁의 결과였는지를 두고는 시각이 갈립니다. 당의 공식 설명은 기율 위반과 부패였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가 차기 1인자 후보였다는 사실, 하필 그가 시진핑의 연임 가도와 정면으로 부딪치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은 다른 해석을 부릅니다. 두 시각은 쉽게 화해하지 못합니다.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 두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어 둘 만합니다. 격대지정으로 지명된 후계자가 부패로 무너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제도가 더 이상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지명은 더 이상 안전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쑨정차이의 몰락이 당의 다른 엘리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도 짚어 둘 만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퇴장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때까지 중국 관료 사회의 상식은 이러했습니다. 후계자로 지명되면 안전하다. 원로들이 합의해 점지한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지명은 일종의 보험이었습니다. 쑨정차이의 몰락은 그 보험을 찢었습니다. 지명된 후계자조차 무너질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깨달음은 당 전체에 조용한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규칙에 기대서는 안 되고,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 충성만이 보험이라는 것. 쑨정차이의 빈자리는 그 교훈을 모두에게 새겼습니다.

여기서 단정을 피해야 합니다. 쑨정차이가 정말로 깨끗했는데 정치적 이유로 제거되었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의 고위 관료 사회에서 부패의 그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의 설명대로 그에게 실제 비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비위가 있다 한들 하필 그가 차기 1인자 후보였기에 그 비위가 끝까지 추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패 척결과 권력투쟁은 중국 정치에서 늘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어디까지가 정의이고 어디부터가 숙청인지, 그 경계는 흐릿합니다. 이 흐릿함을 억지로 또렷하게 만들지 않는 편이 정직합니다. 분명한 것은 결과의 모양입니다. 격대지정으로 지명된 두 후계자가 차례로 무대에서 사라졌고, 그 과정이 시진핑의 장기 집권과 시간적으로 맞물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쑨정차이의 몰락은 후춘화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두 사람은 함께 차세대 기둥으로 꼽혔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후춘화는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같은 후계자 자리에 있던 동료와 함께 사라지는 광경을, 그는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았을까요. 그 뒤로 그가 더 몸을 낮추고 더 조용히 처신했다는 평이 따라붙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야심을 감추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동료의 추락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을 낮추는 것으로도 그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2022년의 결과가 보여주듯, 처신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의 사람이고 무엇을 상징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공청단의 황태자라는 정체성, 격대지정의 후계자라는 위치, 그 자체가 제거의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쑨정차이라는 한쪽 기둥이 무너진 뒤, 남은 기둥은 후춘화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둥의 운명이 결판난 곳이 2022년 가을의 베이징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이 당대회는 후춘화의 모든 정치적 미래가 묻힌 자리가 되었습니다.

당대회를 앞둔 시점까지도 한 가닥 기대는 남아 있었습니다. 후춘화는 20기 중앙위원회 위원에 이미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일곱 자리의 상무위원회에 선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흘러 다녔습니다. 두 번 연속 정치국 위원을 지냈고, 부총리를 맡았고, 격대지정의 마지막 후계자였으니, 상식적인 예측이었습니다.

이 기대가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 짚어 둘 만합니다. 후춘화의 이력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부패 혐의도, 큰 실정도 없었습니다. 나이는 신아홉으로 7상8하 규정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경력은 지방과 중앙을 두루 거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규칙대로라면 그는 올라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떨어질 이유가 규칙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관측가들이 그의 상무위원 진입을 점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규칙에 근거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의 충격이 컸습니다. 규칙대로 올라가야 할 사람이 규칙을 거슬러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규칙으로 미래를 점치는 일이 소용없어졌다는 것을. 규칙이 아니라 한 사람의 뜻이 모든 것을 정한다는 것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후춘화는 상무위원에 들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충격이되 예상의 범위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더 내려가도 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두 번 연속 지냈던 스물네 명 규모의 정치국 위원 명단에서조차 그는 빠졌습니다. 차기 1인자를 바라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 실권 없는 평범한 중앙위원회 위원 가운데 하나로 떨어졌습니다. 강등이자 좌천이었습니다. 그렇게 깊이 떨어진 차세대 주자는 드물었습니다.

정치 서열에서 이 낙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겠습니다. 권력의 동심원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한가운데에 일곱 명의 상무위원이 있습니다. 그 바깥에 스물네 명의 정치국 위원이 있습니다. 다시 그 바깥에 이백 명가량의 중앙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후춘화는 두 번째 원, 곧 정치국 안에 십 년을 머물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운데 원으로 한 발만 더 들어서면 1인자를 노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쪽으로 가기는커녕 두 번째 원에서 세 번째 원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백 명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한 계단이 아니라 두 계단을 떨어진 셈입니다. 후계자를 떨어뜨릴 때, 시진핑 체제는 한 칸씩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 방식 자체가 하나의 전언이었습니다. 돌아올 길을 남기지 않겠다는 전언이었습니다.

당대회장의 분위기를 떠올려 봅시다. 인민대회당의 거대한 회의장, 붉은 카펫과 붉은 깃발, 수천 명의 대표가 앉은 자리. 명단이 호명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후춘화의 표정이 어땠을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그를 비추지 않았습니다. 관영 방송은 들어온 일곱 명의 얼굴을 비추었지, 밀려난 사람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밀려난 자의 침묵은 그렇게 화면 밖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결과뿐입니다. 그가 무엇을 느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습니다. 중국 정치의 중요한 순간들은 늘 닫힌 문 뒤에서 결정되고, 바깥에는 결과만 통보됩니다.

같은 당대회에서, 7상8하의 연령 규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방향으로만 작동했습니다. 1953년생으로 당시 69세였던 시진핑은 은퇴 불문율을 깨고 총서기 3연임을 확정했습니다. 군부를 손에 쥐기 위해 그는 72세의 장유샤(張又俠)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정치국 위원으로 유임시켰습니다. 69세의 왕이(王毅) 외교부장도 은퇴 관례를 무시하고 정치국 위원으로 올렸습니다. 연령 규정이 측근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에서는 같은 규정이 칼이 되었습니다. 67세였던 리커창 총리는 7상8하대로라면 충분히 남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67세의 왕양 정협 주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공청단 계열이었고, 둘 다 비교적 개혁적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둘 다 최고지도부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실상의 강제 은퇴였습니다. 연령 규정은 정적을 밀어낼 때만 엄격했고, 측근을 남길 때는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같은 자가 누구에게는 방패가 되고 누구에게는 칼이 되었습니다.

리커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떠올리면 이 탈락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는 시진핑과 같은 해에 후진타오의 차차기로 함께 지명되었던 인물입니다. 한때는 시진핑과 1인자 자리를 두고 겨루던 경쟁자였습니다. 베이징대학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한 학자형 관료였고, 시장의 힘을 믿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총리로서 그는 경제를 책임졌지만, 시진핑 시대가 깊어질수록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총리가 다루던 경제 권한마저 당 중앙으로, 곧 시진핑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퇴임을 앞둔 무렵 그가 남방을 돌며 개혁개방의 정신을 되새기는 발언을 한 일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마지막 항변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23년, 퇴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시대의 다른 길을 상징하던 사람의 퇴장이었습니다.

왕양 역시 가벼이 볼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둥성 서기 시절 시장 친화적인 개혁으로 이름을 얻었고, 후춘화에게 그 자리를 물려준 선배였습니다. 공청단의 든든한 기둥이었고, 한때 상무위원회 안에서 개혁 노선을 대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역시 67세에 밀려났습니다. 리커창과 왕양과 후춘화. 세 사람은 모두 공청단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왔고, 모두 시장과 개방에 좀 더 너그러운 쪽에 섰으며, 모두 2022년 가을에 함께 권력에서 지워졌습니다. 한 계파가, 그리고 그 계파가 대표하던 한 방향이 통째로 무대에서 내려간 것입니다. 들어온 일곱이 한 사람을 향한 충성으로 묶였다면, 밀려난 이들은 또 다른 길을 가리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에 이 장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규칙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규칙이 한 사람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 들어온 일곱은 충성으로 들어왔고, 밀려난 이들은 규칙에 따라 남을 수 있었는데도 밀려났습니다.

규칙이 도구가 된다는 것은 규칙이 아예 없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무섭습니다. 규칙이 없으면 모두가 그것을 압니다. 누구도 규칙을 믿지 않고, 각자 살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규칙이 살아 있는 척하면서 한 사람의 뜻대로만 적용되면, 사람들은 규칙을 믿어야 할지 한 사람을 믿어야 할지 헷갈립니다. 7상8하는 폐기 선언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시진핑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그의 측근에게도 적용되지 않았으며, 오직 정적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규칙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것을 보면서, 당의 관료들은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규칙을 외우는 것은 소용없다. 한 사람의 뜻을 읽는 것만이 살길이다. 이 학습이 체제 전체의 행동을 바꿉니다. 규정집을 펴는 대신 윗사람의 표정을 살피는 문화. 그것이 단일대오의 진짜 모습입니다.

후춘화가 비운 자리, 리커창이 비운 자리, 왕양이 비운 자리는 모두 한 종류의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시진핑에 대한 절대적 충성으로 뭉친 측근, 이른바 '시자권(習家軍)'이었습니다. 후춘화가 차지할 것으로 점쳐지던 서열 2위 국무원 총리직은 시진핑의 저장성 직계인 리창에게 돌아갔습니다. 리창은 부총리를 거치는 정상 경로마저 건너뛰고 상하이시 서기에서 곧장 총리로 뛰어올랐습니다. 승진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상무위원회는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덩쉐샹, 리시, 그리고 시진핑으로 채워졌습니다. 일곱 명 전원이 시진핑과의 인연으로 묶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성도 소수민족도 안배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배려의 관행마저 사라졌습니다. 수평적 견제는 없어지고, 한 사람을 정점으로 한 수직의 위계만 남았습니다.

당대회 폐막일인 10월 22일, 당장(黨章), 곧 당의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개정된 당장에는 '두 개의 확립(兩個確立)'과 '두 개의 수호(兩個維護)'가 새로 적혔습니다. 시진핑의 핵심 지위와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이를 단호히 지키는 원칙입니다. 불문율로 작동하던 1인 집중이, 이제 글로 박혔습니다.

그 뒤 후춘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밀려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손에 잡힙니다. 그는 곧이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정협의 부주석 자리를 받았습니다. 정협은 명목상 협의 기구입니다. 정책을 자문하고 각계의 의견을 모은다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 결정권은 없습니다. 부주석이라는 직함은 그럴듯하지만, 실권으로 치면 부총리 시절과는 견줄 수 없습니다. 권력의 부엌에서 응접실로 옮겨진 셈입니다. 손님은 맞되 음식을 짓지는 못하는 자리입니다.

옮겨진 뒤의 처우는 더 말을 아끼게 합니다. 그가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하는 등 공개 행보에 나설 때면, 관영 매체와 외교부는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한때 차기 1인자로 불리던 사람을, 이제는 이름조차 크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치에서 침묵은 그저 조용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처분입니다. 카메라가 비추지 않고, 신문이 적지 않고, 통신이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한 인물을 정치적으로 지우는 방식입니다. 후춘화는 그렇게 지워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2024년 봄, 린즈의 복숭아꽃이 사흘을 채우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보면, 후춘화와 쑨정차이의 추락이 무엇을 끝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약속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이 만든 설계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누가 다음인지, 언제 바뀌는지, 어떤 규칙으로 정해지는지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 교체가 폭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후계자는 칼을 맞지 않고 기다렸고, 현직자는 정해진 때에 물러났습니다. 이 예측 가능성이 30여 년간 중국의 고도성장 and 체제 안정을 받쳐 주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는 그것이 사라진 뒤에 보입니다. 다음이 정해져 있으면, 사람들은 안심하고 멀리 봅니다. 기업은 십 년 뒤를 내다보고 공장을 짓습니다. 관료는 다음 시대에도 통할 정책을 준비합니다. 외국은 다음 상대와의 관계를 미리 쌓습니다. 예측 가능성은 그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토대였습니다. 중국이 30여 년간 거침없이 성장한 데에는 이 안정의 토대가 깔려 있었습니다. 누가 다음 주인인지 알 수 있는 나라, 권력이 정해진 길로 흐르는 나라에 자본과 인재가 모였습니다. 그 토대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것은 정치만이 아닙니다.

쑨정차이와 후춘화가 무너지면서 이 예측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격대지정이라는 시계가 멈췄습니다. 7상8하라는 자가 한쪽 손에만 들렸습니다. 이제 누가 다음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바뀔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한 사람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7상8하 자리에는 '능상능하(能上能下)'라는 새 잣대가 들어섰습니다. 능력에 따라 올리고 내린다는 말입니다. 듣기에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능력을 누가 판단하는가가 문제입니다. 객관적인 나이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만 남았습니다. 누가 능력이 있고 없는지는 시진핑이 정합니다. 관료들은 나이를 채우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남습니다.

그 자리바꿈을 떠받친 것이 사상이었습니다. 당장에 새로 박힌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를 다시 봅니다. '두 개의 확립'은 시진핑이 당의 핵심이라는 것과 시진핑 사상이 지도 이념이라는 것을 못 박았습니다. '두 개의 수호'는 그것을 흔들림 없이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시진핑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당에 충성하는 것이고, 시진핑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곧 옳은 길이다. 개인에 대한 충성과 조직에 대한 충성 사이의 구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곧 당을 의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등식 아래에서 다른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후춘화가 대표하던 또

다른 길, 리커창과 왕양이 대표하던 또 다른 노선은 이제 사상적으로도 이단이 되었습니다. 밀려난 이들이 비운 것은 자리만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할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지는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파벌 간의 노선 다툼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충성 경쟁이 들어섰습니다. 시자진이라는 한 무리 안에서, 누가 더 충성스러운지, 누가 더 성과를 냈는지를 두고 다투는 싸움입니다. 리창과 차이치로 대표되는 하위 분파들의 경쟁이 그것입니다. 리홍중(李鴻忠)이나 천민얼(陳敏爾) 같은 인사들이 상무위원 진입에 실패한 데서 보이듯, 같은 진영 안에서도 자리는 좁고 다툼은 치열합니다. 거대 계파의 노선 대립이 친위 그룹 내부의 자리다툼으로 바뀐 셈입니다.

여기에 더 깊은 비용이 따릅니다. 관찰자들은 그것을 '충성의 공동화'라 부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객관적인 규칙이 사라지고 한 사람의 마음만 남으면, 관료들은 일을 잘하는 데보다윗사람의 심기를 살피는 데 힘을 쏟습니다. 나쁜 소식을 위로 올리기를 꺼립니다. 잘못을 보고하면 자기가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으니, 입을 다뭍니다. 윗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올라가고, 진짜 현실은 아래에 고입니다. 정점에 선 한 사람은 점점 자기가 만든 거울 속만 보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들이 전하는 정보는 걸러지고 다듬어진 것입니다. 견제하던 파벌이 있을 때는 적어도 서로의 거짓을 들춰내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단일대오 안에서는 그 긴장이 사라집니다. 충성으로 가득 찬 체제가, 역설적으로 더없이 중요한 것을 잃습니다. 진실을 들을 귀를 잃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걱정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초기의 우한에서, 나쁜 소식을 위로 올리기를 두려워한 관료들 탓에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는 분석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쏠릴수록, 그 한 사람에게 도달하는 정보는 더 정제되고 더 왜곡됩니다. 밀려난 사람들이 비운 자리는, 단지 권력의 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목소리, 다른 보고, 다른 판단이 들어설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가 비면서 체제는 단단해 보이는 만큼 취약해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빈자리로 갑니다. 앞의 두 빈자리보다 무겁습니다. 후춘화가 떨어진 빈자리도, 리커창이 떠난 빈자리도 아닙니다. 아예 아무도 들어서지 않은 빈자리입니다.

20차 당대회에서 새로 뽑힌 스물네 명의 정치국위원을 전부 살펴보면,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띕니다. 나이가 57세 이하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96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세대가 통째로 빠졌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중국 정치의 시간표 때문입니다.

최고지도자가 10년을 집권한다고 보면, 그 뒤를 이을 사람은 미리 정치국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10년 뒤 1인자가 되려면, 지금 그 자리에서 경험을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시점에서 적어도 57세 이하인 사람이 정치국에 포진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10년 뒤에도 너무 늙지 않은 채 정점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정치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후계자가 될 만한 나이의 사람이 권력의 핵심에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후춘화 세대를 도려냈을 뿐 아니라, 그 아래 세대마저 비워 두었습니다. 포스트 시진핑의 후계 구도가 공백 상태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후계자를 키울 의지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승계의 시간표 자체를 폐기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당대회와 견주면 이 공백의 낫셈이 드러납니다. 후진타오는 시진핑을 자기 곁에 두고 5년을 함께 일하며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장쩌민도 후진타오를 그렇게 길렀습니다. 후계자는 정점에 오르기 전, 미리 무대 위로 올라와 사람들에게 얼굴을 익혔습니다. 그것이 안정의 신호였습니다. 다음이 누구인지 보이면, 권력을 둘러싼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외국 정부도 다음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관계를 준비합니다. 시장도 다음 정책의 방향을 가늠합니다. 후계자의 얼굴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공공재였습니다. 2022년의 당대회는 그 얼굴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다음이 누구인지 아무도 가리키지 못하는 지도부가 들어섰습니다. 무대 위에는 현재만 있고 미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단정을 한 번 더 눌러 둡니다. 후계가 비어 있다는 것이 곧 후계가 영영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진핑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한 사람을 끌어올려 후계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능상능하라는 새 잣대가 바로 그 길을 열어 둡니다. 나이에 매이지 않고, 합의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의 판단으로 후계를 지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빈자리가 곧 공백의 지속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후계는 과거의 후계와 성격이 다릅니다. 원로들의 합의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낙점으로 정해지는 후계입니다. 그런 후계는 세워지기도 쉽고 지워지기도 쉽습니다. 한 번 세웠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내릴 수 있습니다. 후계가 안정의 장치가 아니라 변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자리의 위험은 후계가 영영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후계가 있어도 그것이 한 사람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가능성을 좀 더 따져 보겠습니다. 능상능하의 새 잣대가 자리 잡으면, 연령 예외를 적용받아 현 정치국 위원 가운데 누군가가 후계자로 발탁될 길은 남아 있습니다. 시진핑이 5년만 더 집권한다고 가정하면, 2022년 기준 62세 이하인 정치국 위원들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될 수는 있습니다.

그 후보군에는 이런 이름들이 들어갑니다. 천원칭(陳文淸, 당시 62세, 국가안전부 당서기), 천민얼(당시 62세, 충칭시 당서기), 덩쉐샹(당시 60세, 중앙서기처 제1서기), 인리(尹力, 당시 60세, 푸젠성 당서기), 류궈중(劉國中, 당시 60세, 산시성 당서기), 위안자쥘(袁家軍, 당시 60세, 저장성 당서기), 리간지에(李干杰, 당시 58세, 산둥성 당서기), 리슈레이(李書磊, 당시 58세, 중앙선전부 부부장), 장궈칭(張國淸, 당시 58세, 랴오닝성 당서기), 천지닝(陳吉寧, 당시 58세, 베이징시 당서기). 열 명입니다.

이 열 명을 잠깐 들여다보면 한 가지 결이 보입니다. 천원칭은 정보와 보안을 다루는 국가안전부 출신입니다. 리슈레이는 선전을 맡았습니다. 쩡사오쥘은 군의 핵심 사무를 관장합니다. 덩쉐샹은 오랫동안 시진핑의 비서실장 격으로 곁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름들의 성격이 과거 후계 후보군과 다릅니다. 후춘화나 쑨정차이는 지방을 두루 다스리며 행정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성을 책임지고, 경제를 굴리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반면 새 후보군에는 시진핑의 측근에서 충성을 검증받은 사람, 보안과 선전과 사상을 다루는 사람의 비중이 큼니다. 다음 시대를 이끌 폭넓은 행정가를 기르기보다, 지금 체제를 단단히 지킬 충직한 관리자를 곁에 두는 인사입니다. 후계의 그림이 아니라 호위의 그림에 가깝습니다.

범위를 중앙위원회로 넓히면 57세 이하인 인물 스물두 명이 더 있습니다. 쩡사오쥘(鍾紹軍, 당시 54세, 중앙군사위 판공청 주임)처럼 군부의 핵심에 자리 잡은 이름도 있고, 여러 성의 부서기급 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명단으로 치면 후보 풀이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 단계 더 바깥 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국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더 먼 거리에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 차례가 언제 올지, 정말 오기는 할지는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들과 후춘화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누구도 격대지정의 공식 후계자가 아닙니다. 후춘화는 원로들의 합의로, 여러 파벌의 견제 속에서 공인받은 후계자였습니다. 그 지위는 한 사람의 변덕으로 쉽게 뒤집히지 않는 무게를

가졌습니다. 적어도 가졌어야 했습니다. 반면 이 후보군은 다릅니다. 이들은 합의로 인정받은 후계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발탁을 기다리는 실무 관료들입니다. 언제든 올라갈 수 있고, 언제든 숙청될 수 있습니다. 충성을 증명해야만 자리를 지킵니다. 도구의 처지입니다.

차이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후계자와 후보는 무엇이 다른가. 후계자는 미래가 약속된 사람입니다. 약속이 있으니 그는 현직자에게 굽실거릴 이유가 적습니다. 자기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기다림 자체가 그에게 독립성을 줍니다. 반면 후보는 약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발탁될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매 순간 충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위험한 발언을 삼가고, 시키는 일을 군말 없이 해냅니다. 후보의 처지는 후계자의 처지와 정반대입니다. 후계자는 시스템이 보호하지만, 후보는 한 사람이 좌우합니다.

이 차이가 체제의 성격을 바꿉니다. 후계자가 있는 체제에서는 권력이 미래를 향해 흐릅니다. 모두가 다음 시대를 내다보고 줄을 섭니다. 후보만 있는 체제에서는 권력이 현재의 한 사람에게 고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니 아무도 멀리 내다보지 않고, 지금 정점에 선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시진핑이 만든 것은 후계자가 없는 체제, 곧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고정된 체제입니다. 명단에 이름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이름들은 미래의 주인이 아니라 현재의 도구입니다.

한 가지 비유로 정리하겠습니다. 무대 위에 주연을 세우는 일과 무대 뒤에 대기 배우를 여럿 두는 일은 다릅니다. 대기 배우가 아무리 많아도, 누가 다음 주연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극은 불안합니다. 주연이 갑자기 쓰러지는 날, 대기실의 여러 배우가 서로 무대에 오르겠다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지금 중국의 후계 구도가 그렇습니다. 대기실은 사람으로 가득하지만, 다음 주연의 이름은 비어 있습니다.

이름이 많다는 것과 후계자가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후보는 수십 명이지만 후계자는 없습니다. 이것이 빈자리의 정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차세대를 통째로 비워 두면서까지 시진핑이 단일대오를 고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의 한 자락이 '백년대변국(百年大變局)'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백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변화의 국면이라는 뜻입니다.

20차 당대회의 업무보고를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읽힙니다. 후진타오 시대와 시진핑 1기, 2기 시절 자주 등장하던 '조화'나 '평화' 같은 단어가 크게 줄었습니다. 대신 '안전'과 '위험', '문제', '도전'이라는 단어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반도체와 핵심 기술을 둘러싼 공급망의 분리,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 코로나19의 여파. 당 중앙은 이런 위기 앞에서 낡은 타협식 집단지도체제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진핑은 건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군의 현대화를 이루고,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세운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는 권력을 나누어 미래의 변수를 남겨 두기보다,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는 편이 낫다는 논리가 작동했습니다. 후계자에게 합의된 권력을 떼어 주는 일은, 그 논리 안에서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2027년이라는 해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해는 건군 100주년이자 제21차 당대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군의 현대화를 완성하겠다고 못 박은 해이고, 동시에 후계의 윤곽이 드러나야 정상인 해입니다. 두 시간표가 한 해에 겹칩니다. 그런데 그 무렵 군부는 숙청으로 흔들리고, 후계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목표를 약속한 해가, 권력이 깊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해와 포개진 것입니다. 시진핑이 단일대오로 위기를 넘기려 했다면, 정작 그 단일대오가 시험받는 시점이 바로 그 약속의 해입니다. 빈자리를 만든 선택과 강국을 약속한 야심이, 2027년이라는 한 점에서 충돌합니다.

이 논리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분열된 지도부는 약점일 수 있습니다. 빠른 결정과 단일한 방향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위기가 강력한 1인 지도자를 정당화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시진핑 체제는 그 논리 위에 서 있습니다. 백 년에 한 번 올 변화의 국면이니, 흔들림 없는 한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위기를 이유로 후계를 비워 두면, 위기가 길어질수록 빈자리도 길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물학적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강한 1인 체제는 그 한 사람이 건강하고 판단이 또렷한 동안에만 강합니다. 그 사람이 병들거나, 흔들리거나, 끝내 떠나야 할 때가 오면, 후계가 비어 있는 체제는 더없이 약한 순간을 맞습니다. 누가 다음인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권력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빈 공간으로 쏟아집니다. 빈 공간을 채우려는 다툼은 규칙이 없는 다툼입니다. 규칙이 없는 다툼은 종종 피를 부릅니다. 덩샤오핑이 두려워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니다. 그는 마오쩌둥이 떠난

뒤의 혼란을 겪었고, 그 혼란을 두 번 다시 만들지 않으려고 격대지정과 7상8하를 세웠습니다. 그 장치들이 헐린 지금, 중국은 덩샤오핑이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위험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1953년에 태어난 시진핑이 3연임을 마치고 정말로 권력을 넘길 생각이 있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27년에 제21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그전에, 이를테면 4중전회 같은 굵직한 정치 일정을 통해, 차기 후계자의 윤곽이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격대지정의 시계가 살아 있던 시절이라면, 이미 누군가의 이름이 떠올랐을 시점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치의 정점에는 후계자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빈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이 빈자리가 2027년을 향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든 벌어진다면, 권력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진공 속으로 떨어집니다. 정해진 길이 있을 때 권력 교체는 절차였습니다. 정해진 길이 없을 때 권력 교체는 도박이 됩니다.

이 도박의 판돈이 누구의 삶인지를 생각하면 빈자리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14억의 인구입니다.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이고, 핵을 가진 나라이며,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전쟁의 불씨를 안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다음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평범한 중국인에게 이것이 당장 무엇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출근하고 장을 보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일상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건강이 흔들리는 날, 후계가 비어 있다는 사실은 갑자기 모두의 문제가 됩니다. 권력이 어디로 갈지 모르면 시장이 먼저 텅니다.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흔들리고, 기업이 결정을 미룹니다. 바깥의 나라들도 쉼을 멈춥니다. 다음 상대가 누구일지 모르니 약속을 미루고 관계를 묶어 둡니다. 후계의 빈자리는 한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거는 빈칸입니다.

바깥에서 중국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이 불투명함은 오래된 골칫거리입니다. 민주국가의 권력 교체에는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다음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모두가 압니다. 중국은 다릅니다. 한때 격대지정과 임기제가 그 불투명함을 그나마 줄여 주었습니다. 다음이 누구인지 미리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장치가 헐리면서, 세계는 다시 안갯속의 중국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진핑이 언제까지 권력을 쥘지, 그 뒤에 누가 올지, 어떤 방식으로 넘어갈지가 모두 흐릿합니다. 이 흐릿함 자체가 하나의 위험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거대 권력은 그 자체로 불안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 책의 큰 줄기와 만납니다. 2022년의 후계 공백이 왜 위험한지는, 그 뒤에 벌어진 일을 보면 또렷해집니다. 2026년 무렵, 시진핑이 군부를 손에 쥐기 위해 유임시켰던 바로 그 장유샤를 둘러싸고 중앙군사위에 거대한 숙청이 일었습니다. 군 지휘부가 흔들렸습니다. 권력의 칼자루를 쥐는 군대 안에서 불신과 피바람이 돌았습니다. 만약 이런 격변기에 시진핑의 신상에 변고가 생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해진 후계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이 수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계자가 없습니다. 군부는 흔들리고 후계는 비어 있습니다. 2022년에 자리를 비워 둔 선택이, 2026년의 숙청을 그토록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빈 후계와 흔들리는 군부가 같은 시기에 겹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한 불운이 아니라 한 선택의 예고된 청구서임을, 뒤의 장들에서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빈자리가 만들어 낸 역설이, 이 장을 연 복숭아꽃으로 돌아갑니다. 2026년의 중국은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기술 통제로 바깥에서 고립되고, 부동산 붕괴와 청년 실업으로 안에서 짓눌립니다. 게다가 중앙군사위 2인자 장유샤의 숙청에서 보듯, 군부와 당 내부에 불신과 피바람이 돌고 있습니다. 통치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버렸던 카드가 다시 손에 잡힙니다. 과거 시진핑은 무역 협상의 막후 교섭을 위해 후춘화를 미국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강경 노선이 한계에 부딪히자, 서방이 거부감 없이 마주 앉을 수 있는 인물, 개혁개방파의 실무적 상징성을 띤 공청단 출신의 인물이 다시 필요해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일부 해외 보도는 더 나아갑니다. 2027년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균열에 직면한 시진핑 체제가 타협을 위해 후춘화를 정치국에 복귀시키거나, 정협 주석으로 끌어올리는 '페이부흥(廢而復興)', 곧 버려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시나리오가 물밑에서 타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귀설을 두고도 시각이 갈립니다. 한쪽은 그것을 진지한 가능성으로 봅니다. 위기에 몰린 권력은 자존심보다 생존을 택하고, 그렇다면 버렸던 사람을 다시 부르는 일도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그런 반전이 적지 않았습니니다. 덩샤오핑 자신이 두 번 쫓겨났다가 두 번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그것을 희망 섞인 과장으로 봅니다. 한번 단일대오로 굳힌 체제가 스스로 균열을 인정하고 옛 경쟁자를 부르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후춘화를 부르는 순간, 그것은 시진핑 노선의 한계를 자인하는 신호가

됩니다. 절대 권력은 그런 자인을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권력의 날개가 완전히 꺾인 후춘화가 정말로 부활할지, 부활한들 시자권의 독식 구조를 흔들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복숭아꽃은 그저 봄의 풍경일 수 있고, 마안산 시찰은 그저 일상의 업무일 수 있습니다. 과장된 해석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중국 정치의 신호를 읽는 일은 안개 속에서 그림자를 셈하는 일과 같습니다. 어떤 그림자는 사람이고 어떤 그림자는 나무입니다. 바깥에서는 끝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그림자가 생겨났다는 사실,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으로 읽으려 했다는 사실만은 적어 둡니다.

다만 한 가지는 또렷합니다. 단 한 명의 후계자도 지정하지 않고 57세 이하 세대를 모조리 권력 밖으로 밀어낸 2022년의 선택이,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국적인 경제 위기와 극단적인 고립 속에서, 한 번 버렸던 패배한 경쟁자의 그림자를 다시 불러내게 만드는 딜레마. 그것이 빈자리의 대가입니다. 후계가 있었다면 카드를 찾을 일도 없었습니다. 후계를 비워 두었기에, 버린 사람의 이름이 유명처럼 떠오릅니다.

차기 1인자로 칭송받던 차세대 주자에서, 끈 떨어진 24인 밖의 정협 부주석으로, 그리고 텅 빈 2027년의 권력 진공 속에서 다시 호명되는 한 남자. 후춘화의 긴 추락의 궤적은 한 사람의 흥망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덩샤오핑이 겹겹이 설계했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승계 제도의 죽음을 또렷하게 증언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스물한 살의 청년이 베이징의 편한 자리를 마다하고 티베트의 험한 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상관을 만나고 길을 얻었습니다. 사십 년 뒤, 그의 옛 산골 마을의 복숭아꽃이 관영 매체의 지면을 사흘간 채웠습니다. 같은 사람의 같은 등지가, 한 번은 출발점이었고 한 번은 신호로 읽혔습니다. 그 사이에 한 사람이 점점 근처까지 올랐다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추락의 궤적 위로 한 제도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개인의 흥망과 제도의 흥망이 같은 곡선을 그린 것입니다. 후춘화의 이야기가 한 관료의 불운 이상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섰는지, 그가 비운 그다음 세대의 자리가 왜 끝내 비어 있는지가, 2026년 중국 권력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들어온 일곱은 같은 한 사람을 향한 충성으로 묶였습니다. 밀려난 이들은 규칙대로라면 남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도 밀려나지도 못한 채 아예 비워진

자리, 그 자리가 더없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14억 인구의 운명이 합의된 시스템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시간과 의지에 걸쳐 있다는 것을. 다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 중국이 2027년이라는 닫힌 상자를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상자가 열리기 전까지, 밀려난 이들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것입니다.

들어온 일곱보다 밀려난 이들

[2026 중국 권력지형도 제3장] 후춘화의 추락과 제도화된 승계의 증언



NotebookLM

제 2 부

군부 대숙청: 무너진 중앙군사위

제4장 '철모자왕'의 마지막

2026년 1월 24일, 베이징의 겨울은 마른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발표문은 길지 않았습니다. 문장 몇 개면 끝나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베이징 주재 외신 기자들의 손이 바빠졌고, 워싱턴과 도쿄의 정보 분석관들이 깨어나 모니터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부주석 장유샤(張又俠)와 중앙군사위 위원이자 연합참모부 참모장인 류전리(劉振立)가 "심각한 기율 위반과 불법 행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입건. 중국 관료 사회에서 이 단어는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사망 진단서와 같습니다. 한번 입건되어 발표된 고위 인사가 자기 자리로 돌아온 전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발표의 무게는 두 사람의 이름 자체에 있었습니다. 장유샤는 그냥 부주석이 아니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빼면 인민해방군에서 그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군 서열 2위. 시진핑이 직접 끌어올린 최측근. 그리고 두 집안이 반세기 넘게 이어온 인연의 끝에서 있던 사람. 그런 인물이 한밤중에 끌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왜 외신 기자들과 정보 분석관들이 그렇게 빠르게 반응했는지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군부의 인사는 보통 조용히 움직입니다. 누군가 회의에 보이지 않으면 사라진 것이고, 관영 매체의 직책 표기에서 이름이 빠지면 끝난 것입니다. 발표는 한참 뒤에, 혹은 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방부 대변인이 직접,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공식 브리핑에서 입에 올렸습니다. 군 서열 2위를 이런 방식으로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비상한 일이었습니다. 숨길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났거나, 숨기지 않기로 작정했거나. 어느 쪽이든 안에서 큰일이 벌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분석가들이 모니터 앞에 모인 것은 그 신호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발표가 던진 충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숫자 하나를 봐야 합니다. 2022년 말에 새로 짜인 제20기 중앙군사위원회는 일곱 사람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진핑이 주석으로 앉고, 그 아래 부주석과 위원들이 군을 나눠 맡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2026년 1월, 그 일곱 명 중 다섯이 사라졌습니다. 리상푸(李尚福), 웨이펑허(魏鳳和), 마오화(苗華), 허웨이둥(何衛東)이 차례로 무너졌고, 마지막으로 장유샤가 쓰러졌습니다. 남은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시진핑 본인, 그리고 기율 검사를 맡은 장성민(張升民). 군의 최고 지휘부 일곱 자리 가운데 다섯이 비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4일의 발표는 끝이 아니라 정점이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한 명씩 떨어져 나가던 흐름의 마지막 칸. 그 줄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 있던 칸. 그 칸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발표문에는 두 사람의 이름과 "심각한 기율 위반과 불법 행위"라는 상투적인 문구만 있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조사했는지, 어디에 갇혀 있는지는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중국 국방부의 발표는 늘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발표문의 단어를 세고, 빠진 단어를 찾고, 줄과 줄 사이의 침묵을 읽습니다. 그날 베이징의 외신 기자실에서 누군가 짧게 내뱉었다고 합니다. 이건 부패가 아니다. 군 서열 2위를 부패만으로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다. 그 직감이 옳았는지는 이 장이 끝날 때쯤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장유샤가 누구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건이 왜 군부 부패 스캔들 하나로 끝나지 않는지가 보입니다.

1950년생. 2026년에 일흔여섯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세월이 쉰여덟 해입니다. 열여덟 살에 군에 들어가 일흔여섯까지 군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시진핑의 통제를 받는 평범한 부하 장성이 아니라, 인민해방군에서 손꼽히게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장종遜(張宗遜)입니다.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에 인민해방군을 세운 개국 장성이었습니다. 1955년에 중국 공산당은 군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계급을 매겼습니다. 원수(元帥)가 열 명, 대장(大將)이 열 명, 상장(上將)이 쉰일곱 명, 중장(中將)이 백일흔일곱 명이었습니다. 장종遜은 그 쉰일곱 상장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황푸군관학교(黃埔軍校) 출신으로 정통 군사 교육을 받았고, 연안 보위전(延安保衛戰) 같은 핵심 전투를 지휘한 맹장이었습니다. 군 안에서 그가 가진 권위는 다른 상장들을 압도할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개국 장성들의 자식들이 오늘날 중국 군부에서 '군 2대(軍二代)'로 불립니다. 200개가 넘는 군부 엘리트 가문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세웠으니 아들이 그 나라의 군을 물려받는 구조입니다. 장유샤는 그 가문 중에서도 맨 뒷자리에 있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홍2대(紅二代)' 또는 '태자당(太子黨)'이라 부릅니다. 붉은 혁명가의 두 번째 세대, 곧 황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진핑이 등장합니다. 시진핑의 아버지는 시중쉰(習仲勳)입니다. 시중쉰 역시 산시성(陝西省) 옌안을 무대로 활동한 혁명 1세대 원로였습니다. 장중쉰과 시중쉰은 같은 땅에서 같은 시절을 보낸 전우였습니다. 산시성. 황토 고원의 메마른 땅. 공산당이 벼랑 끝에 몰리던 시절 숨어들어 다시 일어난 혁명 근거지. 두 아버지의 인연이 그곳에서 맺어졌습니다.

아버지들이 맺은 인연은 아들들에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시진핑과 장유샤는 어릴 때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중국에는 '파샤오(髮小)'라는 말이 있습니다. 밑이 터진 바지를 입던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를 뜻합니다. 머리카락이 아직 짧은 시절의 동무. 시진핑과 장유샤가 바로 그런 사이로 묘사됩니다. 정치적 동료가 아니라 유년의 기억을 공유한 사람들. 공산당 권력의 꼭대기에서 이런 관계는 흔치 않습니다. 이익으로 묶인 동맹은 많아도,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신뢰는 드뭅니다.

밑 터진 바지라는 표현을 흘려듣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어로 '개당고(開襠褲)'라 합니다. 어린아이가 용변을 가리기 전에 입히는, 가랑이가 트인 바지입니다. 그 바지를 함께 입던 사이라는 말은, 서로의 더없이 무방비한 시절을 본 사이라는 뜻입니다. 체면도 위계도 없던 시절. 권력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평생 갑옷을 입고 삽니다. 표정을 관리하고 속을 감춥니다. 그런데 개당고 친구 앞에서는 그 갑옷이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가 갑옷 안의 맨몸을 이미 봤기 때문입니다. 시진핑과 장유샤의 관계가 그런 종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숙청이 더 서늘합니다. 갑옷 안을 다 보여 준 사이에서도, 권력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보여 줬기 때문에 더 위험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약한 곳을 다 아는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는 없으니까요.

2012년 시진핑이 당 총서기에 올랐을 때, 그가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의 첫머리에 군이 있었습니다. 200개가 넘는 혁명 원로 가문이 군의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조직을 어떻게 한 손에 쥐는 것인가. 시진핑은 누구보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꺼내 들었습니다. 장유샤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유샤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군내 위망이 있었습니다. 늙은 군부 실세들, 이른바 '노군두(老軍頭)'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앞세우면 군의 늙은 어른들을 다독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유샤 본인은 거대한 탐관오리, 곧 '대탐(大貪)'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군의 부패를 도려내는 칼자루를 맡기기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유샤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무기와 장비 조달을 총괄하는 총장비부(總裝備部) 부장을 지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방대한 인맥을 쌓았습니다. 시진핑이 밀어붙인 군 개혁과 반부패 운동의 맨 앞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시진핑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절정이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는 '7상8하(七上八下)'라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덩샤오핑(鄧小平) 시대 이후 자리 잡은 관례입니다. 당대회가 열리는 해에 예순일곱 이하면 자리를 지키고, 예순여덟 이상이면 물러난다는 규칙입니다. 나이로 권력을 끊는 장치였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막는 안전판이었습니다.

장유샤는 2022년 당대회 때 일흔둘이었습니다. 규칙대로라면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그 규칙을 깬습니다. 장유샤를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세 번째 임기를 위해 같은 관례를 넘어서는 자리였으니, 측근을 위해 한 번 더 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

사람들은 이렇게 규칙을 초월해 자리를 지킨 장유샤를 '철모자왕(鐵帽子王)'이라 불렀습니다. 청나라 때 황제가 특별한 공신에게 내린 작위에서 온 말입니다. 보통 작위는 대를 물려받을 때마다 한 등급씩 깎였지만, 철모자왕은 깎이지 않고 그대로 세습됐습니다. 무쇠로 만든 모자라 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권력. 장유샤에게 붙은 별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별명에는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청나라에서 철모자왕은 황제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견제를 받지 않았습니. 그런데 견제받지 않는 신하는 황제에게 위안이자 동시에 위협입니다. 곁에 두면 든든하지만, 너무 강해지면 황제 자신을 가립니다. 장유샤를 철모자왕이라 부른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 무너지지 않는 권세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 무너지지 않기에 언젠가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라는 예감. 무쇠 모자는 닳지 않지만, 그 모자를 쓴 머리는 잘릴 수 있습니다. 별명이 예언이 되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는 장유샤의 유임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짚었습니다. 장유샤는 태자당 출신답게 당내 여러 원로와 끈끈하게 얽혀 있었고, 그 원로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일흔둘에도 자리를 지켰다는 분석입니다. 이 시각에서 보면 장유샤의 유임은 시진핑이 일방적으로 베푼 은혜가 아니라, 시진핑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타협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철모자왕은 시진핑의 절대 권위에 살짝 그늘을 드리우는 존재였던 셈입니다. 이 해석을 어디까지 믿을지는 독자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무쇠 모자도, 그 위에 올라선 사람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물 밑에서는 다른 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군부 안에서는 두 무리가 자리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한쪽은 장유샤를 중심으로 한 '산시방(陝西幫)'이었습니다. 산시성 인연으로 묶인 사람들. 류전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동부전구(東部戰區) 출신 장교들로 이루어진 '푸젠방(福建幫)'이었습니다. 시진핑이 1985년부터 2002년까지 푸젠성(福建省) 샤먼 일대에서 근무하던 시절 맺은 인맥입니다. 허웨이둥 부주석과 마오화 정치공작부 주임이 그쪽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두 무리는 인사와 자원을 놓고 부딪쳤습니다.

눈여겨볼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푸젠방의 허웨이둥과 마오화는 2024년과 2025년에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산시방의 장유샤가 2026년에 무너졌습니다. 양쪽이 차례로 사라진 것입니다. 시진핑은 자기 옛 인맥도, 아버지 대부터 이어진 인맥도 가리지 않고 잘라냈습니다. 파벌이 문제였는지, 파벌과 무관한 다른 이유였는지는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시진핑이 자기 사람들로 군을 채웠는데, 왜 그 사람들이 줄줄이 부패로 무너졌을까. 푸젠방도 시진핑이 키운 사람들이었고, 산시방의 장유샤도 시진핑이 끌어올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고른 사람이 자기 손에 잘려 나가는 일이 4년 동안 일곱 번 중 다섯 번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잘못 골랐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람을 고르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충성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으면, 충성하는 척하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능력과 정직함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권력을 쥐면 부패합니다. 그러면 다시 숙청하고, 다시 충성하는 사람을 뽑고, 그들이 다시 부패합니다. 이 악순환이 시진핑 군 인사의 그늘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5장에서 이 연쇄의 그물을 더 자세히 따라가게 됩니다.

몰락은 예고 없이, 그러나 치밀하게 진행됐습니다.

장유샤가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6년 1월 12일이었습니다.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자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군 서열 2위로 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20일과 21일에 예정돼 있던 중앙당교와 국방대학의 정치 행사에 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니다. 한 사람이 빠진 빈 의자. 그 빈자리에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확인된 사실과 떠도는 이야기를 갈라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 해외 독립 매체와 정보 소식통이 전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월 18일경 베이징의 정시빈관(京西賓館)에서 장유샤와 류전리가 시진핑을 겨냥해 군사 정변이나 암살을 시도하려 했는데, 어느 부총참모장의 밀고로 시진핑이 행사 두 시간 전에 급히 몸을 피했고, 오히려 두 사람을 거꾸로 체포했다는 줄거리입니다. 쿠데타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출처가 모두 익명의 소식통이고, 사실로 확인된 1차 자료는 없습니다. 중국 체제의 특성상 이런 종류의 소문은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진실일 수도, 누군가 흘린 역정보일 수도, 망명자 사회의 희망 섞인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책은 이것을 사실로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소문이 돌 만큼 분위기가 험악했다는 사실은 기록해 둡니다. 소문의 내용보다 소문이 퍼진 정황이 더 많은 것을 말해 줄 때가 있습니다.

확인되는 정황은 이렇습니다. 장유샤가 사라진 직후, 베이징의 그의 자택 주변이 포위됐습니다. 무장 병력과 사복 요원들이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통신이 끊기고 경호원들이 무장을 해제당한 상태에서 장유샤는 체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베이징 남부 공항 근처의 구안(固安) 비밀 기지로 끌려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갇혔습니다.

이 체포의 방식을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 서열 2위쯤 되는 사람이라면 자기 경호 부대가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곁을 지킵니다. 그런 사람을 잡으려면 그 경호망부터 무력화해야 합니다. 외부 보도를 모아 보면, 이 일을 맡은 것은 군의 정규 기율검사 기구가 아니라 시진핑 직속의 보안 조직이었습니다. 중앙경위국과 공안부 특근국, 그리고 기율검사위 요원들. 시진핑의 안전을 책임지는 친위 세력입니다. 군을 군이 잡은 것이 아니라, 시진핑의 사람들이 군의 2인자를 잡은 것입니다. 한밤중에, 통신을 끊고,

경호원의 총을 빼앗은 채로. 이것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작전이었습니다. 적진에 침투하듯 자기 군대의 지휘부를 친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가 시진핑이 자기 군을 얼마나 믿지 못했는지를 말해 줍니다.

중국 엘리트 정치에서 한 인물이 공개 활동을 멈춘 지 닷새 만에 공식 조사 발표가 나온 것은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몇 달에 걸쳐 내부 합의를 거친 뒤 발표합니다. 그 절차가 통째로 생략됐다는 것은, 사태가 안에서 견잡을 수 없이 빠르게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정리할 여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장유샤와 함께 끌려간 류전리도 짚고 가야 합니다. 류전리는 1980년대 중월전쟁(中越戰爭) 량산 전투 때부터 장유샤와 생사를 함께한 직속 부하였습니다. 연합참모부 참모장으로서 해방군의 작전과 지휘를 잇는 신경망을 쥐고 있던 사람입니다. 군의 머리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의 사람까지 같은 날 끌려갔습니다. 한 사람을 도려내는 것과 지휘의 핵심을 통째로 들어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중월전쟁을 잠시 짚어야 합니다. 1979년부터 1980년대 내내 중국과 베트남은 국경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중국이 마지막으로 치른 본격적인 전쟁입니다. 그 뒤로는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전쟁에 참전한 세대가 인민해방군에서 실전을 아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장유샤는 그 전선에서 부대를 지휘했고, 류전리는 그 부대에 있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참호에서 위아래로 만난 사이입니다. 사무실에서 만난 상하 관계와 전장에서 만난 상하 관계는 무게가 다릅니다. 한쪽은 인사 서류로 묶이고, 다른 한쪽은 목숨으로 묶입니다. 류전리에게 장유샤는 그런 종류의 상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한날한시에 끌어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합니다. 부패라면 한 명씩, 증거가 모이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둘을 동시에 들어냈습니다. 마치 한 덩어리를 통째로 잘라내듯이. 전장에서 맺어진 그 끈을 끊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한 사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죄목은 1월 25일에 나왔습니다. 발표 다음 날입니다.

해방군보(解放軍報), 인민일보(人民日報), 당 이론지 구시(求是)가 일제히 사설을 실었습니다. 세 매체가 같은 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최고 지도부의 결정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사설은 이번 숙청을 "군내 부패를 척결하는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규정했습니다. 부패. 표면에 내건 단어는 부패였습니다.

그런데 분석가들의 눈이 멈춘 곳은 부패라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해방군보는 두 사람의 죄를 '5가지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나열했는데, 그중 두 번째 항목이 묵직했습니다. "중앙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짓밟고 훼손했다(嚴重破壞軍委主席負責制)."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제대로 읽으려면 '군사위 주석 책임제(軍委主席負責制)'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결재 계통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시진핑은 2015년부터 대대적인 군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옛 4총부 체제, 곧 총참모부와 총정치부와 총후근부와 총장비부로 나뉘어 있던 구조를 없앴습니다. 전국을 다섯 개의 전구(戰區)로 다시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군구 사령관이 쥐고 있던 인사권과 병참 권한을 모조리 거둬들였습니다. 개혁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인민해방군을 지배해 온 파벌 중심의 집단지도 체제를 부수고, 말단 중대장의 진급부터 부대 이동 명령까지 모든 결정을 한 사람의 손에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군사위 주석, 곧 시진핑입니다.

집단지도체제가 무엇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죽고 덩샤오핑이 권력을 다시 세울 때, 중국 공산당은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쏠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오 한 사람의 판단이 대약진과 문화대혁명으로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았던 기억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여럿이 나눠 갖고, 서로 견제하고, 중요한 결정은 회의에서 함께 내리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집단지도입니다. 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대마다 군사 지휘관과 정치위원이 있어 한쪽이 다른 쪽을 견제했습니다. 견제는 비효율을 낳지만 동시에 폭주를 막습니다. 시진핑의 군 개혁은 그 견제 장치를 걷어내는 일이었습니다. 효율을 얻는 대신 견제를 버린 것입니다. 군사위 주석 책임제는 그 선택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 군사위 주석 책임제는 시진핑 개인의 권력이 아니라 시진핑 체제 그 자체였습니다. 이 제도가 흔들리면 시진핑이 10년 넘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런 제도를 "유린했다"는 죄목이 측근 중의 측근에게 붙었다는 것은, 체제의 심장을 노린 자가 다른 아닌 체제를 지키던 사람이었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여기에 깊은 모순이 있습니다. 시진핑은 견제를 없애기 위해 군 개혁을 했습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맞서지 못하게 권력을 한 손에 모았습니다. 그렇게 견제를 없앴더니, 이제는 누가

자기에게 맞서려 하는지를 혼자 판단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견제 장치가 있을 때는 제도가 위협을 걸러 줬습니다. 회의가 있고, 표결이 있고, 서로 감시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장치를 다 걷어내자, 위협을 가려내는 일이 온전히 한 사람의 의심에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견도 반란으로 보이고, 오랜 친구도 적으로 보입니다. 견제를 없앤 권력은 강해 보이지만 동시에 외로워집니다. 기델 제도가 없으니 모든 것을 혼자 의심하고 혼자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유샤 숙청은 그 외로운 의심이 처음으로 자기 결의 사람을 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유린했다'는 비난은 무게가 다릅니다. 뇌물을 받았다거나 사익을 챙겼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시진핑 한 사람의 지휘권에 정면으로 맞섰다는 뜻입니다. 항명. 파벌 형성(團團夥夥). 정치적 반란. 군에서 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제일 무거운 정치적 사형 선고입니다.

이 죄목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해방군보가 "입으로는 충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재물을 긁어모았다"며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표현을 처음 쓴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2014년에 숙청된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쉬차이허우(徐才厚), 그리고 2015년에 무너진 귀보송(郭伯雄)이었습니다. 이 둘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군을 사실상 사유화했던 인물로 기록됩니다. 군을 팔아 돈을 챙긴 거대 군벌의 대명사입니다.

시진핑 체제가 장유샤에게 이 죄목을 붙였다는 것은 의미가 큼니다. 자기 10년 맹우이자 어린 시절 친구였던 사람을, 후진타오를 허수아비로 만든 귀보송과 쉬차이허우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가까웠던 사람을 제일 무거운 죄목으로 묶었습니다.

사실이 나열한 '5가지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풀어 보면 죄목의 결이 드러납니다.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신임을 저버렸다는 것,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유린했다는 것, 정치적 부패를 키워 당의 집권 기반을 위협했다는 것, 파벌을 지어 사사로운 무리를 만들었다는 것. 여기에 표면적인 경제 비리가 따라붙었습니다. 다섯 가지를 관통하는 단어는 돈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충성, 책임제, 집권 기반, 파벌. 모두 권력과 노선에 관한 말입니다. 뇌물이나 횡령 같은 단어는 오히려 뒤로 밀려 있습니다. 죄목의 무게를 어디에 실었는지를 보면, 이 숙청이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가 어렵듯이 읽힙니다. 물론 관영 매체의 죄목을 곧이곧대로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죄목은 진실의 기록이 아니라 권력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선언이 어떤 단어를 골라 썼는지는, 권력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 비춰 줍니다.

여기서부터 해석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이 사건을 부패 척결로 볼 것인가, 아니면 권력 도전에 대한 응징으로 볼 것인가. 어느 한쪽이 옳다고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두 시각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먼저 부패 척결론입니다.

이 시각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시진핑 3기 들어 중앙군사위가 부패로 무너진 기록이 실제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2023년 8월과 9월, 리상푸와 웨이평허 전 국방부장이 인사 개입과 금품 수수, 군수 조달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4년 6월 27일 두 사람은 나란히 당적과 군적을 잃고 대장 계급마저 취소됐습니다. 2024년 11월 28일에는 마오화 정치공작부 주임이 조사를 받았고, 2025년 10월 17일에는 허웨이둥 부주석이 당적과 군적을 박탈당했습니다.

로켓군을 중심으로 터진 장비 조달 부패는 그 뿌리가 20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장유샤가 총장비부 부장과 장비발전부장으로 무기 조달을 총괄하던 때와 정확히 겹칩니다. 손이 깨끗하다던 사람도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흙이 묻습니다.

부패가 남긴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와 여러 보도에 따르면, 미사일에 연료 대신 물이 채워져 있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덮개 탓에 서부 미사일 기지 격납고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일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정보 역시 미국 정보기관에서 흘러나온 것이라 액면 그대로 받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중국 관영 매체 스스로 군내 부패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부패 척결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시진핑은 2027년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목표로 군 현대화를 밀어붙였습니다. 대만 무력 통일과 미중 경쟁을 대비하려면 싸워서 이기는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160명이 넘는 장성을 계속 갈아치웠는데도 부패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같은 곳의 분석을 보면, 시진핑의 불신과 인내심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직접 발탁한 서열 2위마저 가차 없이 잘라낸 것은, 부패를 끝까지 뿌리 뽑겠다는 극약 처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받쳐 주는 정황이 더 있습니다. 부패의 무대가 된 로켓군은 보통 부대가 아닙니다. 중국의 핵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을 다루는 부대입니다. 대만 작전이든 미국과의 대치든, 중국이 가진 제일 위협적인 카드가 그 부대 손에 있습니다. 그런 부대에서 미사일에 연료 대신 물이 채워져 있었다면, 그것은 부패를 넘어 안보 그 자체의 구멍입니다. 돈을 빼돌리려고 진짜 연료 대신 값싼 물을 채워 넣고 장부만 맞춰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발사 단추를 눌러도 날아가지 않는 미사일. 시진핑의 입장에서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세우려는 강군의 뼈대가 안에서 썩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리고 장유샤는 그 썩은 시기 내내 무기 조달의 정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장비부 부장이었고, 개혁 뒤에는 장비발전부장이었습니다. 군의 모든 무기와 부품이 그의 결재를 거쳤습니다. 부패가 그의 손 밑에서 자랐다면, 그가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부패 척결론의 추궁입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범입니다. 어느 쪽이든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각에서 보면 장유샤의 몰락은 슬프지만 정당합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낸 외과 수술입니다. 칼이 깊고 아팠던 것은 그만큼 병이 깊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권력 도전 응징론입니다.

반대편의 해석은 이 사건이 부패라는 껍데기를 쓴 정치 척결이라고 봅니다. 근거는 관영 매체가 쏟아낸 죄목 자체에 있습니다. 두 사람을 향한 비난은 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군 내부 통보는 이들이 "정치적 규율을 파괴하고, 정치적 규칙을 위반했으며, 함부로 중앙을 논했다(妄議中央)"고 적었습니다. 망의중앙. 중앙의 결정을 두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했다는 죄입니다. 돈이 아니라 입과 마음의 죄입니다.

영국 가디언(The Guardian)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같은 매체도 이번 사태를 부패보다 권력 투쟁이나 노선 갈등으로 풀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유샤가 미국 군사 정보기관에 중국 핵무기 기밀을 넘겼다는 간첩 혐의까지 제기했습니다. 핵 기밀 유출설입니다.

이 핵 기밀 유출설도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출처는 서방 언론의 익명 소식통이고, 중국 당국이 공식 죄목으로 내건 적은 없습니다. 군 서열 2위가 적국에 핵 기밀을 넘겼다면 그

자체로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라, 중국이 그것을 공개 죄목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신빙성에 의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숨길 이유가 없고, 없는 일이라면 적이 흘릴 만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이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이것을 떠도는 주장으로만 남겨 둡니다.

응징론이 더 주목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다만 무력 통일을 둘러싼 의견 충돌입니다.

장유샤와 류전리는 실제로 피를 흘려본 지휘관입니다. 중월전쟁에 직접 참전했습니다. 장유샤는 1980년대 그 전쟁에서 적의 반격을 막아내고 3천 명의 사상자를 낸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중국 군부에서 실전을 겪은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한 번도 전쟁터를 밟아 본 적 없는 세대입니다. 피 냄새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은 명령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실전파인 두 사람은 인민해방군의 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산 부패로 텅 빈 병참, 작동하지 않는 장비, 조작된 훈련 데이터. 유출됐다는 내부 첩보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동부전구 수륙양용 장갑부대를 기습 점검한 결과 수입산 반도체 칩과 핵심 부품이 모자라고 사격 통제 장치가 고장 난 탓에 장비의 40퍼센트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수치 역시 검증되지 않은 첩보라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군 안에서 장비 실태를 둘러싼 보고가 정직하지 않았다는 정황은 여러 갈래로 나옵니다.

이런 현실을 아는 지휘관에게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마치라는 명령은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응징론은 이렇게 봅니다. 장유샤와 류전리는 군사 전문가로서 객관적 한계를 들어 직언했을 것이다. 승산 없는 전쟁 준비에 '불가(不可)'를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절대 충성과 듣기 좋은 보고만을 원하는 1인 지배자의 눈에 그 직언은 불충으로 비쳤다. 전문가의 양심이 항명으로 번역됐다. 그래서 도려내졌다.

여기에는 권력자와 전문가 사이의 오래된 긴장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목표를 정합니다. 2027년까지 대만을 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목표. 군인은 그 목표가 현실에서 가능한지를 따집니다. 부품이 모자라고 장비가 멈춰 서 있는데 어떻게 그 일정을 맞추느냐고 묻습니다. 건강한 체제라면 이 두 목소리가 부딪치며 더 나은 판단을 만듭니다. 지도자는 군인의 보고를 듣고 일정을 조정하거나 자원을 더 보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쏠린 체제에서는 이 부딪침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목표가 곧 진실이 되고, 그 진실에 토를 다는 보고는 불충이 됩니다. 군인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능력 없는 부하가 아니라 의지 없는 배신자가 됩니다. 응징론은 장유샤와 류전리가 이 함정에 빠졌다고 봅니다. 그들이 군인으로서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시진핑 체제의 깊은 병을 드러냅니다. 충성만 남고 진실이 사라진 체제의 병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지도자에게는 듣기 좋은 보고만 남습니다. 미사일에 물이 채워져 있어도 아무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장비의 40퍼센트가 멈춰 서 있어도 모두가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정말 전쟁이 나면, 지도자는 자기가 만든 거짓 위에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직언하는 장군을 친 대가가 제일 비싸게 청구되는 순간은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응징론이 그린 그림입니다. 장유샤가 정말 직언했는지, 직언했다면 무엇을 말했는지는 닫힌 회의실 안의 일이라 바깥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황은 짙지만 증거는 아직 잠겨 있습니다.

숙청의 방식도 이 해석을 뒷받칩니다. 정상적인 군 기율검사위원회의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중앙경위국과 특근국 요원들이 '심야 밀령(深夜密令)'을 받고 들이닥쳤습니다. 통신을 끊고 경호원을 무장 해제시킨 뒤, 최고위급 장성을 침대에서 끌어냈습니다. 이것은 부패 조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변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정규 군 지휘 체계조차 믿지 못해 자기 친위대를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응징론은 죄목의 순서도 읽습니다. 해방군보가 나열한 '5가지 심각한 정치적 문제'에서 부패는 맨 앞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불충, 곧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유린했다는 항목이 두 번째에 무겁게 박혀 있었습니다. 돈을 탐했다는 죄보다 마음이 떠났다는 죄가 더 강조됐다는 뜻입니다. 정말 부패가 핵심이었다면 죄목의 무게 중심이 다르게 실렸을 것입니다. 관영 매체의 사설은 단어 하나, 순서 하나가 뒷선의 의도를 담습니다. 그 사설이 정치를 부패보다 앞세웠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를 흘리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정황이 겹칩니다. 로켓군에서 나온 5월의 기고문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장유샤의 직계가 많던 그 부대가 숙청 녀 달 뒤에 시진핑이 싫어하는 '집단지도'를 공개적으로 꺼냈습니다. 만약 장유샤가 그저 돈을 빼돌린 탐관오리였다면, 그의 부하들이 그를 두둔하듯 들고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도둑을 위해 목을 내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위협을 무릅쓰고 그 죽은 자의 노선을 변호하고 나섰다면, 장유샤가 단지 도둑이 아니라 어떤 입장을 대표하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부하들이 지키려 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던 무언가였을 수 있습니다.

응징론에서 보면 장유샤의 몰락은 정의의 집행이 아니라 입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바른말 하는 사람을 반역자로 만든 사건입니다.

두 해석을 다 듣고 나면 답을 고르고 싶어집니다. 부패인가, 응징인가. 그런데 이 책은 한쪽을 고르지 않겠습니다. 고를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고르지 않는 것이 진실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두 해석은 서로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장유샤가 무기 조달을 총괄하던 시기에 부패가 자랐다는 것도 사실에 가깝고, 그가 무리한 전쟁 준비에 직언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부패한 사람이 동시에 바른말을 할 수도 있고, 바른말을 하는 사람이 동시에 손이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한 가지 색으로 칠해지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장유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아니라, 시진핑 체제가 부패와 항명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객관적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의심이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부패를 베어낸 칼과 직언을 베어낸 칼이 같은 칼이었습니다.

두 해석을 함께 두면 더 깊은 진실이 보입니다. 권력자에게는 부패와 항명이 자주 한 덩어리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부패한 측근은 약점을 쥐고 있으니 다루기 쉽습니다. 언제든 그 약점으로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측근이 동시에 자기 판단을 가진 사람, 곧 바른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패로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길들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권력자는 그를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부패를 빌미로 항명을 처벌합니다. 죄목은 부패라 적고, 진짜 이유는 항명에 돕니다. 둘이 섞여 있어 바깥에서는 어느 쪽이 진짜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어쩌면 권력자 자신도 둘을 정확히 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똑같이 위협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장은 답을 정하지 않습니다. 부패라고 단정하면 직언파의 비극을 지우게 되고, 응징이라고 단정하면 로켓군 미사일에 채워진 물을 못 본 척하게 됩니다. 둘 다 진실의 일부입니다. 역사는 깔끔한 결론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닫힌 체제 안에서 벌어진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문서가 풀리기 전까지 안개 속에 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개의 모양을 정직하게 그리는 일입니다.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지를 가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척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칼은 휘두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숙청 이후 인민해방군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그 상처가 보입니다.

장유샤가 끌려간 직후 군 지휘 체계가 멈췄습니다. 유출된 군 내부 정보에 따르면 총참모부의 정상적인 지휘 결심 체계가 작동을 멈췄고, 중앙군사위가 암호 전보로 전군에 직접 '1급 전비태세'를 내리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병력 이동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진핑이 정작 두려워한 것은 장유샤의 직계 세력이 무력으로 반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유샤는 막강한 제83집단군 등을 관할했고, 그가 직접 진급시킨 장성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황제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군대가 복상하는 '근왕(勤王)'의 악몽. 그것을 막으려고 장교와 사병의 휴대전화를 모조리 압수하고 외부 통신을 끊었습니다.

제도부터 손봤습니다. 장유샤에 대한 조사가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인 2026년 1월 25일, 중앙군사위원회는 '군대 당조직 선거 업무 규정(軍隊黨組織選舉工作規定)'을 반포했습니다. 파벌을 억누르고 민주집중제를 다잡는다는 명목이었지만, 속내는 군내 당조직의 인선과 대표 선발 과정을 시진핑이 밑바닥부터 틀어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숙청을 발표한 다음 날 곧바로 제도를 내놓았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즉흥이 아니라 준비된 수순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그다음에 온 것이 사상 검증이었습니다. 2026년 4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무려 10주 동안, 소장과 중장급 고급 장성 수백 명이 베이징 서교의 국방대학에 강제로 모였습니다. 전군 고급 간부 정치 훈련반(全軍高級幹部培訓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장성들은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매일 반부패 경고 영상을 보고, 군가를 다시 부르고, 연병장에서 차렷과 쉬어 같은 제식 훈련을 받았습니다. 별을 단 장군들이 신병처럼 줄을 섰습니다. 모욕이 곧 교육이었습니다.

10주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전구를 책임지는 사령관이 두 달 반 동안 부대를 떠나 베이징의 강의실에 앉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부대는 누가 지휘했을까요. 전쟁 준비를 그토록 다그치던 군이, 정작 지휘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두 달 넘게 군가를 부르게 했습니다. 전투력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충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방군보

평론원은 이 기간에 장성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為誰幹)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장유샤가 아니라 시진핑. 그 답을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훈련의 진짜 목적은 전투력이 아니었습니다. 장유샤의 잔당을 색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장유샤와 얽혀 있는지, 누가 사적으로 교류했는지를 서로 고발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人人過關)'는 원칙 아래 끝없는 비판과 자아비판이 이어졌습니다. 2026년 5월 말 해방군보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당성을 지키는 것(講真話就是講黨性)"이라며, 동료를 감싸는 '양면인(兩面人)'이 되지 말고 숨은 파벌 관계를 낱알이 털어놓으라고 다그쳤습니다.

이 풍경에는 역사적 그림자가 겹칩니다. 1942년 마오쩌둥의 연안정풍(延安整風), 그리고 1959년 루산회의(廬山會議) 직후 국방부장 펑더화이(彭德懷)를 몰아내며 전군 장성을 모아 강제로 그를 비판하게 했던 장면입니다. 해방군보는 2026년 6월 24일 자 보도에서 이번 훈련을 연안정풍의 재현이라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80년 전의 칼을 다시 꺼낸 셈입니다.

펑더화이의 이야기는 짚고 갈 만합니다. 펑더화이는 한국전쟁에서 중국군을 지휘한 원수였습니다. 군에서 그의 이름은 무거웠습니다. 1959년 루산회의에서 그는 대약진운동의 폐해를 솔직하게 보고했습니다. 농촌이 굶고 있다는 사실을 마오쩌둥에게 직접 말한 것입니다. 그 직언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마오는 그를 반당분자로 몰았고, 전군 장성을 모아 그를 비판하게 했습니다. 바른말을 한 장군이 한 사람의 분노 앞에서 반역자가 됐습니다. 그 뒤로 중국 군부에서는 직언이 사라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펑더화이처럼 된다는 교훈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2026년의 장면이 1959년과 겹친다는 것은, 응징론의 손을 들어 주는 정황입니다. 다만 마오가 직언하는 펑더화이를 쳤다는 역사가 곧 시진핑이 직언하는 장유샤를 쳤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닭은 그림이 같은 사실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닭았다는 것, 그리고 그 닭음을 중국 군부의 장성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까지가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1979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권력을 잡은 직후의 장면입니다. 후세인은 당 간부 수백 명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반대파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

끌어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게 했습니다. 공포로 충성을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2026년 베이징의 정치 훈련반을 이 장면에 빗대는 평론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빗땀은 빗땀입니다. 중국의 훈련반에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끌려 나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다수를 모아 놓고 공포를 주입한다는 구조는 시대와 나라를 건너 되풀이됩니다. 사람을 모으는 권력은 흩어진 사람보다 모인 사람을 더 잘 길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포가 뜻밖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숙청이 발표된 지 6개월이 다 되도록, 각 전구 사령관이나 군종 책임자 중 누구도 언론에 나와 "장유샤 처벌을 적극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침묵이었습니다.

과거 귀보숭과 쉬차이허우가 무너졌을 때는 달랐습니다. 전군 장성들이 앞다투어 당 중앙의 결정을 옹호하며 충성 서약을 바쳤습니다. 줄을 서서 자기 충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장유샤 때는 그 줄이 서지 않았습니다. 침묵. 거대한 침묵.

이 침묵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석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시진핑을 위해 군을 통제하며 맹목적으로 충성했던 든든한 옛 친구마저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려 한밤중에 끌려가는 것을 본 장성들은, 이제 누구도 자기 안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바짝 붙으면 장유샤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지휘부를 삼켰습니다. 결과는 스스로 결정을 피하고 몸을 사리는 무기력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탕핑(躺平)'이라 부르는 태도입니다. 드러눕는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침묵을 충성 서약과 견주면 그 무게가 보입니다. 중국 군부에서 윗선의 숙청이 발표되면, 아래 장성들이 앞다투어 지지 성명을 내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자기 충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 서약은 진심의 표현이라기보다 생존의 의식이었습니다. 모두가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장유샤 때는 그 의식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서약을, 장성들이 입을 다물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약을 했다가 나중에 장유샤가 복권되거나 노선이 뒤집히면 그 서약이 자기 발목을 잡을까 두려웠다는 것. 다른 하나는 마음속으로 이번 숙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 어느 쪽이든 시진핑에게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공포는 복종을 만들지만 신뢰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차이가 이 침묵에 담겨 있습니다.

침묵은 군대 바깥으로도 번졌습니다. 200개가 넘는 홍2대 가문, 곧 혁명 원로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도 불만이 끓었다고 전해집니다. 장유샤는 그 네트워크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상장이었고, 본인이 군 서열 2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밤중에 끌려갔다는 것은, 출신과 핏줄이 더는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혁명을 함께한 집안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불안이 홍2대 사회 전체에 퍼졌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외부 관측자의 진단이지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닫힌 체제 안에서 누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바깥에서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이 자기 권력의 토대였던 홍2대마저 두려움의 대상으로 돌려세웠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는 점입니다.

침묵은 군 매체에서도 새어 나왔습니다. 2026년 5월 25일, 장유샤의 직계가 많이 포진했던 로켓군의 '혁신이론연구중심' 명의로 당 매체에 기고문 하나가 실렸습니다. 표면은 당 조직 건설을 논하는 글이었지만 속은 도발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의 발언을 끌어와 "당위 통일의 집단지도 아래 수장 분공책임제(黨委統一的集體領導下的首長分工負責制)"를 확립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집단지도. 시진핑이 질색하는 단어를 군 매체가 정면으로 꺼낸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모은 군사위 주석 책임제와 정반대 방향입니다.

기고문은 더 나갔습니다. 인사를 결정할 때 "사람을 알아보는 통찰을 길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리상푸와 웨이펑허처럼 시진핑이 직접 고른 인사들이 줄줄이 부패로 무너진 현실을 에둘러 꼬집은 것입니다. 당신이 고른 사람들이 다 썩었지 않느냐는 조롱입니다. 그리고 지휘관은 "남을 품을 줄 아는 아량(能容人的雅量)"을 가져야 하고, "진실과 실정을 말할 수 있는(說實情 建真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요구하고 충언하는 사람을 잘라낸 시진핑을 겨냥한 문장입니다.

해외 중화권 군사 평론가들은 이 글을 '조반문(造反文)', 곧 소리 없는 반역 문서로 읽었습니다. 군 매체의 행간을 빌려 1인 독재를 정면으로 저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해석입니다. 글 자체는 당 조직론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읽는 사람에 따라 평범한 이론 선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장유샤가 끌려가고 넉 달 뒤, 그의 직계가 많던 부대에서 나온 글이었습니다.

당의 최상층 선전 라인에서도 균열이 보였습니다. 2026년 5월 말, 인민일보 이론판 머리기사로 중국공산당 중앙당사 및 문헌연구원 원장 취칭산(曲青山)의 6,500자짜리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시진핑 당건설 사상을 기리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서 시진핑 1인 지배를 떠받치는 결정적 표현인 '두 개의 확립(兩個確立)'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시진핑 총서기의 당 중앙 핵심 지위를 확립하고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다는 구호입니다. 시진핑 절대 권위의 알맹이입니다. 그 자리에는 '두 개의 수호(兩個維護)'만 남았습니다.

'두 개의 확립'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국 공산당에는 시진핑 절대 권력을 떠받치는 구호 묶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2442 코드'라 부릅니다. 두 개의 확립, 네 개의 의식(四個意識), 네 개의 자신감(四個自信), 두 개의 수호(兩個維護). 숫자만 떼어 2, 4, 4, 2가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두 개의 확립'이 알맹이입니다. 시진핑 한 사람을 당의 핵심으로 확립하고, 시진핑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확립한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과 그 사람의 생각을 당의 중심에 박는 못입니다. 그 못이 인민일보 이론판에서 사라졌습니다.

엄격한 검열을 거치는 인민일보 이론판에서 이런 누락은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론판에 실리는 글은 한 글자까지 뒷선의 손을 거칩니다. 그런 글에서 핵심 중의 핵심 구호가 빠졌다면, 누군가 그것을 빼도 된다고 판단했거나, 빼라고 지시했다는 뜻입니다. 분석가들은 이것을 과도한 권력 집중과 무리한 숙청에 반발하는 고위층의 조직적인 신호로 읽습니다. 막후의 누군가가 집단지도 체제의 복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징후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역시 확증은 없습니다. 편집 과정의 변화일 수도,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정치의 행간 읽기는 늘 이런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한 번의 누락으로 권력 재편을 단정하면 과잉 해석에 빠집니다. 그러나 로켓군의 기고문, 총성 키워드의 증발, 총성 서약의 침묵이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 방향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신호 하나는 우연일 수 있어도, 신호 셋이 겹치면 우연이라 부르기 망설여집니다.

장유샤의 마지막은 아직 공식적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체제 내부 소식통과 외부 관측자들은 그에 대한 최종 처벌이 이르면 2026년 7월경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이 책을 쓰는 시점에서 그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안의 비밀 기지 어딘가에서, 일흔여섯의 노장은 어린 시절 친구가 내린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안이라는 지명을 잠시 들여다봅니다. 베이징 남쪽, 공항 가까운 곳의 한 기지입니다. 한때 군 서열 2위로 단상의 가운데에 앉던 사람이 지금은 그곳의 닫힌 방에 있습니다. 바깥과 연결된 선은 모두 끊겼습니다. 일흔여섯의 노장에게 남은 것은 기다림뿐입니다. 무슨 판결이 내려질지, 언제 내려질지 그 자신도 모릅니다. 권력의 꼭대기에서 권력의 더없이 어두운 구석으로 떨어지는 데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무쇠 모자를 쓴 채로 끌려간 셈입니다. 1월 12일에 단상에 앉았고, 1월 24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은 한 인간의 생애 전부가 뒤집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두 아버지의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시중신과 장중신이 산시성 황토 고원에서 함께 싸우던 때, 두 사람은 같은 위험을 나누고 같은 굶주림을 견뎌왔습니다. 옌안의 흙먼지 속에서 맺은 전우애였습니다. 그 인연이 아들들에게 넘어가, 밑 터진 바지를 입던 두 아이가 함께 자랐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우정이었습니다. 공산당 권력의 꼭대기에서 이만큼 오래 이어진 사적 신뢰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우정도 절대 권력 앞에서는 소모품이었습니다. 옌안의 전우애도, 개당고를 함께 입은 유년의 기억도, 권력을 지키다는 무자비한 목표 앞에서는 잘려 나갔습니다. 덩샤오핑이 남긴 유산, 곧 파벌끼리 타협하고 자리를 나누던 안배의 정치가 사라진 자리에는 1인 지배만 남았습니다. 그 체제 안에서 최고 지도자는 자기 권좌를 지켜 준 제일 친밀한 사람마저 잠재적 위협으로 의심해야 하는 굴레에 갇혔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되는 역설입니다.

표면만 보면 시진핑은 1월 24일에 군부 장악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견제 세력을 도려내고 지휘권을 한 사람에게 수직으로 통합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의 안쪽은 다릅니다. 진실을 말하던 실전파 지휘관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시 지휘망이 마비됐습니다. 공포로 충성을 짜낼수록 진짜 충성은 증발했습니다. 충성의 공동화(空洞化). 속이 비어 가는 충성입니다.

군의 역설은 잔인합니다. 이제 누구도 감히 군사위 주석의 명령에 토를 달지 못합니다. 동시에 누구도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의지나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명령은 절대적인데 군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복종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모았더니,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게 됐습니다.

숫자로 돌아가 봅니다. 일곱 자리 중 둘만 남았습니다. 시진핑과 장성민. 그런데 장성민은 기율 검사를 맡은 사람입니다. 군을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군을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군을 움직이는 자리에는 시진핑 한 사람만 남은 셈입니다. 부주석도, 작전을 짜는 참모장도 비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누군가 작전을 세우고 부대를 움직여야 하는데,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2027년까지 싸울 군대를 만들겠다고 계획은, 정작 그 군대를 지휘할 머리를 스스로 잘라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강군을 만들려다 지휘부를 비운 것입니다. 이 모순이 2026년 인민해방군의 자화상입니다.

장유샤가 이끌던 산시방의 운명도 짙어 둡니다. 그는 류전리를 비롯한 산시 출신 장교들의 맹주였습니다. 그 무리가 군의 작전과 인사를 상당 부분 쥐고 있었습니다. 장유샤와 류전리가 한날 끌려가면서, 그 무리의 머리가 한꺼번에 잘렸습니다. 앞서 푸젠방이 무너졌으니, 이제 군에는 시진핑이 기델 만한 큰 줄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파벌을 다 쳐낸 자리에 새로운 신뢰의 줄기가 자라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이 숙청이 남긴 깊은 공백입니다.

2022년에 시진핑은 자기 후계 자리를 비워 두었습니다. 1장에서 본 그 빈자리입니다. 그때는 그 빈칸이 절대 권력의 표시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도 다음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만든 권위. 그런데 2026년에 군부가 무너지자, 그 빈칸의 위험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흔들리면 누가 군을 잡을 것인가. 다섯 자리가 비어 있고, 남은 두 사람 중 하나는 본인입니다. 후계를 비워 둔 자리에 군부 붕괴까지 겹치면서, 빈칸은 위험한 공백이 됐습니다.

이 책이 처음부터 따라가는 시간의 흐름이 여기서 한 매듭을 짓습니다. 2022년 가을, 시진핑은 후계 구도를 비우고 권력을 한 손에 모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후계를 비워 두면 권위는 커지지만, 그 권위를 떠받칠 사람도 함께 사라집니다. 곁에 후계자를 두지 않은 권력자는 모든 측근을 잠재적 경쟁자로 보게 됩니다. 누가 다음을 노리는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2026년 군부 숙청은 그 의심이 도달한 끝이었습니다. 후계를 비웠기에, 군 서열 2위의 작은 이견도 권력 도전으로 보였습니다. 비워 둔 자리가 의심을 키웠고, 그 의심이 제일 가까운 사람을 도려냈습니다. 2022년의 선택이 2026년의 비극을 잉태했다고 보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이 숙청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유샤가 끌려간 뒤, 그가 진급시킨 수천 명의 장성이 의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누가 그와 가까웠는지, 누가 그의 줄에 섰는지를 캐는

조사가 군 전체로 번졌습니다. 한 사람을 잘라내자 그 사람과 연결된 그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그물을 따라갑니다. 장유샤 한 명의 몰락이 어떻게 군 전체의 연쇄 붕괴로 번졌는지, 그 연쇄가 인민해방군을 어디까지 비워 놓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철모자왕 장유샤가 사라진 빈자리. 그 자리에는 새로운 강자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들어선 것은 침묵입니다. 누구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기 군대마저 두려워해야 하는 한 사람의 고독입니다. 무쇠로 만든 모자도 닳지 않는다더니, 정작 닳지 않은 것은 모자가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그 의심의 끝에서, 절대 권력은 더없이 외로운 곳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구안의 비밀 기지에서는, 한 노장이 어릴 적 친구의 마지막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밀 터진 바지를 함께 입던 그 친구의 결정을. 연안의 흙먼지에서 시작된 두 집안의 인연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단상 위에서, 다른 한 사람은 닫힌 방 안에서.

[제4장]

‘철모자왕’의 마지막

시진핑의 50년 지기이자 군 서열 2위,
장유샤의 몰락이 남긴 서늘한 공백

- 2026년 1월, 베이징을 뒤흔든 군부 최고위층의 동시 입건 사건을 추적합니다.
- 권력의 꼭대기에서 벌어진 부패와 항명, 그리고 1인 지배 체제의 모순을 해부합니다.



NotebookLM

제5장 연쇄의 그물

서부 내륙의 사막은 겨울에도 모래가 마릅니다. 그 마른 땅 아래로 콘크리트 격납고들이 줄지어 묻혀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겨누는 미사일, 미국 본토까지 닿는다는 핵탄두 미사일이 그 안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전한 이야기는 그 마른 땅의 풍경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격납고 덮개가 규격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전이 벌어지면 덮개가 열리지 않아 미사일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더 기막힌 대목은 미사일 안쪽이었습니다. 연료통에 로켓 연료 대신 맹물이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든 미사일. 이 짧은 한마디가 한 사람을 격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만 무력 통일을 머릿속의 달력에 박아두고 군을 채찍질하던 사람, 시진핑(習近平)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굳게 믿었던 전략 억지력의 총아 로켓군(火箭軍)이 알고 보니 물이 찬 미사일과 엉터리 보고서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돈을 빼돌린 부패를 넘어선 무엇이었습니다. 군이 군답지 못하다는, 뿌리를 건드린 배신이었습니다.

한 가지 장면을 더 떠올려 보겠습니다. 2022년 10월의 베이징, 제20차 당대회장입니다. 시진핑은 그 자리에서 경쟁 파벌을 깨끗이 밀어내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최고지도부와 중앙군사위원회를 채웠습니다. 시자진(習家軍), 곧 시진핑의 군대라 불린 진용이었습니다. 단상 위의 그는 1인 지배의 완성을 선언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상에 함께 섰던 군 수뇌부 일곱 사람 가운데, 3년 뒤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의 운명을 그날의 시진핑은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 자신이 그 운명을 만들게 될 줄 몰랐을까요.

제4장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철모자왕'이라 불리던 장유샤(張又俠)의 추락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추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에 걸쳐 한 칸씩 다가온 그물의 마지막 매듭이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 그물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에게로 옮겨갔는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인과의 사슬대로 말입니다. 한 가지 미리 알려둘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확인된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습니다. 중국 군부의 인사는 닫힌 문 뒤에서 결정되고, 우리가 가진 것은 발표된 처분과 새어 나온 소문, 그리고 그것을 읽는 외부의 분석뿐입니다. 그러니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추측인지를, 가능한 한 그때그때 갈라서 적어두겠습니다.

시작은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그해 8월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기율검사위원회가 한 사람을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리상푸(李尚福) 국방부장이었습니다. 불과 다섯 달 전인 그해 3월에 국방부장 자리에 앉은 시진핑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발탁해 군복을 입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임명된 지 반년도 안 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9월 21일에는 그의 전임자였던 웨이펑허(魏鳳和) 전 국방부장도 조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두 명의 전·현직 국방부장이 나란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해 10월 24일 리상푸는 국방부장직에서 면직됐고, 이듬해인 2024년 6월 27일 두 사람은 당적과 군적을 함께 빼앗기고 대장(上將) 계급마저 취소당했습니다. 2026년 5월 중국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들 두 사람에게는 끝내 사형 유예(死刑緩期二年執行)라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사형 유예는 형 집행을 2년 미뤄두고 그 사이의 태도를 보아 무기징역 등으로 바꾸는 형벌입니다.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였습니다.

이들에게 붙은 죄목은 인사 개입, 금품 수수, 그리고 이 사태의 핵심인 군수 조달 부패였습니다. 당국은 이들을 군공방(軍工幫), 방위산업 파벌의 부패 수괴로 규정했습니다. 군공방이라는 말은 무기를 만드는 산업과 그것을 사들이는 군 사이에 형성된 검은 동맹을 가리킵니다. 무기를 파는 쪽과 사는 쪽이 한패가 되면, 그 사이에 끼는 것은 국민의 세금과 부실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장 두 사람이 무너지는 동안, 그 발밑에서는 더 큰 멸절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로켓군 지휘부 전체가 뿌리째 뽑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켓군이 어떤 부대인지 잠깐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로켓군은 핵무기와 재래식 미사일을 함께 운용합니다. 베이징의 대외 군사 위협을 떠받치는 신경망이자, 대만과 미국을 향한 억지력의 핵심입니다. 중국이 가진 패 가운데 묵직한 한 장입니다. 그 부대의 수뇌부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중국에는 연근발기(連根拔起)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리째 뽑는다는 뜻입니다. 2023년 하반기 로켓군에 일어난 일이 꼭 그랬습니다. 나뭇가지 몇 개를 친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를 뿌리째 들어낸 것입니다. 그 과정을 시간 순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7일, 장전중(張振中) 전 로켓군 부사령관이 잡혔습니다. 9월 26일에는 제2대 로켓군 사령관 저우야닝(周亞寧)과 제3대 사령관 리위차오(李玉超)가 함께 입건됐습니다. 같은 날 뤼홍(呂宏) 로켓군 장비부장도 끌려갔습니다. 12월 5일에는 리찬광(李傳廣)

부사령관이, 한참 뒤인 2025년 7월 18일에는 왕즈빈(汪誌斌) 로켓군 기율검사위원회 서기까지 같은 혐의로 쇠고랑을 찻습니다. 사령관, 부사령관, 장비부장, 그리고 부대 안에서 비리를 감시해야 할 기율위 서기까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이 누구보다 신뢰해야 할 부대의 머리가 통째로 잘려나간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시진핑으로 하여금 자신이 친히 세운 로켓군 수뇌부를 이토록 파괴적인 칼로 베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갈래의 시선을 함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부패 척결이라는 공식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그 너머를 읽으려는 추측입니다. 어느 쪽도 혼자서는 이 그림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해외 정보당국과 서방 언론의 분석은 두 개의 뇌관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기밀 유출입니다. 2022년 10월, 미국 국방부 산하의 중국항공우주연구소(CASI)가 255쪽 분량의 중국 로켓군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거기에는 로켓군의 조직 구성, 각 부대의 위치, 부대별 미사일 종류까지 1급 군사 기밀이 소름 끼치도록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자국의 깊은 비밀이 미국의 손바닥 위에 펼쳐져 있었던 셈입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정보망이 통째로 뚫렸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 분노가 색출 작업으로 번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른 하나가 바로 앞서 말한 물이 든 미사일, 불량 격납고였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는 어디까지나 정황과 추측입니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부패와 기율 위반뿐입니다. 진짜 이유가 기밀 유출에 대한 보복인지, 부패에 대한 응징인지, 아니면 둘이 뒤엉킨 것인지는 베이징의 닫힌 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문틈으로 새어 나온 빛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패가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2023년 7월 29일,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가 돌연 공지를 냈습니다. 2017년 10월 이후의 군 장비 조달과 입찰 관련 규정 위반을 제보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10월은 시진핑 집권 2기가 열린 제19차 당대회 시점입니다. 그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 10년치 장부를 다 뒤지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도차십년(倒查十年), 10년을 거슬러 캐낸다고 부릅니다. 무자비한 과거 청산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치 장부에는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2017년 이후의 시기는, 바로 리상푸가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장으로 중국군의 무기 획득을 총괄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리상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군사위 총장비부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그의 직속 상관이 누구였을까요. 훗날 군 서열 2위가 되는 장유샤였습니다. 장부를 한 장씩 넘기다 보면 조사의 칼끝은 자연히 위로,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도차십년이라는 말 자체에 시진핑 체제의 사정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의 부패 수사는 최근의 비리를 캡니다. 그러나 10년을 거슬러 캔다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을 먼저 정해두고, 그 사람의 10년치 행적을 뒤져 죄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누구든 10년 장부를 다 뒤지면 흠 하나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도차십년은 부패를 찾는 그물이면서, 동시에 찍어둔 사람을 잡는 올가미이기도 했습니다. 이 양면성이 이 장 전체를 관통합니다. 발표된 죄목은 늘 부패였지만, 그 부패가 진짜 이유였는지 아니면 미리 정해둔 표적에 씌운 명분이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읽힙니다.

그 장부 속의 부패는 정교했습니다. 무기 입찰에서 누가 낙찰받을지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낙찰받을 사람을 홍화(紅花), 붉은 꽃이라 불렀고 들러리를 녹엽(綠葉), 푸른 잎이라 불렀습니다. 꽃과 잎을 미리 짜놓고 입찰을 벌이니 경쟁은 연극이었습니다. 가격은 시장가의 몇 배에서 몇십 배로 부풀려졌고, 남은 차액은 리베이트가 되어 고위 장성 가족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성능이 좋은 무기가 아니라 두둑한 리베이트를 약속한 무기가 채택됩니다. 부품 하나, 미사일 한 발의 채택 기준이 성능이 아니라 뒷돈이 되는 순간, 부대의 창고에는 비싸고 쓸모없는 무기가 쌓여갑니다. 물이 든 미사일은 이 구조의 자연스러운 산물이었습니다.

시진핑 체제는 이 카르텔의 숨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2026년 5월 22일, 군대 조달망에 한 기업을 1년간 조달에서 배제한다는 공고가 올랐습니다. 중국항천과공집단(中國航天科工集團) 산하의 항천계통공정유한공사였습니다. 미사일과 우주 개발을 다루는 핵심 방산 국유기업입니다. 징계 사유는 9년 전인 2017년 입찰의 담합이었습니다. 최고 등급 국유기업을 상대로 9년 묵은 사건을 끄집어낸 것은, 군수 체계의 심장을 도려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색출의 결과로 나온 숫자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고발장입니다. 116개의 군납 공급업체가 처벌받았습니다. 74명의 전문가가 조달 평가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입찰 규정 불일치율이 정돈 이전의 77퍼센트에서 92퍼센트로 치솟았습니다.

이 92퍼센트라는 숫자를 잠깐 곱씹어 보겠습니다. 불일치율이 올랐다는 것은 검사 기준을 엄격하게 했더니 걸려드는 비율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느슨하게 봐주던 것을 제대로 들여다보니, 군 조달 프로젝트의 열에 아홉이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곳이 썩은 것이 아니라 조달 체계 전체가 썩어 있었다는 자백입니다. 당국이 직접 발표한 숫자라는 점이 무겁습니다. 외부의 비판이 아니라 내부의 점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중국군이 지난 10년간 사들인 무기의 상당수가, 성능이 아니라 뒷거래로 골라진 물건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스캔들이 시진핑 체제에 입힌 진짜 상처는 사라진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투력의 진실이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장비 조달은 무기의 품질, 시험 결과, 실전 배치 속도와 곧바로 연결됩니다. 뇌물과 담합으로 얼룩진 조달의 끝에서, 서류상으로는 최첨단 무기가 완벽하게 납품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작전에서는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가짜 무기들이 부대에 쌓였습니다. 예산은 집행됐지만 그것은 국가의 군사력이 아니라 부패한 장성들의 이력서를 장식하는 허구의 숫자였습니다.

여기에 더 끔찍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실의 마비입니다. 무기를 받는 자, 시험하는 자, 예산을 승인하는 자가 모두 같은 리베이트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 사슬에 묶인 사람들은 서로의 비밀을 지켜줍니다. 내가 입을 다물어야 너도 입을 다물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산다는 계산입니다. 부패는 그렇게 침묵의 공범을 만듭니다. 그러니 아무도 결함을 위에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했다가는 자기 목이 달아날 판이었으니까요. 결함을 처음 발견한 하급 장교가 그것을 솔직히 적어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보고서는 위로 올라가다 어느 단계에서 멈춥니다. 그 단계의 상관이 바로 그 결함을 덮어준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적은 하급 장교는 미운털이 박히고, 결함은 다시 서류 속에 묻힙니다. 이런 일이 부대마다 반복되면, 군대 전체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조직이 됩니다. 각 층의 군관들은 현실을 둥글게 깎아 위로 올렸습니다. 심각한 작전 지연은 사소한 조정이 됐습니다. 치명적인 시험 실패는 단계적 어려움이 됐습니다. 전쟁 수행의 질은 불확실성은 전반적인 통제 가능이라는 말로 변조됐습니다.

한 단계씩 윤색된 거짓말이 피라미드를 타고 올라가, 마침내 꼭대기에 앉은 군사위 주석 시진핑의 책상에 닿았을 때, 그것은 이미 현실과 아무 상관 없는 완벽한 승전보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기 눈과 귀를 측근들이 가린 셈입니다. 1인에게 모든 결정권이 모인 체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하기로 손꼽히는 형태의 부패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시진핑은 대만 통일이라는 시간표를 머릿속에 박아두고 군을 다그쳤습니다. 강군몽(強軍夢),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꿈을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고받던 강군의 모습은 종이 위에만 있었습니다. 실제 부대에는 물이 든 미사일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쏠린 체제의 잔인한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정보가 단계마다 깎이고 다듬어져, 정점에 앉은 사람은 거짓의 거울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권력이 클수록 진실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들통났을 때, 1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짓을 올린 사람들을 베어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베어낸 자리에 들어오는 새 사람들도 결국 같은 거짓의 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시진핑의 분노는 로켓군에서 멈추지 않고 중앙군사위 전체를 향한 피바람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매듭은 1년 뒤에 조여졌습니다. 이번에 그물에 걸린 사람은 시진핑이 누구보다 오래, 누구보다 깊이 믿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마오화(苗華)와 허웨이둥(何衛東)입니다.

이 두 사람을 이해하려면 푸젠성(福建省)으로 가야 합니다. 시진핑은 1985년 푸젠성 샤먼(廈門)시 부시장으로 공직을 시작해 2002년까지 17년을 푸젠성에서 보냈습니다. 자신의 확고한 정치적 텃밭을 거기서 일궈냈습니다. 그 시절 샤먼에 주둔하던 부대가 인민해방군 제31집단군(第31集團軍)이었습니다. 마오화는 14세의 어린 나이에 군에 들어가 1969년부터 2001년까지 초기 경력의 거의 전부를 그 제31집단군에서 보냈습니다. 시진핑이 푸젠성에 있는 동안 두 사람은 자주 교류했고, 마오화는 오랜 세월 시진핑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심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허웨이둥 역시 제31집단군 경력을 바탕으로 시진핑과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푸젠성과 제31집단군에서 잉태된 인맥을 사람들은 푸젠방(福建幫)이라 불렀습니다. 시진핑의 군부 장악을 떠받치는 견고한 두 기둥, 시자진(習家軍)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오화는 정치공작부 주임이 됐습니다. 군의 모든 인사 권한을 쥐고 장성들의 사상 검증과 승진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허웨이둥은 중앙군사위 부주석, 군 서열 2위에 올라 대만 해협의 작전을 총괄했습니다.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결속이 2024년 하반기에 파열음을 냈습니다. 11월 28일, 중국 국방부가 마오화의 정직(停職)과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인사권을 쥔 사람이 인사 비리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죄목은 직무 범죄와 부정부패였습니다.

여기서 한 소문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부 해외 평론가들과 미확인 첩보에 따르면, 마오화는 강압적인 심문 과정에서 무려 1,300여 명에 달하는 뇌물 연루 장성과 군부 인사들의 명단을 자백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1,3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인민해방군 고위층 전체에 깔린 부패의 지도를 한 사람이 그려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출된 소문입니다. 공식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명단이 실재했다면,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연쇄 숙청이 왜 그토록 정확하게 한 사람씩 짚어나갔는지를 설명해주는 한 가지 단서가 됩니다.

마오화의 몰락은 단호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도 절차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직무 정지, 2025년 3월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 파면, 2025년 6월 27일 중앙군사위원직 면직, 그리고 2025년 10월 17일 당적과 군적 박탈. 직무를 멈추고, 인민의 대표 자격을 거두고, 군 위원직을 떼어내고, 마지막으로 당과 군에서 완전히 지워내는 순서입니다. 11개월에 걸쳐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이 단계적으로 끊겼습니다. 이 더딘 절차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군 전체가 한 사람의 추락을 천천히, 똑똑히 지켜보게 만든 것입니다. 시진핑이 군 장악을 과시하려고 전면에 내세웠던, 날 선 인사 통제의 칼이, 그 스스로의 부패로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마오화라는 사람을 잠깐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14세에 군복을 입은 소년이 60년 가까운 세월을 군에서 보내며 인사권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가 앉은 정치공작부 주임의 자리는 장성들의 사상을 검증하고 승진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장군이 별을 하나 더 달지, 어떤 장군이 한직으로 밀려날지가 그의 손끝에서 정해졌습니다. 군 안에서 그의 비위를 거스르고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사 비리로 끌려갔습니다. 칼을 쥐고 있던 손이 그 칼에 베인 것입니다. 시진핑이 자기 군대를 장악하는 데 쓰던 인사 통제의 도구가, 알고 보니 그 도구를 쥔 사람부터 썩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오화가 쓰러지자 그물은 지체 없이 옆 사람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허웨이둥입니다. 그 역시 직무 범죄와 부정부패라는 같은 덫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해외 분석가들은

허웨이둥의 실각을 두고 한 가지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1967년 문화대혁명 시기 이후 처음으로 숙청되는 중앙군사위 부주석이라는 점입니다. 군 서열 2위가 부패로 끌려간 일은 반세기 만이었습니다. 군부 내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문화대혁명을 떠올려 보면 이 비교의 무게가 더 또렷해집니다. 그 시절 중국 군부는 나라가 통째로 뒤집히는 광기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 혼란기 이후로 반세기 동안, 군 서열 2위가 부패로 끌려간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군 수뇌부는 정치의 격랑 속에서도 자기들끼리는 서로를 बे지 않는다는 암묵의 선을 지켜왔습니다. 허웨이둥의 추락은 그 선이 무너졌음을 뜻했습니다. 이제 군 안에서 누구도 직위의 높이만으로는 안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허웨이둥에 대한 처분은 2025년 10월의 제20기 4중전회를 전후해 일사천리로 집행됐습니다. 10월 17일 마오화와 같은 날 당적과 군적을 박탈당했고, 열흘 남짓 지난 10월 28일 부주석직에서 면직됐으며, 12월 27일 전국인대 대표직마저 파면됐습니다. 4중전회를 통해 허웨이둥과 마오화를 비롯한 고위 장성 8명이 한꺼번에 낙마했습니다. 직계 측근조차 가리지 않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왜 자신이 30년 가까이 공들여 키운 푸젠방의 두 기둥을 스스로 베어야 했을까요. 부패만으로는 이 잔혹함이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권력투쟁이라는 또 하나의 시선이 들어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분석가 조너선 친(Jonathan Czin)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의 분석을 모아 보면, 당시 인민해방군 최상층부는 두 파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진핑의 푸젠성 인맥을 주축으로 한 푸젠방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진핑과 같은 산시성(陝西省) 혁명 원로 가문 출신인 장유샤를 정점으로 하는 산시방(陝西幫)입니다. 장유샤는 태자당이라는 혈통과 공산당 원로들과의 유대를 바탕으로, 군 안에서 시진핑의 권위를 은연중에 흔들 수 있을 만큼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철모자왕이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를 비롯한 여러 관측통의 견해를 모으면, 시진핑은 팽창하는 장유샤를 견제하려고 마오화와 허웨이둥을 요직에 배치했다고 봅니다. 자기 심복으로 장유샤의 힘을 누르는 견제와 균형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부패 스캔들에 깊숙이 연루되어 약점을 드러냈거나, 장유샤와의 물밑 싸움에서 한계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푸젠방이 1인자의 신임을 잃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이 모든 해석에는 신중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권력투쟁이라는 그림은 외부 관측자들이 조각난 정보를 이어 붙여 그린 것입니다. 베이징이 인정한 것은 부패뿐입니다. 부패 척결의 시선으로 보면 마오화와 허웨이둥은 썩은 가지였고, 권력투쟁의 시선으로 보면 그들은 더 큰 싸움의 희생물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 아니면 둘 다 진실의 일부인지는 독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결과만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푸젠방의 두 방패를 스스로 도려낸 시진핑 앞에는, 이제 견제 장치마저 사라진 산시방의 수장 장유샤와 류전리(劉振立) 참모장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2026년 1월 24일 심각한 기율 위반으로 입건되며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7인으로 출범한 제20기 중앙군사위원회는, 리상푸와 웨이핑허에 이어 마오화, 허웨이둥, 장유샤까지 5명의 수뇌부가 줄줄이 쫓겨나며 사실상 기능이 멈췄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역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진핑이 발탁한 심복이 군을 부패시켰고, 충성파로 분류되던 2인자가 강제로 퇴장당했습니다. 이것은 1인에게 모든 권력이 모인 체제가 마주하는 독재자의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를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권력을 한 사람에게 모으려면 그 곁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일수록 권력의 핵심에 가까이 가게 되고, 핵심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만 먹으면 1인자를 위협할 힘을 갖게 됩니다. 충성이 깊을수록 위험도 커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독재자는 자기가 키운 충신을 의심하고, 의심이 쌓이면 베어냅니다. 베어낸 자리에 새 충신을 앉히지만, 그 충신도 시간이 지나면 같은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객관적인 승진과 감시 시스템이 무너지고 오직 1인자에 대한 충성도와 간택에만 군부의 명운을 맡긴 결과, 최고 권력자는 누구보다 믿었던 측근마저 잠재적 위협으로 의심하며 끝없이 베어내야 하는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피를 흘리며 밀려난 텅 빈 무대는, 대만 해협의 위기 앞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휘망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붕괴 속으로 가라앉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명이 무너지고 다섯 명이 사라진 자리에, 시진핑을 빼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단 한 명 있습니다. 지난 8년간 군의 핏빛 반부패 사정을 총괄해 온 장성민(張升民)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입니다.

장성민은 1958년 산시성 우궁(武功)현 출신입니다. 출신지부터 의미심장합니다. 산시성은 시진핑의 정치적 고향이자 그 부친 시중쉰의 혁명 근거지입니다. 그리고 방금 낙마한 장유샤 역시 산시성 기반의 고위 가문 출신입니다. 같은 산시방으로 분류되는 두 사람 중 하나는 끌려가고 하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에 이 장 전체를 통틀어 곱씹어볼 만한 역설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푸젠방과 산시방이라는 두 파벌의 대립을 따라왔습니다. 푸젠방이 무너지고 산시방의 수장 장유샤가 마지막에 끌려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시방 안에서도 한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파벌이라는 잣대만으로는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살고 죽음을 가른 것은 어느 파벌에 속했느냐가 아니라, 1인자에게 어떤 쓸모를 가졌느냐였습니다. 장유샤는 실전을 아는 군인이라서 위협이 되었고, 장성민은 동료를 베는 칼이라서 쓸모가 있었습니다. 장성민은 작전 부대가 아니라 전략 미사일과 핵무기를 다루는 제2포병, 지금의 로켓군에서 주로 경력을 쌓은 정훈과 기울 담당 관료입니다.

장성민이 권력의 핵심 집행관으로 들어선 분기점은 2017년 제19차 당대회였습니다. 그는 군 최고 사정 기구인 중앙군사위 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발탁됐고, 19차 당대회에서 중앙군사위원이 됐습니다. 그의 진급에는 파격이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2일 상장(上將)으로 진급했는데, 본래 상장이 되려면 주요 전구급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중장 계급을 4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이 관례를 깨고 그를 초고속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파격은 시진핑이 장성민에게 얼마나 막대한 권한과 신뢰를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읽힙니다.

기율검사위 서기가 된 장성민은 이후 8년 동안 시진핑의 의지를 받들어 군 내부의 반대파와 부패 세력을 베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여기에 묘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가 맨 먼저, 그것도 누구보다 철저하게 파괴한 곳이 자기 친정인 로켓군이었던 점입니다. 리위차오, 저우야닝, 장전중, 뤼훙, 리찬광, 그리고 같은 사정 파트너였던 왕즈빈까지. 자신이 몸담았던 부대의 수뇌부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잡아들였습니다. 칼을 든 자가 자기 집부터 베어낸 셈입니다.

자기 친정을 도려낸 칼끝은 이내 푸젠방을 향했습니다. 2024년 11월 마오화, 2025년 10월 허웨이둥. 그리고 이 거대한 파벌 청소의 정점에서 장성민은 전례 없는 보상을 거머쥐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제20기 4중전회에서, 시진핑은 허웨이둥과 마오화를 비롯한 8명의 낙마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장유샤와 함께

자기 고향 출신이자 기율 담당이던 장성민을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임명했습니다.

기율검사위 서기가 군 최고 권력인 부주석으로 수직 상승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같은 4중전회에서 동진(董軍) 국방부장은 중앙군사위원으로조차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작전과 인사를 맡은 사람들이 줄줄이 배제되는 사이, 사정을 맡은 사람이 서열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인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려면, 군대라는 조직이 본래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군대는 싸워 이기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러니 군의 최고 지휘부에는 작전을 아는 사람, 부대를 움직여본 사람, 전장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앉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부주석으로 끌어올린 사람은 평생 사상 검증과 비리 색출만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전선을 지휘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두고 서방과 중화권 분석가들은 한 문장으로 읽습니다. 싸워 이기는 실전 능력보다, 최고지도자를 향한 충성과 공포 기율을 앞세우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적과 싸울 군대가 아니라, 내부를 감시하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신호인 셈입니다. 대만 통일을 외치면서 정작 군 수뇌부에는 전쟁을 지휘할 사람이 아니라 동료를 감시할 사람을 앉힌 것, 이 모순이 2026년 중국 군부의 자화상입니다.

장성민의 부주석 취임 석 달 뒤인 2026년 1월 24일, 또 한 번의 지진이 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작전 실세이자 산시방의 거두 장유샤와 류전리 참모장이 군사위 주석 책임제 유린이라는 혐의로 야밤에 입건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제거되면서, 7인으로 출발한 제20기 중앙군사위원회는 5명이 사라지고 오직 시진핑과 장성민 두 사람만 남는 기형적인 체제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장성민은 그 껍데기만 남은 위원회의 유일한 부주석으로서 고독한 집행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샤 사태 직후 군 지휘 체계가 멈춰 서고 장성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무기력에 빠지자, 그는 가혹한 정치 정풍 운동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2026년 3월 양회 개막 직전까지도 장군 9명을 포함한 19명의 전국인대 대표를 해임했습니다. 양회에서 인민해방군을 대표해 군 업무보고를 한 사람도 그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두 가지 확립(兩個確立), 곧 시진핑의 당 중앙 핵심 지위와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거듭 맹세하며, 모든 지휘권이 시진핑 1인에게 모이는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전 군에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남은 자의 앞날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두 겹의 위태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 자체가 증명하는 공동화입니다. 작전 부대를 지휘해 본 경험이 전혀 없고 평생 정치 기율과 사정만 맡아온 사람이 유일한 부주석이 됐다는 사실은, 인민해방군의 실전 지휘 체계가 얼마나 비어버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짜 전쟁을 치를 실전파 지휘관들을 모두 감옥에 넣고 기율 담당자 한 사람만 남긴 것입니다. 2027년 건군 100주년과 강군몽의 군사적 실효성을 밑바닥부터 의심하게 만드는 풍경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자리가 사형대의 대기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화권 평론가들의 통찰을 빌리면, 최근 군 내부에서 귀푸샤오(郭普校), 리펑비아오(李鳳彪) 같은 산시방 인사들이 요직을 채우며 장성민이 군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1인 독재 체제에서 이것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과거 그가 속했던 제2포병 지휘부가 부패로 몰살당한 전력을 떠올리면, 그 역시 과거 행적이 파헤쳐질 경우 직무 범죄라는 이름으로 언제든 베일 수 있습니다.

토사구팽(兔死狗烹)이라는 옛말이 여기에 들어맞습니다. 토끼를 다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입니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쓸모를 잃고, 쓸모를 잃은 사냥개는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성민은 8년 동안 군 내부의 부패를 캐며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약점을 손에 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1인자에게 더없이 유용하지만, 동시에 더없이 위험합니다. 숙청이 끝나고 군부가 잠잠해지는 날, 또는 독재자가 군의 불만을 달랠 희생양이 필요해지는 날, 그 칼은 칼을 쥔 사람을 향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의 목을 쳐내고 홀로 남은 사정 칼잡이는, 권력의 효용이 다하는 순간 맨 먼저 토사구팽당할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장성민의 처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서늘한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는 동료들을 한 명씩 베어내며 살아남았습니다. 로켓군의 옛 전우들을 잡아넣었고, 푸젠방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는 칼끝의 일부였으며, 산시방의 거두 장유샤가 끌려가는 자리에도 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사라진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 홀로 남았다는 것은, 다음 차례에 그를 막아줄 사람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정의 칼을 쥔 사람은 그 칼이 향할 다음 표적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가 양회에서 두 가지 확립을 거듭 맹세하고, 해방군보를 통해 절대 충성의 훈화를 쏟아내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안전을 위한

외침인지도 모릅니다. 충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클수록, 그 목소리의 주인이 불안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8년간 수천 명의 동료 장성들에게 사정의 피바람을 일으키며 7인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 5명의 동료가 참수되고 홀로 부주석 자리에 앉아 2027년을 맞이해야 하는 장성민은, 예측 가능한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수렴된 체제가 낳은 불신과 공포의 상징입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그가 살아남은 방식이 곧 그가 위태로운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누가 언제 어떻게 무너졌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사람의 명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무늬 하나가 떠오릅니다.

4중전회 직전인 2025년 10월 17일, 국방부와 관영 매체는 9명의 최고위급 장성이 심각한 기율 및 국가 법률 위반 혐의로 당적과 군적을 박탈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명단의 앞쪽 다섯 사람을 줄 세워 보겠습니다. 1번 허웨이동 중앙군사위 부주석. 2번 마오화 정치공작부 주임. 3번 허홍진(何宏軍), 마오화의 직속 부하로 정치공작부에서 인사와 기율을 통제하던 핵심 장성. 4번 왕슈빈(王秀斌) 남부전구 사령관. 5번 린상양(林向陽) 동부전구 사령관.

이 다섯 사람의 궤적을 겹쳐보면 하나의 교집합이 나옵니다. 군의 인사권을 쥐 정치공작부와, 대만 작전을 전담하는 동부전구. 이 두 축이 만나는 자리에 제31집단군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17년을 보낸 푸젠성 샤먼의 그 부대 말입니다. 다섯 명 모두 제31집단군에서 잉태됐거나 거기서 파생된 동부전구라는 단일한 뿌리를 공유합니다. 인사권의 정점과 대만 작전의 심장부가 같은 고향에서 자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이 단서가 왜 그토록 무거운지를 짚어두겠습니다. 제31집단군은 시진핑에게 그저 한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푸젠성에서 보낸 17년, 부시장으로 시작해 성장(省長)까지 오른 그 긴 세월 동안 곁에 있던 군대였습니다. 정치인이 자기 사람을 심는 곳, 신뢰를 쌓는 곳, 위기 때 등을 맡길 사람을 구하는 곳이 바로 그 부대였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 인생에서 30년 가까이 함께한 인연이라면, 그것은 동료를 넘어 가족에 가깝습니다. 그런 부대의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형장에 세웠다는 것은, 한낱 인사 조치가 아니라 자기 정치 인생의 한 토막을 도려낸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시진핑의 초기 경력을 다시 떠올리면 또렷해집니다. 2012년 최고 권력에 오른 시진핑은 기존 파벌을 가차 없이 숙청하고 그 빈자리를 제31집단군 출신 푸젠방으로 채웠습니다. 허웨이둥은 서열 2위에, 마오화는 인사권과 사상 통제권을 쥐 정치공작부 주임에 올랐습니다. 제31집단군과 동부전구 출신 장성들은 인민해방군의 작전 지휘망과 인사권이라는 두 기둥을 독식했습니다. 이들은 시진핑의 최고 역점 사업인 대만 무력 통일을 일선에서 준비하는 핵심 전력이기도 했습니다.

더없이 완벽한 방패라 여겨졌던 이 세력이, 더없이 끔찍한 연쇄 숙청의 제물이 됐습니다. 시진핑은 대만 통일을 위해 자신이 친히 발탁해 강한 무기를 쥐여준 자기 심장부 세력, 그중에서도 동부전구를 총지휘하는 사령관과 인사 총책임자들을 모조리 반역자의 이름으로 형장에 세운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공식 죄목은 직무 범죄와 부정부패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로켓군 스캔들과 맞물린 군 장비 입찰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큼니다. 앞서 말한 1,300명 명단 소문이 사실이라면, 마오화의 입에서 쏟아진 그 명단이 푸젠방의 뿌리가 통째로 썩었다는 충격을 시진핑에게 안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라는 표면만으로는 이 동시다발적 몰살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거대 파벌 간의 권력투쟁이 임계점을 넘은 진실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유샤는 중월전쟁에 참전해 적을 사살한 실전 경험을 가진, 군 내 절대적 위망의 태자당 출신 노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세력으로 군을 장악하고 있었고, 모든 권력을 1인에게 모으려는 시진핑에게는 잠재적 위협이었습니다. 시진핑은 그 장유샤를 견제하려고 마오화와 허웨이둥 등 제31집단군 인사들을 요직에 꽂아 넣었습니다. 푸젠방과 산시방은 군내 인사권과 자원 배분을 두고 극심하게 부딪쳤을 것입니다.

이 위험한 줄타기가 최악의 형태로 무너졌습니다. 권력 동학을 연구하는 이들의 추론을 모으면, 푸젠방 장성들은 장유샤와의 싸움에서 약점을 노출했거나, 1인자의 비위를 맞추려 권력을 과도하게 쓰다 역린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큼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대만 무력 통일을 실무로 떠안은 동부전구 사령관 린상양, 남부전구 사령관 왕슈빈 같은 제31집단군 지휘관들은, 방산 비리로 속이 텅 빈 부대의 실전 능력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2027년 무력 통일 준비라는 압박 앞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은연중에 항명하는 태도를 보였을 수 있습니다.

대만 작전과 관련된 한 가지 시선을 더 보태겠습니다. 동부전구 사령관 린상양과 남부전구 사령관 왕슈빈은 대만을 옥죄는 최전선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부대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지만 실제로는 물이 든 미사일과 불량 장비로 채워진 부대 말입니다. 그런 부대를 이끌고 2027년 무력 통일을 준비하라는 압박을 받았을 때,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쟁을 아는 지휘관일수록 부대의 빈 곳이 보입니다. 빈 곳이 보이는 지휘관은 머뭇거립니다. 그 머뭇거림이 1인자의 눈에는 충성의 부족으로, 더 나아가 항명의 조짐으로 비쳤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진실을 말하려 머뭇거리는 것조차 죄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시진핑에게 부패보다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충성의 균열과 무능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친위대로 내세운 제31집단군 출신들이 오히려 통제 불능의 부패 집단으로 전략해 자신의 군사적 권위마저 위협한다고 판단한 순간, 그는 자기 오른팔인 푸젠방 수뇌부 다섯의 목을 먼저 쳐냈습니다. 음참마속, 눈물을 머금고 아끼던 사람을 베는 극단적 결단이었습니다. 다만 음참마속이라는 말에는 한 가지 짙어줄 대목이 있습니다. 제갈량이 마속을 벨 때는 마속이 명령을 어겨 전투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죄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푸젠방 다섯 사람의 죄가 그만큼 분명했는지, 아니면 1인자의 의심이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한쪽에서 보면 정의로운 부패 척결이고 다른 쪽에서 보면 의심에 사로잡힌 숙청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한 번 멈춰 서야 합니다. 항명이나 탕핑, 권력투쟁의 폭발 같은 설명은 모두 외부의 추론입니다. 베이징의 문 안에서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누가 누구를 먼저 겨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섯 명이 같은 뿌리를 공유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죄목으로 무너졌다는 사실만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그 안의 세세한 인과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이 빠진 자리입니다. 그는 2012년 집권 이후 10년 넘게 160명이 넘는 고위 장성을 물갈이하며 상하이방과 태자당 기득권을 청소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고향에서 30년간 관계를 맺어온 제31집단군 출신들만으로 더없이 안전한 무균실 같은 지도부를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견제받지 않는 충성파가 더 깊은 탐욕에 빠진다는 독재의 철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심복의 입에서 1,300명의 명단이 쏟아지는 현실 앞에서, 그는 군 안에 진정으로 등 뒤를 맡길 세력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자기 고향 군맥을 자기 손으로 친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2026년 6월의 어느 날, 베이징 중앙군사위 대원에서는 정치 스릴러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심야에 하달된 밀령에 따라 장유샤와 류전리의 옛 부하들이 무더기로 군 기율위 요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가족들조차 이들이 어디로 압송됐는지 알지 못하는 초법적 사태였습니다. 한밤중에 사라지는 장군들, 행방을 모르는 가족들. 이것이 1인 지배가 완성됐다고 선언된 나라의 군 수뇌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자기 파괴적 행위가 무엇을 폭로하는지, 다섯 겹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절대 권력의 편집증적 공포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신호입니다. 위마오춘(余茂春)의 분석에 따르면, 공산 체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자기 사람이 충분히 순종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군대가 국가가 아니라 당과 영도자 개인의 사유물인 체제에서, 리더는 오직 절대적 충성이라는 하나의 철칙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절대적 충성이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허상입니다. 오늘 구호를 외치는 자가 내일 반기를 들지 않을지, 겉으로 복종하는 이면에서 다른 음모를 꾸미지 않을지 독재자는 끝없이 의심합니다. 스탈린, 마오쩌둥으로 이어지는 독재의 논리 속에서, 권력이 1인에게 모일수록 아랫사람에게는 더 깊이 무릎 꿇기를 요구하게 되고, 역설적으로 그들이 순종할수록 그 무릎 꿇음이 진심이 아닐 거라는 의심이 커집니다. 그 결과 권력의 핵심에 바짝 다가선 유능한 심복, 총구와 정보망을 쥔 자들이 더없이 쓸모 있으면서 동시에 위험한 잠재적 적으로 돌변합니다. 장유샤와 류전리는 실제로 전쟁을 겪고 피를 본 소수의 실전파 노장이었습니다. 시진핑이 비현실적인 작전을 지시했을 때 이들이 실무적 한계를 지적하며 주저함을 보였다면, 그것은 독재자의 눈에 충성이 아닌 위협으로 비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다음으로, 측근 숙청은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통합의 역설을 낳았습니다. 시진핑은 낡은 파벌을 몰아내고 오직 자신만의 획일화된 군대를 만들려고 거대한 정치 자본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본을 자기 사람을 다시 도륙하는 데 소모해버렸습니다. 밤사이 위망 높은 장군이 끌려가는 것을 본 남은 장성들은 공포에 질려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를 물으며 서로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책임질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군대는 전쟁 수행 능력을 잃고, 오직 누가 정치 구호를 더 크게 외치는지를 다툰 뿐입니다.

2026년 5월경,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가 동부전구와 중부전구 고위 장성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교차 배치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 장성이 심장병을 핑계로 301병원 병상에 누워버리며 조용히 발령을 지연시켰습니다. 누워서 버티는 항명, 곧 탕핑(躺平)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군 병원의 병실에 멀쩡한 장군들이 환자복을 입고 누워 있습니다. 명령서는 책상 위에 도착해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집어 들지 않습니다. 거부하면 항명죄가 되니, 거부하는 대신 아프다고 합니다. 총을 들고 명령에 따라야 할 사람들이, 명령을 피하기 위해 병상을 택한 것입니다. 독재자가 안전을 위해 수족을 자른 대가로, 그가 쥔 총구는 쓸 수 없는 고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명령은 내려가는데 움직이는 손이 없는 군대, 그것이 공포로만 지탱되는 조직의 끝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고향 군맥의 숙청은 체제를 떠받쳐 온 군부 귀족 가문들을 적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여기서 중국 군부의 속살을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민해방군 최상층부는 혁명 1세대의 피를 이어받은 홍2대(紅二代)와 군2대(軍二代) 가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홍2대는 공산당 혁명 원로의 자녀를, 군2대는 군 원로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시진핑 자신이 혁명 원로 시중신의 아들, 곧 홍2대입니다. 장유샤 역시 군 원로 장쑹신의 아들로, 두 집안은 연안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이들 가문은 서로 결혼하고 자녀를 같은 학교에 보내며 수십 년에 걸쳐 촘촘한 그물망을 이뤘습니다. 177명의 중장, 57명의 상장, 10명의 대장 출신 등 대략 200여 개에 달하는 군부 가족이 군의 실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 가문들이 중국 군대의 진짜 뼈대입니다. 장유샤는 이들 태자당과 원로 가문의 상징적 기둥이었습니다. 시진핑이 그를 파멸시킨 것은, 이 200여 개 가문에게 어떤 충성도 생존을 보장하지 않으며 언제든 기득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공포를 각인시킨 일입니다. 뺏속까지 붉은 피를 나눈 맹우마저 심야에 끌려가는 것을 본 고위층은 더 이상 체제를 믿지 않습니다. 일부 관측은 이들 가문이 2026년 7월로 예정된 장유샤 사건의 최종 처분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십 개 가문이 연합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는 고위험 상태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정변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외부의 관측이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숙청의 소용돌이는 최상위 권력층의 자본 도피로 직결되며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고위 장성들이 끌려가는 것을 본 고관대작과 국영기업 수장, 금융 엘리트들은 체제의 위기를 직감하고 바누아투나 카리브해 섬나라의 여권을 손에 쥔 채 런던, 뉴욕, 밴쿠버로 자본을 빼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셴입니다. 군 수뇌부조차 한밤중에 끌려간다면, 그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을 장담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권력의 안쪽에 있던 사람들이수록 체제가 어디로 가는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자산을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체제 내부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권력층이 국고를 비우고 달아나자, 거대한 유지비용이 드는 감시 기구를 지탱하기 위해 정권의 낮은 중산층과 서민을 향했습니다. 은행 인출 한도 제한, 부동산 임대인에 대한 세무조사 소급 적용, 공무원 집단 감봉, 사회보장기금의 고갈. 위에서 빠져나간 돈의 구멍을 아래에서 메우는 구조입니다. 이에 맞서 청년층은 취업과 결혼을 포기하고 연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회적 탕핑으로 버팁니다. 군부 숙청으로 촉발된 불안이 기득권의 재산 도피를 낳고, 비어버린 금고가 서민 쥐어짜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다만 이 자본 도피와 사회 붕괴의 그림은 상당 부분 외부 관측과 추정에 기댄 것이라는 점을 적어두어야 합니다.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로는 확인되지 않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군부의 연쇄 숙청이 사회의 신뢰 기반을 흔든다는 큰 방향만은, 여러 정황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수족을 자른 이 조치는 시진핑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소련식 해체와 군벌 할거의 재앙을 스스로 앞당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진핑 개인의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는 집권 초기부터 소련 붕괴를 거듭 입에 올렸습니다. 한때 세계의 절반을 호령하던 거대한 사회주의 제국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졌는가, 그것이 그의 오랜 화두였습니다. 시진핑은 1991년 소련 붕괴의 원인을 당이 통제력을 잃고 군대가 명령을 듣지 않은 데서 찾았습니다. 소련 공산당이 군대를 장악하지 못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군이 당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막으려고 그는 군대와 경찰, 선전 매체, 역사 해석권, 인사권, 경제 징발권, 이데올로기라는 통제의 도구들을 모두 자기 손에 쥐는 극단적 수직화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강박적 통제로 실전형 장성을 다 쳐내면서 군 지휘부는 비어버렸고, 오히려 체제의 안전판이던 구심점을 없애버렸습니다. 1976년 마오쩌둥 사후 사인방과 군부 원로들이 권력을 두고 피비린내 나는 암투를 벌였듯이, 만약 시진핑의 권력에 돌발적 공백이 생긴다면 전군을 장악할 권위 있는 지휘관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소련처럼 공화국 단위로 깔끔하게 갈라설 수 없는 중국의 특성상, 지휘망의 공백은 각 지역에 무력을 쥔 장성들이 각자도생을 도모하는 군벌 할거와 장기 내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대두됩니다. 20세기 초 중국이 겪은 군벌 시대를 떠올리면 이 우려의 무게가 와닿습니다. 청 왕조가 무너진 뒤 중앙의 힘이 사라지자, 각 지역의 군

지휘관들이 저마다 군대를 거느리고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혼란과 내전이 이어졌습니다. 시진핑이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모은 것은 바로 그런 분열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견제 세력을 없애고 실전파 장성을 다 쳐낸 결과, 만약 정점의 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빈자리를 누구도 메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분열을 막으려던 통제가, 더 깊은 분열의 씨앗을 심은 셈입니다.

이 다섯 겹의 폭로가 향하는 곳은 하나입니다. 시진핑은 1인 독재의 완벽한 획일성을 위해 10년 맹우이자 자신의 피붙이와도 같았던 실전파 장성들을 심야의 기습으로 도륙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믿었던 총견들을 반역자로 몰아 형장에 세운 순간, 그가 진 것은 완벽한 권력이 아니라 진실과 신뢰가 말살된 텅 빈 폐허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한 줄의 인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경쟁 파벌을 모두 제거하고 후계자의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그 비움이 그때는 권력 집중의 완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비움 때문에, 2026년의 숙청은 그토록 위험해졌습니다. 만약 군 안에 1인자와 무관한 견제 세력이 남아 있었다면, 다섯 명이 사라진 자리는 누군가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리를 자기 사람으로 채워둔 탓에, 그 사람들을 베어내자 자리 자체가 비어버렸습니다.

이 인과를 한 번 더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견제 세력이 있는 체제에서는 한 사람이 무너져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웁니다.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니 한 곳이 비어도 시스템 전체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모든 견제 세력을 없애고 자기 사람만 남겼습니다. 그렇게 만든 체제는 1인자의 의심이 한 사람을 향할 때마다, 그 사람이 맡고 있던 기능까지 통째로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인사권을 쥔 마오화가 사라지자 인사 시스템이 흔들렸습니다. 대만 작전을 총괄하던 허웨이둥과 동부전구 사령관들이 사라지자 대만 작전의 머리가 비었습니다. 실전 경험을 가진 장유샤와 류전리가 사라지자 진짜 전쟁을 지휘할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람으로만 채운 체제는, 그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스스로를 해체하는 기계가 됩니다. 2022년의 완벽해 보이던 권력 집중이, 2026년의 텅 빈 지휘부를 예약해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리상푸의 격납고에서 시작된 불이 로켓군 수뇌부를 태우고, 마오화와 허웨이둥을 거쳐, 장유샤와 류전리에게 번지고, 마침내 장성민 한 사람만 남긴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승리자가 아닙니다.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마비된

블랙박스입니다. 젊은이들이 탕핑하고 중산층이 약탈당하며 200여 개 군부 가문이 등을 돌린 권력의 진공 한가운데에서, 2026년의 중국 인민해방군은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 그물의 이야기를 닫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부패 척결이라는 시선과 권력투쟁이라는 시선을 줄곧 함께 놓아두었습니다. 어느 한쪽을 진실이라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베이징의 군 인사는 닫힌 문 뒤에서 결정되고, 발표되는 것은 결과뿐입니다. 누가 먼저 칼을 뽑았는지, 부패가 빌미였는지 표적이 먼저였는지, 항명이 실제로 있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곱 명으로 출발한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다섯 명이 사라졌고, 그 다섯 명 중 핵심이 모두 같은 고향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의 무게는 어떤 해석을 택하든 그대로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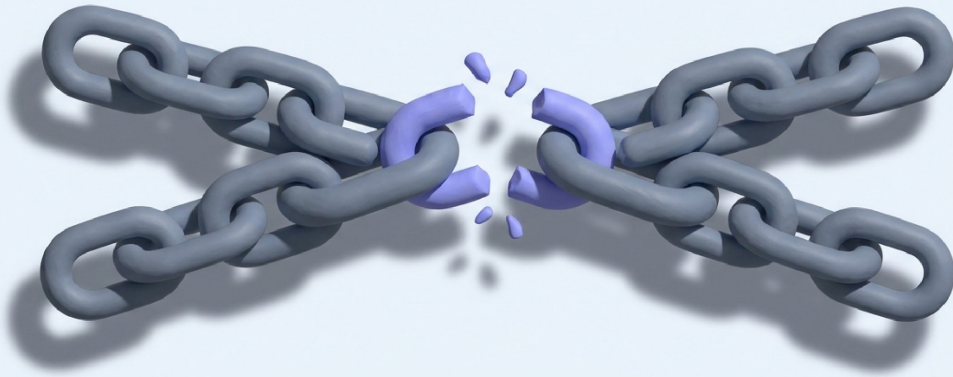
다섯 사람이 모두 같은 고향에서 왔다는 그 핏빛 단서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믿었기에 곁에 두었고, 곁에 두었기에 도리어 위험해진 사람들. 시진핑이 30년을 들여 쌓은 신뢰의 그물이, 3년 만에 의심의 그물로 변했습니다. 같은 그물이었습니다. 사람을 엮어 권력을 떠받치던 그물이, 방향만 바꾸어 그 사람들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제 중앙군사위원회에는 시진핑과 장성민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군대의 머리가 그렇게 비었습니다. 그 빈 지휘부가 어떤 역설을 낳는지, 비어 있다는 것이 어떻게 그 자체로 하나의 위험이 되는지는 다음 장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손에 쥔 것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베어낸 권력자는, 이제 누구를 믿고 군대를 움직일 것인가. 그 답은 베이징의 닫힌 문 안에 있고, 그 문이 열리는 날 우리는 비로소 이 그물이 누구의 손에서, 어떤 마음으로 짜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5장 본문 시각 해설서

2026 중국 권력지형도: 연쇄의 그물

중국 군부 최고위층 연쇄 숙청의 타임라인과 숨겨진 패턴 분석



NotebookLM

제6장 비어 있는 지휘부의 역설

2026년 1월 24일 밤, 베이징의 겨울은 유난히 메말랐습니다. 시청구 황성근(皇城根) 일대의 군 청사 불빛은 평소처럼 늦은 시각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중국 국방부의 한 줄짜리 공고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발표될 내용은 짧았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부주석 장유샤(張又俠), 연합참모부 참모장 류전리(劉振立). 두 사람이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장은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건조함 뒤에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밤에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의 발표는 늘 이런 식입니다. 큰일일수록 작은 문장에 담깁니다. 무덤덤한 단어 몇 개가 한 시대의 매듭을 짓습니다. 그 짧은 공고를 읽고 무릎을 친 사람은 베이징 바깥의 몇몇 분석가들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이 한 줄이 중국 군 지휘부의 마지막 빗장을 풀었다는 것을.

장유샤가 누구입니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십 년 맹우였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그들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쉰(習仲勳)과 장유샤의 아버지 장종쑤(張宗遜)은 함께 혁명을 치른 동지였습니다. 두 집안은 혁명 원로의 자제, 이른바 태자당(太子黨)의 핏줄로 얽혀 있었습니다. 정치의 세계에서 그런 인연은 흔한 우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배신할 일이 거의 없는 관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조차 끌려갔습니다.

군부 안에서 장유샤는 사실상 서열 2위였습니다. 무기 개발과 장비 조달을 오래 총괄했고, 군사위 부주석으로서 시진핑의 군 장악을 일선에서 떠받친 사람입니다. 류전리는 결이 달랐습니다. 군의 작전과 기동을 총괄하는 연합참모부 참모장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부대를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짜는 자리, 곧 군의 신경망 한가운데였습니다. 한 사람은 군의 뼈대를 세운 사람, 한 사람은 군의 손발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은 밤에 끌려갔습니다.

이 장면 하나에 이 장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결의 마지막 사람들까지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워둔 채 채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보통 자리를 채우려고 다룹니다. 빈자리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앓히고, 줄을 세우고, 자기 사람으로 둘러싸는 것이 권력의 오랜 문법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반대로 했습니다. 채우지 않았습다. 다섯 의자를 텅 빈 채로 두었습니다. 이 어긋난 선택 안에 한 체제의 깊은 두려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장은 그 빈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의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자에 앉았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비움이 군대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곱 자리에 둘만 남다

시간을 조금 되감아 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가 끝났을 때, 중국의 군 지휘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새로 출범한 제20기 중앙군사위원회는 일곱 사람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정점에 두고, 부주석 둘. 장유샤와 허웨이둥(何衛東)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위원 넷. 리상푸(李尚福), 류전리, 마오화(苗華), 장성민(張升民)이었습니다.

이 일곱 사람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에게 절대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중국 안팎에서는 이들을 '시자전(習家軍)', 곧 시진핑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후진타오 시대에 군부를 주물렀던 귀보송(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 같은 옛 파벌의 군벌들을 모두 쳐낸 뒤, 시진핑은 그 빈자리를 자신의 사람들로만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여기서 그는 한 가지 관례마저 깬습니다. 중국 공산당에는 '7상8하(七上八下)'라는 인사 관행이 있었습니다. 예순일곱이면 자리를 지키고, 예순여덟이면 물러난다는 불문율입니다. 덩샤오핑 시대 이래 수십 년을 이어온 규칙이었습니다. 이 규칙에는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권력자가 영원히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나이라는 객관적인 선을 그어둔 것입니다. 후계가 자연스럽게 자라날 틈을 만드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유샤는 그때 이미 일흔둘이었습니다. 관례대로라면 진작 물러났어야 할 나이입니다. 시진핑은 그 규칙을 접고 자신의 오랜 벗을 부주석 자리에 그대로 앉혔습니다. 자기 자신의 임기 제한을 이미 풀어버린 사람이었으니, 측근의 정년을 미루는 일쯤은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규칙을 깬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믿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나이라는 안전판을 치우면서까지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삼 년 뒤, 그 믿음의 대상이 한밤중에 끌려가게 되리라고는 그 자리의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이 일곱 사람의 지휘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무력 통일, 2027년 건군 100주년에 맞춘 '강군몽(強軍夢)'. 이 거대한 목표들을 실현할 철권으로 군림할 듯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삼 년 남짓 지난 2026년 1월, 그 일곱 자리 가운데 다섯이 비었습니다.

리상푸가 맨 먼저였습니다. 국방부장에 임명된 지 다섯 달밖에 안 된 2023년 8월 31일, 그는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0월 24일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듬해인 2024년 6월 27일에는 그의 전임자였던 웨이펑허(魏鳳和)와 함께 당적과 군적을 박탈당했습니다. 대장(上將) 계급장마저 떼었습니다.

다음은 마오화였습니다. 군의 모든 인사권과 사상 검증을 틀어쥐고 있던 사람입니다. 정치공작부 주임이라는 그 자리는 누가 출세하고 누가 밀려나는지를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사람의 별이 하나 더 늘지, 옷을 벗을지가 그의 손끝에서 갈렸습니다. 게다가 마오화는 시진핑이 푸젠성과 저장성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쌓아온 직계 중의 직계, 이른바 '푸젠방(福建幫)'의 핵심으로 분류되던 사람입니다. 시진핑이 자기 손으로 군의 인사권을 맡긴 심복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2024년 11월 28일 직무 정지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듬해 6월 27일 위원직에서 면직되었고, 10월 17일 당적과 군적을 모두 잃었습니다.

마오화가 쓰러진 바로 그날, 허웨이둥마저 무너졌습니다. 동부전구 사령관을 지낸 그는 대만 무력 통일 준비를 일선에서 지휘하던 사람입니다. 동부전구가 어떤 부대입니까. 대만을 바로 마주 보는 전구입니다. 만약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가 벌어진다면, 그 작전의 첫 칼을 휘두를 자리에 있던 사람이 허웨이둥이었습니다. 군 서열 3위, 군사위 부주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오화와 같은 혐의로 당적과 군적을 잃고 정점에서 떨어졌습니다. 대만 작전의 칼자루를 쥔 사람이, 정작 대만 작전을 준비하던 그 시기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 순서를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리상푸가 무너지고, 마오화가 무너지고, 허웨이둥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외곽으로 보였습니다. 국방부장, 정치공작부 주임, 부주석 한 명. 시진핑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부터 칼이 들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칼끝은 점점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외곽에서 중심으로, 남의 파벌에서 자기 파벌로, 그리고 끝내 자신의 십 년 맹우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이것이 연쇄 숙청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번 칼을 빼들면 어디서 멈춰야 할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한 사람을 잡으면 그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습니다. 부패의 그물은 본래 촘촘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물의 한 코를 당기면 그물 전체가 딸려 올라옵니다. 시진핑이 의도했든 아니든, 칼은 스스로 길을 내며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그 1월의 밤이었습니다. 장유샤와 류전리. 두 사람까지 끌려가면서, 일곱 자리 가운데 다섯이 비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둘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 그리고 장성민 부주석. 장성민은 8년 동안 군내 사정과 기율을 맡아온 사람입니다. 사정의 칼을 휘둘러온 사람이지만, 부대를 지휘해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합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군의 최고 기구에 남은 두 사람이, 군 주석과 사정 담당입니다. 한 사람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명령을 어기는 자를 잡아내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싸는 사람도, 부대를 움직이는 사람도, 무기를 아는 사람도 그 자리에 없습니다. 마치 회사의 이사회에 사장과 감사만 남고, 실제로 물건을 만들고 파는 사람은 모두 떠난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 이사회가 무슨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일곱 자리에 둘. 이것은 그저 빈자리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군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면 정족수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모여야 할 인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섯이 사라지고 둘만 남은 위원회는 그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합니다. 회의를 열어 무언가를 의결한다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진 구조입니다.

조금 더 풀어 보겠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에서 군을 움직이는 최고 기구입니다. 핵무기를 쓸지 말지, 어디로 군대를 보낼지, 전쟁을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 결정은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모여 절차를 밟는 형식을 거칩니다. 형식이라 하더라도 그 형식이 권력의 정당성을 떠받칩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갖출 사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남은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주석 본인이고, 다른 한 명은 사정 담당입니다. 군을 어떻게 싸우게 할지 함께 논의할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급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최고 군사 기구가, 정작 회의를 열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규모를 두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마오쩌둥(毛澤東) 시대 이후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평가가 과장인지 아닌지는 뒤에서 숫자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더 이상한 대목이 남아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 빈자리를 채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흔히 4중전회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리는 인사를 정하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무대입니다. 빈 군사위 자리를 채우기에 그보다 좋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시진핑은 허웨이등과 마오화를 비롯한 군부 고위 인사 아홉 명의 제명을 공식화했습니다. 비운 사람들의 죄를 확정된 셈입니다. 그리고는 장성민을 부주석으로 올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죄를 물어 자리를 비우고, 빈자리 하나를 메우는 일. 그 자체로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메움이 거기서 멈췄다는 데 있습니다. 한 자리를 채우면서 다섯 자리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장성민을 올린 것은 사람을 더 앉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정의 칼을 더 가까이 두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을 지휘할 사람이 아니라, 군을 감시할 사람을 부주석으로 올린 셈입니다. 이 선택이 무엇을 우선했는지를 말해 줍니다. 군을 잘 싸우게 하는 일보다, 군을 잘 단속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핵심이 빠졌습니다. 군사위의 빈 다섯 자리를 채우는 문제. 이 안건은 회의 공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후보로 거론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국방을 대변하는 신임 국방부장 동진(董軍)은 여전히 군사위원으로조차 들어가지 못한 채 걸돌고 있었습니다. 로켓군 부사령원 왕리옌(王立岩), 군사위 판공청 주임 팡용샹(方永祥) 같은 핵심 실무 군관들의 이름도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인선 명단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왜였을까요. 시진핑은 왜 그 좋은 기회를 두고도 다섯 의자를 빈 채로 남겨두었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 시각이 갈립니다.

하나는 부패 척결의 논리입니다. 군이 썩었으니 도려냈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앉히느니 비워두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뒤에서 보겠지만, 군의 부패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니다.

다른 하나는 권력의 논리입니다. 자신이 직접 길러낸 심복들마저 부패의 몸통이 되고, 십 년 맹우인 장유샤까지 자신의 뜻에 거슬렸을 때, 시진핑은 군부 안의 누구도 진정으로 믿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앉혀도 그 사람 역시 권력을 쥐는 순간 또 다른 장유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공포가 의자를 비워두게 만들었다는 해석입니다.

권력 동학을 연구하는 이들은 이를 '독재자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완벽한 통제를 원할수록 곁에 둘 사람이 줄어듭니다. 모두를 의심하다 보면 끝내 아무도 곁에 두지 못합니다.

이 딜레마의 뿌리는 권력 그 자체에 있습니다. 권력을 나눠 가지면 견제를 받지만, 동시에 책임도 나눕니다. 권력을 홀로 쥐면 견제는 사라지지만, 모든 위협도 자기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견제하던 사람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한 사람은 모두를 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위협으로 보입니다. 그를 쳐내면 또 다른 충신이 위협으로 보입니다. 의심은 먹이를 먹을수록 자랍니다. 끝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빈 의자 다섯은 그 의심이 도달한 종착점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는 독자께서 판단하실 몫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빈 의자 다섯이 한낱 행정 공백이 아니라 한 체제의 깊은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1. 충성으로 산 것, 충성으로 잃은 것

이 지휘부가 어떻게 짜였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급 사람을 고른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충성이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충성. 경력이 아니라 충성. 이 외길 잣대가 결국 무엇을 불러왔는지가 이 장의 핵심입니다.

충성으로 사람을 고르는 일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충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충성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매달립니다. 더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더 그럴듯한 보고서를 올리고, 더 화려한 성과를 꾸며 냅니다. 진짜 충성한 사람과 충성하는 척하는 사람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성하는 척하는 데 능한 사람이 더 빨리 출세하기도 합니다. 능력은 결과로 검증되지만, 충성은 검증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고른 일급 사람도 그 함정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성의 화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의 표면 아래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었는지는, 곧 드러나게 됩니다.

맨 먼저 굶아 터진 곳은 로켓군(火箭軍)이었습니다.

로켓군이 어떤 부대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핵무기와 전략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입니다. 미국을 향한 억지력, 대만을 향한 압박. 그 심장부에 해당하는 전략 자산을 손에 쥔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무너진다는 것은 중국이 내세우던 힘의 한가운데가 비었다는 뜻입니다.

로켓군은 시진핑이 특별히 공을 들인 부대이기도 합니다. 2015년 군 개혁 때 이름을 바꾸고 위상을 끌어올린 곳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부대가, 야심의 상징이 아니라 부패의 상징이 되어 무너졌습니다. 자랑하던 곳이 부끄러운 곳으로 바뀐 셈입니다.

2023년 8월 31일, 리상푸 국방부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9월에는 웨이펑허까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인사 개입과 군수 조달 부패 혐의로 2024년 6월 27일 나란히 당적과 군적을 잃었습니다. 대장 계급도 박탈당했습니다.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끝내 사형 유예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로켓군 사령관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제3대 사령관 리위차오(李玉超), 제2대 사령관 저우야닝(周亞寧), 전 부사령관 장진중(張振中), 장비부장 뤼홍(呂宏). 로켓군의 최상층부가 통째로 뽑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연근발기(連根拔起)'라고 표현했습니다. 뿌리째 뽑힌다는 말입니다.

이들을 훑아맨 것은 거대한 장비 입찰 비리였습니다. 2017년 이후 장유샤가 총괄하던 군사위 장비발전부 시절부터 누적된 스캔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리가 보입니다. 장비 조달의 부패가 장유샤가 관할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훗날 장유샤가 끌려간 한 가닥 실마리가 이 대목에 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부패의 몸통이었는지, 아니면 부패의 책임을 뒤집어쓴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무기를 사들이는 자리는 돈이 제일 많이 흐르는 자리였고, 돈이 흐르는 곳에는 부패가 따라붙었습니다.

군 수뇌부와 방산업체들이 짜고 가격을 부풀렸습니다.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겼습니다. 그동안 서류상으로는 최첨단 무기들이 부대에 납품되었습니다. 종이 위의 군대는 나날이 강해졌습니다. 보고서마다 새 미사일과 새 장비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를 한 장 넘기면, 실제 부대에는 쓸 수 없는 무기가 쌓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들의 실상이 문제였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해외 정보당국의 폭로에 따르면, 미사일 연료통에 로켓 연료 대신 맹물이 채워져 있던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멈춰 그 장면을 그려 보겠습니다. 적을 향해 날아가야 할 미사일의 연료통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발사 버튼을 눌러도 미사일은 한 발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미사일이 핵탄두를 엮는 전략 미사일이라면, 중국이 미국과 대만을 향해 들이밀던 억지력의 칼날이 사실은 무딘 쇠붙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서부 내륙 사막에 세운 미사일 격납고들도 마찬가지로였다고 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덮개로 시공되어, 실전에서 발사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사들이는 돈이 무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결과입니다. 다만 이런 폭로는 외부 정보당국발 정황이므로 그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이 공식으로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 스스로가 로켓군 전체를 뿌리째 뽑았다는 사실이, 그 안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말없이 증언합니다. 멀쩡한 부대의 사령관 셋을 연달아

끌어내리는 군대는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실의 마비'입니다.

납품과 시험, 예산 승인 과정에 얽힌 군관들은 자기 목이 달아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무기의 치명적 결함을 숨겼습니다. 작전이 지연되면 사소한 조정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보고서에는 거짓 승전보만 적었습니다. 충성을 강요하는 환경에서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력 통일을 준비해야 할 전략 부대의 실전 능력이, 서류 위에서만 존재하는 모래성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부패와 충성은 얼핏 반대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한 몸이었습니다. 충성을 잣대로 사람을 고르면, 능력이 아니라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기술이 출세의 길이 됩니다. 잘 보이는 기술의 한 형태가 좋은 보고서입니다. 좋은 보고서를 쓰려면 나쁜 사실을 가려야 합니다. 나쁜 사실을 가리려면 돈이 들고, 그 돈을 마련하려고 또 부정을 저지릅니다. 충성을 요구한 체제가 거짓말과 부패를 길러낸 것입니다. 무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보다, 보고가 듣기 좋은지 나쁜지가 더 중요한 세계. 그 세계에서 미사일 연료통에 물이 채워져도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충성으로 산 군대의 첫 번째 청구서였습니다. 미사일에 물이 들어 있던 그 순간, 충성이라는 잣대가 군을 어디로 데려갔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충성으로 사람을 골랐더니, 충성하는 척하는 부패의 카르텔이 자라났습니다. 그 카르텔이 전략 무기를 고철로 바꿔 놓았습니다.

두 번째 청구서는 더 무거웠습니다. 다시 그 1월의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유샤와 류전리가 끌려간 그 밤 말입니다. 두 사람을 다른 낙마자들과 같은 줄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처세로 올라온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중월전쟁(中越戰爭)에 직접 참전한 사람들입니다. 1979년, 중국과 베트남이 국경에서 맞붙은 전쟁입니다. 인민해방군이 마지막으로 치른 큰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 뒤로 중국군은 사십 년 넘게 실제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장유샤와 류전리는 그 마지막 전쟁에서 적의 반격을 물리치고, 삼천 명의 사상자를 낸 전투를 직접 지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인민해방군 안에서 실제로 피를 본 몇 안 되는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의 무게를 잠시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인민해방군의 장성들 대부분은 전쟁을 책으로만 배운 사람들입니다. 실제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을 겪어본 사람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 희소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장유샤와 류전리였습니다. 군대가 끝까지 아껴야 할 자산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몸으로 아는 사람 말입니다.

전쟁을 해본 사람은 군대의 실상을 압니다. 훈련 상태가 어떤지, 장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병참이 실제로 버틸 수 있는지. 장유샤와 류전리는 속이 텅 빈 후군(병참)의 실태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25일, 중국 국방부와 해방군보(解放軍報)는 이들을 향해 "중앙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짓밟고 훼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자로는 '엄중파괴군위주석부책제(嚴重破壞軍委主席負責制)'입니다. 군사위 주석, 곧 시진핑 개인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죄목입니다.

서방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그 죄목의 속살을 이렇게 읽습니다. 2027년까지 대만 무력 통일 준비를 마치라는 시진핑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장유샤와 류전리는 군사 전문가의 눈으로 그 계획을 봤습니다. 그리고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현실적인 전쟁 준비에 대해 안 된다고, 불가하다고 직언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해석은 어디까지나 정황을 모은 추정입니다. 장유샤와 류전리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만 압니다. 그 자리의 기록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결정이 한 사람에게 수직으로 쏠린 체제에서는, 전문가의 합리적인 평가가 곧 항명이 됩니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당신의 권위를 부정합니다"로 번역됩니다. 실무적 진언과 정치적 반란이 같은 죄목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전쟁을 아는 사람일수록 무모한 전쟁을 말합니다. 진짜 전장을 겪어본 사람은 전쟁의 대가를 압니다. 삼천 명의 사상자를 직접 지휘해본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2027년이라는 시간표 앞에서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겁이 아니라 전문가의 양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인 지배 체제는 그 양심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무모함을 말리던 목소리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무모함을 부추기는 목소리뿐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군에서 손꼽히던 실전파 장성들을,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제물로 바쳤습니다. 충성과 실전 능력을 맞바꾼 것입니다. 그것도 더없이 잔혹한 방식으로.

비어버린 자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사상 훈련이었습니다.

2026년 4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열 주 동안이었습니다. 전군의 소장과 중장급 고위 장성 수백 명이 베이징 서교의 국방대학에 집결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전군 고급 간부 정치 훈련반'입니다.

현대전의 전술을 연마하고 대만 작전을 기획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군의 두뇌들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매일 반부패 경고 영상을 봤습니다. 옛 군가인 '3대 기율 8항 주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1928년 마오쩌둥이 홍군 시절에 만든 규율 노래입니다. 거의 백 년 전 노래를, 첨단 미사일과 항공모함을 다루는 시대의 장군들이 다시 불렀습니다. 연병장에 끌려 나가 차렷과 쉬어를 반복하는 제식 훈련도 받았습니다. 별을 단 장군들이 신병처럼 줄을 섰습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군 수뇌부 수백 명을 열 주 동안 한곳에 가둬 둔다는 것은, 그동안 그들에게 군대를 맡기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할 사람들을 교실에 앉혀 놓고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것은, 전쟁 준비보다 충성 점검이 급하다는 판단입니다. 무엇이 더 두려웠던 것일까요. 외부의 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내부의 장군들이었을까요. 이 훈련의 풍경은 그 답을 어렵פות이 비춥니다.

6월 24일, 해방군보는 이 훈련을 마오쩌둥 시대의 '연안정풍(延安整風)'이 재현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연안정풍은 1940년대에 마오가 당내 사상을 자기 쪽으로 정리한 운동입니다. 그 이름을 군에 다시 꺼냈다는 것은, 이 훈련의 목적이 전투력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장유샤의 잔당을 색출하는 것. 서로를 헐뜯게 만드는 것.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為誰幹)"를 묻는 것. 충성의 재확인이었습니다.

이 훈련의 또 다른 이름이 '인인과관(人人過關)'이었습니다. 모두가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씩 자기 과거를 털어놓고, 장유샤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해명하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옆 사람이 나를 고발할 수 있고, 나도 옆 사람을 고발해야 살아남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는 동료가 동료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군대를 떠받치는 힘의 뿌리는 동료에 대한 신뢰입니다. 결의 전우가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사람은 총알이

날아드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 신뢰를 스스로 부순 것입니다.

그러나 공포로 꿰어 맞춘 충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 서늘한 숫자들

여기서 잠시 감정을 내려놓고 숫자를 보겠습니다. 장면만으로는 규모가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마오쩌둥 시대 이후 전례가 없다고 적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수사인지 사실인지를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비교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진핑이 처음부터 군을 숙청한 것은 아닙니다. 집권 1기와 2기, 그러니까 제18차와 19차 당대회 기간에도 군부 숙청은 있었습니다. 그때 처낸 장군만 16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기의 숙청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장쩌민(江澤民) 계열로 분류되는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파벌을 정리하고 군에 대한 통제력을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적이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2022년 20차 당대회로 모든 반대 파벌이 사라졌습니다. 군사위는 시자원으로만 100퍼센트 채워졌습니다. 적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체제에서, 최근 2년 사이에 벌어진 숙청이 앞 시기를 압도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집계를 보겠습니다. 시진핑 3기가 출범한 뒤 2년 동안, 100명이 넘는 장군이 해임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민해방군 전체 지휘관의 약 52퍼센트입니다. 군 지휘부의 절반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 52퍼센트라는 숫자는 머리로는 잡혀도 가슴으로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방식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한 부대의 지휘관 둘이 나란히 서 있다고 해보십시오. 둘 중 하나가 2년 안에 끌려갔습니다. 그 옆 부대도, 그 옆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명령을 내려야 할 사람들의 절반이, 평시에 자기편 손에 잡혀갔습니다. 어떤 외부의 적도 한 나라 군대의 지휘부 절반을 2년 만에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 일을 해낸 것은 적이 아니라 그 군대의 주인이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록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전인대는 중국의 형식상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그 대표 자리는 명예이자 권력의 증표입니다. 최근 2년간 해임된 전인대 대표 36명 가운데 16명이 군 장성이었습니다. 절반에 가깝습니다. 2026년 3월 양회(兩會) 개막 직전에도 장군 9명을 포함한 19명의 전인대 대표가 한꺼번에 파면되었습니다. 양회는 해마다 봄에 열리는 중국 정치의 큰 행사입니다. 그 행사를 코앞에 두고도 파면이 이어졌다는 것은, 피바람이 한 계절도 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제일 또렷한 장면은 2025년 10월의 4중전회였습니다. 앞에서 인사 공백을 이야기할 때 언급한 그 회의입니다. 이번에는 출석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앙위원회 위원 205명 가운데 168명만 나왔습니다. 후보위원 171명 가운데서는 147명이 나왔습니다. 결석률이 각각 18퍼센트와 14퍼센트였습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유례없이 높은 결석률이었습니다.

빈자리의 정체를 뜯어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결석자 37명 가운데 민간 관료는 10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7명이 군부 출신이었습니다. 중앙위원회에 배정된 군부 몫이 42명인데, 그중 27명이 빠진 것입니다. 비율로 63퍼센트입니다. 군을 대표하는 최고 엘리트 열 명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이 결석이라는 말을 잠깐 곱씹어 보겠습니다. 회의에 빠진다는 것은 보통 출장이나 병환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당의 핵심 엘리트가 모두 모이는, 몇 해에 한 번 있는 큰 회의입니다. 거기에 빠진다는 것은 사실상 그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조사를 받고 있거나, 연금되어 있거나, 이미 끌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텅 빈 의자 스물일곱 개는 그저 비어 있는 좌석이 아닙니다. 사라진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회의장의 빈 의자가, 군사위의 빈 의자와 같은 풍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상장(上將) 장성들의 경우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대장급입니다. 현역 상장 32명 가운데 4중전회에 참석한 사람은 11명뿐이었습니다. 회의 직전에 당적을 박탈당한 상장만 9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치명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연합작전지휘중심, 5대 전구, 4대 군종, 무경부대. 작전과 기동을 실제로 책임지는 핵심 지휘관들입니다. 이들 21명의 상장

사령관과 정치위원 가운데 14명이 결석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부대를 움직여야 할 사람들 셋 중 둘이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 그물의 촘촘함이 보입니다. 군사위 7인 가운데 다섯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공군 사령관 덩라이항(丁來杭). 남부전구 해군 사령관 쥐신춘(鞠新春). 해군 정치위원 위안화즈(袁華智). 무경부대 사령관 왕춘닝(王春寧). 전 군종의 최고 사령관들이 줄줄이 입건되고 파면되었습니다.

이 이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일생입니다. 사관학교를 나와 수십 년을 군에서 보내고, 별을 달기까지 한평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는 진짜 부패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줄을 잘못 섰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중국의 군사 재판은 밖에서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많은 사람이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쏠려나갔다는 사실은, 개인의 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작동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한두 사람이라면 부패라 부를 수 있습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이라면, 그것은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기를 사들이는 쪽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군사위 장비발전부 부부장 장위린(張育林)과 라오원민(饒文敏). 병참을 총괄하는 병참보장부 정치위원 가오다광(高大光). 그리고 부패를 감시해야 할 군사위 감사국의 감사장 순빈(孫斌)까지 체포되었습니다. 감시하는 자까지 끌려간 것입니다. 도둑을 잡으라고 세워둔 사람이 도둑으로 몰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감시하던 또 다른 사람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불신은 이렇게 끝없이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기 개발, 병참, 인사, 감찰, 작전 지휘. 군이라는 생태계의 모든 마디가 한꺼번에 쏠려나갔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썩어 도려낸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서 동시에 칼이 들어간 것입니다. 군대를 사람의 몸에 빗대면, 머리도 잘리고 팔다리도 잘리고 신경도 끊긴 셈입니다.

이 한파는 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집계를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징계받은 성부급(省部級) 이상 고위 관료가 69명이었습니다. 장차관급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2024년에는 73명이었습니다. 두 해 연속 역대 최악의 규모였습니다.

비교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진핑 2기였던 제19차 당대회 기간,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처분받은 정·부 성부급 이상 관료가 약 20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기가 출범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불과 3년 동안 처벌받은 인원이 191명이었습니다. 5년치와 3년치가 거의 맞먹습니다. 같은 속도라면 3기 5년 전체로는 2기를 훌쩍 넘어설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기 때의 숙청에는 정적이라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장쩌민 계열, 후진타오 계열, 칠 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3기에는 정적이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치고 있는 것입니까. 답은 자기 사람들입니다. 적이 없어진 뒤에도 칼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더 빨라졌다는 것. 이 사실이 깊이 서늘합니다. 적과 싸우는 칼은 적이 사라지면 멈춥니다. 그러나 불신에서 비롯된 칼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불신은 대상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숫자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마오쩌둥 시대 이후 전례 없음'은 수사였을까요. 100명, 52퍼센트, 63퍼센트, 21명 중 14명. 이 숫자들 앞에서 그 표현은 과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오쩌둥 시대라는 비교 기준에 잠깐 머물러 보겠습니다. 마오는 문화대혁명 시절 군과 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원수와 장군들이 비판받고 쫓겨났습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시절 이후 중국은 다시는 그런 격변을 겪지 않으려 애써 왔습니다. 덩샤오핑이 만든 집단지도 체제, 임기 제한, 7상8하의 정년 관행은 모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쏠려 나라가 흔들리던 그 시절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숫자가 그 마오 시대에 견줘진다는 것은, 덩샤오핑이 세운 안전장치들이 하나씩 풀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온 듯한 풍경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신중하게 짚어야 합니다. 이 숙청을 어떻게 이름 붙일 것인가입니다. 서구권 분석가들은 이를 스탈린 시대의 적군 대숙청이나 문화대혁명에 견뎌줍니다. 체제를 파괴하는 정치적 대숙청이라는 것입니다.

스탈린의 적군 대숙청을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1930년대 후반, 소련의 스탈린은 자기 군대의 장교단을 대대적으로 처형했습니다. 원수와 장군 수천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몇 해 뒤 독일이 쳐들어왔을 때, 소련군은 지휘할 사람이 없어 초반에 참담하게 무너졌습니다. 강하게 만들겠다고 휘두른 칼이, 정작 전쟁이 닥쳤을 때

군대를 약하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역사가 이미 보여준 교훈입니다. 그 교훈이 2026년의 베이징에서 다른 얼굴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서구권 분석가들의 진단입니다.

반대편의 시각도 있습니다. 군이 실제로 그만큼 썩었고, 도려내야 할 환부가 그만큼 컸다는 부패 척결의 논리입니다. 미사일에 물이 들었다면 그 부대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도려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 시각에서 보면 숙청은 파괴가 아니라 수술입니다. 두 시각은 같은 숫자를 두고 정반대의 결론을 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날 것입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측근으로만 채운 지휘부 안에서조차 충성을 담보받지 못해 군의 신경망을 통째로 도려내야 했다는 사실만은 남습니다. 수술이라 부르든 파괴라 부르든, 환자가 수술대 위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결과는 같습니다.

3. 강해지려다 약해진 군

이제 이 장의 한가운데 놓인 모순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진핑이 군을 숙청한 명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였습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패한 장군을 쳐내고, 충성스러운 군대로 다시 세워, 2027년 건군 100주년에 세계 일류의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갖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강하게 만들려던 숙청이 군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강하게 만들려던 일이 약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이 장의 모든 모순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시진핑의 의도가 거짓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강한 군대를 원했을 것입니다. 부패한 장군을 쳐내려는 마음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과 결과는 다릅니다.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낳는 일은 권력의 세계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충성을 잣대로 삼고, 의심을 동력으로 삼고, 공포를 도구로 삼은 그 방법이,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 모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네 갈래로 짚어보겠습니다. 다만 번호를 매겨 늘어놓지는 않겠습니다. 네 갈래가 따로 노는 항목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사슬이기 때문입니다.

사슬의 시작은 실전 두뇌의 거세였습니다. 장유샤와 류전리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면서, 현대전을 실제로 기획하고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군사위에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은 부주석 장성민은 부대를 지휘해본 적이 없는 사정 전문가입니다. 칼을 쓰는 사람이지만, 그 칼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전쟁을 아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머릿수 하나가 비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작전이 가능하고 어떤 작전이 무모한지를 판별하는 감각이 함께 사라지는 일입니다. 책상 위의 지도만 보고 전쟁을 그리는 사람과, 진창과 포연을 겪어본 사람은 같은 지도를 보고도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들이 통째로 빠진 자리에, 사정의 칼만 다루던 사람이 홀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마디가 이어집니다. 진실의 마비입니다. 로켓군 이야기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충성만이 생존을 보장하는 환경에서는 아무도 나쁜 소식을 올리지 않습니다. 무기에 결함이 있어도 완벽하다고 보고합니다. 작전이 실패해도 사소한 어려움이라고 윤색합니다. 시진핑은 2027년이라는 시간표를 강박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아보는 보고서에는 진실이 없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앉은 사람이, 정작 자기 군대의 실상을 제일 모르는 자리에 놓인 셈입니다.

이 역설은 독재 체제의 오래된 함정입니다. 정보가 위로 올라갈수록 걸러지고 다듬어집니다. 아래에서 나쁜 소식을 전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누구도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낙관이 보고 체계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시진핑이 받아본 군의 모습과, 사막의 미사일 격납고에 실제로 채워진 것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곧 이 체제의 맹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디는 집단 무기력입니다. 군에서는 이를 '정치적 탕핑(躺平)'이라고 부릅니다. 탕핑은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의 중국 신조어입니다. 원래는 치열한 경쟁에 지친 젊은이들이 그냥 드러눕겠다는 자포자기를 가리키던 말입니다. 그 말이 군 장성들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최고 실세였던 장유샤가 한밤중에 짐승처럼 끌려가는 것을 본 장성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전공도, 그 어떤 충성 구호도 의심 앞에서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령을 내렸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너무 튀면 다음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자기 보호 본능이 작전 능력을 짓눌렀습니다.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 군사적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험해졌습니다. '망의중앙(妄議中央)', 곧 함부로 중앙을 논했다는 죄목이 언제든 따라붙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입을 닫았습니다. 상부의 구호만 앵무새처럼 따라 외웠습니다. 군대는 명령을 기다리는 조직이지만, 명령을 받고도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군대는 명령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무기력에는 묘한 성격이 있습니다. 항명도 아니고 복종도 아닙니다.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면 끌려갑니다. 그러나 명령을 충실히 따라 앞장서도 위험합니다. 튀는 사람이 다음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살아남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거부하지도, 앞장서지도 않는 것. 시키는 것만 겨우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것. 군대 전체가 그 자세로 굳어

갔습니다. 이런 군대는 평시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닥쳐 누군가 먼저 결단하고 먼저 움직여야 할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무기력은 끝내 수동적인 항명으로까지 번졌습니다. 2026년 5월경, 군사위 정치공작부가 동부전구와 중부전구 소속 장성들에게 교차 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곳에 오래 두면 파벌이 생긴다는 우려 때문에 자리를 서로 바꾸는 조치였습니다. 여권도 강제로 거뒀습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상당수 장성들이 심장병 같은 건강을 핑계로 301병원 병상에 드러누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301병원은 베이징의 인민해방군 총병원입니다. 그곳 병상에 누워 발령을 미룬 것입니다. 끌려가지 않으려는 자보(自保)의 몸부림이 부대 단위로 번진 셈입니다. 이런 내부 정황은 외부 분석에 기댄 것이라 그대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석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군 안에 흐르던 공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네 번째 마디는 소리 없는 반란이었습니다. 그 폭발이 또렷하게 터진 날은 2026년 5월 25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일 참혹하게 도륙당했던 로켓군의 한 조직이, 당의 핵심 관영 매체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당의 혁신이론학습연구중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부패의 진앙으로 지목되어 뿌리째 뽑힌 바로 그 부대의 이론 조직이, 당의 공식 지면에 글을 올렸다는 사실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한층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체제가 누구보다 싫어하는 단어를 정면에 꺼냈습니다. '집단지도'였습니다. 마오쩌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당위 통일의 집단지도 하의 수장 분공책임제(黨委統一的集體領導下的首長分工負責制)"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력을 한 사람에게 몰지 말고 나누자는 말입니다. 시진핑이 밀어붙인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주장이었습니다.

글은 더 나아갔습니다. 인사를 결정할 때 "사람을 아는 통찰력과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측근만 골라 쓴 인사 실패를 꼬집은 것입니다. 최고 지휘관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아량(能容人的雅量)"을 가져야 하고, "진실을 말하고 실정을 말할 수 있는(說實情 見真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문장들을 한 줄씩 곱씹어 보십시오. 포용할 아량을 가져라.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하라. 이것은 평범한 덕담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말이 누구를 겨누고 있는지를 알면 칼날이 됩니다. 아량이 없어서 총언한 장수를 베어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실을 말한

사람의 목을 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름을 대지 않았을 뿐, 화살은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권력의 정점에 앉은 사람 말입니다.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에 더 또렷했습니다.

군사 평론가들은 이 글을 이론 선전으로 읽지 않습니다. 총언을 한 장유사 같은 장성들을 무자비하게 도려낸 시진핑의 웅졸함을 정면으로 조롱한 항명성 문건으로 봅니다. 피로 억눌러 놓은 표면의 충성 아래에서, 전문성을 짓밟힌 군 기술 관료들의 분노가 한계를 넘어 터져 나왔다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옳은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영 매체의 글 한 편을 두고 그것이 반란의 신호라고 잘라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중국의 공식 지면에 실리는 글은 여러 층의 검열을 거칩니다. 그러니 이 글이 어떤 경로로 실렸는지, 누가 묵인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무겁습니다. 시진핑이 누구보다 싫어하는 단어인 '집단지도체'가, 그토록 참혹하게 숙청당한 부대의 이름으로, 당의 공식 지면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공포로 눌러둔 곳에서 작은 균열이 보였다는 신호로 읽기에 충분합니다. 균열이 더 벌어질지, 곧 다시 메워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균열이 있었다는 것만은 남습니다.

이 네 사슬을 하나로 꿰면 모순의 정체가 보입니다. 시진핑은 무소불위의 통제력을 쥐려 했습니다. 그 욕망이 역설적으로, 정작 필요한 순간에 방아쇠를 당길 수 없는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통합을 향한 극단적인 조치가 통합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통합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군을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가 도리어 군을 갈라놓는다는 뜻입니다. 모두를 한 사람에게 복종시키려 할수록, 그 한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자라납니다. 두려움은 복종을 낳지만, 동시에 무기력과 원망도 낳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도 거스르지 않지만, 속으로는 누구도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 상태. 그것이 통합의 역설이 도달하는 자리입니다. 명령은 내려가지만 마음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군대가 종이 위에서는 일사불란해 보여도, 실제로는 아무도 앞장서지 않는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시진핑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모든 정적을 소탕했습니다. 군에 대한 100퍼센트의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덩샤오핑 시대 이래 수십 년을 이어온 파벌 간 견제의 시스템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집중통일영도(集中統一領導)'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가 손에 쥔 것은 빈 껍데기였습니다. 진실을 보고할 용기도, 현대전을 지휘할 능력도 사라진 군대였습니다. 젊은 장교들은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미사일 격납고는 기만으로 덮였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불신만이 빈 의자 다섯을 유령처럼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2022년으로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보았듯, 시진핑은 그해 권력 집중을 완성했습니다.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임기 제한을 풀었습니다. 누구도 다음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주변을 비워둔 채 홀로 정점에 섰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힘으로 보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일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의 빈 지휘부는, 2022년의 그 선택이 낳은 그림자입니다. 곁에 후계도 없고 견제도 없는 구조를 만들어 두면, 그 구조 안에서 누군가 조금이라도 자라나는 순간이 곧 위협이 됩니다. 장유샤가 위협으로 보인 것도, 허웨이둥이 위협으로 보인 것도 그래서입니다. 비워두기로 한 자리 곁에서 사람이 큰다는 것 자체가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2022년에 주변을 비워뒀기에, 2026년의 숙청은 멈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비움이 비움을 불렀습니다.

4. 빈 의자가 향하는 곳

다시 처음의 그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의 베이징.

장유샤와 류전리가 동시에 끌려간 직후,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군의 정규 지휘망이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시진핑은 그 지휘망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암호 전보를 써서 직접 전군에 '1급 전비태세'를 내렸습니다. 모든 부대의 군사적 이동을 전면 동결했습니다. 정상적인 명령 계통을 건너뛰, 초법적인 비상 조치였습니다.

이 장면을 곱씹어 보면 무언가 서늘해집니다. 100퍼센트의 권력을 쥐 사람이, 정작 자신의 군대에 명령을 내릴 정상적인 통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암호 전보라는 비상 수단에 기대야 했습니다. 모든 권력을 한 손에 모은 끝에 도달한 곳이, 자기 손으로 직접 전보를 쳐야 명령이 전달되는 상태였습니다.

같은 밤, 베이징의 군 청사들은 평소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빛 안에서 한 사람이 직접 전보를 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권력의 정점은 흔히 더없이 외로운 자리라고들 합니다. 그날 밤의 시진핑이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한 끝에, 그는 모든 일을 혼자 떠안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곁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든든한 일이 아니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권력의 역설이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 사람이, 통제의 도구마저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규 지휘망은 그가 직접 만든 체계입니다. 그 체계 안의 사람들을 그가 직접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니 그 체계를 더는 믿을 수 없게 된 것도 그 자신의 선택이 부른 결과입니다. 빈자리는 외부의 적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암호 전보를 직접 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령관을 통하지 않고 부대에 직접 명령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군대의 위계를 건너뛰는 일입니다. 평소라면 군법 위반에 가까운 행위지만, 주석이 직접 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비상한 방식이 오래 굴러갈 수는 없습니다. 전군의 모든 부대를 한 사람이 일일이 챙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임시변통으로는 통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그것은 지휘 체계가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비상이 일상이 되면, 그 군대는 평시조차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시진핑이 그토록 강박적으로 매달려온 2027년이라는 시간표 말입니다. 건군 100주년, 그리고 그 무렵으로 거론되는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 그 시간표를 실제로 집행할 군대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2027년이라는 해를 시진핑이 직접 전쟁의 시점으로 못 박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해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능력을 갖추라는 지시를 군에 내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능력을 갖추라는 것과 실제로 실행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능력을 갖추라고 다그치던 바로 그 군의 지휘부가, 정작 그 시점을 코앞에 두고 텅 비어버렸습니다. 준비를 명령한 사람들이 준비할 군대를 스스로 해체한 셈입니다.

작전을 기획할 실전파 장성은 사라졌습니다. 부대를 움직일 사령관들 셋 중 둘은 4중전회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전략 미사일은 맹물과 불량 덮개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살아남은 장성들은 결정을 회피한 채 누워 있습니다. 충성을 재확인하겠다며 장군들을 신병처럼 연병장에 세웠습니다. 그 군대가 바다를 건너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대만 침공은 군사적으로 몹시 어려운 작전입니다. 백 킬로미터가 넘는 바다를 건너, 수십만 병력과 장비를 실어 나르고, 상륙해서 점령까지 해내야 합니다. 역사상 성공한 대규모 상륙 작전은 손에 꼽힙니다. 그만큼 정교한 지휘와 빈틈없는 병참, 그리고 전쟁을 겪어본 지휘관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민해방군에는 그 셋이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휘는 비었고, 병참은 부패에 갇아먹혔고, 경험 있는 지휘관은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이 그림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군의 모든 부분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끌려간 장군들 아래에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수많은 군인이 있습니다. 무기 가운데 멀쩡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는 한 사람의 판단이 전체를 좌우하는 조직입니다. 머리가 비면 손발이 아무리 멀쩡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금 비어 있는 것은 바로 그 머리입니다.

여기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비어 있는 지휘부가 곧 전쟁의 불가능을 뜻한다고 잘라 말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역사에는 약한 줄 알았던 군대가 싸운 사례도, 강한 줄 알았던 군대가 무너진 사례도 있습니다. 빈 의자가 무엇을 향하는지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자 안에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안에서 불안한 권력자일수록 밖으로 시선을 돌리기도 합니다. 내부의 균열을 외부의 적으로 덮으려는 유혹입니다. 지휘부가 비었기

때문에 전쟁이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지휘부가 비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위험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말할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누구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비어 있는 지휘부는 전쟁을 막는 자물쇠일 수도, 전쟁을 부르는 방아쇠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장에서 본 것을 정확히 적어두겠습니다. 권력을 독점하려던 사람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군대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강하게 만들겠다는 명분이 군대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일곱 자리 가운데 다섯이 비었고,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2026년 인민해방군 지휘부의 풍경입니다.

이 풍경에는 묘한 고요함이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총성이 울린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합니다. 시진핑은 여전히 정점에 있고, 군은 여전히 그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비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고, 신뢰가 비고, 능력이 비어 갑니다. 떠들썩한 붕괴가 아니라 조용한 공동화입니다. 정말 위험한 붕괴는 소리 없이 진행되는 붕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풍경 위에 한 가지 그림자가 더 드리워져 있습니다. 포스트 시진핑 시대의 후계자마저 지워진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군의 지휘부도 비었고, 권력의 다음 자리도 비었습니다. 두 개의 빈자리가 같은 시간 위에 겹쳐 있습니다. 군을 이끌 사람도, 시진핑 다음의 중국을 이끌 사람도,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겹친 공백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이 책의 뒷부분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미리 적어두겠습니다. 빈자리는 평화로울 때는 그저 빈자리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빈자리는 권력의 진공이 됩니다. 진공은 무언가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 진공을 채우려 할지가 다음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대만을 두고 시계는 2027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건군 100주년이라는 상징의 해입니다. 그 시계의 바늘과, 비어 있는 다섯 의자가 같은 무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의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빈 의자 다섯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그 의자에 앉을지, 아니면 끝내 아무도 앉지 않을지. 그 답은 다음 장면에서 천천히 드러날 것입니다. 다만 그 의자들이 비어 있는 한,

베이징의 그 메마른 겨울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 중국 권력지형도

그림설명 슬라이드

제6장. 비어 있는 지휘부의 역설

완벽한 통제를 원할수록
시스템이 붕괴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된 빈자리가
2027년의 거대한 위기로 수렴하는 과정을
추적합니다.



NotebookLM

제 3 부

2025년 가을, 닫혀버린 문

제7장 마지막 기회를 닫다

2025년 10월 23일 오후, 베이징 징시(京西) 호텔의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나흘 동안 닫혀 있던 문입니다. 중앙위원 168명과 후보위원 147명이 그 안에서 나흘을 보냈습니다. 무거운 커튼이 드리운 창, 붉은 카펫, 좌석마다 놓인 찻잔. 회의장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바깥에서 알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권력의 핵심 회의는 늘 그렇게 돌아갑니다. 결과만 나옵니다. 과정은 닫혀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전 세계의 중국 정치 분석가들이 한 가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과 도쿄와 서울과 타이베이에서, 사람들은 같은 화면을 새로고침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이름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中國共產黨第二十屆中央委員會第四次全體會議), 줄여서 4중전회(四中全會)였습니다.

기다린 것은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직 이름이 없는 한 사람. 13년째 당을 이끌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뒤를 이을 누군가의 이름 말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면, 중국의 다음 10년을 누가 짚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2007년 가을, 후진타오 시절의 한 당대회에서 사람들은 두 젊은 얼굴이 상무위원회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진핑과 리커창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모두가 알았습니다. 둘 중 하나가 다음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을. 실제로 5년 뒤 시진핑이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이 중국이 후계를 예고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당대회나 전체회의의 인사 명단에 젊은 얼굴이 끼어들면, 세상은 그것을 다음 시대의 신호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가을, 사람들은 같은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낯선 젊은 이름이 명단에 오를 것인가. 그 이름이 곧 중국의 다음이 될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공보(公報)가 발표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문서입니다. 분석가들은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특정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어떤 표현이 빠졌는지,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썼습니다. 중국 정치를 읽는 일은 종종 행간을 세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두 번, 세 번 읽어도 거기에 그 이름은 없었습니다. 후계자라는 단어도, 차기 지도부라는 표현도, 그 자리에 누가 앉을지 짐작하게 할 인사 한 줄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 있음 자체가, 그날의 큰 소식이었습니다.

이 침묵을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가을의 이 4중전회는, 시진핑 주석이 평화롭게 권력을 넘길 의사가 있었다면 후계자를 지목할 수 있었던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을 스스로 닫았습니다.

왜 마지막 기회였는지부터 풀어야겠습니다. 중국에서 최고 권력이 한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갑자기 새 얼굴을 꼭대기에 앉힐 수는 없습니다. 새 지도자가 2027년 제21차 당대회에서 권력을 물려받으려면, 그보다 몇 해 전부터 국방, 경제, 당무 같은 핵심 자리에 미리 배치되어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군을 다뤄 본 경험, 경제를 굴러 본 경험, 당의 조직을 움직여 본 경험.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사람들이 그를 다음 지도자로 받아들입니다. 후계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길러지는 자리입니다.

그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중앙위원회 회의가 바로 2025년 10월의 이 자리였습니다. 셈은 어렵지 않습니다. 2027년 가을에 당대회가 열립니다. 새 지도자가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려면, 적어도 그 2년에서 3년 전에는 핵심 요직에 올라 권력의 기반을 다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점을 거꾸로 세면 바로 2025년 가을입니다. 4중전회는 그 마지막 분기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후계자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면, 정상적인 승계는 시간상 빠듯해지다 못해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분석가들이 이 회의를 '마지노선'이라 부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분석가들이 숨죽여 기다린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아무 이름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명단은 발표되었지만, 그 명단 위에 다음 시대를 가리키는 화살표는 없었습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분명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올렸다면 그것은 '이 사람이 다음'이라는 한 가지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아무 이름도 올리지 않은 것은 '다음은 없다'는, 더 큰 메시지였습니다. 정치에서 하지 않은 일은 한 일만큼이나 또렷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2025년 가을의 이 선택은, 앞으로 수십 년 중국의 운명을 가르는 갈림길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1. 하나의 회의, 두 개의 얼굴

이 회의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해 활짝 펼쳐 보인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그 뒤에 감춰진 얼굴입니다.

먼저 회의 자체의 시점을 짚어 두겠습니다. 이번 4중전회는 2024년 7월의 3중전회 이후 약 15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당 규약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한 해에 한 번 이상 열도록 하고 있는데, 그 간격이 꽤 벌어진 것입니다. 회의가 늦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호로 읽혔습니다. 무언가 정리할 일이 많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15개월 사이에 군부에서는 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그 칼바람의 결과를 공식 문서로 확정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첫 번째 얼굴은 경제였습니다. 4중전회의 공식 의제는 다가올 5년의 경제 청사진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1953년부터 5년 단위로 나라의 경제를 계획해 왔습니다. 5개년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한 시기를 묶어 목표를 세우고, 자원을 배분하고, 끝나면 성적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오래된 틀이지만, 시장이 깊이 들어온 지금도 이 틀은 살아 있습니다. 5년마다 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한 문서에 담는 것입니다. 회의는 2025년에 끝나는 제14차 5개년 계획(第十四個五年規劃)의 성적표를 결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103조 위안에서 2025년 140조 위안으로 늘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8퍼센트까지 올라,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준에 닿았습니다. '중국제조 2025(中國製造二〇二五)'가 처음 세웠던 정량 목표의 90퍼센트 이상을 채웠습니다. 숫자만 보면 박수받을 만한 성적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숫자 뒤에서 중국 경제는 깊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몇 년째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집값이 오르기만 한다고 믿고 빚을 내 집을 산 가구들이, 값이 떨어지자 빚만 떠안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내일이 불안하면 오늘 쓰지 않습니다. 대학을 나온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다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깥 사정은 더 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본격화된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날로 거칠어졌고, 미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길목을 차례로 틀어막았습니다. 첨단 칩을 만드는 장비, 그 장비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를 떠받치는 설계 자산까지 단계마다 빗장이 걸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세계의 공급망이 흔들리고, 진영이 갈리고, 어제의 거래 상대가 오늘의 견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이 상황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100년 만의 대격변', 한자로 백년대변국(百年大變局)입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은 정치에서 중요합니다. 위기에 이름을 붙이면, 그 위기에 맞설 비상한 권한도 함께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평시에는 허용되지 않던 일이, 위기라는 이름 아래 허용됩니다. 백년대변국이라는 진단은 경제 분석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장치였습니다. 미국에 물건을 팔아 먹고살던 낡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이 회의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은, 평범한 시기였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권력의 집중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 해법으로 채택된 것이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수립에 관한 건의'입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이 5년을 그냥 경제 계획 기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035년에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 실현'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를 가르는 결정적 시기로 격상시켰습니다. 핵심 과제는 셋이었습니다. 질 좋은 성장,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 그리고 내수 키우기.

이 셋 가운데 시진핑이 힘을 쏟은 것은 기술의 자립이었습니다. 미국이 기술의 문을 닫을수록, 중국은 스스로 기술을 만들어 내는 생태계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첨단 반도체, 저고도 경제, 우주항공,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미래의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릴 분야들입니다. 이런 곳에서 남에게 기대지 않는 원천 기술을 손에 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듭니다. 2030년까지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경제 규모의 3.8퍼센트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못 박았습니다. 14차 계획 기간에 2.68퍼센트였던 비율을 한 단계 더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숫자 한 줄로 보이지만, 그 뒤에는 수십만 명의 연구원과 수만 개의 실험실, 그리고 미국에 기술의 목줄을 잡히지 않겠다는 한 나라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경제를 운용하는 큰 기조도 다시 손질했습니다. 안정 속에서 성장을 찾는다는 '온중구진(穩中求進)'을 앞세우고, 국내의 큰 순환을 중심에 둔 쌍순환 전략을 키워 가라앉은 내수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한 해 성장률 5퍼센트 선은 지켜 내겠다는 방어선도 그었습니다.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탄소 중립이라는 먼 약속도 계획의 핵심 지표 안으로 끌어들이었습니다. 저탄소 녹색 제조로의 전환을 숫자로 못 박은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노선 하나가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불과 몇 해 전 19기 3중전회에서 강조했던 것은 민영 기업과 시장 중심의 개혁이었습니다. 시장이 자원을 나누게 하자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5차 5개년 계획은 거꾸로 갔습니다. 나라가 가진 전략 자원과 권력을 한가운데로 끌어모아, 국가가 직접 첨단 기술을 나누고 이끄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른바 '신형 거국체제(新型舉國體制)'입니다. 시장에서 국가로, 분산에서 집중으로. 경제의 핸들이 누구 손에 있느냐가 바뀐 것입니다. 이 작은 방향 전환이 뒤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후계자를 지우는 정치적 논리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함께 발표된 것이 '중국 표준 2035(中國標準二〇三五)'입니다. 기술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계 산업의 규칙과 국제 규범을 중국이 정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8개 신흥 산업과 9개 미래 첨단 산업을 겨냥해 2025년, 2030년, 2035년으로 이어지는 3단계 길을 그렸습니다. 서방이 기술의 벽을 높이 쌓는 동안, 자본과 인프라가 절실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개발도상국을 파고들어 중국의 인증 체계를 심고, 그들이 '중국 표준'을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구상으로 읽힙니다. 한 나라의 표준이 그 나라의 부품과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따라오게 만든다는 것을, 중국은 미국과 유럽이 지난 세기에 했던 방식에서 배웠습니다. 표준을 쥐는 쪽이 시장을 집니다. 거대한 우군 시장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긴 호흡의 포석입니다.

여기까지가 세상을 향해 펼쳐 보인 얼굴입니다. 야심차고, 정교하고, 미래지향적입니다. 신문 1면에 실리고, 국제 회의에서 인용되고, 외국 기업의 투자 설명회에서 슬라이드로 정리되는 얼굴입니다.

두 번째 얼굴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같은 나흘 동안, 같은 회의장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 비어 있는 이름

두 번째 얼굴을 보려면 무엇이 회의장에서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를 봐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국 정치를 읽는 일의 어려움이자 묘미입니다. 발표된 인사보다 발표되지 않은 인사가, 강조된 단어보다 빠진 단어가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후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의 무게를 재려면, 중국공산당이 원래 권력을 어떻게 넘겨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비어 있다는 것의 의미는, 원래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 때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중국공산당의 승계 시스템은 마오쩌둥(毛澤東) 1인 독재가 낳은 참극을 반성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마오쩌둥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가 후계자로 지목했던 사람들은 차례로 사라졌습니다. 류사오치(劉少奇)는 문화대혁명의 광풍 속에 비참하게 죽었고, 린바오(林彪)는 비행기 사고로 생을 마쳤습니다. 후계를 정하고 다시 뒤엎기를 반복하는 동안, 나라는 몇 차례나 거대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의 번덕이 곧 나라의 운명이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의 광기를 겪은 뒤,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의 설계자들은 한 사람이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거나 죽을 때까지 쥐고 있는 일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불문율을 세웠습니다. 10년마다 최고 권력을 교체한다. 한 파벌이 독식하지 않도록 자리를 나눠 집단으로 지도한다. 그리고 한 세대를 건너뛰어 다음다음 지도자를 미리 점찍어 두는 격대지정(隔代指定)이라는 관행을 둡니다. 현직 지도자가 자기 입맛대로 후계자를 고르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였습니다.

이 가운데 힘이 섰던 안전장치는 나이 규칙이었습니다. '7상8하(七上八下)'라고 부릅니다. 당대회가 열리는 시점에 67세 이하면 자리에 남을 수 있고, 68세 이상이면 예외 없이 물러난다는 규정입니다. 기계적이지만 그래서 강했습니다. 누구든 때가 되면 나이라는 객관적 기준 앞에 자리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권력의 세대교체를 강제하는 시계였습니다.

이 시계를 멈춰 세운 것이 2022년 10월의 제20차 당대회(第二十次全國代表大會)입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69세였습니다. 7상8하 규칙대로라면 물러나야 할 나이입니다. 그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총서기 3연임을 밀어붙였습니다.

기이한 점은, 이 나이 규칙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규칙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72세의 장유샤(張又俠)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남았습니다. 68세를 한참 넘긴 나이입니다. 규칙대로라면 진작 물러났어야 할 사람입니다. 69세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오히려 정치국 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반면 67세였던 리커창(李克強) 총리와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은 유임 요건을 충분히 갖췄는데도 최고지도부에서 밀려났습니다. 67세는 머물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갔습니다. 둘 다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계열의 핵심이었습니다. 시진핑과 다른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한쪽에서는 72세가 남고, 다른 쪽에서는 67세가 나갑니다. 나이 규칙은 시진핑의 측근을 남기고 정적을 쳐내는 칼로 쓰였습니다. 규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될 때 그것은 규칙입니다. 누구에게 적용할지를 한 사람이 그때그때 정하면, 그것은 더 이상 규칙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중에서도 치명적이었던 것은 후계자 자체를 지워버린 일입니다. 격대지정이라는 관행을 떠올려 보면 이 일의 무게가 보입니다. 후진타오 시절, 다음 세대를 이끌 두 사람이 일찌감치 점찍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쑨정차이(孫政才), 다른 한 사람은 후춘화(胡春華)였습니다. 둘 다 1960년대 초에 태어나, 시진핑 다음 세대를 이어받을 후보로 길러지던 인물입니다. 정해진 길이 있었고, 그 길 위에서 경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쑨정차이는 2017년에 부패 혐의로 낙마했습니다. 충칭시 당서기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후계자로 점찍힌 사람이 감옥에 간 것입니다. 남은 후춘화는, 18대와 19대 당대회에서 연달아 정치국 위원을 지냈음에도 20차 당대회에서 평범한 중앙위원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후계자 후보가 한 사람은 감옥으로, 한 사람은 평지로 사라졌습니다. 차기 후계자라는 자리가, 그 자리에 앉을 사람과 함께 중국 정치 무대에서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격대지정이라는 관행은 그렇게 사람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러니 2022년에 이미 후계의 진공이 생겨 있었습니다. 2025년 4중전회의 침묵은 그 진공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뿐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던 무대에서, 끝내 아무 이름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공보가 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후계자를 언급하는 대신, 시진핑 한 사람을 향한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했습니다. "전당과 전군, 전국 각 민족과 인민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주위에 더욱 긴밀히 단결하여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시진핑의 당 중앙 핵심 지위와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굳건히 세운다는 '두 개의 확립(兩個確立)'을 다시 맹세하게 만들었습니다. 풀어 말하면, 시진핑이 당의 핵심이라는 것 하나, 시진핑의 사상이 당의 길잡이라는 것 둘. 사람과 사상을 함께 떠받드는 구조입니다. 한 사람을 당의 중심에 두고, 그 사람의 생각을 모두가 따라야 할 지침으로 올려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를 비판하는 일은 곧 당을 비판하는 일이 됩니다. 개인과 조직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미래를 향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묶어 두는 문장이었습니다.

후계자를 비워 둔 자리는 침묵으로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빈자리 대신 채워진 것은 명단이었습니다. 낙마자의 명단, 그리고 그 자리를 메운 새 얼굴들의 명단입니다.

당의 최고 엘리트 집단인 중앙위원회의 인적 교체 규모는 2017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위원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잠깐 짚어 두겠습니다. 14억 인구의 나라에서 200명 안팎만이 앉는 자리입니다. 한 사람이 거기 오르기까지는 보통 수십 년이 걸립니다. 지방의 말단에서 시작해, 도시를 맡고, 성을 맡고, 중앙으로 부름받기까지의 긴 사다리입니다. 그 사다리를 끝까지 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끌려 내려왔습니다. 정책에서 시진핑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거나 비리에 얽힌 중앙위원 11명이 무더기로 제명되거나 낙마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생이 걸린 자리가, 회의 나흘 만에 비워진 것입니다. 당헌에 따라 그 빈자리는 시진핑 체제에 순응하는 새 관료들로 채워졌습니다. 위후이원(於會文) 생태환경부 부부장, 마한청(馬漢成) 구이저우성 당 부서기, 왕젠(王健) 랴오닝성 부성장, 왕시(王曦) 광둥성 통전부장, 왕용홍(王永紅) 국가기관사무관리국 국장, 왕팅카이(王庭凱) 텐진시 당 기율위원회 서기, 왕신웨이(王新偉) 랴오닝성장. 일곱 사람이 한꺼번에 중앙위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늘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온 일곱 명 모두 시진핑 체제의 관리자이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후계 세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리는 채워졌으나, 미래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으려면 두 개의 시선을 나란히 두어야 합니다. 시진핑 지도부의 설명은 일관됩니다. 제명된 사람들은 부패하거나 기율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받았다는 것입니다. 중국 관료 사회에 부패가 깊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한편 권력의 작동을 연구하는 이들은 다른 결을 봅니다. 부패라는 명분이 정적을 숨아 내는 데 쓰였고, 그 결과 한 사람을 향한 충성만이 살아남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닫힌 회의장 안의 진짜 동기를 바깥에서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설명은 서로 배척하지 않고 겹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들어온 사람이든 밀려난 사람이든, 끝에 남은 것은 시진핑 한 사람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 권력 지형이었습니다.

3. 왜 하필 2035년이었나

침묵의 뜻은 시간표를 보면 풀립니다. 4중전회가 그토록 강조한 날짜가 있습니다. 2035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날짜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2027년, 제21차 당대회. 정상대로라면 권력이 한 번 교체될 시점입니다. 공보는 2027년을 지우고 2035년만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빈칸과 강조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의도가 드러납니다. 권력이 바뀔 시점은 흐릿하게 지우고, 자신이 끝내야 할 과업의 완성 시점만 또렷이 새긴 것입니다. 두 개의 날짜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을 넘길 수도 있는 날짜이고, 하나는 과업을 완성할 날짜입니다. 공보는 앞의 것을 지우고 뒤의 것을 키웠습니다. 2035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을 이루겠다는 목표는, 그때까지 자신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말과 같은 무게로 작동합니다. 목표 연도를 못 박는 일이 곧 임기를 못 박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둘은 한 문장 안에서 슬그머니 포개집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가 대전략의 최종 목적지를 2049년에 두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1949년에 세운 나라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길의 결정적인 중간 기착지가 2035년입니다. 2035년까지 경제력과 과학기술력과 국방력을 끌어올려, 1인당 GDP를 중간 수준 선진국에 도달시키고 현대화의 기본 틀을 갖춰야, 미국의 패권을 넘어설 수 있다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이 날짜를 한 사람의 나이로 바꿔 보면 이야기가 선명해집니다. 1953년에 태어난 시진핑은 2035년에 82세가 됩니다. 2049년이면 96세입니다. 2035년이라는 목표 시점은 그가 살아서 닿을 수 있는 거의 끝자락입니다. 국가의 대업과 한 사람의 생물학적 시간이 거의 겹쳐 있는 것입니다. 이 겹침은 우연이 아닙니다. 국가의 시계와 자신의 시계를 포개 놓으면,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은 누구도 그 시계를 멈출 수 없게 됩니다. 목표 연도를 멀리 잡을수록, 그때까지 자리를 지킬 명분도 함께 멀어집니다.

이 목표를 떠받치는 논리가 '신형 거국체제(新型舉國體制)'입니다. 풀어 쓰면, 나라가 가진 모든 전략 자원과 통제력을 한가운데로 끌어모아 기술과 자본을 직접 나누고 이끄는 방식입니다. 거국체제라는 말 자체는 오래된 것입니다. 온 나라의 힘을 한 가지 목표에 쏟아붓는 방식으로, 과거 중국은 이 방식으로 원자폭탄과 인공위성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던 시절, 흩어진 역량을 한곳에 모아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이뤄 낸 경험입니다. 시진핑은 그 옛 방식에 '신형'이라는 말을 붙여 되살렸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이 아니라 반도체와 인공지능에 온 나라의 힘을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덩샤오핑 시대의 분권화된 시장 중심 개혁이나 파벌 사이의 느슨한 타협으로는, 서방의 전방위 압박을 뚫고 2035년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시진핑의 진단이었습니다. 시장에 맡기면 느리고, 나눠 맡기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힘을 중앙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 중앙의 정점에는 단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리의 핵심입니다. 온 나라의 힘을 한곳에 모으는 체제는, 그 한곳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그 자리에 시진핑 자신을 두는 것, 그것이 거국체제 논리의 마지막 단추입니다.

20차 당대회 업무보고의 단어들을 세어 본 분석이 이 변화를 보여줍니다. 정치 문서는 단어의 빈도가 곧 우선순위입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덩샤오핑 시대를 대표하던 단어가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대신 '안전', 곧 국가안보를 뜻하는 단어와 '현대화', '강국'이라는 단어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나라를 끌고 가는 축이 자율적인 경제 발전에서, 철저한 중앙 통제와 안보 중심의 생존 투쟁으로 옮겨 간 것입니다. 개혁의 시대에서 안보의 시대로, 풍요를 좇던 나라에서 생존을 다투는 나라로. 단어 몇 개의 증감이 그 거대한 방향 전환을 조용히 일러 줍니다.

이 구도 안에서 2035년은 평범한 정책 목표가 아니라 일종의 성전(聖戰)이 됩니다. 시진핑은 이 먼 미래의 이정표를 '생존과 부흥'의 전쟁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한창인 2027년이나 2032년에 지휘관을 바꾸는 일은, 국가적 과업을 중단시키고 체제를 패배로 몰아가는 배신처럼 보이게 됩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갈지 않는다는 오래된 명분이, 여기서는 권력을 놓지 않을 이유로 변합니다. "이 전쟁 같은 과업은 낡은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끝까지 쥐고 이끌어야만 완성된다." 후계자를 비워 둔 침묵이 향하는 곳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여기서 신형 거국체제의 논리가 정치와 만납니다. 경제를 시장에서 국가로 끌어온 그 방향 전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흩어진 힘을 중앙으로 모으는다는 발상은, 그 중앙에 한 사람이 있어야 완성됩니다. 서방의 압박을 뚫고 첨단 기술을 손에 넣으려면 분권화된 시장이나 파벌 사이의 타협으로는 안 된다는 논리는, 곧 한 사람이 끝까지 키를 잡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경제의 핸들과 권력의 핸들이 같은 손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14차 5개년

계획에서 GDP를 103조에서 140조 위안으로 끌어올린 성과조차, 이 논리 안에서는 자랑이 아니라 근거가 됩니다. 이만큼 해냈으니 이대로 더 가야 한다는 근거 말입니다. 성공이 권력 연장의 명분이 되고, 위기 역시 권력 연장의 명분이 됩니다. 잘되면 잘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결론은 한 사람이 계속 이끌어야 한다는 곳으로 모입니다.

이 대목은 이 책의 뒷부분과 연결됩니다. 뒤에서 다룰 경제와 안보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신형 거국체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숫자로 보게 됩니다. 안보가 경제를 앞지르는 장면, 국가가 시장을 대신해 자원을 나누는 장면들 말입니다. 그 모든 장면의 정치적 뿌리가 바로 이 4중전회에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모은 결정과, 그 권력으로 경제를 끌고 가겠다는 결정은 같은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정치의 선택이 경제의 모양을 정한 것입니다. 권력 지형을 먼저 보아야 경제 지형이 이해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공백을 '4연임'의 신호로 읽습니다. 시진핑이 2027년 제21차 당대회를 넘어 2032년 제22차 당대회까지, 어쩌면 그 이상으로 집권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신중한 단서도 붙습니다. 권력 상층부의 보이지 않는 변동 가능성은 늘 남아 있으니, 21차 당대회 직전까지 계속 지켜보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못 박힌 것처럼 보이는 시간표 안에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여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상8하의 기계적 규칙이 무너지고 '능상능하(能上能下)'라는 새 기준이 들어선 뒤에는, 능력과 충성도에 따라 누구든 자의적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능상능하는 글자 그대로 '능력 있으면 올라가고, 못하면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듣기에는 합리적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하자는 말이니깐요. 그러나 누가 능력을 판정하느냐가 빠져 있습니다. 그 판정을 한 사람이 독점하면, 능상능하는 실력의 기준이 아니라 충성의 기준으로 바뀝니다. 나이라는 객관적 잣대를 치우고,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을 그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그러면 기형적인 형태로나마 후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남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62세 이하인 현직 정치국 위원 10명이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천원칭(陳文淸, 당시 62세, 국가안전부 당서기), 천민얼(陳敏爾, 62세, 충칭시 당서기), 덩쉐상(丁薛祥, 60세, 중앙서기처 제1서기), 인리(尹力, 60세, 푸젠성 당서기), 류귀중(劉國中, 60세, 산시성 당서기), 위안자쥘(袁家軍, 60세, 저장성 당서기), 리간지에(李干杰, 58세, 산둥성 당서기), 리슈레이(李書磊, 58세, 중앙선전부 부부장), 장귀칭(張國淸, 58세, 랴오닝성 당서기), 천지닝(陳吉寧, 58세, 베이징시 당서기). 범위를

더 넓히면 57세 이하인 중앙위원 22명도 명단에 들어옵니다.

이름은 이렇게 많은데, 무엇이 비어 있다는 것일까요. 비어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이들 중 누구도 과거의 후춘화나 쑨정차이처럼 당 원로들의 합의와 파벌 사이의 균형 속에서 공인받은 후계자가 아닙니다. 격대지정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공인된 후계자는 보호받습니다. 그를 함부로 치면 원로들과 파벌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계자라는 지위는 일종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에게는 그 안전망이 없습니다. 이들은 오직 시진핑 한 사람의 자의적인 발탁만을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오늘 총애를 받다가 내일 숙일 수 있습니다. 후춘화가 그랬고 쑨정차이가 그랬듯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이들은 서로 충성을 다투며 파편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공인된 후계자와 간택을 기다리는 후보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앞의 사람은 제도가 보증하고, 뒤의 사람은 한 사람의 변덕에 매달립니다. 앞의 사람은 다음 권력의 중심으로 자라지만, 뒤의 사람은 중심이 되는 순간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후보일수록 후계자처럼 보이지 않으려 애씁니다. 야심을 드러내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다가가려는 사람이 권력에서 멀어 보이려 애쓰는 기이한 풍경이, 후계 진공의 시대가 만들어 낸 새로운 생존법입니다. 4중대회 공보가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후계자의 서사를 허락하지 않은 채 침묵했다는 것은, 시진핑이 자기 생전에 권력을 나누거나 넘길 뜻이 없음을 거꾸로 보여 줍니다.

4.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

지금까지 본 것이 침묵의 정치였다면, 이제 볼 것은 인사의 정치입니다. 침묵으로 후계를 지운 그 회의는, 동시에 군부의 얼굴을 통째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 한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솟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후계의 신호로 오해할 만한 이름이었습니다.

후계의 자리가 비어 있는 동안, 한 사람이 눈에 띄게 솟아올랐습니다. 장성민(張升民)입니다. 4중전회를 통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올라 군부 서열 3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군부에서 일어난 일 중 세상의 이목을 휘어잡은 사건이 이 인사였습니다.

4중전회를 통해 권력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곳은 인민해방군의 수뇌부였습니다. 경제 계획이 신문 1면을 장식하는 동안, 군부의 꼭대기에서는 사람들이 차례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청사진과 핏빛 숙청이 같은 회의의 앞뒷면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올라간 자리는 피로 비워진 자리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내부 기강과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군 최고위 장성 여럿을 한꺼번에 낙마시켰습니다. 4중전회를 전후해 기율 위반과 부정부패 혐의로 옷을 벗은 고위 장성이 아홉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중에는 서열 3위이자 대만 작전을 총괄하던 허웨이둥(何衛東) 부주석이 있었습니다. 군의 인사권과 사상 통제를 함께 쥐고 있던 서열 5위 마오화(苗華) 정치공작부 주임도 있었습니다. 인사권을 쥔 사람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가 올랐던 사람들도 함께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낙마가 그가 심은 인맥 전체를 끌고 내려갑니다.

이 숙청에는 전사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로켓군 쪽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켓군은 중국의 핵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을 책임지는 부대입니다. 한 나라의 깊은 곳에 자리한 전력, 함부로 손대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부대의 지휘부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사령관급 인사들이 줄줄이 사라졌고, 국방부장을 지낸 리상푸(李尚福)와 웨이펑허(魏鳳和)가 잇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때 군의 정점에 있던 인물입니다. 군에서 다루기 조심스러운 곳, 핵을 쥔 부대에서 시작된 칼이 이제 중앙군사위원회의 꼭대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이 흐름을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시진핑의 칼은 변두리가 아니라 핵심을 향했습니다. 미사일을 쏘는 자, 작전을 짜는 자, 인사를 주무르는 자. 군에서 힘이 모이는 자리마다 차례로 손을 댔습니다. 힘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또 하나의 권력이 생깁니다. 그 또 하나의 권력을 미리 부수는 것이 이 숙청의 문법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무거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군의 핵심 지휘부를 이렇게 비워 두고도 중국은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에, 작전을 총괄하던 사람들이 줄줄이 사라진 군대가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충성을 얻는 일과 전쟁에서 이기는 일은 다릅니다. 두려움으로 묶인 군대는 명령에 복종하지만, 두려움에 묶인 지휘관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습니다. 잘못 움직였다가 숙청될 바에야 가만히 있는 편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충성으로 사유화한 군대가 정작 싸워야 할 순간에 어떤 모습일지는, 누구도 시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진핑 자신조차 모를 일입니다. 허웨이둥과 마오화가 제명되며 생긴 빈자리에 장성민이 들어섰습니다.

군부 한복판에서 서열 3위로 갑자기 떠오른 인물. 게다가 후계자의 자리는 비어 있는 상황. 두 사실이 나란히 놓이자 자연히 한 가지 해석이 고개를 듭니다. 혹시 이 사람이 포스트 시진핑 시대의 후계 신호가 아닌가. 군을 쥔 사람이 다음 권력을 쥐는 일은 역사에 흔했으니, 권력 승계의 밑그림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빈 왕좌 옆에 갑자기 솟아오른 인물을 보면, 누구나 그가 다음 왕이 아닌지 묻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물음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물음이 늘 옳은 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를 후계 신호로 읽는 것은 사실과 어긋납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증거에 가깝습니다. 몇 가지를 차분히 따져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먼저 그의 경력입니다. 장성민은 시진핑 주석과 같은 고향인 산시성(陝西) 출신입니다. 산시성은 시진핑이 젊은 시절을 보낸 곳이자, 그의 권력 기반이 뿌리내린 땅입니다. 같은 고향이라는 인연은 중국 정치에서 가볍지 않습니다. 같은 사투리를 쓰고, 같은 인맥을 공유하고, 무엇보다 오래 검증된 신뢰가 깔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군의 핵심 자리에 고향 사람을 앉혔다는 사실 자체가, 이 인사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넉넉히 알려 줍니다. 능력이나 절차가 아니라 신뢰, 그것도 한 사람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8년 동안 군 내부의 반부패 사정 업무만을 맡아 온 기율 전문 장교입니다. 그가 한 일은 군 안에서 부패한 자를 찾아내고, 기율을 어긴 자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 전투 작전을 지휘한 경험은 없습니다. 부대를 움직이고, 작전을 짜고, 합동 훈련을 끌어 본 이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라를 이끌 차기 1인자로 길러지는 후계자라면 경제, 외교, 당무, 군사 작전을 두루 거치며 종합적인 국정 경험을 쌓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 분야만 잘해서는 14억 명의 나라를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성민의 이력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군령과 군정의 꼭대기에, 작전 한 번 지휘해 본 적 없는 사정 전문가가 앉은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회사의 감사실장을 곧바로 사장 다음 자리에 앉힌 격입니다. 감사는 회사 안의 잘못을 잡아내는 일이고, 경영은 회사를 키우는 일입니다. 둘은 다른 능력입니다. 이 발탁의 기준은 국정 장악 능력도, 파벌 사이의 안배도 아니었습니다. 최고지도자를 향한 충성도 하나였습니다. 군대를 한 사람의 것으로 완벽히 틀어쥐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세대입니다. 후계자가 되려면 시간이 맞아야 합니다. 시진핑의 10년 더 집권을 가정하면, 그 뒤를 이을 사람은 2022년 기준으로 57세 이하여야 합니다. 196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런데 20차 당대회에서 뽑힌 24명의 정치국 위원 가운데 57세 이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차세대 후보 풀 자체가 통째로 거세된 것입니다.

이 거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후춘화의 사례가 잘 보여 줍니다. 그는 격대지정의 원칙에 따라 6세대 후계자로 일찌감치 점찍혔던 사람입니다. 18대와 19대 당대회에서 연달아 정치국 위원을 지냈습니다. 다음 지도자가 될 사람의 정해진 길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차 당대회에서 그는 상무위원 진입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정치국 위원에서마저 빠지며 평범한 중앙위원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후계자의 길을 걷던 사람이 한 번에 평지로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모든 관료가 같은 교훈을 새겼습니다. 후계자라는 이름표는 보호막이 아니라 표적이 된다는 것을.

이런 배경에서 보면, 시진핑과 비슷한 연배이고 같은 산시성 출신인 장성민이 후계자로 떠오른다는 해석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세대의 시간표에도 어긋나고, 능력에 따라 올리고 내린다는 능상능하의 명분에도 닿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일고여덟 살 어린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도 모자랄 판에, 동년배에게 군부 핵심을 맡기는 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행동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겠다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군 지휘부의 텅 빈 상태입니다. 만약 장성민을 진짜 군부 2인자로 키우려 했다면, 그를 중심으로 작전을 함께 끌어갈 실무진과 참모진을 새로 채워 넣는 것이 상식입니다.

2인자에게는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권력이 조직이 됩니다. 20기 중앙군사위원회는 7명 정원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리상푸, 웨이펑허, 마오화, 허웨이둥이 줄줄이 부패와 기율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큰 구멍이 뚫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공보는 그 구멍을 메우지 않았습니다. 대외적으로 중국의 국방을 대변하는 둥쥘(董軍) 국방부장이 중앙군사위원으로 들어왔는지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부장이 군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들어와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황. 정상적인 나라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군사위원 후보로 거론되던 왕리옌(王立岩) 로켓군 부사령원이나 팡용상(方永祥) 중앙군사위 판공청 주임의 결원 보충도 한 줄 없었습니다. 그저 여백으로 남겼습니다. 채워야 할 자리를 굳이 비워 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시진핑이 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었다면, 빈자리를 빨리 채우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휘부에 구멍이 뚫린 군대는 위기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 가지 중 하나를 뜻합니다. 채울 만큼 믿는 사람이 없거나, 채우지 않는 편이 자신에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거나.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비워 둔 자리는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밑바닥에는 불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빈 채로 두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빈자리를 새 장수로 채운다 한들, 그들 역시 권력을 쥐는 순간 또 다른 부패의 카르텔을 만들거나 1인 지배에 이견을 낼 잠재적 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람을 잘못 골라 군의 핵심을 통째로 도려내야 했던 경험은, 다음 사람을 고르는 손을 떨리게 만듭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니 차라리 의자를 비워 둡니다. 1인 지배자의 편집증이 지휘부를 얼어붙게 만든 것입니다. 그 얼어붙은 공백 한가운데 홀로 남은 장성민은, 후계자라기보다 그 빈 의자들을 지키기 위해 내부의 동료들을 베어야 하는 칼자루에 가깝습니다. 그는 권력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새지 않도록 틈을 막는 사람입니다.

이 해석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한 사건이 석 달 뒤에 일어납니다. 2026년 1월 24일, 중국 국방부가 발표를 합니다. 군부 실질 서열 2위이자 시진핑의 오랜 맹우였던 장유샤 부주석, 그리고 군의 연합 작전을 총괄하는 류진리(劉振立) 중앙군위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유샤가 누구인지 기억해 두면 이 발표의 무게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는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72세라는 나이에도 시진핑이 굳이 남긴 사람입니다. 7상8하 규칙을 깨면서까지 곁에 둔 군부의 오른팔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걸어온 맹우였습니다. 그런 사람조차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곁에 누구보다 오래 둔 사람마저 안전하지 않다면, 군 안의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발표 한 줄이 군 전체에 보내는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이로써 7명으로 출범했던 최고 군사 지휘부에서 무려 5명이 반역과 부패의 이름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리상푸, 웨이핑허, 마오화, 허웨이둥, 그리고 장유샤. 남은 사람은 둘이었습니다. 시진핑 본인, 그리고 기율을 맡은 장성민. 일곱 자리 중 다섯이 빈 채로 얼어붙은 군부의 잔해 위에, 장성민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군의 최고 지휘부가 사실상 두 사람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한 사람은 명령하고, 한 사람은 그 명령으로 동료를 베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후계 구도가 자라는 토양이 아닙니다. 후계 구도가 자랄 수 없도록 흙을 갈아엎은 자리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시간표입니다. 앞에서 본 그 시간표가 군부 인사에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4중전회 공보는 2027년이라는 권력 교체 시점을 지우고 2035년이라는 먼 이정표만 강조했습니다. 최고 권력자 스스로가 생전에 권력을 넘기거나 나눌 뜻이 없음을 공식 무대에서 선언한 셈입니다. 그렇게 선언한 마당에, 군사위원 인선에 후계자의 서사가 끼어들 틈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후계가 없다고 못 박은 사람이 후계용 인사를 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장성민의 승진은 그 못 박힌 결정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후계의 신호로 읽으려는 시도는, 이미 닫힌 문 안에서 열쇠를 찾는 일과 같습니다.

5. 닫힌 문 앞에 세워 둔 신기루

제목에 신기루라는 말을 쓴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신기루는 멀리서 보면 또렷하지만, 다가갈수록 물러나는 환영입니다. 목마른 사람을 끝없이 걷게 만드는 풍경입니다. 2035년이라는 목표가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풍경을 향해 걷는 한, 행군은 멈출 수 없고 지휘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목표를 멀리 둘수록 권력의 시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닿지 않는 목표가 권력 연장의 안전한 명분이 되는 셈입니다.

이 모든 조각을 한자리에 놓으면 그림이 또렷해집니다. 57세 이하 차세대 주자의 씨를 말려 버린 2022년의 인사 파괴가 있었습니다. 작전 경험 없는 8년 차 사정 전문가를 서열 3위에 꽂아 넣은 비상식적 발탁이 있었습니다. 7인 지휘부의 다섯 자리를 빈 채로 두고 10년을 함께한 최측근마저 베어 버린 2026년 1월의 궤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후계자를 입에 올리지 않은 공보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네 조각을 따로 보면 각각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사 파괴는 세대교체의 진통일 수도 있고, 사정 전문가의 발탁은 군 정화의 의지일 수도 있고, 빈자리는 일시적 공백일 수도 있고, 공보의 침묵은 신중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조각을 한자리에 모으면 다른 해석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우연 하나는 우연이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우연 넷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이 조각들이 함께 가리키는 곳은 하나입니다. 장성민의 부상은 포스트 시진핑 시대를 준비하는 합리적 후계 구도의 태동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후계 구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또렷한 증거입니다. 그가 높이 올라갈수록, 그 위에 아무도 다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두 가지 시선을 함께 두어야 합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이 모든 인사를 부패 척결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허웨이둥도, 마오화도, 장유샤도 부정과 기율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군부에 부패가 만연했다는 것은 오래된 사실입니다. 무기 조달에서 진급 심사까지, 돈과 인맥이 오가는 통로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군을 한 번 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한편 권력의 작동을 연구하는 이들은 다른 그림을 봅니다.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한 사람에게 군대를 묶는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패는 어디에나

있는데, 누구를 잡고 누구를 두느냐는 잡는 사람이 정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부패의 경중이 아니라 충성의 깊이였다면, 척결이라는 말은 다른 뜻을 품게 됩니다. 어느 쪽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 닫힌 회의장 안의 일을 바깥에서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부패한 자를 치면서, 동시에 충성하지 않는 자를 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만은 분명합니다. 군 지휘부는 텅 비었고, 남은 권력은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마오쩌둥 사후 처음으로, 중국은 '독재자의 딜레마(Dictator's Dilemma)'라 부를 상황으로 깊숙이 들어섰습니다. 딜레마라고 부르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1인 지배자에게 후계자란 양날의 칼이기 때문입니다. 후계자를 정해 두면 권력이 안정적으로 넘어가지만, 그 순간 후계자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또 하나의 권력 중심이 됩니다. 현직 지도자에게는 잠재적 위협입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협은 사라지지만, 대신 자신이 사라지는 날 나라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안정을 택하면 생전이 불안하고, 생전을 택하면 사후가 불안한 것입니다. 시진핑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제도화된 승계 시스템이 사라지고 객관적 인사 규칙이 무너진 빈 무대에는, 오직 예측 불가능성만 남습니다. 정해진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1인 지배자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14억 인구와 핵무기를 지닌 대륙의 통제권이 단숨에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위험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역사를 한 번 떠올려 보면 됩니다. 스탈린이 죽었을 때 소련의 권력층은 한동안 칼끝 위에 섰습니다. 후계가 정해지지 않은 권력의 공백은, 정상에 있던 사람들끼리 서로를 의심하고 제거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오쩌둥이 죽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을 포함한 세력이 체포되며 나라가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다음인지 아무도 모르면, 누구나 자기가 다음일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모두가 모두를 경계합니다. 여러 파벌과 무장 세력이 각자도생을 꾀하는 권력투쟁으로 곧장 빠져들 위험이 거기 있습니다. 후계자를 비워 둔 평온함의 대가는, 언젠가 한꺼번에 청구될 종류의 것입니다. 그 청구서에 적힐 숫자가 얼마나 클지는, 그 나라가 얼마나 크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은 큼니다.

여기서 이 책의 큰 줄기와 한 번 연결해 두겠습니다. 2022년에 후계자의 자리를 비워 두었기에, 2026년의 군부 숙청이 그토록 위험해졌습니다. 채워 넣을 후계 세대가 애초에 없었으니, 다섯 자리가 비어도 메울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의 빈칸이 뒤의

공백을 키웠습니다. 4중전회는 그 인과의 한복판에 놓인 사건입니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 이 인과는 다음 두 장으로 이어집니다. 차세대 주자가 사라진 자리에서, 1960년대생 후보들은 하나둘 무대 뒤로 밀려나고 그보다 어린 1970년대생 관료들이 조심스럽게 떠오릅니다. 천원칭이나 천민얼 같은 60년대생 이름들이 한 시절 후보로 거론되다 흐려지고, 그 빈틈으로 더 젊은 얼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공인된 후계자가 아니라 간택을 기다리는 후보일 뿐입니다. 세대만 바뀌었을 뿐, 한 사람의 변덕에 매달리는 처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후보의 끝에는, 누구의 이름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빈칸이 남습니다. 포스트 시진핑이라는 빈칸입니다. 이 빈칸이야말로 이 책이 끝까지 따라가는 질문입니다. 권력을 완벽히 쥔 한 사람이 자기 다음을 비워 두었을 때, 그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4중전회의 침묵은 그 빈칸이 언제 생겼는지를 기록한 날짜였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베이징의 한 회의장에서, 미래의 자리 하나가 공식적으로 비워졌습니다.

덩샤오핑이 30년에 걸쳐 쌓아 올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면, 4중전회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문화대혁명의 광기에서 빠져나온 그 세대가 깊이 두려워한 것은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쏠리는 일이었습니다. 마오쩌둥 한 사람의 말이 곧 법이던 시절, 그 한마디에 수천만 명의 삶이 휘둘렸던 기억이 그들에게는 생생했습니다.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다짐이 제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만들었고, 자리를 나눴고, 후계자를 미리 점찍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쥐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이었습니다.

이 장치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파벌 사이의 거래가 있었고, 뒷거래도 있었고, 권력투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해냈습니다. 장쩌민(江澤民)에서 후진타오(胡錦濤)로,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최고 권력이 피를 보지 않고 넘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의 평화로운 교체. 한 사람이 정해진 때에 물러나고, 다음 사람이 정해진 절차로 올라서는 일이 두 번 이어졌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것은 드문 성취였습니다. 소련은 끝내 이루지 못했고, 북한은 핏줄로만 넘겼습니다. 중국은 핏줄도 아니고 피도 아닌 방식으로 권력을 넘겼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오래 버티리라 여겨졌던 덩샤오핑의 유산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025년 10월의 침묵은 그 30년의 설계에 대한 사망 선고에 가까웠습니다. 장치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그 장치를 물려받은 사람의 손에서 거꾸로 뒤집힌 것입니다. 평화로운

교체를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이 빈자리를 누구보다 무겁게 지켜보는 것은 중국 바깥의 사람들입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에게 후계 부재는 추상적인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만을 둘러싼 계산, 핵무기의 지휘 계통, 위기 상황의 의사결정 속도와 직결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묶여 있는 나라는, 그 한 사람을 읽으면 다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예측의 토대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웃 나라들이 4중전회 공보의 빈칸을 거듭 읽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빈칸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바다를 사이에 둔 모든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후계자를 끝내 언급하지 않은 공보의 침묵은 텍스트의 누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모든 결정과 미래가, 1953년에 태어난 한 사람의 생물학적 시간과 통제 욕구에 돌이킬 수 없이 묶였음을 기록한 문장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한 사람의 심장 박동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차기 주자의 자리를 비워 둔 채 2035년이라는 먼 이정표를 향해 4연임의 독주를 시작한 시진핑 체제. 그것은 더없이 강력한 기술 제국의 완성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을 대체할 미래는 스스로 부숴했습니다. 제국은 짓되 후계는 짓지 않는 것, 이것이 2025년 가을 베이징이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그 닫힌 문 앞에는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과 '중국 표준 2035'라는 거대한 청사진이 세워졌습니다. 경제 성장,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의 자립, 세계 규범의 장악. 이 원대한 강국몽(強國夢)이, 역설적이게도 한 사람이 권력을 놓지 않을 더없이 사적인 명분으로 둔갑했습니다. 겉으로는 제국의 청사진이고, 속으로는 종신 집권의 변명입니다. 같은 문서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향해서는 나라의 미래를, 당을 향해서는 한 사람의 영속을.

여기에는 깊은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시진핑이 그리는 2035년의 중국은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비고, 인공지능이 산업을 끌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을 채우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게 예측되고 통제되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 매끄러운 미래를 설계한 권력의 정점은, 정작 자기 다음이 누구인지조차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교하게 통제하려는 나라가, 끝내 통제할 수 없는 변수 하나를 한복판에 남겨 둔 것입니다. 그 변수의 이름은 한 사람의 수명입니다.

베이징의 회의장 문이 다시 열렸을 때, 분석가들이 찾던 이름은 끝내 거기 없었습니다. 비어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이 4중전회가 남긴 제일 큰 문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쓰이지 않은 줄이, 쓰인 모든 줄보다 무거웠습니다. 누가 다음을 이을 것인가. 그 물음에 중국은 2025년 가을, 아무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답하지 않음으로써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 무엇을 불러올지는, 닫힌 문 안의 누구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시진핑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가 닫은 것은 후계자를 지목할 마지막 기회였지만, 동시에 그가 연 것은 그 누구도 통제하지 못할 불확실성의 문이었습니다.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권력을 완벽히 쥔 사람일수록 자기 다음을 두려워합니다. 후계자란 자신을 대신할 사람이고, 자신을 대신할 사람이 정해지는 순간 자신은 어제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을 정하면 지금이 흔들리고, 다음을 비우면 끝이 흔들립니다. 시진핑은 지금을 택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현재를 위해, 그는 흔들릴 미래를 감수했습니다. 그 거래의 청구서가 언제 날아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래도록 날아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청구서는 사라지지 않고, 다만 미뤄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10월의 베이징에서, 한 사람이 첫 번째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 문은, 그가 무대에서 사라지는 날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달력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이 책의 남은 장들이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영역입니다.

제7장

마지막 기회를 닫다

2026 중국 권력지형도 :
4중전회가 남긴 거대한 침묵

단행본 '2026 중국 권력지형도' 본문 수록 자료

NotebookLM

제8장 사라진 60년대생, 떠오르는 70년대생

한 베테랑 특파원의 수첩에는 그날의 메모가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새 정치국 상무위원회(政治局常務委員會) 일곱 사람의 이름이 위에서 아래로 차례차례 옮겨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펜 끝으로 명단을 짚어 내려갔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한 줄씩, 출생 연도를 곁에 적으면서. 중국 정치를 오래 본 기자들이 새 지도부 명단을 받으면 늘 하는 일입니다. 맨 위가 누구인지보다, 맨 아래가 몇 년생인지를 먼저 봅니다. 줄의 끝에 선 가장 젊은 얼굴이 10년 뒤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나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의 펜은 명단 끝까지 내려갔다가 멈췄습니다. 제일 어린 측에 적힌 이름이 덩쉐상(丁薛祥)이었는데, 출생 연도가 1960년이었습니다. 그조차 이미 예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더 젊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수첩에는 이런 한 줄이 남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찾으려고 명단을 위에서 아래로 훑었다. 끝까지 내려갔는데, 다음 세대가 없었다."

숫자 하나에서 시작된 의문이었습니다. 명단 맨 아래의 나이 한 점. 그러나 그 한 점은 중국 권력 구조 전체에 난 거대한 구멍의 입구였습니다. 이 장은 그 구멍을 따라 내려가 봅니다. 사라진 한 세대와, 그 빈자리 아래에서 올라오는 또 한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1. 덩샤오핑이 만든 두 개의 자물쇠

먼저 이 무대에 원래 있어야 할 규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무엇이 비었는지 보입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죽고 난 뒤, 덩샤오핑(鄧小平)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권력을 쥐는 일을 다시는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종신 집권은 문화대혁명이라는 재앙을 낳았습니다. 덩샤오핑은 그 재앙을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에 두 개의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첫 번째 자물쇠는 나이였습니다. 이름은 '7상8하(七上八下)'입니다. 당대회가 열리는 시점에 예순일곱 살이면 한 번 더 자리를 지키고, 예순여덟 살이면 예외 없이 물러난다는 규칙입니다. 숫자가 사람을 내보냅니다. 권력자의 기분이 아니라 달력이 결정합니다. 거칠지만 분명한 규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물쇠는 더 정교했습니다. '격대지정(隔代指定)'이라고 부릅니다. 현재의 최고지도자가 자기 입맛대로 다음 후계자를 고르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원로들이 모여 합의하고, 한 세대를 건너뛰어 그다음 지도자를 미리 정해 둡니다. 지금 권력을 쥔 사람이 자기 후임이 아니라 후임의 후임을 물려받는 셈입니다. 후진타오(胡錦濤)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자리는 이미 덩샤오핑 시절에 점지된 것이었습니다. 시진핑(習近平)이 후계자로 낙점된 것도 후진타오의 뜻이 아니라 그 윗세대의 합의였습니다.

이 두 자물쇠 덕분에 중국 공산당은 10년마다 한 번씩 최고권력을 평화롭게 넘겼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지도자를 바꾸는 권위주의 국가는 흔하지 않습니다. 서방의 학자들은 이 시스템을 한동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미리 점찍어 지방에서 단련시키고, 정해진 나이가 되면 자리를 비켜 준다. 기계처럼 돌아가는 승계의 컨베이어 벨트였습니다.

이 자물쇠들이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종이에 적힌 법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 헌법에도, 당헌에도 7상8하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격대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데 모두가 지켰습니다. 적혀 있지 않기에 오히려 더 단단했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만든 규칙이라 주장할 수 없으니, 누구도 함부로 깰 수 없었습니다. 약속을 깨는 사람은 동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물쇠는 법보다 강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습은, 법과 달리, 한 사람이 마음먹으면 소리 없이 부술 수 있습니다.

후진타오 시대가 그 관습의 마지막 모범 사례였습니다. 2007년 17차 당대회 때, 후진타오는 자기 임기를 5년 남겨 두고 시진핑과 리커창을 나란히 상무위원에 올렸습니다. 둘 중 하나가 다음 1인자, 다른 하나가 그 다음 총리가 될 것임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후계자를 미리 무대에 올려 5년 동안 검증받게 한 것입니다. 권력을 쥔 사람이 자기 손으로 후임을 데뷔시키는 이 절차는, 바깥에서 보기에 위태로워 보여도 안에서는 안정의 장치였습니다. 다음이 정해져 있으면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음모를 꾸밀 이유도 줄어들습니다.

2022년 10월, 그 벨트가 멈췄습니다.

2. 예순아홉의 결정

20차 당대회가 열리던 그해, 시진핑은 예순아홉 살이었습니다. 7상8하의 규칙대로라면 그는 이미 한 번 더 자리를 지킬 나이마저 지나 있었습니다. 물러날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총서기 자리에 세 번째로 앉았습니다. 첫 번째 자물쇠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자물쇠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규칙은 남았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시진핑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면제되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이가 칼이 되었습니다.

같은 당대회에서 장유샤(張又俠)는 일흔두 살의 고령이었는데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남았습니다. 일흔이 넘은 군 원로가 자리를 지킨 것은 7상8하의 정신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외교를 맡은 왕이(王毅)도 예순아홉 살에 정치국 위원으로 올라섰습니다.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규칙이 다른 사람에게는 반대로 작동했습니다.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예순일곱 살이었습니다. 7상8하대로라면 한 번 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는 물러났습니다. 공산주의청년단(共產主義青年團), 줄여서 공청단(共靑團) 출신의 핵심이었던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도 같은 나이에 지도부에서 완전히 탈락했습니다. 두 사람 다 시진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리커창의 퇴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진핑과 같은 시기에 상무위원이 되어, 한때 시진핑의 경쟁자로까지 거론되던 인물입니다. 총리로서 경제를 맡았고, 시장의 활력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종종 냈습니다. 시진핑의 국가 주도 노선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가 7상8하 나이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물러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노선이 그를 밀어냈음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총리에서 물러난 지 일곱 달 만에 리커창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순여덟의 나이였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 모인 추모 인파의 규모가 한동안 당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사라진 노선에 대한 그리움이 그렇게 표출되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규칙이 사람을 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규칙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더 이상 중립적인 자물쇠가 아니라,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내보낼지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갖다 붙이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또렷이 드러납니다. 20차 당대회에서 뽑힌

중앙정치국 위원 스물네 명의 평균 나이는 63.6세였습니다. 역대 어느 정치국보다 높았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견주어 보겠습니다. 후진타오 1기였던 16기 정치국의 평균 나이는 60.7세였습니다. 후진타오 2기인 17기는 61.8세, 시진핑 1기인 18기는 61.2세, 시진핑 2기인 19기는 62.5세였습니다. 한 자리씩 천천히 올라가던 숫자가 20기에 와서 단번에 뛰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인 상무위원 일곱 사람만 따지면 평균 나이는 65.2세에 이르렀습니다. 무대 위의 사람들이 다 같이 늙어 갔습니다.

두 번째 자물쇠가 부서지다

나이가 올라간 것보다 더 깊은 변화는 두 번째 자물쇠, 격대지정이 부서진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격대지정의 규칙대로라면, 2022년의 무대에는 이미 점지된 다음 세대가 서 있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그 다음 세대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6세대(第六代)'입니다. 1960년대에 태어난 정치인들을 가리킵니다. 시진핑이 5세대라면, 그 뒤를 이어 2030년대 초에 중국을 이끌 사람들이 6세대였습니다.

이 6세대의 선두에 후춘화(胡春華)가 있었습니다. 그를 빼고는 6세대를 말할 수 없습니다. 후춘화는 18기와 19기 당대회에서 연달아 중앙정치국 위원을 지냈습니다. 두 번 연속 정치국에 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차기 1인자 후보라는 뜻입니다. 그는 티베트에서 일했고, 가난한 광둥성과 허베이성을 거치며 행정의 밑바닥을 익혔습니다. 공청단을 기반으로 성장한 정통 엘리트였습니다. 많은 관측가가 그를 시진핑 다음의 얼굴로 꼽았습니다.

후춘화의 이력은 격대지정 시스템이 사람을 어떻게 길러 내는지 보여 주는 표본입니다. 후베이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베이징대학에 들어갔고, 졸업하자마자 스스로 티베트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공기가 희박한 고원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며 '티베트통'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뒤 공청단 중앙 제1서기를 맡아 전국 단위의 조직을 이끌었고, 마흔넷에 허베이성 성장이 되어 당시 최연소 성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시 광둥성으로 옮겨 중국에서 경제 규모가 큰 성을 운영했습니다. 지방과 중앙, 변방과 핵심, 행정과 당무를 두루 거친 이력입니다. 시스템이 다음 지도자에게 시키려고 짜 둔 코스를, 그는 교과서대로

밟았습니다.

2022년 당대회에서 후춘화는 신아홉 살이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한창때입니다. 상무위원으로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상무위원이 되기는커녕, 스물네 명의 정치국 위원 명단에서마저 밀려났습니다. 평범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차기 1인자 후보에서 수백 명 중 한 명으로 강등된 것입니다. 무대 위에 서 있던 사람이 객석 뒤편으로 밀려난 셈입니다.

후춘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또 다른 6세대 기수였던 쑨정차이(孫政才)는 이미 부패 혐의로 숙청되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충칭시 당서기까지 지내며 후춘화와 나란히 차세대로 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쑨정차이의 몰락은 후춘화보다 5년 빨랐고, 방식은 더 거칠었습니다. 2017년, 19차 당대회를 불과 몇 달 앞두고 그는 갑자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곧 출당과 무기징역이 이어졌습니다. 차세대 1인자 후보가 감옥으로 가는 장면을, 당내의 모든 야심가가 지켜봤습니다. 그 장면 자체가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후계자라는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쑨정차이와 후춘화, 1960년대 초에 태어난 유력 정치인 둘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으로, 한 사람은 객석 뒤편으로. 두 사람을 묶어 보면 한 가지가 또렷해집니다. 6세대의 두 기둥이 모두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격대지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이 둘 중 하나가 시진핑의 뒤를 이었을 것입니다. 그 둘이 다 사라졌으니, 다음 자리는 점지된 사람이 없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장에서 제일 서늘한 숫자가 나옵니다. 20차 당대회에서 뽑힌 스물네 명의 정치국 위원 전체를 통틀어, 196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당시 신일곱 살 이하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입니다.

이 빈칸의 의미를 짚어 보겠습니다. 시진핑이 앞으로 10년을 더 집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10년이 끝날 무렵 권력을 넘겨받을 사람은 2022년 시점에 신일곱 살쯤이어야 자연스럽습니다. 10년 뒤에 예순일곱이 되어 한창 권력을 쓸 나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이대가 정치국에서 통째로 비었습니다. 다음 무대에 올라설 배우들을 미리 대기시켜 두는 자리가 텅 빈 것입니다.

공청단 중앙 제1서기를 지낸 루하오(陸昊)나 허진커(賀軍科) 같은 6세대 일부가 중앙위원에 가까스로 이름을 올리며 명맥은 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벌을 등에 업고 자라난 6세대 범용 정치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격대지정이라는 두 번째 자물쇠는, 채울 사람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작동을 멈췄습니다.

3. 무대 아래에서 올라오는 얼굴들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사라진 사람만 보고 올라오는 사람을 보지 못한 것이니까요. 무대 위 6세대가 비어 가는 동안, 그 무대 아래쪽에서는 전혀 다른 세대가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생', 중국에서는 '70후(七零後)'라고 부르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아직 상무위나 정치국 같은 권력의 심장부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의 예비 인재 명단인 중앙후보위원 자리에는 대거 진입했습니다. 스푹후이(時光輝), 양진바이(楊晉柏), 련마오쥘(連茂君), 우하오(吳浩), 류제(劉捷), 류창(劉強), 샤린마오(夏林茂), 탄웨이중(覃偉中), 그리고 여성인 귀닝닝(郭寧寧). 이런 이름들이 스무 명 넘게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명단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정치 스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 몇 개만 들여다봐도 이 세대의 결이 보입니다. 스푹후이는 1970년에 태어나 안전공학을 공부했고, 상하이의 행정을 거쳐 칭하이성 부서기를 지냈습니다. 양진바이는 베이징항공항천대학에서 공부한 항공 전문가 출신으로, 광시좡족자치구의 살림을 맡았습니다. 탄웨이중은 화학공학을 전공해 중국 최대 석유화학 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귀닝닝은 금융 쪽에서 잔뼈가 굵어 푸젠성의 경제를 다뤘습니다. 이력서를 나란히 놓으면 정치 구호가 아니라 공정과 숫자와 산업의 언어가 흘러나옵니다. 이들은 회의실에서 노선 투쟁을 벌이며 자라난 사람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설비를 돌리고 예산을 맞추며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이 70후 그룹에는 하나의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의 전부가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정치학이나 법학,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화학공학, 기계, 항공우주, 재료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기 중앙후보위원 171명 가운데 단 한 명을 뺀 전원이 이공계열 학과 출신이었습니다. 171명 중 170명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테크노크라트(technocrat)', 우리말로는 이공계 기술 관료입니다. 정치적 수사로 무대를 휘어잡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와 공정과 데이터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지방의 공장을 돌리고, 어느 연구소의 예산을 짜고, 어느 고속철

노선을 까는 일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이 변화는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정치국 위원들의 학력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따라가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16기부터 19기까지, 정치국에는 인문·사회 계열 출신과 이공계 출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20기에 이르러 박사학위 소지자가 열 명, 42퍼센트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들의 전공은 이학과 공학, 경제학, 행정학 같은 실용 학문에 몰려 있었습니다. 정치 이론이나 철학을 깊이 파고든 사람이 아니라, 측정하고 계산하고 설계하는 학문을 익힌 사람들이 권력의 위층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파벌 투쟁과 정치 수사에 능했던 옛 인문계 엘리트는 도태되고, 그 자리를 숫자와 기술과 행정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메웠습니다.

왜 하필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답은 20차 당대회가 내건 깃발에 적혀 있었습니다. '과교흥국(科教興國)', 과학기술과 교육으로 나라를 일으킨다는 구호입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혁신을 국가 건설의 한복판에 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첨단 기술을 틀어막는 시대에, 중국이 살아남으려면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이끌 실무자에게 필요한 것은 파벌을 다루는 솜씨가 아니라 기술을 다루는 능력이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022년의 그림입니다. 위에서는 6세대가 사라지고, 아래에서는 70후 이공계 관료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두 흐름 사이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사라진 6세대와 올라오는 70후 사이에, 거대하고 위험한 빈 공간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 책이 따라가는 시간 축에서 이 빈 공간이 차지하는 자리를 짚어 두겠습니다. 2022년에 6세대를 비워 둔 일은, 그 자체로는 인사 한 번의 결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4년 뒤에 폭발하는 사건의 뇌관이 됩니다. 2025년과 2026년에 군부가 무너졌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할 중간 세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구조라면, 군 지휘부가 흔들려도 한창때의 6세대 정치인들이 정국을 떠받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침대가 2022년에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받침대를 미리 치운 집에서 기둥이 무너지면, 집 전체가 흔들립니다. 후계자를 비워 둔 결정이, 군부 숙청을 그토록 위험한 사건으로 만든 것입니다. 원인은 2022년에 있었고, 위험은 2026년에 드러났습니다.

4. 2025년 가을, 빈자리를 채운 사람들

그 빈 공간의 모양이 또렷해진 것은 3년 뒤였습니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줄여서 4중전회(四中全會)가 열렸습니다.

4중전회의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정책으로 부딪쳤거나 비리에 걸린 중앙위원 열한 명이 한꺼번에 잘려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군부의 피해가 컸습니다. 허웨이둥(何衛東)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마오화(苗華) 정치공작부 주임을 비롯한 고위 장성 아홉 명이 무더기로 제명되었습니다. 군 지휘부의 핵심이 텅 비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는지가 이 장의 다음 단서입니다. 당헌 규정에 따라 새로 중앙위원으로 올라온 일곱 사람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위후이원(於會文) 생태환경부 부부장, 마한청(馬漢成) 구이저우성 당 부서기, 왕젠(王健) 랴오닝성 부성장, 왕시(王曦) 광둥성 통전부장, 왕용홍(王永紅) 국가기관사무관리국 국장, 왕팅카이(王庭凱) 텐진시 당 기율위원회 서기, 왕신웨이(王新偉) 랴오닝성장입니다.

이름만으로는 무미건조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 꺼풀 벗기면 일관된 무늬가 보입니다. 환경, 지방 행정, 부성장, 통전, 기율, 성장. 전부 지방과 부처의 실무를 묵묵히 굴러 온 사람들입니다. 전국적인 정치 스타가 아닙니다. 어느 파벌의 간판도 아닙니다. 위후이원은 환경 분야의 전문가였고, 왕시는 재료과학을 공부한 과학자 출신이었습니다. 4중전회는 군 지휘부의 빈자리를 정치인이 아니라 실무 기술 관료로 메웠습니다. 2022년에 명단에서만 보이던 70후의 흐름이, 2025년에는 실제 권력의 한 층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승격된 일곱 명의 성씨 가운데 다섯이 왕(王)씨라는 점은 우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연 너머에 우연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일곱 명 중 누구도 자기 이름을 내건 정치 세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위후이원이 환경부에서 빠져나와 다른 부처와 연합을 만들 길은 없습니다. 마한청이 구이저우 바깥으로 자기 영향력을 넓힐 통로도 없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칸 안에서만 일하도록 배치되었습니다. 칸과 칸 사이에는 벽이 서 있습니다. 빈자리는 채워졌지만,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서로 손잡을 수 없게 설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대는 채워지되, 무대 위에서 패거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 인선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잣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능상능하(能上能下)', 능력에 따라 올리고 내린다는 원칙입니다. 7상8하라는 나이의 자물쇠가 부서진 자리에, 능력이라는 새로운 명분이 들어선 셈입니다. 공청단이나 상하이방이냐를 따지지 않고, 일을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로 사람을 쓴다는 논리였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5. 무엇을 위한 인재였나

4중전회가 이런 사람들을 끌어올린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목은 잠시 결을 바꿔, 큰 그림을 한 문장으로 먼저 말한 뒤 근거를 쌓겠습니다.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국가의 생존을 기술 자립에 걸었고, 그 전쟁을 치를 병사로 이공계 70후를 동원했습니다.

근거를 쌓아 보겠습니다. 4중전회는 2025년에 끝나는 제14차 5개년 계획의 성적표를 결산하고, 다음 5년을 그릴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의 밑그림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진핑 체제는 지금의 세계를 '백년대변국(百年大變局)', 100년 만의 큰 변화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봉쇄를 뚫는 일을 국가 발전의 근본 동력으로 못 박았습니다.

숫자가 그 의지를 보여 줍니다. 2030년까지 국가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8%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첨단 반도체, 저공경제, 우주항공,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분야를 8대 신흥산업과 9대 미래 첨단산업으로 묶어 원천 기술을 손에 넣겠다는 공격적인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그 끝에는 '중국 표준 2035'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2035년까지 중국의 산업 표준과 기술 경쟁력을 세계 패권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나라를 운영할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반도체 공장의 수율을 끌어올리고, 양자 연구소의 예산을 짜고, AI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대는 일을 지휘할 사람입니다. 이런 일에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읊는 능력이 쓸모없습니다. 화학과 물리와 회계를 아는 손이 필요합니다. 스광후이, 탄웨이중, 왕신웨이 같은 70후 이공계 관료가 무대에 호명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술 자립이라는 전쟁이 그들의 능력을 불러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신형 거국체제(新型舉國體制)'입니다. 나라의 모든 자원과 권력을 중앙으로 모아 한 방향으로 쏟아붓는 체제입니다. 옛 사회주의 계획경제처럼 위에서 자원을 배분하되, 이번에는 그 대상이 강철과 곡물이 아니라 반도체와 알고리즘입니다. 이 체제 아래에서 70후 기술 관료는 더없이 쓸모 있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인재 정책에는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를 인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막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끊고, 동맹국을 묶어 기술

포위망을 짜는 상황입니다. 이런 봉쇄를 뚫으려면 나라 안에서 기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내야 합니다. 설계도, 장비도, 소재도, 인력도 안에서 길러야 합니다. 그 일을 지휘할 사람은 외교 언설에 능한 정치인이 아니라, 공정의 병목을 짚어 내고 연구비를 어디에 넣을지 판단하는 기술자여야 합니다. 시진핑의 인재 선택은 이 절박함에서 나온 합리적인 답입니다. 적어도 기술 자립이라는 목표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합리적인 답이 다른 영역에서는 치명적인 비용을 남긴다는 데 있습니다.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을 골랐더니, 정치를 아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명령을 잘 수행하는 집단을 만들었더니, 명령을 내릴 다음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한쪽의 효율을 끌어올린 선택이 다른 쪽의 공백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이 이 장이 따라온 역설의 경제적 뿌리입니다. 안보와 기술이라는 목표가 후계라는 정치 과제를 밀어내 버린 것입니다.

6. 충성과 유능함, 두 줄 위에서

그런데 이 일꾼들에게는 풀기 어려운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숙제가 70후 세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은 유능함이었습니다. 능상능하의 원칙 아래, 70후는 실물 경제와 첨단 산업의 최일선에서 성과를 내야 했습니다. 못 해내면 내려갑니다. 수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헛돌면, 프로젝트가 늦어지면 자리를 잃습니다. 능력으로만 살아남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능함은 좁은 궤도 위에서만 허락되었습니다. 두 번째 덕목, 시진핑 1인에 대한 충성이라는 궤도입니다. 4중전회 공보는 부패로 숙청된 자리를 채우면서, 전당과 전군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주위에 더욱 긴밀히 단결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집중통일영도(集中統一領導)', 권력을 시진핑 한 사람에게 모아 통일적으로 이끈다는 원칙입니다. 부처의 자율성이나 분권은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70후가 처한 자리를 그림으로 그려 보면 이렇습니다. 가는 줄 두 개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한 줄은 유능함, 다른 줄은 충성입니다. 유능함의 줄에서 떨어지면 무능해서 내려갑니다. 충성의 줄에서 떨어지면 위험인물로 찍혀 숙청됩니다. 두 줄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만 이들은 걸을 수 있었습니다. 능력을 보이되 야심은 보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일은 잘하되 세력은 만들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줄타기는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한 70후 성장이 자기 성의 산업단지를 세계적인 반도체 거점으로 키웠다고 해 봅니다. 성과는 분명합니다. 일자리가 늘고, 세수가 오르고, 중앙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너무 빛나면 곤란해집니다. 전국의 주목을 받는 스타 관료가 되는 순간, 그는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공하되 조용히 성공해야 합니다. 공을 자기 것으로 챙기지 않고 위로 돌려야 합니다. 모든 성과의 공로를 시진핑의 영도와 당 중앙으로 헌정해야 합니다. 유능함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 유능함이 자기 권력으로 쌓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모순입니다. 일은 누구보다 잘해야 하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에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키운 기술 관료들은 댐을 짓고 발전소를 세우며 나라의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 공적을

발판으로 정치적 거물이 되었습니다. 기술에서 시작해 권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70후에게는 그 두 번째 단계가 막혀 있습니다. 기술까지는 허락되지만, 거기서 권력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끊겨 있습니다. 같은 테크노크라트라도, 한 세대 전의 테크노크라트와 지금의 테크노크라트는 처지가 다릅니다. 앞 세대는 기술을 권력의 사다리로 썼고, 지금 세대는 기술을 권력에 묶이는 족쇄로 받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6세대와 70후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라진 6세대는 파벌을 가졌습니다. 후춘화는 공청단이라는 전국적 네트워크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그를 키운 힘인 동시에, 시진핑에게는 잠재적 위협이었습니다. 자기 사람을 거느린 정치인은 언젠가 독자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시진핑 자신이 파벌과 후견 관계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는 혁명 원로 시중신(習仲勳)의 아들로, 이른바 '태자당(太子黨)'이라 불리는 혁명 2세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가문과 인맥과 줄이 그를 권력의 사다리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런 그가 권력을 잡은 뒤 한 일은, 자신을 키워 준 바로 그 메커니즘을 다음 세대에게서 거두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줄을 타고 올라온 사람이, 뒤따라오는 이들의 줄을 끊었습니다. 자신이 누린 길을 후배에게는 막은 셈입니다. 한 번 올라온 사람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은 권위주의 정치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시진핑은 그것을 한 세대 전체를 상대로 했습니다.

70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흩어져 있습니다. 각자 자기 전문 분야와 자기 지방 안에서만 권한을 씁니다. 환경부의 위후이원은 환경을 압니다. 랴오닝의 왕신웨이(王新偉)는 랴오닝을 압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군부와 연결되고, 사상 통제 기관과 엮여 전국적인 세력을 만드는 길은 처음부터 막혀 있습니다. 흩어진 점들입니다. 점들끼리 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한쪽으로 기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절대 권력에 도전할 거물이 자라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권력을 잘게 쪼갰습니다. 70후에게 능력은 마음껏 쓰게 하되, 정치적 야심은 자라기 전에 잘라 냈습니다. 유능한 집행자는 환영하지만, 미래의 경쟁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줄타기는 70후가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그렇게 설계해 놓은 무대입니다.

7. 비어 있는 허리

이제 이 장이 처음에 본 그 구멍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중국 권력 구조의 허리가 끊어졌습니다.

몸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머리에는 늙어 가는 최고지도부가 있습니다. 시진핑은 1953년생입니다. 상무위원 일곱 사람의 평균 나이는 65.2세, 정치국 위원 스물네 명은 63.6세입니다. 다리에는 이제 막 올라온 70후 실무 관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와 다리를 잇는 허리, 그러니까 6세대가 없습니다. 통째로 비었습니다.

이 구멍이 왜 위험한지는 2027년을 계산해 보면 보입니다. 2027년에는 제21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그 시점에 상무위원들의 평균 나이는 70.3세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스물네 명의 정치국 위원은 68.6세, 중앙서기처는 68.3세에 달할 전망입니다. 7상8하의 최소한이라도 적용된다면, 지금 최고지도부 대부분은 물러나야 하는 나이입니다.

2027년에는 또 하나의 무게가 겹칩니다. 그해는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입니다. 건군 100주년에 맞춰 군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오래전부터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군의 지휘부가 2025년과 2026년의 연쇄 숙청으로 텅 비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원래 일곱 사람으로 채워지는 기구인데, 그중 다섯 자리가 비거나 흔들렸습니다. 100주년이라는 영광의 해를, 지휘부가 절반 넘게 비어 버린 군대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늙은 머리와 빈 허리라는 권력 구조의 문제가, 군이라는 제일 민감한 영역에서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물러난다면 누가 그 자리를 채울까요.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6세대가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6세대는 2022년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후춘화는 객석 뒤편에 있고, 쑨정차이는 감옥에 있습니다. 채울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짚고 가야 공정합니다. 7상8하가 이미 깨진 마당에, 시진핑이 2027년에 그 규칙을 또 무시하고 늙은 지도부를 그대로 끌고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반론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규칙을 적용해 왔으니, 자기 사람들의 나이는 또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나이는 협상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일흔다섯의 지도부를 여든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영원히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생물학적 시계는 정치적 의지보다 강합니다.

규칙을 깨서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이 끝나는 자리에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미룰수록 빈자리는 더 깊어집니다.

능상능하라는 새 잣대가 늦깎이 후계자를 만들어 낼 가능성도 완전히 닫혀 있지 않습니다. 능력만 보고 사람을 쓴다는 원칙이 진짜로 작동한다면, 지금 정치국이나 중앙위원 가운데서 뒤늦게 한 사람이 발탁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부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발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원로들의 합의로 미리 검증된 후계자와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한 사람의 번덕으로 올린 사람은 한 사람의 번덕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제도가 보장하는 후계자와, 총애가 만든 후계자는 같은 자리에 앉아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70후가 곧장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매끄럽지 않습니다. 70후는 지금 지방의 성장이나 부처의 국장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는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들은 14억 인구의 나라 전체를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교를 총괄해 본 적도, 거대한 인민해방군을 다뤄 본 적도, 14억 인민의 사상을 이끌어 본 적도 없습니다. 전국 단위의 정치적 무게를 쌓을 기회를 처음부터 차단당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잘 수행하는 고위급 엔지니어이지, 나라의 방향을 정하는 최고 영도자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는 높고, 허리는 비었고, 다리는 아직 어립니다. 게다가 그 어린 다리는 일부러 자라지 못하게 묶여 있습니다. 시진핑이 미국의 압박을 뚫으려고 더없이 유능한 관료 집단을 만들어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손으로, 자신을 대신할 정치 지도자가 자라나는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효율적인 행정 기계는 만들었으나, 다음 지도자를 길러 내는 구조는 부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구조적 공백'이라는 말의 실체입니다.

단정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음은 누구인가. 6세대가 사라지고 70후가 올라온다면, 그 70후 가운데 누가 시진핑의 뒤를 이을 것인가.

이 장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답하지 않는 것이 이 장의 마지막이자 끝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중국 정치를 다루는 글에는 오래된 유혹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보이면 누군가를 그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는 유혹입니다. 사라진 6세대와 떠오르는 70후 사이에서, 관측가들은 끊임없이 '숨은 후계자'를 찾아내려 합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깔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계를 확인하는 분석일수록, 그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왜 의심해야 하는지를 세 갈래로 풀어 보겠습니다.

의심의 출발점은 규칙이 이미 부서졌다는 사실입니다. 후계를 점치는 모든 예측은 어떤 규칙을 전제로 합니다. 7상8하가 살아 있다면 나이로 다음을 짚을 수 있습니다. 격대지정이 살아 있다면 점지된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두 자물쇠 다 2022년에 부서졌습니다. 규칙이 없는 곳에서 규칙에 기댄 예측을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측은 쏟아집니다. 해외의 화교 매체나 독립 시사 유튜브 채널에서는 옛 파벌 균형에 기대어 부활과 후계 구도를 점치는 폭로성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예로, 인민일보(人民日報)에 실린 중앙당사·문헌연구원 원장 취칭산(曲靑山)의 기고문에서 '두 개의 확립(兩個確立)'이라는 충성 키워드가 빠졌다는 점을 두고, 당내 이견이 폭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돌았습니다. 후춘화가 정치국 위원으로 복귀해 왕후닝(王滄寧)의 정협 주석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소문, 후진타오의 아들 후하이펑(胡海峰)이 간쑤성(甘肅省) 란저우(蘭州)시 당서기로 영전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런 소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진위를 떠나, 이 소문들에는 공통된 바람이 깔려 있습니다. 옛날처럼 파벌이 서로 견제하고 타협하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단지도체제로 회귀했으면 하는 희망 사항을 현실에 억지로 투영한 것입니다. 능상능하라는 새 잣대 아래에서 후춘화가 권력의 정점으로 되돌아온다는 이야기는, 1인 독재의 통제 메커니즘을 모른 척한 낭만에 가깝습니다.

다음으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자체가 후계자가 아닙니다. 서방의 분석가들은 좀 더 점잖은 후보 명단을 제시합니다. 2022년 기준 예순둘 이하의 정치국 위원 열 명을 잠재 후보로 꼽습니다. 천원칭(陳文淸), 천민얼(陳敏爾), 덩쉐상, 인리(尹力), 리우귀중(劉國中), 위안자쥘(袁家軍), 리간지에(李干杰), 리슈레이(李書磊), 장귀칭(張國淸), 천지닝(陳吉寧). 범위를 중앙위원회까지 넓히면 신일곱 이하의 70후가 스물두 명 더 나옵니다.

이 명단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후보군이라는 말이 얼마나 험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천원칭은 국가안전부를 맡은 정보 분야의 인물이고, 천민얼은 충칭시 당서기로 시진핑과 가까운 사이로 꼽힙니다. 덩쉐샹은 시진핑의 비서실장 격으로 오래 보좌해 온 사람이고, 인리는 푸젠성, 위안자쥘은 저장성, 천지닝은 베이징시를 맡았습니다. 직책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직책이 곧 후계 자격은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 누구도 자기 이름으로 노선을 제시하거나 독자적인 세력을 거느리지 못합니다. 시진핑이라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아닙니다.

명단은 길지만, 이 가운데 누구도 원로들의 합의나 제도적 절차를 거쳐 공식 후계자의 상징을 부여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와 지방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하도록 잘게 나뉘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70후의 운명과 똑같습니다. 충성 경쟁에 내몰려 언제든 소모품처럼 교체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중 한 명을 꼭 집어 차기 대권 주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들이 처한 극단적인 취약함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후춘화와 쑨정차이가 보여 준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차기 1인자로 제일 또렷이 거론되던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한다면, 지금 누군가를 후계자로 지목하는 일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위험한 낙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래가 제일 무겁습니다. 2025년 4중전회가 보여 준 침묵입니다. 만약 시진핑이 2027년 21차 당대회를 끝으로 권력을 정상적으로 넘길 생각이었다면, 2025년 가을의 4중전회야말로 후계자를 공식 무대에 올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다음 지도자를 핵심 요직에 앉혀 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4중전회 공보에는 차기 후보에 관한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후계 구도에 관한 언급이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채워졌습니다. 허웨이둥과 마오화가 떨어져 나간 군 지휘부의 빈자리에, 사정을 총괄해 온 기율 전문 장교 장성민(張升民)이 부주석으로 올라섰습니다. 군의 작전 지휘부를 텅 비워 버린 그 공백 위에서, 공보는 오직 시진핑의 핵심 지위를 지키고 그 주위에 단결할 것만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장성민이 누구인지를 보면 이 인사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는 작전을 지휘하던 야전 장군이 아니라, 군 내부의 기율을 감찰하던 사람입니다. 동료 장성들의 비위를 캐고 처벌하는 일을 해 온 인물입니다. 작전 지휘부의 빈자리를 작전 전문가가 아니라 감찰

전문가로 채운 것입니다. 이는 군을 더 강하게 만들려는 인사라기보다, 군을 더 확실하게 통제하려는 인사로 읽힙니다. 누가 싸움을 잘하느냐보다, 누가 배신하지 않느냐가 먼저인 셈입니다. 충성이 유능함을 앞지르는 논리가 군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를 지목해야 할 자리에 후계자 대신 감찰관을 앉히는 회의, 다음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현재의 충성만을 다그치는 공보. 4중전회가 남긴 것은 후계 구도가 아니라 후계 구도의 부재를 못 박는 도장이었습니다. 침묵도 하나의 발언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이 말한 것보다 더 또렷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4중전회는 2027년이라는 권력 교체의 시점을 지워 버리고, 대신 '2035년'을 앞세웠습니다. 제15차 5개년 계획을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못 박았습니다. 2027년을 흐리고 2035년을 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권력 동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로 읽습니다. 2027년 21차 당대회를 넘어 2032년 22차 당대회까지, 최소 10년을 더 지배하겠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자신 외에는 이 거국적 전쟁의 조타수가 될 수 없다는 종신 집권의 논리입니다. 권력을 나눌 생각이 없다고 스스로 선언한 사람에게 후계자를 묻는 것은, 묻는 사람만 머쓱해지는 일입니다.

8. 빈칸을 빈칸으로 보기

그래서 이 장이 도달하는 자리는 누가 후계자인가가 아닙니다.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독재 권력에는 잔인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후계자를 지명하는 순간, 권력은 누수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새로운 구심점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충성의 무게중심이 둘로 갈립니다. 그래서 후계자의 존재는 절대 권력자에게 위안이 아니라 위협이 됩니다. 110명이 넘는 장성을 숙청하고, 2026년 1월에는 장유샤와 류전리(劉振立)라는 오랜 맹우이자 최고 군사 실세마저 야밤에 입건해야 했던 시진핑입니다. 그런 편집증적 통제 욕구 속에서 2인자는 애초에 허락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건드리면 죽는 역린(逆鱗)입니다.

장유샤의 입건은 이 역설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그는 이 장의 앞부분에서 7상8하의 나이를 면제받고 군사위 부주석으로 남았던 사람입니다. 시진핑이 규칙을 깨면서까지 곁에 둔 오랜 동지였습니다. 그런 사람마저 2026년에 입건되었습니다. 한때 규칙을 깨면서 지킨 사람을, 이제는 규칙도 없이 쳐낸 것입니다. 어제의 맹우가 오늘의 표적이 되는 자리에서, 누가 감히 후계자가 되겠다고 손을 들겠습니까. 후계자란 제일 가까운 동지라는 뜻이고, 이 체제에서 제일 가까운 동지는 누구보다 먼저 의심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빈칸이 위험한 까닭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시진핑이 건강하게 권력을 쥐고 있는 한, 후계자가 없어도 체제는 돌아갑니다. 명령이 위에서 내려오고, 70후 관료들이 그것을 실행합니다. 기계는 매끄럽게 작동합니다. 문제는 그 꼭대기의 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병, 돌발적인 사고, 혹은 내부의 균열. 그 순간 명령을 내릴 사람이 사라지면, 명령을 받아 실행하던 기계 전체가 멈춰 섭니다. 누구도 다음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비상시에 키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14억 인구의 나라가, 운전대를 이어받을 사람 없이 한 사람의 건강에 매달려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6세대의 절멸과 70후의 진입 사이에서, 혹은 출처 불명의 폭로 기사 속에서 선불리 다음 1인자를 단정하는 모든 분석은 한 가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체제가 끌어안은 어둡고 비이성적인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던질 질문은 누가 시진핑의 뒤를 이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후계자조차 지워 버린 채 텅 빈 지휘부를 이끌고 2027년과

2035년이라는 강박적 시간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 절대 권력이, 1인자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돌발 위기가 닥쳤을 때 14억 대륙을 어떤 통제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2022년 가을, 인민대회당 무대 위로 일곱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줄의 끝에 다음 세대가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본 베테랑 특파원의 기록을 다시 떠올립니다. 끝까지 내려갔는데, 다음 세대가 없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채워진 것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자리를 비워 둔 채 늙어 가는 한 사람의 시간표뿐입니다. 빈칸은 여전히 빈칸입니다. 그리고 그 빈칸을 억지로 메워 읽으려는 모든 시도를, 우리는 의심해야 합니다.

단행본 그림설명



2026 중국 권력지형도

제8장. 사라진 60년대생, 떠오르는 70년대생

NotebookLM

제9장 Post-Xi라는 빈칸

워싱턴의 한 안보 연구소에서 중국 군사를 연구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26년 봄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펴놓고 있었습니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조직도였습니다. 일곱 개의 칸이 그려져 있었고, 그 가운데 다섯 개에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남은 칸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시진핑(習近平), 하나는 장성민(張升民)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빈 칸들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무서운 것은 이 줄 그어진 이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그 옆의 다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 종이에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제목만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손으로 쓴 제목이었습니다. "시진핑 유고 시 누가 권력을 잡는가." 그 아래는 백지였습니다.

그는 이 연구소에서 20년 넘게 중국 군부를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냉전이 끝나갈 무렵 인민해방군의 무기 체계를 분석하며 일을 시작했고, 후진타오 시대의 조용한 권력 이양을 책상에서 지켜본 세대입니다. 그런 사람이 백지를 가리키며 한 말은 짧았습니다. "20년 전이었다면 나는 이 칸을 연필로라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펜을 들 데가 없어요." 채울 이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채워도 그게 답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백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14억 인구를 거느린 나라, 핵탄두를 600기 가까이 보유한 나라,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 그 나라의 다음 권력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답을 아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본인조차 모를지 모릅니다. 아니, 그가 누구보다 모르게 만들어버렸다고 해야 정확합니다.

이 장은 그 백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손꼽히게 강력한 권력자가 자기 자리의 다음 자리를 비워버렸는가. 그리고 그 빈칸이 왜 이 책 3부 전체를 떠받치는 한복판의 질문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칸이 빈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칸이 비었다는 사실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보고 나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1. 빈칸이 생긴 날

2022년 10월의 일을 다시 떠올려보겠습니다. 이 책 1부에서 이미 그 가을의 베이징을 걸었습니다. 후진타오(胡錦濤)가 카메라 앞에서 부축을 받아 퇴장하던 장면, 그 등 돌린 사람의 이야기로 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무대 위에서 벌어진 일은 한 노인의 퇴장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을 떠받쳐온 약속 하나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이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7상8하(七上八下)'입니다. 당대회가 열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67세면 자리를 지키고 68세면 물러난다는 규칙이었습니다. 나이가 곧 정년이었습니다. 누구의 호불호도 끼어들 수 없게 기계처럼 작동하라고 만든 장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격대지정(隔代指定)'입니다. 현직 지도자가 자기 후계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원로들이 한 세대를 건너뛰어 차차기 지도자를 미리 점찍어두는 불문율이었습니다. 권력이 자식을 낳지 못하게, 대신 손자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설계한 이 두 장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권력을 쥐고, 그가 죽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던 그 시절 말입니다. 덩샤오핑은 권력이 사람을 따라 무덤까지 가지 않게, 제도를 따라 다음 사람에게 흐르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덩샤오핑이 왜 그토록 후계 문제에 매달렸는지는, 그가 살아온 길을 보면 짐작이 갑니다. 그는 마오쩌둥 밑에서 세 번 쫓겨나고 세 번 돌아온 사람입니다. 문화대혁명 때는 아들이 홍위병에게 떠밀려 건물에서 떨어져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되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덕에 나라 전체가, 자기 가족까지 휘둘리는 것을 몸으로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가 만년에 임기 제한과 연령 규칙과 격대지정에 집착한 것은 추상적인 제도 설계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한 사람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겠다는, 겪어본 자의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후계를 미리 정해두는 일은 그에게 안전장치였습니다. 권력자가 죽거나 미치거나 늙어 판단을 잃어도, 나라가 굴러가게 하는 장치 말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2022년에 부순 것은 규칙 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한 노인이 자기 가족의 비극까지 갈아 넣어 만든 안전장치 전체였습니다.

2022년 가을, 시진핑은 그 두 장치를 같은 날 함께 부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9세였습니다. 7상8하 규칙대로라면 이미 물러났어야 할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총서기 3연임을 강행했습니다. 규칙이 자기에게 불리하면 규칙을 없앴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규칙을 측근에게는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72세의 고령이던 장유샤(張又俠)를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그대로 앉혔습니다. 68세면 물러나야 한다던 규칙이, 72세 측근 앞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69세의 왕이(王毅)는 정치국 위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나이 규칙은 폐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진핑이 보호하고 싶은 사람 앞에서만 침묵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67세였던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유임 요건을 충분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의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규칙대로라면 둘 다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지도부에서 밀려났습니다. 공청단(共靑團) 계열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규칙은 측근을 지키는 데는 잠들고, 경쟁 세력을 쳐내는 데는 깨어났습니다. 이 책 3부에서 우리는 들어온 사람만큼 밀려난 사람을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리커창과 왕양은 나이가 모자라서 밀려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이 사람을 위해 휘어졌기에 밀려났습니다.

리커창의 퇴장에는 시대의 한 막이 닫히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후진타오 시대에 시진핑과 1인자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사람입니다. 베이징대 법학과를 나온 경제통이었고, 시장의 활력을 믿는 쪽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을 하늘이 보고 있다"는 말로 권력의 자제를 에둘러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권력에서 밀려난 지 반년 만인 2023년 10월, 상하이에서 수영을 하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8세였습니다. 자연사라는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시진핑과 다른 길을 말하던 마지막 목소리 하나가 권력 무대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집단지도체제의 시대가 한 사람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2. 멸절된 다음 세대

그러나 그날 베이징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더 깊은 상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갔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후춘화(胡春華)라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963년생, 당시 59세였습니다. 그는 18차, 19차 두 번의 당대회에서 연속으로 중앙정치국 위원을 지냈습니다. 오랫동안 차기 1인자 후보로 불렸습니다. 공청단의 별이었고, 격대지정의 논리대로라면 시진핑 다음을 이어받을 6세대(1960년대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다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후춘화의 이력은 그 별명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베이징대학을 나와 스물세 살에 티베트로 자원해 들어갔습니다. 고산병으로 쓰러지면서도 20년 가까이 그 척박한 변방에서 행정을 익혔습니다. 마흔넷에 허베이성 성장이 되었고, 곧 내몽골과 광둥성의 당서기를 거쳤습니다. 중국에서 후계자로 빛어지는 정해진 코스, 즉 어려운 변방과 부유한 연안을 모두 다스려 본 자만이 밟는 길을 그는 차근차근 밟았습니다. 후진타오 본인도 한때 그를 아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틀 후'라는 별명까지 따라붙었습니다. 한 세대 건너 권력을 물려주는 격대지정의 문법대로라면, 2022년의 그는 상무위원에 올라 2027년 이후를 준비할 사람이었습니다.

2022년 가을, 그 '다음'이 지워졌습니다. 후춘화는 상무위원 진입에 실패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24명으로 짜이는 정치국 위원 명단에서조차 빠졌습니다. 평범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차기 1인자 후보가 한 번의 당대회로 후보군 바깥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강등의 방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후춘화는 부정부패로 입건된 적이 없습니다.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죄가 있어서 밀려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줄에 서 있었기에 밀려났습니다. 공청단이라는 줄 말입니다. 후진타오가 키운 그 인맥은 시진핑에게 잠재적 경쟁 세력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한 사람이 속한 계보가 그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2022년 인사의 문법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다음 세대라도 다른 계보에서 자랐다면 숙아낸다는 문법. 그렇게 숙아내고 나니, 남은 다음 세대가 없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이었다면 개인의 비극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온 명단이었습니다. 20차 당대회에서 뽑힌 24명의 정치국 위원 전체를 놓고 보면, 57세 이하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196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세대 전체가 권력의 최상층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을 쳐낸 것이 아니라, 한 세대의 씨를 말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의 권력 교체 주기는 대략 10년입니다. 한 지도자가 두 번의 임기, 그러니까 10년을 채우고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이 덩샤오핑이 설계한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가 돌아가려면, 지금 권력의 정상에 다음 세대의 얼굴들이 미리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후계자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지방을 돌고, 부처를 거치고, 정치국에서 동료들과 부딪히며 빚어집니다. 그런데 2022년의 명단에는 그 빚어질 재료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들어올 자리를 시진핑이 먼저 비워버렸습니다.

농사에 빚대보겠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짓는 농부는 올해 거둬 곡식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심을 씨앗을 따로 남겨둡니다. 그 씨앗을 먹어버리면 당장 한 끼는 배부르지만, 다음 해에는 심을 것이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후계 제도는 그 씨앗을 남겨두는 규칙이었습니다. 지금 권력의 정상에 다음 세대를 미리 심어, 10년 뒤에 거둬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에 시진핑은 그 씨앗을 거두지 않고 갈아엎었습니다. 후춘화라는 씨앗도, 그 또래 세대 전체도. 당장의 권력은 온전히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에 심을 것이 사라졌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먹어버린 밭, 그것이 2022년 이후의 권력 지형입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매체 포린 애널리시스(Foreign Analysis)는 「미완의 왕조: 시진핑이 권력을 구축했으나 미래는 구축하지 못한 이유」라는 보고서에서 이 상황을 '고전적인 독재자의 딜레마'라고 불렀습니다. 딜레마의 양쪽 끝은 이렇습니다. 후계자를 일찍 지명하면, 그 후계자 주위로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지는 해보다 뜨는 해를 봅니다. 후계자는 곧 라이벌이 되고, 현직 권력자는 자기 손으로 자기를 끌어내릴 칼을 만든 셈이 됩니다. 그렇다고 후계자를 끝까지 지명하지 않으면, 자기가 떠나는 날 나라가 권력 투쟁의 아수라장으로 빠질 위험을 떠안습니다.

이 딜레마는 시진핑이 처음 마주친 것이 아닙니다. 독재의 역사가 되풀이해온 오래된 함정입니다. 스탈린은 후계자를 두지 않았고, 그가 1953년 갑자기 쓰러지자 측근들은 그의

침실 문 앞에서 서로를 의심하며 의사조차 제때 부르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이 비자, 베리야와 흐루쇼프와 말렌코프가 몇 달간 피 말리는 다툼을 벌였습니다. 마오쩌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계자로 점찍은 린바오(林彪)가 자기를 위협한다고 의심하자 그를 내쳤고, 린바오는 비행기로 달아나다 몽골 사막에 추락해 죽었습니다. 그 뒤 마오쩌둥은 죽을 때까지 확실한 후계자를 두지 않았고, 그가 눈을 감자 그의 아내를 포함한 '사인방'이 체포되는 권력 다툼이 곧바로 벌어졌습니다. 후계자를 두면 위협이 되고, 두지 않으면 사후가 혼란해진다는 이 함정에서, 절대 권력자는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덩샤오핑이 위대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는 이 함정을 알았고, 제도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자기 한 사람의 판단을 믿지 않고, 규칙과 합의에 후계를 맡겼습니다. 임기를 정해 권력이 늙지 않게 했고, 격대지정으로 다음 세대를 미리 길렀습니다. 함정을 개인의 지혜가 아니라 제도의 그물로 막으려 한 것입니다. 그 그물이 30년간 중국을 지켰습니다.

시진핑은 이 딜레마 앞에서 한쪽을 골랐습니다. 후계자를 만들지 않는 쪽이었습니다. 라이벌이 생기는 위험보다, 자기가 떠난 뒤의 혼란을 택한 것입니다. 자기 생전의 안전을 위해, 나라의 사후를 저당 잡혔습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빠졌던 그 함정으로, 덩샤오핑이 애써 빠져나온 그 함정으로, 시진핑은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선택을 부패 척결과 기강 확립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진핑 자신은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도전 세력을 숙아내는 일이 곧 당을 지키는 일이라고. 군 안에 굶은 부패가 실제로 심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무기를 사고파는 자리, 진급을 주고받는 자리에 돈이 오갔고, 시진핑의 숙청에는 그 굶은 곳을 도려낸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명분을 무조건 거짓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숙아냄이 다음 세대 전체에 미쳤을 때, 그리고 군 수뇌부 절반에 미쳤을 때, 남는 것은 깨끗해진 당이 아니라 후계자가 없는 당, 지휘관이 없는 군이었습니다. 청소가 너무 철저하면 청소부만 남습니다. 어느 쪽으로 읽을지는 독자의 몫으로 남깁니다. 다만 결과는 양쪽 시각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3. 닫힌 문, 2025년 가을

빈칸을 메울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줄여서 4중전회가 열렸습니다. 이 책 7장에서 우리는 이 회의를 '마지막 기회를 담은 문'으로 다루었습니다. 후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떻게 들렸는지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시진핑은 2025년에 집권 13년째였습니다. 만약 그가 2027년 제21차 당대회를 끝으로 정상적으로 물러날 생각이었다면, 그 두 해 전에 열린 이 4중전회가 후계자를 공식 무대에 올릴 마지막 마지노선이었습니다. 후계자에게 핵심 요직을 맡기고, 군과 경제를 익히게 하고, 사람들 앞에 '다음'이라고 보여줄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1990년대 후진타오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후진타오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면 이 마지노선의 의미가 또렷해집니다. 후진타오는 1992년에 후계자로 찍혔고, 1999년에 군사위 부주석이 되어 군을 익히기 시작했으며, 2002년에 총서기를 받았습니다. 찍힘과 실제 인계 사이에 10년이 있었습니다. 그 10년이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였습니다. 시진핑의 시계로 따져보면, 2027년에 물러나려면 적어도 몇 해 전에는 후계자가 무대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2025년 가을이 그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에 아무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빈 무대만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 빈 무대를 본 사람들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시진핑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4중전회가 끝나고 공보(公報)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당대회 공보는 묘한 문서입니다. 겉으로는 의례적인 문구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중국 정치를 읽는 사람들은 그 문구의 작은 변화에서 권력의 향방을 읽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들어갔는지, 어떤 직책이 새로 생겼는지, 어떤 표현이 빠졌는지를 한 줄 한 줄 대조합니다. 행간을 읽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 그 공보를 받아 들었습니다.

후계 인선에 관한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런 구절은 없었습니다. 새 인물도, 차기 구도도 없었습니다. 후계자 자리에 흔히 붙는 직함, 예컨대 국가부주석이나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새 얼굴을 안배했다는 신호도 없었습니다. 공보가 강조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시진핑을 핵심으로 당과 인민이 단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이라는 두 글자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게만 붙던 무게의 말입니다. 그 말이 후계라는 단어를 밀어내고 공보의 한복판을 차지했습니다.

오히려 회의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제15차 5개년 계획'을 통과시키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청사진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35년이라는 연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짚어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2027년이 권력 교체의 시점이라면, 시진핑은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시야를 2035년에 맞췄다면, 2027년의 교체는 그의 머릿속에 없는 것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면 2032년 제22차 당대회까지, 4연임 이상의 장기 집권을 내다보는 그림이 됩니다.

같은 4중전회에서 통과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5차 5개년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를 그린 큰 지도입니다. 그 안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에서 미국에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서겠다는 거대한 목표가 담겼습니다. 이 계획은 4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짚을 것은 그 계획의 시간표입니다. 5개년 계획이 2030년에 끝나고, 그 뒤로 2035년 목표가 이어집니다. 권력의 시간표와 경제의 시간표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 다 2027년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후계 이양의 해여야 할 2027년이, 두 시간표 어디에서도 매듭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은 하나의 해석입니다. 시진핑이 직접 "나는 종신 집권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습니다. 2035년 목표는 후계자가 누구든 이어받아야 할 국가 과제일 뿐, 시진핑 개인의 임기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계자의 얼굴이 어디에도 없는 상황에서 2035년이라는 깃발만 펄럭일 때, 사람들이 그 깃발을 누구의 것으로 읽을지는 자명합니다. 살아 있는 동안 권력을 나눌 뜻이 없다는 신호를, 시진핑은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보냈습니다.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의 시나리오, 그 침묵 속에서 조용히 폐기되었습니다.

4. 비교의 거울 하나, 장쩌민의 2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빈칸이 얼마나 깊은지를 재려면, 그 옆에 자를 하나 대봐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서 권력이 그래도 매끄럽게 넘어갔던 시절을 자로 삼겠습니다. 그 시절의 주인공은 장쩌민(江澤民)입니다.

장쩌민이 후진타오에게 권력을 넘기던 2000년대 초반을 들여다보면, 지금과는 다른 문법이 보입니다. 그 문법을 이해하려면 중국 정치의 한 가지 특이한 성질부터 알아야 합니다. 공식 직함과 실제 권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좋은 예가 덩샤오핑 자신입니다. 그는 한 번도 당 총서기나 국가주석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쥔 자리는 중앙군사위 주석 하나였습니다. 군대를 쥔 사람이 곧 최고 권력자라는 것, 이것이 중국 정치의 오래된 철칙입니다. 마오쩌둥의 말로 하면 "총구에서 권력이 나온다"입니다. 1987년 제13차 당대회에서 덩샤오핑은 정치국 위원직에서까지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중앙군사위 주석직만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덩샤오핑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새 총서기 자오쯔양(趙紫陽)을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앉혀, 군 고위층과 인연을 맺고 천천히 자기를 이어받게 하려는 다리였습니다. 권력을 한 번에 던지지 않고, 군권이라는 마지막 끈을 쥔 채로 후계자가 그 끈을 잡고 건너오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이라는 격변 속에서 자오쯔양이 실각하고, 아무 직책도 없던 덩샤오핑이 막후에서 무력 진압을 지시하는 파국이 끼어들기는 했습니다. 권력이 매끄럽기만 했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지나간 직후, 덩샤오핑은 갓 올라온 장쩌민에게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넘겼습니다.

넘긴 뒤에도 덩샤오핑의 실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 때, 덩샤오핑은 군사위 주석직마저 없는 은퇴 당원이었습니다. 직함으로만 보면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여든여덟의 나이에 기차를 타고 남쪽 선전(深圳)과 주하이(珠海)를 돌며 개혁개방을 밀어붙이라고 호통쳤습니다. 그때 중앙의 신문들은 그의 발언을 한동안 실지 않았습니다. 장쩌민 지도부가 그의 개혁 노선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덩샤오핑의 말이 지방 신문을 타고 퍼지자, 장쩌민과 지도부는 사색이 되어 즉각 그 노선을 따랐습니다. 직함 없는 노인의 한마디가 군사위 주석을 쥔 현직 지도자를 굴복시킨 것입니다. 자리가 권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권력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중국 정치에서 진짜 권력이 직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이 진실은, 뒤에서 시진핑의 빈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 덩샤오핑의 그림자 아래에서 권력을 물려받은 장쩌민은,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스승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후진타오는 1992년에 이미 장쩌민의 후계자로 점찍혔습니다. 그가 최고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후진타오는 다음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1999년부터는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맡아 군과 부대끼며 실무를 익혔습니다. 후계자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 10년이 보여줍니다.

후진타오의 군 경험은 종이 위의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사위 부주석으로 군 인사와 작전 보고를 받았고, 장성들과 얼굴을 익혔으며, 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에서 배웠습니다. 장차 자기가 군통수권자가 되었을 때 명령이 먹히려면, 군이 자기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 3년이 만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이 후계 수업의 핵심입니다. 후계자는 군을 다스리는 법을 군 안에서 배웁니다. 책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2002년 제16차 당대회에서 장쩌민은 총서기 자리를 후진타오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군권만은 곧바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정치국에서도 중앙위원회에서도 모두 물러났으면서, 중앙군사위 주석직만은 2004년 9월까지 거의 2년을 더 쥐고 있었습니다. 정치국 위원도 아닌 사람이 군 최고 의사결정권을 쥐는 기형적인 모습이 2년간 이어졌습니다. 그 2년 동안 후진타오는 총서기이자 국가주석이었지만, 군을 움직이는 마지막 단추는 장쩌민이 쥐고 있었습니다.

장쩌민은 왜 군권을 늦게 넘겼을까요. 당시 홍콩의 유력지 문화보(文匯報)는 이 유임을 1987년 덩샤오핑의 선례와 나란히 놓고 정당화했습니다. 구세대에서 신세대로 넘어가는 대규모 교체기에는 군대의 안정이 어떤 것보다 앞선다는 논리였습니다. 전임자가 군권을 쥔 채 뒤를 봐주어야 군의 사기가 흔들리지 않고 순조롭게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리에 명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속내도 있었습니다. 군권을 2년 더 쥘다는 것은 장쩌민 개인의 영향력을 2년 더 보존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칹칭홍(曾慶紅)을 비롯한 태자당 세력의 지원을 받았고, 자기가 세운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의 주도권을 놓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퇴임 전에 상무위원회를 자기 사람들로 채워, 덩샤오핑이 그랬던 것처럼 막후의 힘을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쥔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9명의 상무위원이 각자 영역을 나눠 다스리는

집단지도체제, 이른바 '구룡치수(九龍治水)'였습니다. 장쩌민의 그림자는 길고 짙어서, 권력을 넘긴 지 10년이 지난 2012년 제18차 당대회 개막식에서도 그는 후진타오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자기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임을 과시했습니다.

여기서 한쪽 편을 들어야겠습니다. 장쩌민의 이 2년을 권력욕 하나로만 보는 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권력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욕이 만들어낸 구조에는 뜻밖의 안전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후계자는 10년 전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후계자는 군사위 부주석으로 군을 미리 겪었습니다. 전임자는 군권을 쥐고 후견인 노릇을 하며 교체기의 충격을 자기 몸으로 흡수했습니다. 긴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권력은 예측 가능한 시간표 위에서 움직였고, 한 사람에게 쏠리지 않게 여럿이 나눠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도의 연착륙이었습니다.

이제 이 거울을 들어 2026년을 비춰보겠습니다.

5. 비교의 거울 돌, 시진핑의 빈 의자

장쩌민은 군권 이양을 2년 늦췄습니다. 시진핑은 군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같은 군대를 두고 두 사람이 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장쩌민이 군권을 늦게 넘긴 것은 군의 안정을 위해서였습니다. 후계자에게 군을 천천히 익히게 하려고, 자기가 다리가 되어 충격을 받아낸 것입니다. 시진핑은 후계자에게 군을 익히게 하기는커녕, 익힐 군 자체를 도려냈습니다.

도려냄의 연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리상푸(李尚福)와 웨이펑허(魏鳳和) 두 전직 국방부장이 낙마했습니다. 부패 혐의였습니다. 둘 다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이 묘했습니다. 자기가 뽑은 국방부장 둘이 연달아 부패로 사라진다는 것은, 인사가 잘못되었거나 통제가 잘못되었거나 둘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든 1인 통제의 자랑거리는 아니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마오화(苗華) 정치공작부 주임과 허웨이둥(何衛東)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제명되었습니다. 허웨이둥은 현직 중앙군사위 부주석이었습니다. 군 서열로 보면 정상에서 두세 번째 안에 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의 사람이 임기 중에 쓸려나가는 일은 마오쩌둥 이후 좀처럼 없던 일이었습니다. 4중전회에서는 고위 장성 아홉 명이 한꺼번에 기율 위반으로 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24일 밤이 왔습니다. 이 책 2부에서 우리는 그 밤을 '철모자왕의 마지막'으로 다루었습니다. 장유샤 부주석과 류진리(劉振立) 참모장이 한밤중에 입건되었습니다. 장유샤는 군부 서열 2위였고, 시진핑의 오랜 맹우였습니다. 그가 끌려가던 밤, 7인으로 출범했던 중앙군사위 지휘부는 다섯 자리가 비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시진핑과 장성민 둘뿐이었습니다. 장성민은 8년 동안 감찰 업무만 해온 사람입니다. 작전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군인을 조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본 그 종이의 빈 칸들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다섯 칸의 붉은 줄. 한 칸의 시진핑. 한 칸의 장성민. 작전을 지휘할 사람은 그 종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장유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일의 무게가 보입니다. 그는 시진핑과 두 집안이 대를 이어 인연을 맺은 사이입니다. 두 사람의 아버지가 함께 전쟁을 치른 혁명 1세대 전우였습니다. 시진핑이 군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장유샤는 칼이자 방패였습니다. 군 인사를 주무르고, 시진핑에게 거슬리는 장성들을 쳐내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72세라는 나이에 그

부주석에 남긴 것은, 그만큼 시진핑이 그를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마저 한밤중에 끌려갔습니다. 누구보다 믿던 칼을 스스로 내려친 것입니다.

장유샤를 둘러싸고는 더 무거운 이야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서방 언론은 장유샤가 미국 군사 정보기관에 핵 기밀을 넘겼다는 혐의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보도는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중국 당국이 공식 확인한 내용이 아니고, 익명의 소식통에 기댄 보도입니다. 사실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떠도는 의혹입니다. 핵 기밀 유출이라는 혐의는 무겁고 자극적이어서, 그 자극성 때문에 오히려 더 의심하며 읽어야 합니다. 권력 투쟁의 와중에 상대를 무너뜨리려 부풀린 이야기일 수도 있고, 부패라는 평범한 죄목을 반역이라는 무거운 죄목으로 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런 의혹이 나돈다는 것 자체가 군 수뇌부 안의 불신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1인자와 실전파 지휘관이 핵 기밀 유출을 의심할 만큼 갈라섰다는 것, 그 갈라짐이 군의 작전 능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쩌민 시대에 중앙군사위는 체제가 연착륙하도록 받쳐주는 안전판이었습니다. 2026년의 중앙군사위는 서로를 믿지 못해 자리를 비워둔 텅 빈 방이 되었습니다. 같은 기구, 다른 운명입니다. 한쪽은 후계자가 군을 익히는 학교였고, 다른 쪽은 군인이 군인을 두려워하는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끝까지 들여보면 차이가 더 또렷해집니다. 장쩌민은 군권을 늦게 넘기면서도, 넘길 사람을 정해두고 늦췄습니다. 시한부 지연이었습니다. 2년 뒤에는 후진타오가 받을 것이 분명했고, 군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2년은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진핑의 지연은 다릅니다. 넘길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지연입니다. 끝이 없는 지연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넘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 군은 한 사람만 바라봅니다. 그 한 사람이 사라지면 바라볼 곳이 없어집니다. 장쩌민의 지연에는 도착지가 있었고, 시진핑의 지연에는 도착지가 없습니다. 같은 '늦게 넘김'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다리였고 하나는 낭떠러지입니다.

6. 백지 위의 열 개 이름

그렇다면 시진핑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백지는 누가 채울까요. 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있습니다. 다만 그 이름들이 답이 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62세 이하의 정치국 위원을 꼽아보면 열 명이 나옵니다. 천원칭(陳文淸, 62세, 국가안전부 당서기), 천민얼(陳敏爾, 62세, 충칭시 당서기), 덩쉐상(丁薛祥, 60세, 중앙서기처 제1서기), 인리(尹力, 60세), 류궈중(劉國中, 60세), 위안자쥘(袁家軍, 60세), 리간지에(李干杰, 58세), 리슈레이(李書磊, 58세), 장궈칭(張國淸, 58세), 천지닝(陳吉寧, 58세, 베이징시 당서기). 여기에 57세 이하 중앙위원까지 더하면 후보로 거론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자주 거론되는 이름이 덩쉐상입니다. 그는 상무위원 일곱 명 안에 든 사람이고, 시진핑이 상하이 시절부터 데리고 다닌 비서 출신입니다. 시진핑의 그림자처럼 움직여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그를 후계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비서로 자란 사람은 윗사람을 보좌하는 데는 능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지방을 다스리고 파벌을 거느려 본 경험이 없습니다. 군을 호령해 본 적도 없습니다. 시진핑이 사라진 자리에서 덩쉐상이 명령을 내린다면, 다른 정치국 위원들이 그 명령을 따를 이유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는 시진핑의 권위를 빌려 움직이던 사람이니, 자기 권위를 쌓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열 개나 있는데 왜 답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후춘화와 비교해보면 분명해집니다. 후춘화는 원로들의 합의와 세대 균형을 거쳐 '다음'이라는 도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장 덕분에 사람들은 그를 후계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 명 가운데 그런 도장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도 공식적인 후계자가 아닙니다. 다들 각자의 성(省)을, 각자의 부처를, 각자의 전문 분야를 맡은 유능한 실무자일 뿐입니다. 한 사람이 전국의 당과 정부와 군을 한꺼번에 거머쥘 만한 무게를 쌓은 사람은 없습니다.

도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권력의 성질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권력은 종이 위의 직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 위에 섭니다. 누군가가 후계자라고 모두가 믿으면, 그 믿음이 그를 후계자로 만듭니다. 군도 그를 따르고, 관료도 그에게 줄을 섭니다. 반대로 아무도 그를 '다음'이라고 믿지 않으면, 직함이 아무리 높아도 명령이 허공에서 흩어집니다. 격대지정이라는 불문율은 그 믿음을 미리 만들어두는 장치였습니다. 원로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면, 모두가 그를 다음으로 받아들이는 합의의 의식이었습니다. 시진핑은 그 의식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열 명의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그 가운데 누구를 모두가 믿어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후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후보가 너무 많은데 합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도장이 찍힌 한 사람이 없으니, "누가 이어받는가"라는 질문은 곧 "누가 힘으로 차지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덩쉐샹인가 천지닝인가를 묻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인사 문제가 아니라 파벌 사이의 자리 다툼이 됩니다. 합의가 없는 자리에서는 합의 대신 싸움이 답을 냅니다.

7. 백지가 채워지는 나쁜 방식

그 싸움이 나쁜 쪽으로 끝까지 흐를 때,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은 군대입니다. 정치국 위원들의 말다툼은 말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에 총을 든 쪽이 끼어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권력이 매끄럽게 넘어가려면, 군이 흔들림 없는 지휘 체계를 유지하며 새 지도자를 호위하고 나라의 치안을 받쳐야 합니다. 장쩌민 시대의 군이 그랬습니다. 후계자가 정해져 있었고, 군은 그 후계자를 안정적으로 떠받쳤습니다.

2026년의 군은 그럴 수 없는 상태입니다. 110명이 넘는 고위 장성이 숙청으로 사라졌습니다. 현대전을 치를 노련한 실전파 지휘관들이 1인 통제의 제물이 되어 자리를 비웠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합니다. 어제 옆자리에 앉았던 동료가 오늘 밤 끌려가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 사이에 남은 것은 신뢰가 아니라 공포와 원한입니다.

중국 역사에는 이런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20세기 초, 청나라가 무너진 뒤의 중국이 그랬습니다. 중앙의 권위가 사라지자, 각 지방의 군벌들이 저마다 군대를 끼고 갈라섰습니다. 한 나라가 수십 개의 작은 권력으로 쪼개져 서로 총을 겨눈 그 시절을 중국인들은 '군벌 할거(軍閥割據)'라고 부릅니다. 중국 공산당이 깊이 두려워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당의 모든 통제 장치는 군이 한 사람의 손, 즉 당의 손을 벗어나 제 갈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사라지고 다음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군은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군대 위에서 시진핑이라는 억압의 축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상상해봅시다. 모두를 누르고 있던 무게가 사라지는 순간, 텅 빈 지휘부의 공백 속에서 살아남은 파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푸젠방이니 산시방이니 하는 군 안의 인맥들이, 또는 각 전구의 사령관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 서로 다른 정치국 위원과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쪽 장군은 이 후보를, 다른 쪽 장군은 저 후보를 밀면서, 베이징 한복판에서 무장한 채로 갈라설 수 있습니다. 숙청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정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음 권력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자기가 끌려갈지 살아남을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걸린 자리에서 사람들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중국의 군이 반드시 쪼개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큼니다. 당의 통제 장치가 작동해 질서를 잡을 수도 있고, 살아남은 지휘부가 빠르게 한 사람 뒤로 결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아무 데도 없다는 것, 그 보장의 부재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장쩌민 시대에는 보장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후계자, 검증된 군 경력, 충격을 흡수할 전임 후견인. 2026년에는 그 셋이 모두 없습니다. 보장 없는 자리에 남은 것은 한 사람의 생물학적 수명과, 그가 만들어둔 침묵뿐입니다.

8. 매듭, 그리고 다음 칸

이 장은 3부의 마지막 장입니다. 1부에서 우리는 일곱 사람으로 권력의 문법을 읽었습니다. 2부에서 군부의 대숙청을 따라갔습니다. 3부에서 닫혀버린 문을 보았습니다. 그 세 흐름이 하나로 모이는 자리가 바로 이 빈칸입니다.

세 흐름이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마지막으로 이어보겠습니다. 2022년에 시진핑은 후계자가 들어올 자리를 미리 비웠습니다(1부). 그래서 2026년 군 수뇌부가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짐을 받아낼 다음 세대가 없었습니다(2부). 그래서 2025년 가을 마지막 문이 닫혔을 때, 빈칸은 영원한 빈칸이 되었습니다(3부). 앞의 선택이 뒤의 위험을 키웠습니다. 2022년에 다음을 비워두었기에, 2026년의 숙청이 그토록 위험해진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검증된 후계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장유샤가 끌려간 밤은 한 장군의 몰락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후계자가 없었기에, 그 밤은 나라의 다음 자체를 위협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이 인과의 사슬을 거꾸로 풀면 더 분명해집니다. 2026년 1월에 군 수뇌부 다섯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을 익힌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왜 없는가. 2022년에 다음 세대를 숙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숙아낸 빈자리를 다시 채울 기회가 있었는가. 2025년 가을, 그 마지막 기회의 문이 닫혔습니다. 한 칸이 비면 그 옆 칸도 비고, 옆 칸이 비면 그다음 칸도 비입니다. 빈칸이 빈칸을 부릅니다. 처음에 후계자 한 자리를 비워둔 선택이, 4년 뒤에는 군 지휘부 전체의 공백으로, 그리고 나라의 다음 전체의 공백으로 번졌습니다. 이것이 이 책이 첫 장부터 따라온 인과의 끝입니다. 절대 권력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 다음 자리를 비워버렸는가. 그 답이 이 빈칸 하나에 모여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본 그 백지를 다시 떠올립니다. "시진핑 유고 시 누가 권력을 잡는가." 그 아래의 빈칸. 그 빈칸은 실수로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채우는 것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채우지 않기로 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시진핑에게는 그 선택이 자기 권력을 지키는 안전한 길이였을지 모릅니다. 살아 있는 동안 도전자를 두지 않는 것, 그것이 그의 셈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전은 시진핑 한 사람의 안전입니다. 나라의 안전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안전해지려고 14억의 다음을 백지로 남겨둔 것입니다.

이 빈칸이 위험한 것은 그것이 중국 안의 문제로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1953년생입니다. 2027년이면 일흔넷이 됩니다. 사람은 늙고, 몸은 언젠가 멈춥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의 문제입니다. 14억 인구와 핵탄두 수백 기를 거느린 나라의 운명이, 한 사람의 혈관과 심장에 매여 있습니다. 그가 건강한 동안에는 빈칸이 보이지 않습니다. 빈칸은 그가 쓰러지는 순간에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옵니다.

만약 그 순간이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한껏 높아진 때에 겹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작전 지휘관들이 숙청으로 사라진 군, 누가 명령권자인지 불분명한 군이 핵을 가진 채 권력 공백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군이 어디로 총구를 돌릴지, 누구의 명령을 들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베이징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워싱턴의 그 연구원이 백지를 가리키며 무서워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중국의 혼란 자체가 아니라, 핵을 쥔 14억의 나라가 지휘관 없이 표류하는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2027년이라는 연도가 다가옵니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미국과의 패권 다툼이 백년대변국(百年大變局)이라 불리는 소용돌이로 치닫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중국의 권력 구조 한가운데에는 채워지지 않은 칸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군 지휘부는 숙청으로 마비되었고, 다음 세대는 거세되었습니다. 이 빈칸이 언제 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건강에, 한 사람의 수명에,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변수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께서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으실지 모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정말 한 사람의 건강 하나에 그렇게 위태롭게 매여 있을 수 있는가. 14억의 나라가 그렇게 허술할 리 있겠는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100년 가까이 살아남은 조직이고, 위기 때마다 살길을 찾아낸 노련한 집단입니다. 시진핑이 쓰러진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질서를 잡아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장은 중국이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 그 보장을 만들어줄 제도가 스스로 폐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30년 전이라면 보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운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이 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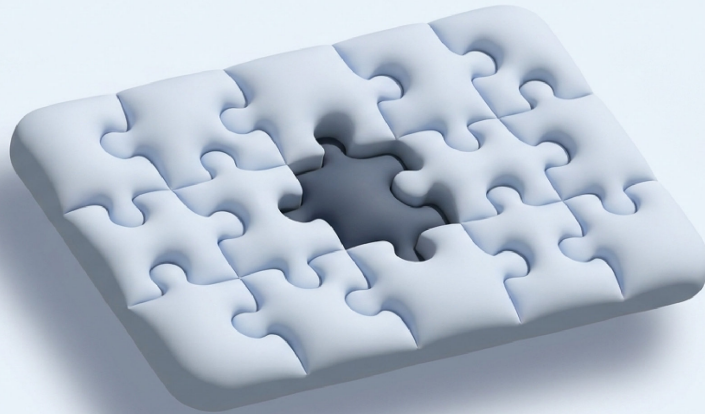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알면서도, 시진핑 체제는 왜 멈추지 않을까요. 왜 빈칸을 그대로 둔 채 2035년이라는 더 먼 곳을 바라볼까요. 그 답의 절반은

권력의 논리에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라는, 이 나라가 짊어진 또 하나의 무게에 있습니다. 후계의 빈칸을 비워둔 채 시진핑이 향하는 그 먼 목표, 15차 5개년 계획과 2035년의 청사진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깃발 아래에서 안보와 경제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로 이 책은 다음 장을 엽니다. 빈칸을 비워둔 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이제 그 손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Post-X이라는 빈칸

제9장 핵심 요약

위기 발생 시 권력 이양 시나리오의 부재가 만드는 위험



NotebookLM

제 4 부

15차 5개년 계획과 경제·안보의 딜레마

제10장 안보가 경제를 앞지르다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것은 빈자리의 이야기였습니다. 2022년에 후계자를 비워둔 자리, 2026년 군부 대숙청이 쓸어간 지휘부의 빈자리, 2027년 권력 이양의 주인공이 보이지 않는 빈자리. 사람이 사라진 자리를 들여다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비면 무엇이 그 자리를 채울까요. 시진핑(習近平) 체제에서 그 답은 사람이 아니라 노선이었습니다. 후계가 비어 있는 동안, 국가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모든 자원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지는 한 권의 문서에 박혀 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나흘간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四中全會)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줄여서 4중전회라고 부릅니다. 회의가 끝난 뒤 발표된 공보(公報)와 건의문에는 향후 5년 중국이 어디로 갈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의 밑그림이었습니다.

5개년 계획이라는 말이 낯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중국은 1953년부터 5년 단위로 나라 살림의 큰 그림을 그려 왔습니다. 어디에 돈을 쓰고 무엇을 키울지를 5년 치로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방식입니다. 자유시장에서는 어디에 투자할지를 기업과 개인이 알아서 정하지, 국가가 5년 치를 한꺼번에 정해 주지 않습니다. 중국이 5개년 계획을 여태 붙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나라 경제에서 국가의 손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그리고 15번째가 되는 이번 계획에서, 그 손이 향하는 방향이 분명하게 틀어졌습니다.

이 장의 큰 줄기는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에서 안보가 경제를 앞질렀습니다.

이 한 문장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어떻게 14억 명의 일상을 바꾸는지, 지금부터 벽돌을 하나씩 쌓아 보겠습니다.

말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안보가 경제를 앞질렀다는 것은, 나라가 돈 버는 일보다 살아남는 일을 위에 두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둘이 부딪칠 때 어느 쪽을 고르느냐가 핵심입니다. 어떤 회사가 돈은 잘 벌지만 안보에 위험하다면, 과거의 중국은 돈을 골랐고 지금의 중국은 안보를 고릅니다. 외국과 거래하면 이득이지만 그 거래가 의존을 낳는다면, 과거에는 이득을 골랐고 지금은 의존을 끊는 쪽을 고릅니다. 고르는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이 기준의 변화가 5개년 계획의 글자 하나하나에, 그리고 14억 명의 삶에 스며듭니다.

먼저 숫자 하나를 보겠습니다. 단어를 세는 일입니다.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全國代表大會)를 엽니다. 줄여서 당대회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총서기가 읽는 정치보고는 향후 5년의 국가 방향을 담은 으뜸 문서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보고서를 컴퓨터에 넣고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셉니다. 어떤 단어가 늘고 어떤 단어가 줄었는지를 보면, 지도부의 머릿속에서 무엇이 위로 올라오고 무엇이 아래로 내려갔는지가 드러납니다.

'안전(安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국어에서 이 말은 안전과 안보를 함께 뜻합니다. 2012년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이 단어는 36번 나왔습니다.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는 55번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이 단어는 91번 등장했습니다. 10년 사이에 두 배 반이 된 것입니다.

'과학기술'이라는 단어도 함께 보겠습니다. 18차 당대회에서 16번, 19차 당대회에서 17번이었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차 당대회에서 44번으로 뛰었습니다. 5년 사이에 두 배 반이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안보와 과학기술이라는 두 단어가 나란히 솟아오른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지도부에게 이 둘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몸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이 곧 안보였고, 안보를 지키는 길이 곧 과학기술이었습니다. 칩 하나, 인공지능 하나가 나라의 생사를 가르다고 본 것입니다.

반대로 줄어든 단어가 있습니다. '개혁'입니다. 시장의 자율, 대외 개방을 상징하던 이 말의 빈도는 내려갔습니다. 그 대신 19차 보고에는 아예 없던 단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경제안전', 곧 경제안보라는 말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라는 표현도 이때 처음 공식 등장했습니다.

단어를 세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한 사람이 평소에 쓰지 않던 말을 갑자기 자주 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걱정이 어디로 옮겨갔는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이라는 단어가 36번에서 91번으로 늘고 '개혁'이 줄었다는 것은, 지도부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서방과 손잡고 함께 성장하던 길에서, 외부의 위협을 막으며 홀로 살아남는 길로 무게 중심이 옮겨간 것입니다. 단어가 먼저 바뀌었고, 그 뒤를 정책이 따라왔습니다. 인과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안보를 향한 인식의 전환이 원인이었고, 경제 정책의 대수술이 결과였습니다.

이 변화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려면 그 이전의 중국을 떠올려야 합니다.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뒤로, 중국 지도부의 머릿속을 채운 단어는 '발전'이었습니다. '발전이야말로 확고한 도리다'라는 덩샤오핑의 말이 수십 년간 국정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것, 인민을 먹여 살리는 것, 그것이 공산당이 권력을 쥘 자격을 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존심을 누르고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들어가 세계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 길에서 8억 명이 가난을 벗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만한 규모로 가난이 줄어든 일은 없었습니다.

그 좌우명이 흔들린 것입니다. '발전'이 으뜸이던 자리에 '안전'이 올라섰습니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통치 철학의 지각변동입니다. 발전이 으뜸일 때는 세계와 어울리는 것이 이득이었습니다. 안전이 으뜸이 되면 세계가 위협이 됩니다. 미국의 기술도, 외국의 자본도, 열린 인터넷도, 모두 잠재적 위협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달라지면 손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지킬지, 무엇을 끊을지, 무엇에 돈을 쓸지모두 바뀝니다.

말이 바뀌자 숫자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3월,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봄에 정치협상회의와 함께 열려 양회(兩會)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서 리창(李強) 총리가 그해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4.5에서 5퍼센트였습니다.

이 숫자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5퍼센트 아래를 성장 목표로 내건 것입니다. 3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8퍼센트, 7퍼센트, 6퍼센트의 고속 성장을 자랑처럼 내걸었습니다. 두 자리 숫자에 가까운 성장은 농촌의 청년을 도시의 공장으로 불러들였고, 그들의 월급을 매년 올렸고, 부모 세대보다 잘사는 자식 세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성장의 약속이 5퍼센트 아래로 내려간 것입니다.

목표를 낮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광둥성의 한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작년만큼 일감이 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허난성에서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에게는, 도시의 일자리가 예전처럼 빠르게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도부는 이것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양껏 빨리 크는 대신, 좋은 것을 골라 키우겠다는 말입니다. 듣기에는 점잖지만, 현장에서는 성장의 둔화를 받아들이라는 통보였습니다.

성장률 1퍼센트포인트가 사람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헤아려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너무 커서 1퍼센트포인트가 한 해 1,800억 달러쯤 됩니다. 작은 나라 하나의 경제 규모입니다. 성장이 6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내려가면, 그만큼의 일자리와 월급이 덜 생긴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한때 공식 통계가 20퍼센트를 넘어서자 발표 자체를 멈춘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풀타임 자녀'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부모 집에 얹혀살며 집안일을 돕는 것을 직업처럼 부르는 자조였습니다. 5퍼센트 아래의 성장 목표는, 그런 청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국가가 미리 인정한 셈입니다.

지도부가 이 둔화를 받아들이기로 한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무리해서 숫자를 끌어올리던 시절의 후유증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는 성장률을 맞추려고 빚을 냈고, 그 빚으로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 단지를 올렸습니다. 헝다(恒大)를 비롯한 거대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빈 아파트가 도시 외곽에 유령처럼 늘어섰습니다. 숫자를 위한 성장이 만들어 낸 거품이 터진 것입니다. 지도부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성장의 빈자리를 메울 새 엔진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도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방 관리를 평가하는 잣대까지 손을 댔습니다. 과거 중국의 지방 간부는 자기 지역의 GDP 성장률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숫자가 좋으면 승진했고 나쁘면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빚을 내서 공장을 짓고 다리를 놓고 아파트를 올렸습니다. 2026년 1월, 성급과 부처급 간부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새로운 기조가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성장률 숫자 하나가 아니라, 각 지역의 형편에 맞는 산업을 얼마나 잘 키웠느냐로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노린 것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내권(內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인볼루션(involution)이라고 옮깁니다.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같은 곳에 몰려들어 서로 가격을 깎고 깎으며 제 살을 깎아 먹는 소모전을 가리킵니다. 지방정부들이 너도나도 같은 첨단 산업에 뛰어들어 똑같은 공장을 짓고, 그 결과 물건은 넘쳐나는데 값은 바닥을 치는 현상입니다.

전기차가 좋은 예입니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키우겠다고 하자, 수백 개의 회사가 한꺼번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방마다 자기 지역에 전기차 공장을 유치하려고 보조금을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는 한때 500곳에 가까운 전기차 회사가 난립했습니다. 만들 수 있는 양은 팔 수 있는 양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회사들은 살아남으려고 값을 내렸습니다.

한 회사가 내리면 다른 회사가 더 내렸습니다. 이 가격 전쟁에서 이익을 내는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넘쳐 난 전기차는 헐값에 유럽으로 쏟아져 나갔고, 유럽은 관세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벌어진 출혈 경쟁이 밖으로 번져 통상 마찰을 낳은 것입니다.

평가 기준을 바꾼 것은 이 출혈 경쟁을 멈추려는 뜻이었습니다. 지방마다 같은 산업에 몰려드는 대신, 자기 형편에 맞는 산업 하나를 골라 키우라는 것입니다. 한정된 국가 자원을 정부가 골라 쓰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배분하던 것을, 이제 국가가 직접 배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시장의 자유 경쟁이 낳은 혼란을, 국가의 통제로 다스리겠다는 발상입니다. 여기서도 방향은 같습니다. 시장에서 국가로, 자율에서 통제로 무게가 옮겨 갑니다.

그렇다면 줄어든 성장의 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겠다는 것일까요. 시진핑 지도부가 내건 답은 '신질 생산력(新質生產力)'이었습니다.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풀어 보겠습니다. 옛날의 생산력은 사람과 설비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을 많이 투입하고 공장을 크게 지으면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신질 생산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AI), 데이터, 새로운 기술이 결합해 만들어 내는 생산력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알고리즘과 자동화가 부를 만든다는 발상입니다. 중국은 나라 경제의 체질 자체를 기술이 끌고 가는 경제로 바꾸려 했습니다.

이 말이 그저 멋진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한 공장의 풍경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과거 중국의 공장은 수천 명의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 앞에 줄지어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수가 곧 생산력이었습니다. 신질 생산력이 그리는 공장은 다릅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고, 로봇 팔이 묵묵히 부품을 집어 들고, 인공지능이 불량품을 가려내며, 공장 전체가 데이터로 제어됩니다. 같은 양을 만드는 데 사람이 열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중국이 그리는 미래의 생산입니다. 줄어드는 인구로도 세계를 상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그림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사라진 아홉 명의 노동자는 어디로 갈까요. 기술이 부를 만드는 동안, 그 부가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갈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4중전회가 어떤 회의인지 잠깐 짚겠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중앙위원회는 5년 임기 동안 보통 일곱 번쯤 전체회의를 엽니다. 그 가운데 4중전회는 흔히 경제와 개혁의 큰 방향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보는 사람들은 4중전회의 결과를 눈여겨봅니다. 2025년 가을의 4중전회는 향후 5년 중국 경제의 지도를 그리는 회의였습니다. 그 지도에 무엇이 굵게 그려졌는지를 보면, 지도부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4중전회 공보는 15차 5개년 계획의 세 기둥을 못박았습니다. 고품질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自立自強), 내수 확대입니다. 이 가운데 지도부가 온 힘을 쏟은 것이 가운데 기둥, 곧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高水平科技自立自強)이었습니다. 스스로 서고 스스로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핵심 기술을 자기 힘으로 갖겠다는 뜻입니다.

왜 자립이 그토록 절박해졌을까요. 지도부는 지금의 상황을 '백년대변국(百年大變局)'이라고 부릅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큰 변동의 국면이라는 뜻입니다. 시진핑이 즐겨 쓰는 이 표현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기회의 감정입니다. 미국이 흔들리고 서방이 분열하는 지금이, 중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설 100년 만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기의 감정입니다. 그 기회를 노리는 중국을 미국이 가만두지 않으리라는 두려움입니다. 미국이 첨단 기술을 틀어막고 공급망에서 중국을 떼어내려는 압박을, 지도부는 국가의 생사가 걸린 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위기를 뚫으려면 남의 기술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자립은 욕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결론은 한 번의 뼈아픈 경험에서 굳어졌습니다. 화웨이(華爲)라는 회사의 일입니다. 한때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꼭대기를 넘보던 이 회사는, 미국이 칩 공급을 끊자 휴대폰 사업이 주저앉았습니다.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한 거대 기업이 부품 하나에 발이 묶여 휘청였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남의 손에 핵심 부품을 맡기면, 그 손이 언제든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교훈이었습니다. 화웨이가 겪은 일을 나라 전체가 겪지 않으려면, 칩부터 소재까지 자기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심이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여기에 돈이 따라붙습니다. 자립이라는 말은 구호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따라붙어야 현실이 됩니다. 지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기간에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그 이전 5년보다 절반 넘게 늘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2.68퍼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의 평균 수준입니다.

개발도상국이라던 나라가 연구개발 투자 비율에서 선진국 평균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이 숫자가 평범한 사람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보겠습니다. 연구개발에 돈을 쓴다는 것은, 실험실과 연구소에 일자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이공계 대학원은 해마다 수백만 명의 졸업생을 쏟아 냅니다. 그들이 갈 곳이 연구개발 투자로 만들어집니다. 베이징 중관촌(中關村)의 연구단지, 선전의 기술 기업들, 허페이의 과학 도시가 그렇게 채워졌습니다. 한편 그 돈은 다른 곳에서 끌어온 돈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공간은 하나입니다. 연구개발에 더 넣으면 다른 데서 빼야 합니다. 병원과 학교와 연금에 갈 수 있었던 돈이, 반도체 연구소와 인공지능 실험실로 흘러간 것입니다. 자립의 비용은 누군가가 치르고 있었습니다.

지도부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30년까지 이 비율을 GDP의 3.8퍼센트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못박았습니다. 2.68에서 3.8입니다. 숫자만 보면 1퍼센트 남짓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 규모에서 GDP의 1퍼센트는 한 해 수천억 달러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미래 에너지, 뇌와 컴퓨터를 잇는 인터페이스(BMI), 양자 기술, 6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스마트 제조, 반도체, 저공경제, 우주항공입니다. 한 나라가 미래의 모든 첨단 분야에 동시에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을 누가 어떻게 배분할까요. 여기서 중국은 과거와 달라섭니다. 2018년 19기 3중전회 무렵만 해도 민영 기업이 앞장서고 시장이 자율로 움직이는 개혁 노선이 강조되었습니다. 그 노선은 사실상 접혔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이 '신형 거국체제(新型舉國體制)'입니다. 온 나라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전략 자원과 권력을 중앙으로 끌어모아, 핵심 기술과 자본을 정부가 직접 나눠 주고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거국체제라는 말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은 1964년 가난한 농업국이던 시절에 원자폭탄을 터뜨렸습니다. 1970년에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두 개의 폭탄과 하나의 별(兩彈一星)'이라 부르는 이 성취는, 국가가 흩어진 자원을 한곳에 몰아붙여 이뤄 낸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나라가 과학자와 자금을 한 점에 집중해 초강대국의 무기를 만든 기억입니다. 시진핑 지도부가 꺼낸 '신형' 거국체제는 그 옛 방식을 첨단 기술 시대에 되살린 것입니다. 옛날에 폭탄과 위성을 만들던 방식으로, 이번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폭탄은 시장에서 팔 물건이

아니었지만 반도체와 인공지능은 본래 시장의 물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시장의 영역에 직접 손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안보가 경제를 앞질렀다는 말의 실체입니다. 어떤 기업에 돈을 줄지, 어떤 기술을 키울지를 시장의 이윤이 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생존이라는 안보의 논리가 정합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전선이 되었습니다. 인과의 방향을 다시 짚겠습니다. 미국의 봉쇄가 안보 위기를 낳았고, 안보 위기가 자립의 절박함을 낳았고, 자립의 절박함이 시장 대신 국가가 자원을 쥐는 거국체제를 불러냈습니다.

이 거대한 돈이 향하는 칼끝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른 첨단 산업과 성격이 다릅니다. 전기차나 태양광은 시장에서 팔아 돈을 버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양자, 로봇은 군사와 안보의 색을 진하게 띠니다. 인공지능은 전장의 판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적의 암호를 풀고 아군의 정보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 위험한 작업과 전투를 떠맡을 수 있습니다. 이 세 분야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가 다음 시대 전장의 승패를 가른다고 지도부는 봅니다. 그래서 천문학적 연구개발 자금이 이쪽으로 쏠립니다.

중국이 내건 구호 하나가 이 쏠림을 잘 보여 줍니다. '인공지능 플러스(AI+)'입니다.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농사에 인공지능을 더하고, 의료에 인공지능을 더하고, 행정에 인공지능을 더합니다. 인공지능을 한 산업으로 두지 않고, 모든 산업을 받치는 바닥으로 깔겠다는 발상입니다.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전기는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모든 산업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을 그 전기처럼 쓰려 합니다. 한 나라의 모든 공장과 사무실과 들판에 인공지능을 깔면, 나라 전체의 생산력이 한 단계 올라간다는 계산입니다. 이 계산이 맞는다면 중국은 인구가 줄어도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틀린다면 막대한 돈을 헛되이 묻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박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제재가 모질게 내리꽂힌 곳이 인공지능과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엔비디아(Nvidia) 같은 회사가 만드는 고성능 칩이 잔뜩 필요합니다. 미국은 이 칩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칩을 만드는 장비까지 통제했습니다.

칩의 회로를 빛으로 새기는 노광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 한 회사가 사실상 독점하는데, 미국은 이 장비의 중국 수출까지 동맹을 통해 막았습니다. 인공지능의 재료도, 그 재료를 만드는 도구도 함께 끊은 것입니다. 중국의 목을 죄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 봉쇄 속에서 중국이 내민 답이 있습니다. 딥시크(DeepSeek, 深度求索)라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2025년 초, 이 모델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항저우의 작은 회사가 만든 이 모델은, 미국의 최신 칩을 잔뜩 쓰지 않고도 미국 최고 수준에 가까운 인공지능을 내놓았습니다. 돈도 훨씬 덜 들였다고 했습니다. 발표가 나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루 만에 수천억 달러어치 빠졌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비싼 칩을 끝없이 사야 한다는 믿음에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딥시크는 그 설계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봉쇄로 가두려 한 기술을, 중국이 거꾸로 세계에 공짜로 풀어 버린 것입니다.

미국 안에서도 이 사건은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은 칩 수출을 막으면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을 몇 년 늦출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봉쇄의 벽 너머에서 영리한 우회로를 찾아냈습니다. 비싼 칩을 적게 쓰고도 비슷한 결과를 내는 방법을 짜낸 것입니다. 봉쇄가 오히려 중국을 효율의 길로 떠밀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 사람은 아껴 쓰는 법을 배웁니다. 풍족한 미국 기업들이 칩을 잔뜩 쌓아 놓고 인공지능을 키울 때, 중국 기업들은 모자란 칩으로 같은 일을 해내는 절약의 기술을 익혔습니다. 제재가 의도와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딥시크가 보여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국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딥시크는 한 회사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의 성공으로 떠받들렸습니다. 화웨이,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같은 중국 대표 기업들이 앞다투어 이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제재가 오히려 우회의 창의를 불러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벽에 갇히면 사람은 벽을 넘는 법을 찾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봉쇄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 보지 않고, 자기를 더 독하게 만들 것이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이 자립자강이라는 구호에 실제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인물 하나가 떠오릅니다. 정확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20차 당대회를 지나며 중국의 차세대 지도부에 들어온 이들의 이력입니다. 제20기 중앙후보위원 171명 가운데, 단 한 명을 빼고 전원이 이공계 출신 기술 관료였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 항공우주를 연구한 사람, 반도체를 다룬 사람들이 권력의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깊은지는 앞 세대와 견주면 드러납니다.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 시절에도 공학을 배운 지도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법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관료들이 늘었습니다. 시장과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3기에 들어, 권력의 무게추가 다시 이공계로 넘어갔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을 이끌던 사람이 지방의 당서기가 되고, 무기를 설계하던 연구소 출신이 중앙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른바 '항천파(航天派)'라 불리는 군수·우주 출신 인맥이 약진했습니다. 정치 구호로는 '과교흥국(科教興國)'을 내걸었습니다. 과학기술과 교육으로 나라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권력의 자리에 앉히느냐가, 그 나라가 무엇을 향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시장을 아는 사람 대신 기술을 아는 사람을, 그것도 군수와 우주 같은 안보 기술을 다루던 사람을 윗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이 나라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보는지를 사람의 얼굴로 보여 줍니다. 기술 관료로 채워진 지도부는, 기술 자립이 곧 국가 생존이라는 믿음을 사람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3부에서 우리가 보았던 빈자리, 후계가 비어 버린 권력의 꼭대기 아래에서, 이 기술 관료들이 새로운 엘리트로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터에도 같은 논리가 흐릅니다.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이 왜 안보의 문제인지는 분명합니다. 오늘날 은행 거래도, 국가 기밀도, 군사 통신도 모두 암호로 보호됩니다. 그 암호는 보통의 컴퓨터로는 풀려면 수백 년이 걸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그 수백 년을 몇 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쓸 만한 양자 컴퓨터를 가지느냐에 따라, 한쪽은 상대의 모든 비밀을 열어 보고 다른 한쪽은 발가벗겨집니다. 그래서 미국도 중국도 이 경주에 국가의 돈을 쏟습니다. 중국에서는 허페이(合肥)를 중심으로 양자 연구단지가 들어섰고, 판젠웨이(潘建偉) 같은 과학자가 위성을 이용한 양자 통신 실험을 이끌었습니다. 이 연구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지도부는 정보전의 승패로 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또 다른 결입니다. 사람처럼 두 다리로 걷고 두 손으로 일하는 로봇입니다. 중국은 이 분야에 유난히 공을 들입니다. 유니트리(Unitree, 宇樹科技) 같은 회사가 만든 로봇이 무대에서 춤을 추는 영상이 명절 방송을 탔습니다. 왜 로봇에 이토록 매달릴까요. 중국은 늙어 가고 있습니다. 한 자녀 정책의 후유증으로 일할 사람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공장의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울 수 없다면 로봇으로 채워야 합니다. 동시에 로봇은 안보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위험한 작업, 재난 현장, 나아가 전장까지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인구와 커지는 군사 수요라는 두 가지 압박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한 점으로 모입니다.

이 세 분야는 모두 미래 전장과 정보 안보의 패권을 가를 기반으로 분류되어, 막대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기술을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기술의 규칙을 자기 손으로 정하려 합니다. 15개가 넘는 대학이 참여한 60여 개의 국제 표준화 혁신팀이 꾸려졌습니다. 국유기업의 성과 지표에는 '국제 표준을 몇 개나 만들었는가'가 핵심 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세계의 규칙을 얼마나 중국 쪽으로 끌어왔느냐가 성적표가 된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안보가 경제를 앞질렀다는 말은 증명됩니다.

이 변화는 한 사람의 운명에서도 드러납니다. 알리바바를 세운 마윈(馬雲)의 일입니다. 한때 그는 중국에서 부유하고 유명한 기업가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2020년 금융 당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뒤로, 그가 키운 핀테크 회사의 상장도 갑자기 멈췄습니다. 마윈 본인도 한동안 대중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중국에서 손꼽히게 성공한 민간 기업가조차, 당의 노선에서 벗어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 뒤로 중국의 기업가들은 몸을 사렸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새 길을 여는 대신, 당이 가리킨 방향으로 암전히 걷는 편을 골랐습니다. 혁신은 본래 위험을 무릅쓰는 데서 나옵니다. 그 위험을 두려워하게 만든 체제가, 동시에 혁신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방향을 정하고 돈을 쥐는 거국체제의 그림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 어긋남이 다음 장에서 다룰 모순의 씨앗입니다.

표준을 정한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여기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가전 기업 하이얼입니다. 하이얼은 전 세계 백색가전 특허의 70퍼센트를 쥐고 있습니다. 세탁기와 냉장고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규칙의 상당 부분을 한 중국 기업이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규칙을 쥐는 자는 게임의 판을 짭니다. 다른 회사들은 그 규칙에 맞춰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 하이얼의 모델을 인공지능과 양자, 로봇에 그대로 옮겨 심으려 합니다. 기술의 표준을 중국이 쥐면, 세계가 중국의 규칙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야심이 하나의 이름으로 묶였습니다. '중국 표준 2035(China Standards 2035)'입니다.

이 전략은 4중전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과 한 묶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과거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의 다음 판입니다. 중국제조 2025가 '우리가 잘 만들겠다'는

선언이었다면, 중국 표준 2035는 '우리가 규칙을 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단계가 다릅니다. 물건을 만드는 나라에서, 만드는 방법의 규칙을 정하는 나라로 올라서겠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산업의 사다리로 그려 보겠습니다. 사다리에는 칸이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값싼 노동으로 물건을 조립하는 일이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손으로 조립해 주던 중국 공장이 이 칸에 있었습니다. 물건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물건이 버는 돈의 대부분은 설계와 상표를 가진 미국 회사로 갔습니다. 조립하는 자는 땀을 흘리고, 설계하고 규칙을 정한 자는 이익을 가져갑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이 사다리의 아래 칸에 머물렀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에 이 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위에는 부품과 기술을 직접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중국제조 2025가 노린 자리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규칙을 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규격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표준으로 삼을지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휴대폰이 어떤 방식으로 통신해야 하는지, 전기 플러그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그런 일입니다. 이 자리를 쥔 나라는 다른 나라가 만든 물건에 자기 규칙을 입힐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중국 표준 2035는 바로 그 꼭대기 자리를 노립니다.

중국은 이 사다리를 한 칸씩 올라왔습니다. 조립만 하던 나라에서, 부품을 만드는 나라로, 그리고 이제 규칙을 정하는 나라로 올라서려 합니다. 한 세대 만에 사다리의 맨 아래에서 맨 위를 넘보는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이 빠른 상승이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불안이 봉쇄를 불렀고, 그 봉쇄가 다시 중국의 자립을 재촉했습니다. 모든 고리가 서로를 당기고 있습니다.

규칙을 쥐는 일이 왜 그토록 큰 이득인지,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규칙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의 노동에서 돈을 거둡니다. 어떤 기술의 특허와 표준을 쥔 회사는, 그 기술을 쓰는 모든 회사에게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물건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돈이 들어옵니다. 중국이 노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계의 공장 노릇으로 땀 흘려 번 돈보다, 규칙의 주인 노릇으로 가만히 거두는 돈이 더 크고 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쥐면, 위급할 때 다른 나라의 기술을 멈춰 세울 힘도 함께 쥐게 됩니다. 경제의 이득과 안보의 무기가 한 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야심을 그저 말로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들이 손을 맞잡고 구체적인 일정표를 짚습니다.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국가에너지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함께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2024년 9월에 발표한 신산업 표준화 시범사업 방안이 그 청사진입니다. 네 개나 되는 부처가 한 문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 일을 나라 전체의 과제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8대 신흥산업'과 '9대 미래산업'을 골랐습니다.

8대 신흥산업은 이미 시장이 열린 분야입니다. 차세대 정보기술,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고부가가치 장비, 전기차와 자율주행, 녹색 환경, 민간 항공기, 선박과 해양 장비입니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를 앞서 있습니다. 세계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오고, 전기차 판매에서도 중국이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시장이 열린 분야에서 규칙까지 쥐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다음 걸음입니다.

9대 미래산업은 아직 시장이 무르익지 않은, 더 먼 미래의 분야입니다. 메타버스, 뇌-기계 인터페이스, 양자 컴퓨터, 휴머노이드 로봇, 생성형 인공지능, 바이오 제조, 미래 디스플레이, 미래 네트워크, 새로운 에너지 저장장치입니다. 이 목록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과 사람의 몸에 닿는 기술이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로봇은 사람의 손발을 대신하고, 뇌-기계 인터페이스는 사람의 생각을 기계에 잇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판단을 대신합니다. 중국이 그리는 미래는 사람과 기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세계이며, 그 세계의 규칙을 자기가 먼저 쓰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2025년, 2030년, 2035년의 세 단계 일정표를 짜고 이 분야들의 세계 표준을 직접 만들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10년 뒤의 세계를 미리 설계해 두려는 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식 표준을 누가 받아들일까요. 중국이 겨누는 곳은 서방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남미, 중동입니다. 흔히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라 부르는 개발도상 지역입니다. 이들에게는 인프라가 절실하고 자본이 부족합니다. 중국은 자본과 장비를 들고 이들에게 다가갑니다. 통신망을 깔아 주고, 발전소를 지어 주고, 그 대가로 중국식 기술 표준을 함께 심습니다. 한번 중국 규격으로 통신망을 깔면, 그다음 장비도 중국 규격으로 사야 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의 규칙에서 떨어져 나온 거대한 기술권이 만들어집니다. 이름하여 '홍색 공급망(Red Supply Chain)'입니다.

이 전략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이름으로 10년 넘게 길을 닦고 항구를 지어 왔습니다. 그 길 위에 이번에는 기술의 규격을 엮는 것입니다.

도로와 항구가 물건을 실어 나르는 길이라면, 표준은 기술을 실어 나르는 길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가 중국이 깔아 준 4세대 통신망을 쓰고 있다면, 5세대로 넘어갈 때도 중국 장비를 살 가능성이 큼니다. 휴대폰의 결제 방식, 도시의 감시카메라 규격, 전력망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중국식으로 맞춰집니다. 한번 들어선 규격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한 나라씩 자기 기술의 궤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영향권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직접 부딪치는 전선으로 가 보겠습니다. 2025년 가을, 두 나라의 충돌은 말이 아니라 자원으로 터졌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탈냉전 이후 오래 유지하던 대중국 포용 정책을 실패로 선언했습니다. 한동안 미국은 중국을 끌어안으면 중국이 점점 자유로워지리라 기대했습니다. 시장을 열면 사회가 열리고, 부유해지면 부드러워지리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깨졌다고 미국은 결론지었습니다. 중국은 부유해졌지만 더 단단하게 통제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끌어안는 대신, 중국을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유일한 전략 경쟁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한 정권의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군사적 대치와 공급망 디커플링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두 정당이 거의 모든 사안에서 다투는 미국에서, 중국을 경쟁국으로 본다는 점에서만은 두 당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잇따라 통과시켜, 중국에 몰려 있던 첨단 생산시설을 미국 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칩4, 파이브아이즈,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같은 그물을 짜서 반도체와 디지털 분야에서 중국을 둘러쌌습니다. 동맹을 엮어 중국 한 나라를 포위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포위가 중국 경제에 무엇을 의미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에 물건을 팔아 성장했습니다. 항구 도시 선전과 광저우의 공장들은 미국 소비자가 쓸 물건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시장에 관세의 벽이 세워지고, 첨단 부품의 공급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팔 곳이 좁아지고, 다른 쪽에서는 만들 재료가 막힌 것입니다. 수출로 먹고살던 나라에게 이것은 양쪽에서 동시에 조여 오는 압박이었습니다. 지도부가 안보를 으뜸에 둔 데는, 이렇게 실제로 목이 죄어 오는 감각이 깔려 있었었습니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서자 압박은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100퍼센트에 이르는 고율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예고했습니다. 과거의 중국이라면 한발 물러섰을지 모릅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 커서, 그 시장을 잃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5년의 중국은 달랐습니다.

2025년 10월 9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 자원에 대한 수출 통제였습니다. 희토류는 이름과 달리 땅속에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캐내서 정제하는 일이 까다롭고 환경을 더럽혀, 세계가 그 일을 중국에 맡겨 왔습니다. 값싸고 더러운 일을 중국이 떠맡는 동안, 미국과 유럽은 깨끗한 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이 세계 희토류 공급의 목줄을 쥐게 되었습니다. 세계 희토류 정제의 열에 아홉이 중국에서 이뤄진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한때 서방은 더러운 일을 중국에 떠넘긴 것을 영리한 거래로 여겼습니다. 환경을 망치는 광산을 자기 땅에서 치우고, 값싼 원료만 받아 오는 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자, 그 더러운 일을 도맡은 나라가 세계의 급소를 쥐게 되었습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던 일을 묵묵히 떠안은 것이, 어느 무기보다 강한 협상 카드로 돌아온 것입니다. 중국은 이 카드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통제의 칼끝을 겨누는 곳이 어디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중희토, 그중에서도 디스프로슘(Dy)이라는 원소였습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쓰임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강한 자석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원료입니다. 그 자석은 전기차 모터를 돌리고, 풍력발전기를 돌리고, 전투기의 부품을 움직입니다. 디스프로슘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디트로이트의 전기차 공장에서 모터를 못 만듭니다. 미국 방위산업체에서 미사일 부품 생산이 늦어집니다. 중국은 자기가 거의 독점한 자원 하나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군수 산업의 급소를 동시에 쥔 것입니다.

희토류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이 진동할 때, 그 떨림을 만드는 작은 모터에 희토류 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풍력발전기의 거대한 날개가 도는 것도, 전기차가 조용히 달리는 것도 같은 자석 덕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부품이 희토류입니다. 그런데 군사 장비에서는 그 양이 차원이 다릅니다. F-35 전투기 한 대에는 400킬로그램이 넘는 희토류가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수함 한 척에는 그 열 배가 들어갑니다. 미국이 아무리 첨단 무기를 설계해도,

그 무기를 움직이는 자석의 원료를 중국이 쥐고 있다면, 설계도는 종이에 머물니다. 미국도 이 약점을 안 지 오래입니다. 호주와 캐나다에서 희토류를 캐고 자체 정제 시설을 짓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광산을 열고 정제소를 돌리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중국은 그 시간차를 알고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무기를 무기로 막는 시대가 아니라, 자원을 무기로 쓰는 시대를 중국이 연 셈입니다.

10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상무부는 표면적인 명분을 댔습니다. 이것은 금지가 아니라 허가제 기반의 합리적 관리이며, 군사 전용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했습니다. 말은 점잖았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금지가 아니라 허가제라는 말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완전히 막아 버리면 상대도 다른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허가제로 두면,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를 중국이 그때그때 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대신 손에 쥐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풀었다 조였다 하며 상대의 행동을 길들일 수 있는 지렛대입니다. 공급망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선언이자, 협상 테이블에서 쓸 무기를 미리 손에 쥔 것입니다. 안보의 논리가 경제의 논리를 누른 또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한 수가 보여 준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그저 버티는 쪽이었습니다. 맞으면서 견디고, 견디면서 따라잡으려 했습니다. 2025년의 중국은 달랐습니다. 맞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받아쳤습니다. 그것도 상대가 제일 아파할 자리를 골라 쳤습니다. 미국이 첨단 칩으로 중국의 목을 죄면, 중국은 희토류로 미국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두 거인이 서로의 급소를 쥔 채 마주 선 형국입니다. 이런 대치에서는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경쟁은 짧게 끝날 싸움이 아니라, 오래 이어질 힘겨루기가 되었습니다. 안보가 경제를 앞지른 중국의 노선은, 바로 이 오랜 힘겨루기를 견디기 위한 채비였습니다.

미국의 봉쇄와 중국의 반격이 맞물리며, 중국은 한 가지 길을 향해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공급망 내재화입니다. 부품도 소재도 기술도 자기 안에서 다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의 손에 급소를 맡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공급망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린다면, 한 그릇의 음식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밥상에 오르기까지 씨앗을 뿌리고, 거두고, 뺏고, 나르고, 요리하는 긴 사슬이 있습니다. 그 사슬의 어느 한 칸을 남에게 맡기면, 그 사람이 칸을 꿰는 순간 밥상 전체가 멈춥니다. 미국은 반도체라는 칸을 쥐고 그것을 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중국은 그 충격을 겪고 나서, 모든 칸을 자기 안에 들여놓기로 했습니다. 씨앗부터 밥상까지를 다 자기 손으로 채우겠다는 것이 공급망 내재화입니다. 이 결심이 15차 5개년

계획의 세 기둥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고품질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 내수 확대는 따로 떨어진 구호가 아니라, 봉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개념이 나옵니다. '쌍순환(雙循環)'입니다. 두 개의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중국 경제는 바깥을 향한 한 방향이었습니다. 값싸게 만들어 미국과 유럽에 파는 수출 중심이었습니다. 그 길이 막히기 시작하자, 중국은 안쪽으로 또 하나의 순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거대한 국내 시장이 스스로 돌아가는 내부 순환을 경제의 중심에 두고, 바깥과의 거래는 그것을 보완하는 자리로 옮긴 것입니다. 14억 명의 시장이 안에서 돌아가면, 바깥이 문을 닫아도 버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쌍순환이라는 이름은 점잖지만, 그 속에는 절박함이 들어 있습니다. 바깥 시장이 닫히고 있으니 안쪽 시장을 키워 버티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한 다리로 서 있던 경제에 다른 다리를 급히 만들어 붙이는 일입니다. 이 발상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14억 명이면 어떤 나라보다 큰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만들고 그 안에서 팔면, 바깥세상이 어떻든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안에서 돌아가는 순환이 힘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 물건을 사야 합니다. 만드는 쪽만 키우고 사는 쪽이 따라오지 못하면, 순환은 한쪽 바퀴만 큰 수레처럼 비틀거립니다. 중국이 국가의 돈을 반도체와 인공지능 공장에 쏟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주머니로 가는 돈은 충분히 늘지 않았습니다. 만드는 능력은 커지는데 사는 능력이 못 따라가는 불균형이 자라난 것입니다. 이 불균형이 어디까지 위험해지는지가 다음 장의 핵심 물음입니다.

여기까지가 안보가 경제를 앞지른 그림의 전체입니다. 단어가 바뀌고, 성장 목표가 내려가고, 신질 생산력이 그 자리를 채우고, 인공지능과 양자와 로봇에 돈이 쏠리고, 표준을 쥐려는 야심이 펼쳐지고, 희토류로 미국과 맞붙고, 공급망을 안으로 거둬들였습니다. 모든 화살표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윤이 아니라 생존, 시장이 아니라 국가, 개방이 아니라 자립입니다.

이 전환을 두고 한쪽 편을 들어야 한다면,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선택을 어리석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기술의 목을 죄어 왔고, 자원과 부품의 공급을 무기로 썼습니다. 그런 압박 앞에서 자립을 꾀하는 것은 약한 자의 합리적인 방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숨통을 쥐려 하면, 내 숨을 스스로 쉬는 법을 익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덩시크가 보여 주었듯, 봉쇄는 때로 봉쇄당한 쪽을 더 독하게 만듭니다. 중국의

자립 노선이 몇몇 분야에서 실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선택에는 값비싼 그림자가 따릅니다. 국가가 자원을 손에 쥐고 방향을 정하면, 속도는 빨라지지만 다양성은 줄어듭니다. 모두가 국가가 가리킨 방향으로만 달리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제각기 다른 길을 시도할 때 나오는 뜻밖의 발견이, 한 방향으로 줄 세운 체제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더 깊은 문제는 돈의 쓸림입니다. 첨단 기술과 안보에 자원을 몰아넣는 동안, 평범한 사람의 살림을 받쳐 줄 자리는 비어 갑니다. 이 비어 가는 자리가 어디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곧 보게 됩니다.

2026년의 중국은 한 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14억 인민의 살림을 불리는 것이 국가의 으뜸 목표라는 오래된 합리성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1인 체제의 주도권을 지키는 것을 으뜸으로 두는 새로운 셈법입니다. 광둥의 공장 노동자가 느낀 일감의 둔화, 허난의 청년이 마주한 좁아진 일자리, 그것은 이 셈법의 그림자입니다. 국가가 자원을 반도체와 인공지능으로 몰아넣는 동안, 가계의 지갑으로 가는 돈은 뒤로 밀렸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답할 것입니다. 자립의 길이 중국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아니면 세계에서 고립시켜 약하게 만들지는 아직 갈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선택에 거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안보를 위해 공간을 기울이면, 그 공간에서 빠져나간 돈만큼 누군가의 삶이 팍팍해집니다. 첨단 실험실에 일자리가 생기는 동안, 평범한 가계의 손님은 줄어듭니다. 한쪽을 키우려고 다른 쪽을 비운 것입니다. 그 비워진 쪽이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가, 이 도박의 진짜 승부처입니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2025년 중국의 GDP 대비 가계 소비 비중은 약 40퍼센트입니다. 세계 평균인 56퍼센트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 16퍼센트포인트의 격차를 사람의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이 만들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것을 충분히 사지 못합니다. 공장은 돌아가는데 안방의 지갑은 닫혀 있습니다. 만든 물건이 안에서 팔리지 못하면 밖으로 나가야 하고, 밖은 관세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갈 곳 잃은 물건이 창고에 쌓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갑을 닫았을까요. 집값이 무너져 재산이 줄었고, 일자리가 불안해 미래가 걱정되고, 나라가 노후를 든든히 받쳐 주지 않으니 스스로 돈을 쌓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는 가계의 지갑을 채우는 대신, 반도체와 인공지능 공장에 돈을 부었습니다.

만드는 쪽은 키우고 사는 쪽은 비워 둔 것입니다. 나라가 첨단 기술에 모든 것을 거는 동안, 정작 사람들의 소비가 받쳐 주지 못하는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위험한 모순이 다음 장의 뇌관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방향뿐입니다. 안보가 경제를 앞질렀습니다. 그것은 흐릿한 추세가 아니라, 단어의 빈도와 성장률 숫자와 연구개발 비율과 희토류 통제 날짜에 또렷이 박힌 사실입니다. 18차 당대회의 36번이 20차 당대회의 91번이 되었고, 35년 만에 성장 목표가 5퍼센트 아래로 내려갔고, 연구개발 비율은 2.68퍼센트에서 3.8퍼센트를 향해 올라가고, 2025년 10월 9일에 희토류의 빗장이 걸렸습니다. 이 숫자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다시 처음의 빈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부에서 우리는 후계가 비어 버린 권력의 꼭대기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비면 무엇이 그 자리를 채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답이 보입니다. 사람 대신 노선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모이고 그 뒤를 이을 사람이 보이지 않는 체제는, 자기 정당성을 어디선가 찾아야 합니다. 시진핑 체제는 그것을 안보에서 찾았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크다고 외칠수록, 강한 한 손이 모든 것을 쥐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후계가 비어 있다는 사실과 안보가 경제를 앞질렀다는 사실은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같은 뿌리에서 자란 두 가지입니다.

중국은 14억 명의 번영이라는 익숙한 길을 잠시 접고, 자립한 기술 블록을 쌓아 올리는 위험한 도박에 국가의 모든 힘을 걸었습니다. 그 도박의 판돈이 누구의 삶이었는지를, 우리는 방금 보았습니다. 광둥의 노동자, 허난의 청년, 지갑을 담은 14억 명의 살림이 그 판돈입니다. 이 도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만드는 능력과 사는 능력의 어긋남이 어디까지 위태로워지는지는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안보가 경제를 앞지른 자리에 어떤 균열이 자라고 있는지를, 그 뇌관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제10장. 안보가 경제를 앞지른다

2026년 중국 권력지형도의 가장 큰 변화,
'생존'이 '발전'을 대체하다.



[단행본 2026 중국 권력지형도 그림설명]

© NotebookLM

제11장 구조적 위기라는 뇌관

2024년 가을, 중국 남부의 한 민영 전자부품 회사 사장은 점심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1천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내륙 어느 성(省)의 공안(公安)이라고 했습니다. 당신 회사가 몇 년 전에 한 거래에 문제가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사장은 그 지역에 가 본 적도, 거기서 사업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며칠 뒤 낯선 도시의 공안들이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사 계좌는 동결됐고, 사장은 수백 킬로미터 밖 유치장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풀려나는 조건은 거액의 벌금이었습니다.

중국 기업인들은 이런 일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양포로(遠洋捕撈), 먼바다 고기잡이입니다. 자기 성에서는 잡을 물고기가 없어진 가난한 지방의 공안이, 성 경계를 넘어 멀리 떨어진 부유한 지역의 기업가를 그물로 끌어올려 돈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공식 명칭은 따로 있습니다. 위규이지추리성집법(違規異地趨利性執法), 규정을 어기고 다른 지역에서 이익을 좇아 법을 집행한다는 말입니다. 길고 딱딱한 행정 용어 안에 숨은 실체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관복을 입은 권력이 돈을 빼앗는 것입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무렵 중국의 민영 기업가는 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영웅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고, 도시를 키운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비자 그 영웅이 사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의 후원자가 오늘의 약탈자로 돌아선 이 역전이, 지금 중국 경제 밑바닥에서 벌어지는 일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이 장의 큰 그림을 한 문장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모두 모인 체제가 떠안은 모순이, 중국 경제 밑바닥에 뇌관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 뇌관은 세 겹입니다. 한 겹은 지방정부의 빛과 바닥난 공간입니다. 그 위에 또 한 겹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부동산 침체, 일자리를 잃은 청년, 그리고 드러누워 버린 세대의 불안입니다. 맨 아래 깊은 곳에 마지막 한 겹이 깔려 있습니다. 위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당과, 아래에서 자라야 할 민간의 창의력 사이에 벌어진, 좁혀지지 않는 틈입니다. 앞 장에서 우리는 안보가 경제를 앞질러 버린 순간을 보았습니다. 통치자가 성장보다 안전을, 자율보다 통제를 앞에 둔 그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회의실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정책이 되고, 정책은 사람의 삶으로 내려옵니다. 이 장은 그 선택이 경제의 바닥에 어떤 폭약을 깔아 놓았는지를 따라갑니다. 안보를 앞세운 손이 어떻게 경제의 뇌관을 묻었는지, 그 인과를 한 걸음씩 짚겠습니다. 원양포로라는 기이한 풍경은 그 폭약의 신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첫 장면입니다.

토지가 팔리지 않자 사람을 잡기 시작했다

지방정부가 왜 멀리까지 사람을 잡으러 다니게 됐는지, 그 인과의 방향부터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돈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갑자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대 온 큰 기둥 하나가 통째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수십 년간 토지재정(土地財政)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땅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그 땅을 쓸 권리를 개발업체에 팔아 공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도시가 커지고 집값이 오르는 동안에는 이 방식이 잘 돌아갔습니다. 땅을 내놓으면 개발업체가 비싼 값에 사 갔고, 그 돈으로 지방정부는 도로를 깔고 공무원 월급을 줬습니다. 문제는 이 모델이 집값이 영원히 오른다는 가정 위에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2021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기 시작하자 기둥이 흔들렸습니다. 땅을 사 줄 개발업체가 사라졌습니다. 토지 매각 수입이 마르자 지방정부의 공간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 위에 또 한 번의 충격이 겹쳤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제로코로나 방역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끝없이 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 격리 시설 운영비, 의료 정비 비용을 대부분 지방정부가 떠안았습니다. 허난성(河南省)의 한 지방정부는 방역으로 재정이 완전히 바닥났고 사회가 극도로 불안정해졌으며, 중앙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방이 중앙을 향해 이렇게 대놓고 불만을 터뜨리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이 부채의 뿌리는 사실 더 깊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가 가라앉자 중앙정부는 대규모 부양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는 책임은 지방에 떠넘겼습니다. 중앙은 정책을 정하고, 지방은 빚을 내서 그 정책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중앙과 지방 사이에 박힌 이 제도적 어긋남이, 십몇 년에 걸쳐 천문학적 부채로 자라났습니다.

이 어긋남이 왜 줄지 않고 커지기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지방 관료의 승진은 오랫동안 그 지역 성장률에 달려 있었습니다. 임기 동안 도로를 깔고 공단을 세워 숫자를 끌어올린 사람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관료마다 자기 임기 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고 빚을 냈습니다. 빚을 갚을 때쯤이면 자기는 다른 자리로 옮겨 간 뒤였습니다. 다음

사람이 떠안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떠안았습니다. 값은 사람 없이 쌓이기만 하는 빛의 탑이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의 승진 욕심이 아니라, 승진을 성장률에 묶어 둔 제도 자체가 빛을 부추긴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빛을 직접 내기 어려울 때 우회로를 만들었습니다. 지방융자플랫폼(LGFV), 흔히 성투회사(城投公司)라 부르는 회사들입니다. 지방정부가 사실상 뒤에 서 있지만 장부에는 별개 회사로 잡히는, 그림자 같은 조직입니다. 이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고 인프라를 지었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지자 이 회사들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린 돈을 갚을 길이 막히면서, 거대한 규모의 부실 자산을 연장하거나 정리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2023년 11월,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의 빅터 시(Victor Shih)와 조너선 엘코비(Jonathan Elkobi)가 펴낸 보고서는 이 불투명한 지방 채무와 성투회사 부채가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곳간이 비면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야 합니다. 세금을 거둘 경제 기반이 무너졌으니, 지방정부는 다른 주머니에 손을 뻗었습니다. 비세수입(非稅收入)입니다. 세금이 아닌 돈, 벌금과 수수료와 몰수금 같은 것들입니다. 숫자로 보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2010년에는 1조 위안에도 못 미치던 지방 비세수입이, 2024년에는 4조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지방 공공예산 수입의 34퍼센트입니다. 정상적인 나라의 살림이라 보기 어려운 비중입니다.

이 34퍼센트라는 숫자가 거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작은 식당 주인은 간판이 규격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벌금을 냅니다. 트럭 운전사는 단속 구간이 갑자기 늘어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습니다. 길에서 과일을 팔던 노점상은 자릿세 명목의 수수료를 더 냅니다. 세금을 거둘 장사가 줄어드니, 행정의 벌금이라는 그물을 더 촘촘히 던지는 것입니다. 그 그물에 걸리는 사람은 큰 부자가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소상공인과 운전사와 노점상입니다. 곳간을 메우는 비용을 제일 약한 사람들이 치르는 셈입니다.

이 비세수입을 끌어올린 핵심이 벌몰수입(罰沒收入), 곧 벌금과 몰수로 거둔 돈입니다. 2022년 4천284억 위안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중국 당국은 이 통계 발표를 슬그머니 멈췄습니다. 통계가 멈췄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신호입니다. 바깥의 추정으로는 여전히 4천억에서 5천억 위안 규모가 거둬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거둘 기반이 사라지자,

행정 권력을 동원해 벌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공무원 월급과 행정 유지비를 메우고 있는 셈입니다. 원양포로는 이 흐름이 더없이 노골적으로 터져 나온 형태였습니다.

여기서 누구의 삶이 바뀌는지를 보겠습니다. 남부의 부품회사 사장 같은 민영 기업가들입니다. 이들은 멀리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에 사업을 잃고 계좌가 잠겼습니다. 한 사람이 잡혀가면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던 직원 수십, 수백 명의 생계가 함께 흔들립니다. 거래처가 끊기고, 납품이 멈추고, 협력업체로 충격이 번집니다. 공안이 노린 것은 사장 한 사람의 지갑이지만, 그 여파는 마을 하나의 일자리로 퍼집니다.

2024년 이 일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기업인들 사이에 큰 반발과 공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차례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2025년에는 노골적인 행위가 표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합법의 외피를 쓴 이익 추구형 집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식만 갖추면 같은 일을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키우려던 사람들은 공장을 늘리는 대신 돈을 빼서 바깥으로 옮기거나, 아예 사업을 접고 조용히 지냅니다. 다음에 누가 자기 문을 두드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민간 경제의 신뢰가 밑바닥부터 갇히는 자리에, 바로 이 장면이 있습니다. 지방의 공간을 채우려던 행정이, 그 공간을 채워 줄 바로 그 기업가들을 쫓아내는 모순입니다.

중앙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성투채(城投債)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 특수재융자채권(特殊再融資債券)을 대량으로 풀어 빚을 갈아 끼우는 일람자화채(一攬子化債) 대책을 가동했습니다. 본질은 지방 재정에 뚫린 거대한 구멍을, 상업 은행의 장부를 동원해 메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자율이 높고 만기가 짧은 빚을, 이자율이 낮고 만기가 긴 빚으로 바꿔 주는 방식입니다. 빚의 무게를 시간 위로 길게 퍼 발라 당장의 숨통을 틔웠습니다. 그러나 빚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빚을 결국 갚아야 하고, 그 부담은 은행과 예금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맡긴 돈이, 지방의 구멍을 메우는 데 동원되는 셈입니다.

2024년 11월에는 로이터 통신이 전한 대로 1조 4천억 달러, 약 10조 위안에 이르는 숨은 부채 정리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 발표에는 직접적인 경기 부양책이 빠져 있었습니다. 빚을 다른 빚으로 옮겨 담았을 뿐, 새 성장 동력을 넣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기다린 것은 사람들의 지갑을 열어 줄 돈이었지만, 정부가 내놓은 것은 장부를 정리하는 회계 처방이었습니다. 2025년에도 중앙과 지방의 공채 발행을 크게 늘리며 급한

불을 끕니다.

그런데도 경제는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앓는 병은 어느 한 은행이 무너지는 사건이 아니라, 경제 전체가 빚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튼 긴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을 분석한 경제학자 리처드 쿠(Richard Koo)는 이런 상태를 자산부채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이라 불렀습니다. 기업과 가계가 행동의 목표를 이윤 늘리기에서 빚 줄이기로 바꿔 버린 상태입니다. 이자율이 아무리 낮고 돈이 아무리 풀려도, 사람들은 그 돈을 빌려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대신 손에 쥐고 빚을 갚습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위험을 떠안을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풀어도 경제 안으로 흐르지 않는, 통화 정책이 헛도는 상태입니다.

화폐를 풀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 답답함을, 옛 표현으로 줄 끊긴 연에 비유하곤 합니다. 바람을 아무리 불어 넣어도, 줄이 끊긴 연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바람은 충분한데, 그 돈을 빌려 투자하고 소비할 의욕이라는 줄이 끊긴 것입니다. 줄을 다시 잇는 일은 돈을 더 푼다고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일을 다시 믿게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일본의 1990년대가 이 그림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거품이 꺼지자, 빚을 내 자산을 샀던 일본의 기업과 가정은 한 세대 내내 빚 갚기에만 매달렸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0에 가깝게 내려도 누구도 돈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중국의 처지가 그때 일본보다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거품이 꺼질 때 이미 1인당 소득이 높은 부자 나라였습니다. 중국은 그 수준에 닿기 전에 늪에 빠졌습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늪고, 늪기 전에 성장이 멈추는, 이른바 미부선로(未富先老)의 그림자가 여기 어른거립니다. 가난을 벗기도 전에 인구가 먼저 늪어 버린 나라가, 빚의 무게까지 함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빠진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성장과 재정 규율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반드시 희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학자 리우 아담(Liu, Adam Y.)과 진 오이(Jean C. Oi), 장 이(Yi Zhang)는 2022년 논문에서 이를 중국 지방정부가 갇힌 거대한 거래라고 불렀습니다. 빚을 줄여 재정을 건전하게 하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률을 지키려 하면 빚을 더 내야 합니다. 제로코로나가 끝나고 중앙정부가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라고 압박하자, 곳간이 텅 빈 지방정부들은 또 빚을 내 확장 정책을 펴는 쪽으로 떠밀렸습니다. 빠져나오려는 발버둥이 늪을 더 깊게 만드는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이 누구에게 가 닿는지를 보겠습니다. 빛에 짓눌린 지방정부는 공무원 월급을 미루거나 깎습니다. 교사와 의료진의 보너스가 사라집니다. 버스 노선이 줄고, 가로등이 꺼지고, 공원 관리가 멈춥니다. 멀리 보이는 거시 통계가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하루가 조금씩 헐거워집니다. 빛의 무게는 결국 그 땅에 발붙이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나눠 집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방정부의 빛은 잠깐 돈을 부어 덮을 수 있는 일시적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 발전 모델 안에 박힌 구조적 결함입니다. 성장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른바 피크 차이나(Peak China)의 하강을 크게 끌어당기는 첫 번째 뇌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1. 690만 채의 빈집과 드러누운 청년들

빛 이야기는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숫자 뒤에는 집이 있고, 집 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뇌관은 사람의 삶에 훨씬 더 가까이 닿아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그냥 한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직간접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에서 30퍼센트를 차지하는, 경제의 근육 같은 부문이었습니다. 이 숫자의 무게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나라 경제 넷 가운데 하나가 집을 짓고 파는 데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시멘트와 철근이 필요하고, 그것을 만드는 공장이 돌아가야 하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집을 사면 가구를 들고, 가전을 사고, 인테리어를 합니다. 집 한 채가 팔리는 자리마다 수십 갈래의 일자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사는데 평생 모은 돈을 넣었고, 집값이 오르면 부자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지방정부는 그 집을 지을 땅을 팔아 살림을 꾸렸습니다. 모든 것이 집값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 기둥이 흔들리면, 거기 매달린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립니다.

2020년, 당국은 부동산 회사의 빚을 옥죄려고 이른바 세 개의 레드라인(three red lines)이라는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정해진 선을 넘으면 새 빚을 못 내게 막는 장치입니다. 의도는 거품을 줄이는 것이었지만, 결과는 거품의 폭발이었습니다. 2021년 빛이 3천억 달러를 넘던 거대 개발업체 헝다(恒大, Evergrande)가 무너졌습니다. 2023년에는 비구이위안(碧桂園, Country Garden)마저 휘청였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깊숙이 쌓여 있던 과잉 부채의 실체가 세계 앞에 드러난 순간입니다.

헝다라는 이름 뒤에 누가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헝다는 집을 다 짓기도 전에 분양 대금부터 받았습다. 평범한 가정이 평생 모은 돈에 대출을 얹어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무너지자 공사가 멈췄습니다. 철근만 솟은 채 시멘트가 마른 아파트 단지가 곳곳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살지도 못하는 집을 위해 매달 대출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2022년 여름, 전국 수십 개 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짓다 만 집의 대출을 더는 갚지 않겠다는 집단 상환 거부, 이른바 단공(斷供)입니다. 집을 사면 부자가 된단 약속이 깨지는 자리에, 이 사람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지표는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한 해 사이 17.2퍼센트 줄었고, 45개월 연속 마이너스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새 상업용 주택 판매액은 평균

13.2퍼센트씩 줄며 30개월 연속 내리막을 탔습니다. 집값도 멈추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70개 대도시와 중형 도시의 새 집값은 1년 사이 3.0퍼센트 떨어졌고, 한때 최고점과 비교하면 11.8퍼센트나 빠졌습니다. 집을 자산 불리기 수단으로 삼아 온 가계의 장부가 그만큼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장부가 망가지면 사람은 지갑을 닫습니다.

이 숫자들 가운데 가슴을 누르는 것이 빈집입니다. 팔리지 않고 쌓인 재고가 7억 7천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너무 커서 감이 잘 오지 않는 면적입니다. 한 가구 평균 주택 면적인 111제곱미터로 나눠 보면 그림이 또렷해집니다. 빈집 690만 채입니다.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할 집 690만 채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중국 전역에서 있습니다.

690만이라는 숫자를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들어가 살 사람을 찾지 못한 빈집 690만 채가 서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짓다 만 집의 대출을 갚는 가정과, 집값이 떨어져 잠 못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은 남아도는데 살 만한 집을 가진 사람은 줄어드는, 기묘한 풍경입니다.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빛을 내서 짓고, 빛을 내서 사던 그 흐름이 멈추자, 지어 놓은 집만 빈 채로 남았습니다.

이 숫자 뒤에 있는 삶을 보겠습니다. 비싼 값에 새집을 산 중산층입니다. 집값이 처음 산 값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들은 실질적인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 현실을 고발해 온 후리런(胡力任)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중국 집값은 많은 사람의 최초 매입 원가조차 밀돌고 있습니다. 가치가 반토막 난 집을 지키려고, 사람들은 은행의 대출 상환 압박과 경매를 피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살던 낡은 집을 헐값에 팔아 현금을 만들고, 그 돈을 새집 대출 갚는 데 부어 넣습니다. 동쪽 벽을 헐어 서쪽 벽을 메우는(拆東牆補西牆) 돌려막기입니다. 이런 연명은 한 가정의 붕괴를 1, 2년 늦출 뿐입니다. 마지막 현금까지 마르는 순간, 수천만 명이 파산으로 미끄러집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정부는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풀며 시장을 떠받치려 했지만, 5년이 지나도 위기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1조 5천억 달러를 풀고도 위기가 끝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 건 돈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사 봤자 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값이 오를 거라는 믿음 위에서 굴러가던 시장이, 값이 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뒤집히면, 정부가 아무리 돈을 부어도 사람들의 손은 지갑 위에서 멈춥니다. 무너진 것은 집값만이 아니라, 집값이 오른다는 오랜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깨진 믿음은 돈으로 사 오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그 옆 산업이 함께 무너집니다. 가구, 가전, 인테리어, 건설 자재를 만들던 공장과 가게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충격이 누구보다 아프게 쏘인 곳이 청년층입니다. 2022년 3분기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17.9퍼센트에 육박했습니다. 사회의 가파른 뇌관이 여기서 떠올랐습니다. 그해 7월 최고점보다 2.0퍼센트 낮아졌다고는 하나, 그것이 위안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모자랐고, 고용 시장의 빙하기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저녁마다 광장에 모여 춤을 추던 이른바 광장무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한 자녀 정책 시대에 태어난 그 외동아들과 외동딸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자리를 못 구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부모는 광장에서 춤을 추고, 자식은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계은행과 미국 대서양협의회 같은 기관들도 이 청년 실업을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늪이라고 경고합니다.

대학을 나온다는 것이 더는 안전을 약속하지 않게 됐습니다. 한때 중국에서 대학 졸업장은 도시의 안정된 일자리로 가는 표였습니다. 부모 세대는 그것을 믿고 자식 교육에 집을 한 채 값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졸업한 자식이 일자리를 못 구합니다. 어떤 청년은 배달 일을 하고, 어떤 청년은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버팁니다. 들인 돈과 시간에 견주면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 어긋남이 한 가정의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한 세대 전체의 분노로 쌓입니다.

이 청년 실업률 통계에는 숨은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2023년 6월, 청년 실업률이 21.3퍼센트로 사상 최고를 찍자 중국 당국은 그 발표 자체를 멈췄습니다. 몇 달 뒤 통계 방식을 바꿔 다시 내놓았는데, 이번에는 학교에 다니며 일을 찾는 학생을 빼는 식이었습니다. 숫자는 한결 낮아져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방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의 수가 통계를 바꾼다고 줄지는 않습니다. 통계를 멈추고 다시 짚 그 손길 자체가, 이 문제가 얼마나 정권을 불안하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동안 당의 선전 기구는 다른 노래를 불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를 찬양하고, 시진핑 사상이 방향을 제시한다(習近平思想指明方向)는 구호를 매일 쏟아냈습니다. 지도자를 신처럼 떠받드는 이른바 조신(造神) 운동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짓다 만 집의 대출을 갚는 가정에게, 이 찬양은 위안이 아니라 상처 위에 뿌리는 소금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영광스러운 미래를 노래하는데, 창밖의 현실은 그 노래와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말과 현실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그 말을 믿는 대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최고 엘리트의 부패와 특권은 그대로인데, 경기 둔화의 고통은 아래로만 흘렀습니다. 인터넷과 거리에서 엘리트를 향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청년들이 택한 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네이쥐안(內卷, involution)이었습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서로를 소모하는 무의미한 싸움입니다. 더 좋은 학벌, 더 긴 노동, 더 많은 자격증을 향해 달려도 자리는 늘지 않으니, 모두가 더 지치기만 하는 상태입니다. 정해진 자리 하나를 두고 백 명이 달리면, 모두가 죽도록 뛰어도 아흔아홉 명은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떨어지지 않으려면 더 뛰어야 하니, 전체가 함께 탈진해 가는 구조입니다.

그 끝에서 청년들은 경쟁 자체를 내려놓았습니다. 탕핑(躺平, 드러눕기)입니다. 일어서서 달리기를 포기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것입니다. 야근을 거부하고, 승진을 바라지 않고, 남들이 정해 놓은 성공의 사다리에서 스스로 내려옵니다. 이 말이 인터넷에 처음 퍼졌을 때 당의 선전 기구는 발끈했습니다. 게으름을 미화한다고 비난했고, 관련 글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지운다고 사라지는 정서가 아니었습니다. 탕핑은 구호가 아니라, 출구가 막힌 세대가 찾아낸 마지막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드러눕는지를 보면 그저 게으름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부모 세대를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하고도 노후에 쥐는 돈은 푼돈이었고, 병이 들면 의료비의 늪에 빠져 착취당했습니다. 부유한 도시조차 치솟는 의료비로 건강보험 기금이 말라 간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국가가 약속하는 미래의 복지가 청년에게는 허구로 보였습니다.

이 깨달음이 조용한 저항으로 진화했습니다. 사회성 퇴출(社會性退出)이라 불리는 형태입니다. 청년들은 언제 임금이 깎이고 해고될지 모르는 일자리 구하기를 아예 접고 가족의 품으로 숨었습니다. 소비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집을 사지 않고(不買房), 빚을 지지 않고(不借貸), 결혼하지 않고(不結婚),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不生子). 이 네 가지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의 착취 구조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택이 나라 전체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는지를 보겠습니다. 집을 사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더 가라앉습니다. 빚을 지지 않으면 은행이 돈을 굴릴 데가 없어집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한 세대 뒤에 일하고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듭니다. 한 청년의 드러눕기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수천만 명의 드러눕기는 나라의 미래가 줄어드는 일입니다. 인구가 줄면 시장이 줄고, 시장이 줄면 기업이 떠나고,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가 또 줄어듭니다. 드러눕기를 부른 그 절망이, 드러눕기를 통해 더 깊은 절망으로 돌아오는 고리입니다. 정부가 출산 장려금을 내걸어도 청년이 응하지 않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체제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제일 날카로운 일격은 따로 있습니다. 사회보장기금(社保) 납부 거부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위해 매달 떼어 가는 돈을, 청년들이 내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폰지 사기(龐氏騙局)라고 부릅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주는, 끝이 정해진 돌려막기라는 것입니다. 인구는 빠르게 늙어 부양할 노인은 늘어나는데, 경제는 쪼그라들고 국가 공간은 비어 갑니다. 지금의 청년이 아무리 돈을 부어도 정작 자신이 늙었을 때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확신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차피 돌려받지도 못할 돈인데, 왜 내가 지금 나를 억누르는 체제를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은, 이 거부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년의 보이콧을 무책임하다고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야 굴러가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년의 처지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돌려받을 기약이 없는 돈을, 자기 생존도 빠듯한 형편에 내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제도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된 절망이 있습니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불신이 한번 퍼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수십 년간 밀어붙인 탓에, 일하는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때 여럿이 노인 한 명을 떠받쳤다면, 머지않아 한두 사람이 노인 한 명을 떠받쳐야 합니다. 연금에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느는 구조입니다. 일부 지방의 연금 공간은 이미 적자로 돌아섰고, 중앙이 부유한 지역의 돈을 가난한 지역으로 돌려 메우고 있습니다. 청년이 폰지 사기라고 부르는 그 표현이 과장만은 아닌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들어올 사람보다 받아 갈 사람이 많아지는 순간,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워집니다.

이 인구 구조의 무게가 중국 경제 전체를 짓누릅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면 만들어 내는 것도 줄고, 거두는 세금도 줄고, 소비할 힘도 줄어듭니다.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느는데 떠받칠 청년이 드러눕는다면, 그 무게는 고스란히 국가의 빚으로 옮겨 갑니다. 앞에서 본 지방정부의 빚, 부동산의 침체, 청년의 이탈이 여기서 한 줄로 꿰입니다. 빚이 청년을 짓누르고, 짓눌린 청년이 드러눕고, 드러누운 청년이 빚을 갚을 미래의 손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세 뇌관이 인구라는 시간 위에서 서로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 보이콧이 왜 1인 지배 체제에 그토록 위험한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거대한 통제 기구는 끊임없는 신용 팽창과 아래에서 짜내는 노동력과 자금을 연료 삼아 굴러갑니다. 밑바닥에서 경제를 떠받쳐야 할 청년이 노동을 거부하고 체제 밖으로 드러눕고, 도시 중산층이 소비와 유동성을 틀어막으면, 착취에 기대 온 기계는 연료가 끊깁니다. 윤희유까지 마른 기계는 거친 마찰음을 내며 헛돌다 멈춥니다.

이 저항이 무서운 까닭은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거리에 나와 구호를 외치는 시위라면 공안이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깃발을 든 사람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잡아갈 수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선택을 공권력이 되돌릴 길은 없습니다. 탕핑은 광장의 함성이 아니라 방안의 침묵입니다. 침묵은 진압할 수 없습니다. 통제로 다스려 온 체제가, 통제할 수 없는 형태의 저항과 마주 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 책 전체의 줄기와 다시 만납니다. 우리는 앞에서 군부의 숙청을 보았습니다. 장군들이 줄줄이 사라지는 요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협은 그 요란함이 아니라 이 고요함 쪽에 있을지 모릅니다.

방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체제의 진짜 붕괴는 장군이 숙청되는 요란한 사건이나 국경의 총성에서 시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무수한 평범한 젊은이가 사회보장기금을 더는 내지 않기로 결심하고, 삶의 투자를 내려놓은 채 철저한 탕핑(徹底躺平)을 택하는, 그 고요한 순간에서 싹튼다. 부동산 침체로 증발한 부,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 청년 실업, 폰지 사기로 전락한 국가 복지에 대한 불신이 한데 뭉친 이 사회성 퇴출의 파도가, 돈도 신뢰도 미래의 희망도 메마른 2026년의 중국 사회를 천천히 해체의 방향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2. 혁신하라는 명령과 입을 막는 손

세 번째 뇌관은 제일 깊은 곳에 있습니다. 앞의 두 뇌관이 돈과 사람의 문제라면, 이것은 체제 그 자체의 모순입니다. 나라가 혁신을 외치는 바로 그 손으로, 혁신이 자라야 할 토양을 다지고 있는 자가당착입니다.

먼저 이 모순을 한 문장으로 못 박겠습니다. 중국은 혁신을 명령으로 짜내려 하지만, 혁신은 명령이 닿지 않는 자유에서만 자랍니다. 위에서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닌데, 위에서 시키는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긋남이 세 번째 뇌관의 정체입니다.

이 모순을 누구보다 또렷하게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당대회 정치보고에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어 보면, 통치자의 머릿속이 보입니다. 안보를 뜻하는 안전(安全)이라는 단어는 제18차 당대회에서 36번, 제19차 당대회에서 55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는 91번으로 뛰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개혁이나 시장 자율과 관련된 단어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통치 철학의 무게 중심이, 자율적인 경제 발전에서 철저한 통제와 안보 중심의 생존 투쟁으로 옮겨 간 것입니다. 앞 장에서 본 안보가 경제를 앞지른 순간이, 여기서는 단어의 빈도라는 차가운 숫자로 다시 드러납니다.

단어 하나의 빈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짚어 두겠습니다. 당대회 정치보고는 한 줄 한 줄이 수없이 다듬어진 문서입니다. 우연히 들어가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이 36번에서 91번으로 늘었다는 것은, 통치자의 마음속에서 그 가치가 그만큼 무거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안전이라는 말이 두 배 넘게 늘어나는 동안 개혁이라는 말이 줄었다면, 답은 정해진 셈입니다. 지키는 것이 키우는 것보다 앞섰다는 뜻입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지금을 100년 만의 대격변, 곧 백년대변국(百年大變局)이라 규정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고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거칠어지면서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시기라는 인식입니다. 위기의식은 강력한 자립 노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표준 2035 전략을 내세워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같은 핵심 분야에서 서방에 기대지 않는 독자 공급망을 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당이 민간을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도부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잘 압니다.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 기간에 민영기업 수는 5천8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2025년에는 민영경제촉진법(民營經濟促進法)을 새로 만들어 민영 경제를 띄웠습니다. 미국의 끈질긴 제재 속에서도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深度求索, DeepSeek)가 오픈 소스로 나와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중국의 자체 혁신 능력을 보여준 성공 사례입니다. 그 생태계 뒤에는 화웨이(華爲, Huawei), 텐센트(騰訊, Tencent), 알리바바(阿里巴巴, Alibaba), 바이두(百度, Baidu) 같은 거대 민간 기업이 버티고 있습니다. 제20기 중앙후보위원 171명 가운데 단 한 명만 빼고 모두가 이공계 출신이라는 사실도, 기술 인재를 키우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딥시크의 성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당의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딥시크를 만든 곳은 거대 국유기업이 아니라, 항저우의 작은 민간 연구팀이었습니다. 국가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거국체제의 산물이 아니라, 자유롭게 실험하던 젊은 연구자들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진짜 돌파구는 국가가 위에서 명령해 만든 게 아니라, 통제가 미처 닿지 않은 구석에서 자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이 자랑하는 그 성공 사례가, 거꾸로 당의 방식이 틀렸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을 갈망하는 외침이, 통제하려는 손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제일 파괴적인 충돌은 기업 안으로 파고든 당 조직에서 옵니다. 제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국유기업을 넘어 민영기업과 외국계 기업 안에까지 당 조직, 곧 당 지부를 세우라고 밀어붙였습니다. 회사 안에 당의 눈과 손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외국 기업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사가 베를린이나 시애틀에 있는 회사가, 자기 중국 법인 안에 공산당 조직을 두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회의에 당 간부가 배석하고, 인사와 투자에 당의 의견이 끼어듭니다. 회사의 기밀이 어디로 흘러갈지, 회사의 결정에 누가 개입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회사에 핵심 기술을 맡길 수 있을지, 외국 기업은 다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당의 손을 회사 안에 들이려는 그 조치가, 회사를 끌어들이려는 다른 손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것이 기업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보겠습니다. 첨단 기업이 큰돈을 투자할지 말지를 정할 때, 원래는 시장 논리와 기술적 타당성으로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잣대가 끼어듭니다. 이 사업이 당의 정치 노선에 맞느냐는 물음입니다. 돈이 되느냐보다 당의 뜻에 맞느냐가 먼저가 되면, 기업은 위축됩니다. 과감한 투자를 미루고, 위험을 피하고, 눈치를 봅니다. 경제 전체가 굳어지는 경직성이라는 병을 앓게 됩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 Jack Ma)의 사례가 이 변화를 압축해 보여줍니다. 2020년 가을, 마윈은 한 강연에서 중국 금융 감독 당국을 향해 낚았다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며칠 뒤,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예정됐던 그의 핀테크 회사 앤트그룹(螞蟻集團, Ant Group)의 증시 상장이 돌연 중단됐습니다. 마윈은 한동안 공개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성공한 기업가가 말 한마디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기업가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 뒤로 중국의 어떤 창업자도 예전처럼 입을 열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본보기로 침묵시키자, 업계 전체가 알아서 몸을 사렸습니다.

통제의 칼날은 기업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이끌던 민영 빅테크에 가혹한 규제를 들이댔습니다. 한때 수백조 원의 시장 가치를 자랑하던 회사들이, 당의 규제 한 번에 수십조 원이 깎였습니다. 젊은 세대의 창의력이 꽃피던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산업에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일주일에 세 시간으로 묶고, 새 게임 허가를 한동안 멈추자, 세계를 누비던 게임 회사들의 매출이 꺾였습니다. 사상 통제의 고삐를 죄려고 학교에는 이념 수업을 더 넣고, 바깥세상과 통하는 영어 수업은 크게 줄였습니다. 이런 조치는 단기적으로 당의 권력을 다지는 데는 유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와 파괴적 혁신을 생명으로 삼는 청년 창업가의 의지를 뿌리부터 거세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혁신은 정해진 답을 의심하는 데서 나오는데, 의심을 가르치지 않는 교실에서 그런 인재가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민간 혁신이 질식한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낡고 비효율적인 국가자본주의입니다. 1인 지배 체제는 기술 자립을 위해 국가가 모든 전략 자원과 권력을 쥐고 위에서 아래로 자본을 배분하는 방식을 밀어붙입니다. 이른바 신형 거국체제(新型舉國體制)입니다. 온 나라의 힘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이 방식이, 거꾸로 제도의 퇴화(Institutional Decay)를 부릅니다. 국유 부문이 커지면, 사업의 성패가 시장이 아니라 관청과의 거리에서 갈립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좋은 인맥을 가진 회사가 일감을 따냅니다. 그러면 기업은 기술을 닦는 대신 관청에 줄을 댁니다. 자원이 잘 만드는 쪽이 아니라 잘 보이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국유 부문 특유의 비효율과 부패, 권력에 빌붙어 이익을 챙기는 지대추구가 만연합니다. 눈에 띄는 사건 하나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천천히 썩어 가는 마비입니다. 빠른 붕괴보다 이 느린 퇴화가 무섭습니다. 중앙이 전략 산업에 투자하라고 압박하니, 지방과 기업은 실적을 부풀리려 같은 곳에 중복 투자하고 특정 산업을 과잉 생산합니다. 그 결과가 제 살 깎아 먹는 가격 경쟁, 곧 내권(內卷)입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른 그 네이쥬안이, 산업 차원에서도 똑같이 자생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정해진 자리 하나를 두고 백 명과 경쟁하며 탈진하는 모습과, 한 산업에서 수백 개 회사가 한 시장을 두고 출혈 경쟁하며 함께 망가지는 모습은 같은 그림입니다. 위에서 한 방향을 정하면 모두가 그리로 몰려가 서로를 소모하는 구조가, 사람의 삶에서도 기업의 운명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전기차 산업이 이 과잉 생산의 풍경을 또렷이 보여줍니다. 중앙이 전기차를 미래 먹거리로 정하자, 거의 모든 성과 시가 앞다퉀 전기차 공장과 보조금을 쏟아냈습니다. 한때 중국 안에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회사가 수백 곳에 이르렀습니다. 시장이 받아 줄 수 있는 수보다 훨씬 많은 차가 쏟아지자, 회사들은 살아남으려 값을 내렸습니다. 값을 내리면 이익이 줄고, 이익이 줄면 또 값을 내려야 하는 출혈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태양광 패널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값이 바닥까지 떨어지자 세계 시장은 중국산 제품으로 넘쳤지만, 정작 그것을 만든 회사들은 적자에 허덕입니다. 위에서 한 산업을 짝으면 아래가 우르르 몰려가 과잉으로 무너지는, 거국체제의 그늘입니다.

대가는 숫자와 국제 사회의 불신으로 드러납니다. 외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은 중국의 기술 탈취 의혹과 자국 기업만 봐주는 정책의 속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공급망을 중국에서 빼내 다른 나라로 옮기는 행렬에 나섰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중국에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FDI)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올라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최고 권력자의 변덕스러운 통제와 잦은 규제 변경이 낳은 정치적 위험을, 글로벌 자본이 두려워한 결과입니다.

이 FDI 비중의 하락이 무엇을 뜻하는지 풀어 보겠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 기업이 중국 안에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고 기술을 들여오는 돈입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이 따라옵니다. 그 돈의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중국을 미래가 있는 곳으로 보던 바깥의 시선이 식어 간다는 신호입니다. 돈은 정직합니다. 말로는 우호를 외쳐도, 위험하다 싶으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이 두려움에는 구체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외국 컨설팅 회사의 중국 사무소에 어느 날 갑자기 공안이 들이닥치고, 직원이 조사를 받습니다. 무슨 법을 어겼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채로 일이 벌어집니다. 외국 기업가들은 자기 회사도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규칙이 또렷하면 위험을 계산할 수 있지만, 규칙이 그날그날 바뀌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장을 베트남으로, 인도로, 멕시코로 옮깁니다. 한번 떠난 공급망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뢰는 무너지는 데 하루, 다시 쌓는 데 십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제일 아픈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한 나라 경제가 얼마나 질적으로 발전했는지, 진짜 혁신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입니다. 같은 자본과 노동을 넣고도 얼마나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과 돈을 더 들이지 않고도, 일하는 방식이 똑똑해져서 더 많이 만들어 내는 능력입니다. 진짜 혁신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돈을 많이 부어 생산을 늘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는 것은 기술과 제도가 함께 좋아질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등의 추정으로 보면,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22년 1.1퍼센트로 낮았다가 리오프닝 기저효과로 2023년 2.6퍼센트로 잠깐 올랐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는 다시 2.4퍼센트로 내려앉으며 장기 둔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가 AI와 양자컴퓨터와 반도체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데도 생산성이 제자리걸음이라는 사실은, 위에서 내리누르는 통제와 경직된 거국체제가 자원만 낭비할 뿐 시장의 자생적 기술 진보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돈을 부으면 공장은 늘어납니다. 논문 편수도 늘고, 특허 건수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같은 자원으로 더 나은 것을 만들어 내는 진짜 진보는, 숫자를 부풀린다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묻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토양에서만 자랍니다. 그 토양을 통제로 다지면,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싹이 트지 않습니다. 딥시크가 통제의 구석에서 자랐다는 사실과, 총요소생산성이 제자리를 맴돈다는 사실은 같은 진실의 양면입니다.

이 대목에서 인과의 방향을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통제가 혁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통제가 혁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3기 체제가 마주한 제일 파괴적인 모순이 여기 있습니다. 권위주의 통제의 고삐를 더 잔혹하게 틀어쥐면서, 동시에 통제가 느슨할 때라야 비로소 피어나는 민간의 자발적 혁신을 국가 명령으로 짜내려 합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을 유일한 탈출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출구를 만들 주체인 민영 기업과 지식인을 당의 이데올로기 통제망에 가두고 충성만 강요하는 한, 비용만 쌓일 뿐 진짜 혁신 생태계는 자라지 않습니다.

세 겹의 신관이 한 곳을 향한다

세 개의 뇌관을 따로 보면 각각 무서운 폭약입니다. 함께 보면 더 분명해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세 신관이 모두 한 곳을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모두 몰아준 체제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지방정부의 빛은 중앙이 정하고 지방이 갇는 어긋난 구조에서 자랐습니다. 청년의 드러눕기는 위에서 부르는 영광의 노래와 아래에서 겪는 절망 사이의 거리에서 자랐습니다. 혁신의 질식은 통제하려는 손과 자라려는 싹 사이의 충돌에서 자랐습니다. 세 가지 모두 결국 같은 뿌리에 닿습니다. 모든 것을 위에서 결정하고 통제하려는 1인 체제가, 아래에서 자라야 할 자율과 신뢰와 활력을 짓누르는 구조입니다.

세 뇌관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를 키웁니다. 부동산이 무너지자 지방의 공간이 비었고, 공간이 비자 지방정부가 기업가를 쥐어짰고, 기업가가 쥐어짜이자 일자리가 줄었고, 일자리가 줄자 청년이 드러누웠고, 청년이 드러눕자 소비가 마르고 인구가 줄어, 다시 부동산과 시장이 더 가라앉습니다. 하나의 뇌관이 터지면 옆의 뇌관에 불이 옮겨붙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길의 가운데에는,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견제가 사라진 권력이 서 있습니다. 통제로 불을 끄려 할수록, 통제 자체가 새 불씨가 되는 자가당착입니다.

이 책의 큰 줄기와 이어 붙여 보겠습니다. 2022년 한 사람에게 권력이 완전히 모였습니다. 그 권력은 견제를 받지 않으니 안보를 경제보다 앞세웠고, 통제를 자율보다 앞세웠습니다. 군부의 숙청도, 후계의 빈자리도 그 권력 집중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권력 집중이, 경제의 밑바닥에 세 겹의 뇌관을 깔아 놓았습니다. 권력을 모은 손과 뇌관을 깬 손은 같은 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을 짚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길게 할 필요도, 반대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빠른 결정이 틀렸을 때, 바로잡아 줄 손이 없습니다. 세 개의 레드라인도, 제로코로나의 끝없는 검사도, 빅테크를 옥죄는 규제도, 위에서 한 번 정하면 아래는 따랐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할 자리가 사라진 체제에서는, 작은 실수가 큰 재앙으로 자랍니다. 권력 집중의 효율이 곧 권력 집중의 위험인 셈입니다.

그러면 이 뇌관은 언제, 어떻게 터질까요.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권위주의 체제는 바깥에서 보이는 것보다 오래 버티기도 합니다. 강한 통제력으로 폭발을 한참 미룰 수 있고, 막대한 외환과 국가 자산으로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14억 인구가 만드는 거대한 내수

시장, 세계 공장으로 쌓아 올린 제조 역량, 막강한 감시 기술은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힘입니다. 중국 붕괴를 점친 예측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 번 빗나갔습니다. 그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정직한 판단입니다.

다만 이번 위기의 결이 전과 다르다는 신호도 분명합니다. 자산부채표 불황에 빠진 일본도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민주주의 사회였고, 정권을 갈아 치울 선거가 있었으며, 청년이 체제 자체에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니다. 일본의 젊은이는 좌절했어도 사회보장기금 납부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중국 청년의 사회성 퇴출은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체제와의 거래 자체를 끊는 선택입니다. 거기에 일본에 없던 또 하나의 약점이 겹칩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모여 있어, 그 한 사람의 판단이 틀려도 고칠 길이 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처지가 그때 일본보다 무거운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향후 10년 안에 정치적 억압을 풀고 시장의 자율을 되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틀지 못한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장기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전문가가 경고합니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을 끝내 추월하지 못한 채 성장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피크 차이나의 시나리오를, 이 세 겹의 구조적 모순이 누구보다 빠르게 앞당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균형을 잃지 않겠습니다. 피크 차이나라는 말이 곧 중국의 몰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것은 무너진다는 말이 아니라, 더는 올라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경제이고, 한동안 그 자리를 지킬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 전 중국이 품었던 꿈, 곧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중심에 서겠다는 꿈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따라잡던 추격의 속도가 꺾이는 자리에, 이 세 겹의 뇌관이 있습니다. 추월하지 못한 채 멈춰 서는 것, 그것이 지금 중국 앞에 놓인 제일 현실적인 그림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세 겹의 뇌관을 풀 열쇠는 결국 정치에 있습니다. 빚을 갈아 끼우고 펀드를 푸는 것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지방이 빚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다시 짜고, 청년이 미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지의 약속을 지키고,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도록 통제의 손을 거두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처방은 권력을 나누고 자율을 돌려주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권력을 한 사람에게 모은 체제가 제일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병을 고칠 약이, 그 병을 만든 체제의 본성과 정면으로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뇌관은 이미 깔려 있습니다. 신관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보입니다. 다만 그 위에 발을 올린 손이 고삐를 풀지, 더 세계 쫓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을 누가 내릴 것인가. 권력을 한 사람에게 몰아준 체제는, 정작 그 한 사람이 사라진 다음 자리를 비워 두었습니다. 경제의 뇌관이 터지기 전에 그것을 풀 사람도, 풀지 못해 그 책임을 떠안을 사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 우리가 다시 마주해야 할 빈칸이 바로 그곳입니다.

[제11장 시각 자료]

구조적 위기라는 뇌관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체제가 잉태한 모순이 중국 경제 밑바닥에 폭약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침체와 청년의 이탈, 통제와 혁신의 충돌. 세 겹의 뇌관이 어떻게 인구라는 시간 위에서 타 들어 가는지 추적합니다.



자료: 『2026 중국 권력지형도』 제11장 구조적 위기라는 뇌관 본문 재구성

NotebookLM

에필로그 블랙박스가 열리기 전야

이 책은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 양회(兩會)의 단상이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리고, 수천 개의 좌석이 부채꼴로 펼쳐진 그 거대한 홀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옆자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의례적인 악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받아야 할 사람,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부주석 장유샤(張又俠)는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카메라는 그 0.5초를 붙잡았습니다. 내민 손과 돌린 등.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과, 그 곁을 비워가는 사람. 사진 한 장에 한 시대의 균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다시 꺼내봅니다. 2026년이 저물어 가는 지금, 장유샤는 이미 그 자리에 없습니다. 2026년 1월 24일, 중국 국방부는 그를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였습니다. 군의 기동 작전을 총괄하던 류전리(劉振立) 연합참모부 참모장도 같은 날 함께 잘려 나갔습니다. 20차 당대회에서 일곱 사람으로 출범했던 중앙군사위 최고 지휘부는, 이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시진핑 본인. 그리고 사정과 기율을 다루는 장성민(張升民). 단 둘. 마오화(苗華)가 사라졌고, 허웨이둥(何衛東)이 사라졌고, 그렇게 다섯이 차례로 빠져나갔습니다.

손을 내밀던 사람만 남았습니다. 손을 마주 잡을 사람들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부패척결의 이름으로 잘렸다는 시각이 있고, 권력투쟁의 결과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고, 어느 쪽도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결과뿐입니다. 곁이 비었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한 줄의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들어온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밀려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2022년에 권력이 한 사람에게로 모였고, 2026년에 그 사람을 떠받치던 기둥들이 무너졌고, 2027년에 앉아야 할 다음 사람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은, 닫는 글이면서 닫히지 않는 글입니다. 답을 드리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개의 문 앞에 독자를 데려다 놓으려고 씁니다. 어느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첫 번째 문은 바깥에 있습니다.

2026년의 세계는 시진핑 자신이 즐겨 쓰는 표현 하나로 요약됩니다. '백년대변국(百年大變局)', 백 년 만의 큰 변화의 판이라는 말입니다. 그 판의 한복판에 미국과 중국이 마주 서 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건 그의 행정부는 중국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단번에 끌어올렸습니다. 취임 직후 100퍼센트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떨어졌습니다. 핵심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가동되었습니다.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두 법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밀어내는 진영화가 빨라졌습니다. 2025년 12월 4일에 발표된 새 국가안보전략(NSS)은 중국을 '페이싱 위협(pacing threat)', 곧 미국이 속도를 맞춰 따라잡아야 할 유일한 경쟁자로 못 박았습니다. 같은 문건을 다듬은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전쟁부 장관의 지침은 본토 방어를 첫 번째 임무로 올렸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이 다시 전선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무력 점령을 막는 것을 군의 최우선 과제로 적었습니다. 종이 위의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은 항공모함의 항로를 바꾸는 문장이었습니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디스프로슘(Dy) 같은 중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모터와 미사일 유도장치에 들어가는, 작지만 없으면 안 되는 자석의 원료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 한 나라에 기대 쓰는 물건입니다. 미국이 관세와 기술로 목을 조이자, 중국은 자원으로 맞받았습니다. 그 길목을 쥐고 흔들겠다는 신호였습니다.

디스프로슘은 손톱만 한 무게로도 거대한 산업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자원입니다. 미국의 방위 산업과 첨단 제조가 그 작은 금속에 묶여 있습니다. 중국은 그 길목을 쥐고 흔들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제를 무기로 바꾼 결정이었습니다.

같은 달 열린 4중전회는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에서 서방에 기대지 않고 홀로 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자립자강(自立自強). 듣기에는 당찬 말입니다. 중국은 이 계획을 '중국 표준 2035' 전략과 하나로 묶어, 전기차와 배터리와 반도체에서 자기들만의 기준을 세우려 합니다. 서방의 포위가 거셀수록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개발도상국 쪽으로 손을 뻗어, 따로 굴러가는 공급망을 짜려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자율을 밀어내고 안보 논리만 앞세운 거국체제가 정말 혁신을 낳을지, 아니면 중복 투자와 비효율의 늪으로 가라앉을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분석가들은 이 길의 끝에 '피크 차이나(Peak China)',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중국이 있다고

봅니다. 안보를 지키려는 그 손이, 정작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두 거인이 서로의 목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한쪽은 기술과 자본의 길목을 쥐었고, 다른 쪽은 자원과 시장의 길목을 쥐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서로의 급소를 겨눕니다. 그런데 둘은 한 몸처럼 얽혀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공장은 중국산 부품으로 돌아가고, 중국의 성장은 미국 시장에 기대왔습니다. 목을 조이면 자기 손도 저려옵니다. 누가 먼저 숨이 막힐지, 아니면 둘 다 손을 풀지 못한 채 함께 비틀거릴지, 첫 번째 문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은 대만 해협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부딪힐 수 있는, 지구에서 손에 꼽히게 위태로운 단층선입니다. 그리고 이 문 앞에서, 두 개의 정반대 해석이 같은 사실을 두고 갈라집니다. 같은 자료를 읽은 전문가들이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는 지점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2022년 당대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2027년,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군 현대화의 관건적 목표로 박았습니다. 1927년 난창 봉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군대의 백 번째 생일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의 여러 전략 보고서가 그 연도를 위기의 해로 적었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셈입니다. 그 동그라미가 진짜 작전 계획인지, 아니면 군을 다그치려는 구호인지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 안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빨간 동그라미가 흔들립니다. 2023년 리상푸(李尚福), 웨이펑허(魏鳳和) 두 전직 국방부장의 낙마로 시작된 숙청은 로켓군의 부패를 들춰냈습니다. 로켓군은 중국 핵·미사일 전력의 심장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그 심장에서 미사일 연료통에 연료 대신 맹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부 사막의 격납고 덮개가 규격에 맞지 않아 실제 발사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적을 겨냥해야 할 무기가 정작 자기 자리에서 녹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장유샤와 류전리마저 끌려 나갔습니다. 둘은 실제 전투를 지휘해본,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10명이 넘는 최고위 장성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길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한쪽 길에서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전 지휘 경험을 가진 장수들을 제 손으로 모조리 베어낸 군대가, 2027년이라는 시간표에 맞춰 바다를 건너 대만을 칠 능력이 있겠는가. 바다를 건너는 상륙 작전은 군사 작전 가운데 손에 꼽히게 복잡합니다. 수십만 병력과 함대와 항공을 한 시각에 맞물려 움직여야 합니다. 그 톱니바퀴를 돌릴 머리들이 의심과 공포 속에 잘려 나갔습니다. 머리를 잘라낸 몸으로는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숙청이 오히려 전쟁을 멀어지게 했다는 해석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보면, 군부의 붕괴는 평화의 역설적 보증입니다.

다른 쪽 길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더 위험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군대조차 믿지 못해 지휘망을 스스로 도륙한 1인 체제는, 안으로 굶은 경제와 들끓는 불만을 밖으로 돌릴 유혹에 더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안에서 흔들리는 권력일수록 밖에서 적을 찾았습니다. 침공은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체제가 약해서 터질 수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통일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몰린 1인자의 우발적 도발로. 이 길의 끝에서 보면, 군부의 붕괴는 파국의 방아쇠입니다.

같은 숙청을 두고 한쪽은 억지의 증거로, 다른 쪽은 전조의 증거로 읽습니다. 같은 사실, 정반대의 결론. 강해서 못 친다는 쪽과, 약해서 칠 수 있다는 쪽. 두 논리는 서로를 부정하면서도, 어느 쪽도 상대를 완전히 누르지 못합니다. 저는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해석은 지금도 나란히 살아 있습니다. 둘 다 근거가 있고, 둘 다 끝을 모릅니다. 두 번째 문 뒤에 평화가 있는지 전쟁이 있는지는, 문이 열려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 앞에는, 텅 빈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 승계에는 오랜 풍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대회 단상의 두 번째 줄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앞줄에 앉을 때, 그 뒤로 다음 시대를 이끌 젊은 얼굴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두 번째 줄을 보며 십 년 뒤의 중국을 점쳤습니다. 후계는 늘 그렇게, 보이지 않는 듯 보이는 방식으로 예고됐습니다. 2026년의 단상에는, 그 두 번째 줄에 앉을 만한 젊은 얼굴이 없습니다.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는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중국 공산당이 수십 년 쌓아온 권력 승계의 관례를 무덤으로 보냈습니다. 덩샤오핑은 마오 시대의 1인 독재가 낳은 참극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영원히 머물지 못하도록 빗장을 여러 개

걸어두었습니다. 시진핑은 그 빗장을 하나씩 풀었습니다. 예순아홉의 나이로 3연임을 강행했습니다. '7상8하', 예순일곱이면 남고 예순여덟이면 물러난다는 그 오래된 규칙을 손수 부숴했습니다. 6세대 후계자로 첫손에 꼽히던 후춘화(胡春華) 부총리는 정치국 위원 자리에서마저 밀려나, 평범한 중앙위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새로 뽑힌 정치국 위원 스물네 명 가운데, 다음 시대를 이끌 만큼 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의 명단보다, 비어버린 자리의 목록이 더 길었습니다.

원로들이 모여 차차기 지도자를 미리 점지하던 격대지정(隔代指定)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어 다음다음 지도자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후계자에게 미리 권력의 구심이 쏠리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승계의 줄은 끊기지 않도록 고안된 장치였습니다.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떠받치던 그 정교한 안전장치가, 2022년에 통째로 뽑혀 나갔습니다.

2025년 10월 4중전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10년 주기의 관례대로라면, 2027년 21차 당대회를 앞둔 이 회의에서 차기 주자의 이름이 어디엔가 박혀야 했습니다. 국방이든 경제든, 핵심 자리에 다음 사람을 앉혀 신호를 보낼 마지막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보에는 후계에 관한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인사 변동도, 후계 구도도 없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의도된 침묵이었습니다. 오히려 15차 5개년 계획을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을 향한 전략적 시기로 격상했습니다. 2027년이라는 교체의 시간표를 지우고, 2032년 너머까지, 어쩌면 종신에 가까운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미국의 한 안보 분석 매체에 실린 「미완의 왕조」라는 보고서는 이 상황을 '독재자의 딜레마'로 풀었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시진핑은 권력은 완성했지만 미래는 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딜레마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후계자를 일찍 세우면 새 권력의 구심이 생겨 자신을 위협합니다. 사람들이 떠오르는 해를 보지, 지는 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후계자를 끝내 세우지 않으면, 1인자에게 갑작스러운 변고가 닥칠 때 나라 전체가 피의 승계 위기로 빠집니다. 어느 쪽도 안전하지 않은 갈림길입니다. 시진핑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자기 권력의 위협을 없애는 대신, 자기 부재의 위험을 떠안은 것입니다. 열네 억 인구와 핵을 가진 대륙의 안정을, 자신의 당면한 권력과 맞바꾸는 도박입니다.

이것이 이 책이 처음부터 따라온 한 줄의 인과입니다. 2022년에 후계의 자리를 비워뒀기에, 2026년의 숙청이 그토록 위험해졌습니다. 두 시점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앞의

빈자리가 뒤의 위험을 키웠습니다. 누구도 시진핑을 대신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기에, 그가 흔들리면 받칠 사람이 없습니다. 받칠 사람을 일부러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텅 빈 의자는 안정의 상징이 아닙니다. 무게가 한 사람에게만 실린 구조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둥 하나로 버티는 지붕은, 그 기둥이 서 있는 동안에만 멀쩡합니다.

세 번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의자에 누가 앉을지, 아니면 끝내 아무도 앉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비워질지.

1976년 9월, 마오쩌둥(毛澤東)이 죽었습니다. 후계 구도가 흐릿했던 그때, 중국은 권력의 진공을 한 번 겪었습니다. 마오의 부인을 비롯한 '사인방'이 체포되고, 권력이 어디로 갈지 한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라 전체가 숨을 죽인 몇 달이었습니니다. 그 뒤로 반세기, 중국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걸린 상태를 다시 만들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집단지도체제도, 임기 제한도, 격대지정도 그 애씀의 산물이었습니다. 다시는 마오 같은 진공을 겪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2026년의 중국은 그 모든 장치를 스스로 떼어내고, 다시 한 사람의 생물학적 시간 위에 올라섰습니다. 1953년생 시진핑. 그의 곁에는 그를 이을 다음 주자가 없습니다. 반세기 전에 닫았던 문을, 스스로 다시 열어둔 셈입니다.

블랙박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뒤에야 열어보는 검은 상자입니다. 안에 무엇이 기록돼 있는지는, 떨어지기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깥에서 보면 상자는 닫혀 있고, 비행기는 아직 하늘에 떠 있습니다. 2026년의 중국은 그 상자를 품은 채 날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트럼프의 미국이 압박하고, 안에서는 군의 지휘부가 비었고, 정점에는 다음을 비워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개의 문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열리면 나머지 둘이 함께 흔들리도록,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바깥의 압박이 대만의 긴장을 당기고, 군부의 공백이 1인자의 불안을 키우고, 그 불안이 다시 바깥을 향한 도발의 빌미가 됩니다. 세 개의 뇌관이 하나의 도화선으로 이어져 있는 셈입니다.

다시 그 양회의 사진으로 돌아갑니다. 이 책을 열었던 한 장면입니다. 손을 내미는 사람과, 등을 돌린 사람. 그 0.5초에 한 시대의 질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등을 돌렸던 장유샤는 사라졌고, 손을 내밀던 시진핑만 단상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를 둘러쌌던 일곱 사람의 군사위도, 차세대를 이끌 후계자들도, 격대지정의 안전장치도, 임기의 빗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단상은 넓고,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허공으로 뻗어 있습니다. 마주 잡을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손이 끝내 누군가의 손을 잡게 될까요. 2035년의 중국몽(中國夢)을 향해, 서방의 포위를 뚫고 영광스러운 궤도에 올라설까요. 아니면 잡을 손을 찾지 못한 채, 군부의 침묵과 경제의 균열과 인민의 임계점과 1인자의 예측 불가능한 유고가 한순간에 맞물려, 어느 날 조용히, 혹은 요란하게 내려오게 될까요. 상자가 열리는 순간 무엇이 쏟아져 나올지, 저는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도 그 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따라온 한 줄의 인과는 여기서 멈춥니다. 2022년의 권력 집중이 2026년의 공백을 낳았고, 그 공백이 2027년의 빈자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다음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일은, 이제 이 책을 덮는 당신의 몫입니다.



2026 중국 권력지형도

ISBN :

저자 | 김경진

펴낸이 | 김경진

펴낸곳 | 김경진 변호사 출판사

출판사등록 | 2025. 3. 10. (제2025-000015호)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91, 백일빌딩 304호

전화 | 02-6338-1905

이메일 | kimkj008@gmail.com

가격 : 20,000원

© 김경진 2026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참고)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